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김 은 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23년 8월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ultural Contents in Seocheon Flower Field

- Focused on the theme park.

Eun-J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iterature

202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문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김 은 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지도 교수 허 남 춘

김은정의 문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심사위원장	김 현 선	
위 원	현 능 환	
위 원	강 문 중	
위 원	김 진 철	
위 원	허 남 춘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1
2. 연구 대상 및 선행 연구 검토	3
제2장 연구대상 정의 및 특성	17
1. 문화원형의 개념과 특성	17
1) 문화원형의 정의	17
2) 문화원형의 보편성과 특수성	18
2. 본풀이의 특성과 가치	22
1) 본풀이의 유형과 특성	22
2) 본풀이의 민족문화원형 가치	29
3) 서천꽃밭의 의미	32
3. 문화콘텐츠 개념과 가치	40
1) 문화콘텐츠의 개념	40
2) 본풀이의 문화콘텐츠 가치	42
제3장 본풀이에 나타난 서천꽃밭의 양상과 의미	49
1. 본풀이에 나타난 꽃의 상징	49
1) 천지왕본풀이	51
2) 삼승할망본풀이	64
3) 이공본풀이	74
4) 세경본풀이	80
5) 문전본풀이	84
2. 서천꽃밭의 상징성	89
3. 서천꽃밭의 상징과 변환 원리	97
1) 생명 탄생의 상징	98
2) 성장과 성숙의 상징	101
3) 죽음과 환생의 상징	107
4) 긍정과 부정의 조합 원리	109
제4장 문화콘텐츠 사례 분석	115
1. 문화콘텐츠 현황	115
2. 문화콘텐츠 사례	118
1) 문학 콘텐츠	118
2) 시각 콘텐츠	125
3) 공연 콘텐츠	134
4) 복합 콘텐츠	146
5) 장소 콘텐츠	159
3.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 특징	161

제5장 문화콘텐츠 전환 과정	164
1. 문화콘텐츠로서 서천꽃밭의 가치	164
1) 이상향으로서 서천꽃밭	164
2) 서천꽃밭의 현재성	169
2. 서천꽃밭의 공간 이미지화	171
1) ‘공간’과 ‘장소’의 개념	171
2) 서천꽃밭의 장소성	174
3. 서천꽃밭의 장소 문화콘텐츠 전환 방법	179
제6장 테마공원 조성 방안	182
1. 테마공원 개념과 유형	182
2.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과 전략	188
1) 기존 테마공원 사례 분석	188
2) 기획 방향과 테마 구성 방법	192
3) 계절과 색의 상징성	196
3. 세부 주제 구성 내용	201
1) 제1꽃밭: 탄생꽃밭	204
2) 제2꽃밭: 자람꽃밭	205
3) 제3꽃밭: 이름꽃밭	206
4) 제4꽃밭: 환생꽃밭	207
4. 공간 구성 배치 및 이동경로	209
1) 스토리 네트워크 방식	209
2) 세부 공간의 설계 및 이동경로	211
5. 프로그램 구성 양식	214
1) 전시 행사·체험 양식	214
2) 디지털 전시·체험 양식	215
제7장 결론	218
【참고 문헌】	222
【Abstract】	236

<그림 차례>

[그림1] 본풀이의 문화콘텐츠 제작 과정	43
[그림2] <삼승할망본풀이>의 자식 점지 관계도	99
[그림3] 강동균의 회화 작품	127
[그림4] 고경빈 작가 개인전 관련 자료	128
[그림5] 한국화가 루씨쑤의 제주 민화	129
[그림6] 고은주의 ‘설위설경’	130
[그림7] 이강인, <서천꽃밭과 자청비>	131
[그림8]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이용한 섬유무늬 디자인	132
[그림9] 서천꽃밭 꽃배지 디자인	133
[그림10] 인공지능 그림 사이트로 구현한 서천꽃밭	133
[그림11] <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	135
[그림12] 기종석의 인터랙티브 전시공연 <서천꽃밭>	136
[그림13] <련:다시 피는 꽃>	137
[그림14] 설치미술& 퍼포먼스 <제주 신화 속 꽃의 의미를 찾아>	139
[그림15] 우금치의 마당극 <적벽대전>	139
[그림16] 연극 <가자, 서천꽃밭으로>	141
[그림17] <음악극: 꽃풀이>	144
[그림18]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서천꽃밭 이야기>	145
[그림19] 서천꽃밭 보드게임	147
[그림20] JIBS 뮤지컬 다큐멘터리 <서천꽃밭>	149
[그림21] 제주어 애니메이션 들엄시민	150
[그림22] <탐라국입춘굿>	153
[그림23] <서천꽃밭축제>	155
[그림24] 제2회 <제주신화페스티벌>	157
[그림25] <서천꽃밭 영장소리>	158
[그림26] <자청비거리>	159
[그림27] 신나락 만나락-제주 신화·전설 탐방로>의 서천꽃밭	160
[그림28] 무속에서의 꽃밭과 불교에서의 중음계	177
[그림29] 서천꽃밭의 장소성의 특징	180
[그림30] 테마공원의 기호사각도	185
[그림31] 꽃을 테마로 하는 공원	189
[그림3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간 구조	190
[그림33] <루나풀>	191
[그림34] <별빛정원 우주>	192
[그림35] <디피랑>	192

[그림36] 서천꽃밭 테마공원 기획 방향	195
[그림37] 4개의 꽃밭 유형	203
[그림38] 테마공원 외부 구조	212
[그림39] 테마공원 내부 구조(1안)	213
[그림40] 테마공원 내부 구조(2안)	213
[그림41] 테마공원 내부 구조(3안)	214

<표 차례>

[표1] 민족문화원형의 특성	30
[표2] 본풀이 채록 자료의 서천꽃밭 표기 양상	36
[표3]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비교	44
[표4]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 전략	47
[표5] <천지왕본풀이>의 서사구조	52
[표6]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구조	65
[표7]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76
[표8] <세경본풀이> 서사구조	81
[표9] <문전본풀이>의 서사 구조	85
[표10] 문화콘텐츠 현황	117
[표11] 문학 분야 문화콘텐츠 사례	118
[표12] 시각 콘텐츠 사례	125
[표13] 공연 콘텐츠 사례	134
[표14] 공간과 장소의 비교	172
[표15] 스토리텔링에서 공간-서천꽃밭	175
[표16] 서천꽃밭 테마공원의 유형	188
[표17] 한국과 중국의 오행 비교	199
[표18] 서양 역학의 4원소	199
[표19] 꽃밭의 구성 원리	203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본풀이에 나타난 서천꽃밭의 상징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의 신화인 ‘본풀이’는 고향에서, 하나의 신(神)이 현재의 면모로서 송양받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는 서사이다. 본풀이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생명력이다. 본풀이는 시간이 흘러 현재도 고향에서 불리고 있고, 전설, 민담, 소설 등의 변모된 모습으로 남아 있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을 지닌 본풀이와 문화콘텐츠가 결합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서사는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풀이는 제주의 옛이야기이면서 현재의 이야기이다.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은 자연의 생명력이 인간의 생명력을 좌우할 수 있고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유가 반영된 서사적 공간이다. 서천꽃밭은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극복의지이고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곳이기도 하다.

서천꽃밭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는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에 나타나 있다. 본풀이는 제주 사람들의 삶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사이다. 본풀이의 구조와 인물의 형상화, 가치관 등을 통해 제주 사람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사건과 현상들을 대응하는 방법들이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서천꽃밭은 인간을 위안하는 곳이며, 삶에 대한 깊은 철학이 반영된 곳이다. 서천꽃밭에서 꽃은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을 다시 살리고, 죽게도 만든다. 꽃과 사람은 운명공동체란 의미다. 서천꽃밭의 꽃의 순환 원리는 곧, 생명의 순환 원리로 작용한다. 생명의 순환 원리에는 생명의 탄생, 성장과 성숙, 죽음과 환생이 포함된다.

서천꽃밭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기존 사례는 문학, 공연, 전시, 이미지, 설치미술, 퍼포먼스에서부터 보드게임, 축제, 테마 거리 등 매우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기존 사례에서 서천꽃밭을 인간의 영혼을 꽃으로 담아낸 인간 생명의 본원적인 공간이자 고향을 통한 신화적 상생의 공간으로 잘 표현했다.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을

신화적, 상상적 공간으로 그려내며 신성성을 한층 가깝게 표현해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서천꽃밭을 직접 공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장소 콘텐츠가 매우 미흡했다. 서천꽃밭은 우리의 상상 속 장소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로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성 부분에서 활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으로 서천꽃밭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하고 신화적인 장소성에 생명의 순환 원리를 반영하여 제주다움을 살린 서천꽃밭 테마공원 ‘꽃풀이’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꽃풀이’란 서천꽃밭의 ‘꽃’과 본풀이의 ‘풀이’의 의미를 조합한 이름이다. 전체적인 기획 원리는 ‘꽃은 곧, 생명’이고 이를 기반으로 기획 방향은 꽃의 순환 원리와 생명의 순환 원리다. 슬로건은 ‘꽃을 풀다. 삶을 풀다’로 정하여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를 주인공으로 Main Story를 정하였다. 핵심테마는 ‘생명’으로 서천꽃밭의 원리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4개의 꽃밭으로 구성하였다. 생명의 꽃밭을 메인으로 정하고 제1꽃밭은 ‘봄: 탄생’, 제2꽃밭은 ‘여름: 성장’, 제3꽃밭은 ‘가을: 성숙’, 제4꽃밭은 ‘겨울: 죽음, 환생’을 테마로 구성하였다.

서천꽃밭 테마공원 ‘꽃풀이’가 실제로 조성된다면, 제주지역의 본풀이와 서천꽃밭이라는 소재가 장소와 결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인 연대감과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매력을 발산하여 제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다운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제주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테마공원을 구성하는 논의가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사례에 다소 부족했던 서천꽃밭의 구체적 양상과 의미가 대중들에게 좀 더 전달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서천꽃밭, 테마공원, 문화콘텐츠, 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꽃풀이, 꽃, 생명, 순환 원리, 탄생, 성장, 성숙, 죽음, 환생, 장소성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본풀이에 나타난 서천꽃밭의 상징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풀이를 원천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는 문학, 영화, 음악, 미술, 축제, 춤,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감성이라는 주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화콘텐츠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소재는 한계가 있다.

하나의 텍스트를 문화콘텐츠로 생산하는데 텍스트 대상 설정이나 구조 형성은 문화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화콘텐츠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적합한 구조가 있는 텍스트이고 그만큼 생산적 효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 ‘옛 것’이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많은 역사·문화 자원이 가진 가장 큰 특성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보편성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특수성은 흥미를 느끼게 한다. 본풀이가 현재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까닭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보편성과 흥미적인 요소인 특수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제주의 이야기들은 이미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2023년 61회를 맞이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탐라문화제는 제주 신들의 이야기인 본풀이를 비롯하여 해녀 문화와 민요, 굿놀이 등 제주만이 가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대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옛 것’들이 제주정신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고, 지속적으로 제주 고유의 것을 전승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제주의 신화인 ‘본풀이’는 굿에서, 하나의 신(神)이 현재의 면모로 송양받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본풀이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생명력이다. 현재도 굿에서 불리고 있고, 전설, 민담, 소설 등의 변모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런 현상으로 본다면 본풀이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명력을 지닌 본풀이와 문화콘텐츠가 결합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서사는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인기를 끈 웹툰 <신과 함께>¹⁾는 이를 증명했다. 제주의 본풀이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태도를 통해 죽음의 사유를 옛 이야기의 원형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풀이라는 원천소스를 어떻게 콘텐츠로 제작하면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보여 준 적합한 사례이기도 하다.

디지털 문화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고유의 상상력과 민족의 정체성이다. 이를 시간적·공간적으로 초월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콘텐츠’다.

옛이야기는 인간의 삶이 녹아든 이야기이다. 인물, 사건, 배경이 있고 주제가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식 구조를 거친 옛이야기의 원형성은 문화콘텐츠로서 생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옛이야기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모색하여 왔다. 그 중 신화는 초기의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안에 담긴 신화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보편적 사유방식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콘텐츠 소재로써 옛이야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시에 이야기도 함께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그 시작은 알 수 없다. 시작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비한 영역이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있는 옛이야기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로 활용될 수 있는 매력을 내포하고 있다.

신화는 인간의 상징체계를 통해 우주 및 인간의 기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화 읽기는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가 찾으려고만 한다면 신화는 얼마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1) <신과 함께>는 주호민이 네이버 웹툰에서 2010년 연재하기 시작해 2012년 완결한 웹툰이다.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등 3부작으로 구성되었다. ‘저승편’은 김자홍이란 인물이 39세에 세상을 떠나 저승 국선변호사 진기한의 도움을 받아 온갖 지옥을 통과해 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이승편’은 초등학생 김동현과 그의 할아버지 집에 사는 가택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신화편’에서는 천지왕본풀이, 차사본풀이, 이공본풀이 등 총 6편의 한국 신화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전통 저승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0년 독자만화대상 온라인만화상, 2011년 부천만화대상 우수이야기만화상,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만화대상 대통령상, 독자만화대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네이버웹툰 자료 참고.

영화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였다. 1편은 『신과함께: 죄와 벌』, 2편은 『신과함께: 인과 연』으로 되어 있다. <차사본풀이>의 서사의 중심으로 저승의 얽힌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신화가 가지는 논리적인 체계성은 그것을 형성한 집단과 지역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제주 신화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 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 체계가 모두 내포되어 있으며, 신화를 누리는 집단의 미의식이 함께 발현되고 있어야 한다.²⁾

본풀이는 제주의 옛이야기이면서 현재의 이야기이다.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은 이승과 저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상상 속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 죽음이 있으며, 환생도 가능한 공간이다. 이곳은 어디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신적 능력이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미지의 공간이다. 신성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고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도 하다.

서천꽃밭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는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에 나타나 있다. 서천꽃밭은 자연의 생명력이 인간의 생명력을 좌우할 수 있고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결합하여 있다는 사유가 반영된 서사적 공간이다. 서천꽃밭은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극복 의지이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곳이기도 하다.

본풀이의 구조와 인물의 형상화, 가치관 등에는 제주 사람들의 세계관과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다.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에도 분명 제주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 공간에는 탄생·성장·죽음·환생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는 문화콘텐츠 활용에 매우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풀이의 서천꽃밭이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의 주제로 반영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선행 연구 검토

이 논문의 목적은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이다. 생명의 탄생, 죽음, 재생의 의미가 공존하는 이 공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서천꽃밭이 주된 공간으로 등장하는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의 서사 내용 중에 탄생, 성장과 성숙, 죽음과 환생을 키워드로 선정하여 본풀이의 각 화소 중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부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2)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5~16쪽.

그리고 서천꽃밭을 활용한 기존의 문화콘텐츠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천꽃밭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행연구와 이론 검토 → ② 본풀이 채록 자료 분석 → ③ 서천꽃밭의 양상 분석 → ④ 문화콘텐츠 사례 검토 및 분석 → ⑤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전환 과정 → ⑥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제안

이 논문에서 본풀이의 서사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텍스트는 기존에 기록된 자료인 『조선무속의 연구』(秋葉隆·赤松智城, 1937), 『제주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가』(현용준·현승환,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등을 비롯해 최근에 채록된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들은 기존의 채록된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고, 같은 본풀이도 구연하는 심방에 따른 서사 구조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³⁾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9.
- ②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양창보 심방⁴⁾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0.
- ③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고순안 심방⁵⁾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3) 이용옥 심방은 1955년생으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서 태어났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기능보유자인 김윤수 심방의 부인이며, ‘이정자’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용옥 심방은 현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이수자로서 매우 활발한 무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량이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다.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55쪽.

4) 양창보 심방은 1934년생으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 출생하였다. 초혼(初婚) 당시 처가가 심방 집안이었고, 본인의 누이 역시 무업(巫業)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온갖 병치레를 하던 끝에 20대 중반에 심방이 된 그는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굿하는 소리가 나는 집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굿을 배웠다. 그 덕분에 산남 산북, 동촌, 서촌의 굿을 두루 익히게 되었다. 특히 심방 집의 굿을 40여 차례나 해 신굿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본격적인 심방이 되어 10여 년이 지난 뒤에는 일본을 오가며 17년간 굿을 해오다가 60대에 접어들며 일본 생활을 접고 제주도에서만 굿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35~36쪽.

5) 고순안 심방은 1947년생으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태어났다. 다른 이름으로는 ‘고복자’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죽어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고순안 심방 가

④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⁶⁾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신본풀이 중에서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를 주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첫째, <삼승할망본풀이>는 인간의 탄생 원리, 출생 원리, 양육 원리를 설명해 주는 신화라는 점에서 우리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꽃과 연관시켜 신화를 구성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꽃을 잘 피우는 존재가 인간의 생명을 탄생, 성장 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탄생의 역할을 맡은 신적 존재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식물의 생명도 잘 키워야 한다는 인식도 내재되어 있다. 이 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탄생’의 서사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이공본풀이>에는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으로 발탁되는 과정과 서천꽃밭으로 가는 여정, 꽃감관으로 간 사라도령이 아버지임을 아들 한락궁이에게 알리는 것과 서천꽃밭에서 한락궁이가 아버지인 사라도령을 만나는 과정, 한락궁이가 어머니를 환생시키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서천꽃밭의 꽃을 키우는 꽃감관인 사라도령은 꽃으로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성장’과 ‘성숙’, ‘죽음’, ‘환생’의 서사적인 의미가 있다.

셋째, <세경본풀이>는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꽃을 꺾으러 서천꽃밭으로 가는 장면과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자청비가 다시 서천꽃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세경본풀이>에서 천상과 인간 세상이 등장하는데 등장인물들의 행

계도를 보면 외할아버지는 성읍리 심방이었고, 어머니 양기정 심방은 고순안 심방이 7세 때부터 하도리 본향당 맏인 심방이었다. 외가로는 본인까지 3대 째 무업을 하고 있고 친가로는 셋째 아버지가 심방을 하였다고 한다. 31세에 하도리 본향당을 맡아 맏인 심방이 되었다. 35세 즈음 인사인 심방이 살아 있을 때 제주칠머리당보존회에 회원으로 들어갔다. 하도리 본향당이 할망당이라 불도맞이에 능한 편이어서 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 보존회 행사 때도 주로 불도맞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43-46쪽.

6) 서순실 심방은 1961년생으로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에서 출생하였다. 4세 때 어머니(문춘성, 1921년생)의 고향인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로 왔으며, 이후 어머니가 무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딸에게 이어졌다. 서순실은 전수생으로 들어가자마자 21세 때 첫 신굿을 하였다. 첫 신굿은 어머니와 의형제를 맺고 있던 양창보가 수심방을 하였으며 이중춘, 한생소, 강순신, 한일춘, 홍순여 심방등과 함께 하였다. 서순실은 현재 김녕리와 행원리의 신당을 맡은 맏인 심방이다. 김녕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좌읍 지역이 주요 활동지역이다. 또한 현재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제주큰굿’의 전수조교이기도 하다. -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42-45쪽.

위로 보면 서천꽃밭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들어가 꽃구경하다가 몰래 꺾어온 환생꽃으로 정수남이와 문도령을 살린다. 이를 가능하게 한 계기는 서천꽃밭으로 자청비가 진입한 것인데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으므로 가능했다. 죽은 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청비는 농경신으로 좌정한다. 이 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환생’의 서사적 의미가 있다.

넷째, <문전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녹디생이가 어머니인 여산부인을 살리기 위한 공간으로 등장하는 데 이 역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문전본풀이>는 문전신, 조왕신, 측간신 등 집을 구성하는 공간의 신들에 대한 본풀이다.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를 활용하여 일곱 형제 중 막내인 녹디생이는 어머니를 부활할 수 있게 한다. 이 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인물의 겪는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환생’의 서사적인 의미가 있다.

제주의 일반신본풀이 12개 중에서 왜 이 네 개의 본풀이에만 서천꽃밭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삼승할망은 서천꽃밭을 창조하였다. 삼승할망은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인간 세상에 생불을 내리는 일을 하는 역할을 획득하였다. 이후, 인간 세상에 생불을 내리고 다니면서 서천꽃밭을 만들려고 했으나 꽃씨가 없자 옥황에게서 꽃씨를 얻는다. ‘삼승할망’은 하늘에서 얻은 꽃씨를 석해산에 심고 서천꽃밭을 만든다. 그러나 옥황에게서 얻어온 꽃씨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먼 곳으로 심는다. 이곳이 서천꽃밭인데, 인간은 다가가기 힘든 곳이며 그곳에서 피어난 꽃으로 삼승할망은 인간 세상에 생불을 내리고 다닌다.

<이공본풀이>, <문전본풀이>, <세경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의 꽃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본풀이 속의 인물의 위기를 겪는 장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풀이 속 인물들의 삶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현실 세계에서 해결하기보다 이계(異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신으로 좌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꽃의 재생 즉, 인간의 환생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계의 공간이 바로 서천꽃밭이다.

이상의 네 본풀이에 등장하는 꽃과 꽃밭은 결국 인간의 삶을 다양한 측면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생애 전반의 모든 것들이 서사 구조의 안에 있다. 생명의 원리인 ‘탄생-성장-성숙-죽음-환생’의 구조(환생은 실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인간들이 바라는 사항이다.)가 꽃의 순환 원리로 반영된 곳이 바로 ‘서천꽃밭’이다.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설화 또는 신화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둘째, 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셋째, 본풀이의 꽃과 서천꽃밭을 다룬 연구 넷째, 제주 신화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활용한 제주도 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로 정리하였다.

본풀이는 민속학 연구자들이 꾸준히 조사·연구한 기록이 남아있다. 설화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논의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대부분 기록된 설화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거나 독창적인 성과는 미비한 편이다.

하지만 본풀이 자원을 토대로 콘텐츠화하는 작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됐고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본풀이라는 대상을 단순히 과거의 문화자원에 머물지 않고 현대에 와서 콘텐츠로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첫째, 신화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박기수⁷⁾는 문화콘텐츠로써 신화는 중요한 문화원형과 스토리텔링의 원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를 신화는 문화적 가치의 수렴과 창출을 통하여 대중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생명력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유형을 신화 그 자체를 전환한 경우, 신화의 구조와 소재를 활용한 경우, 원형으로서 활용하여 지금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활용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신화의 현재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원오⁸⁾는 한국 무속신화를 대상으로 스토리 창작을 위한 신화소를 추출하였다. 그는 신화가 담고 있는 민족적 세계관, 서사의 전통에서 파악되는 신화소의 영향력, 집단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으려는 신화적 기능이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힘이

7) 박기수, 「신화의 문화콘텐츠화 전환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8)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점검-스토리 창작을 위한 신화소 추출과 분류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6집, 한국문학회, 2007.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신화가 우리의 삶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한국 무속 신화를 대상으로 신화별 줄거리 및 각종 신화소 등을 정리한 뒤, 이를 이용한 스토리 창작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신화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창작자들에게 한국 무속신화가 가진 의미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오세정⁹⁾은 신화를 스토리텔링 하여 제시된 새로운 세계는 현실과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낯선 세계의 결합이며, 가능한 다양한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시킨 세계라고 보고 신화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 사유와 반성을 패턴화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조홍윤¹⁰⁾은 한국 무속신화의 주요 서사 과정을 ‘자기 발견-극복’이라고 주장하였다. 캠벨의 원질신화의 구조적 맥락과 연결하면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신적인 자각과 성숙을 통해 현실이라는 세계와 삶이라는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신화의 기능이고, 이것이 한국이 무속 신화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무속 신화를 순차구조 4가지(A. 부정적 자기 존재 발견과 현실이탈 - B. 이상적 자기 존재 발견 - C. 이상적 자기 존재 확신 - D. 이상적 자기 존재성을 통한 현실 문제 해결)를 제시하였다.

신동훈¹¹⁾은 설화의 서사적 화두를 화소에 담긴 의미자질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추출하였다. 하나의 화소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자질들이 깃들여 있고, 화소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의미를 특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설화 속에서 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른 화소들과 의미적 상관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맥락’을 구성하며 그 의미적 관계와 맥락을 짚어내는 일이 곧 설화 분석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과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설화를 문화콘텐츠로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채영희·황경숙¹²⁾은 바리공주 서사무가를, 이상대¹³⁾ 발해 건국신화를,

9) 오세정, 「뮈토스와 스토리텔링: 한국 신화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서사학적 접근」, 『기호학연구』 제34집, 한국기호학회, 2013.

10) 조홍윤, 「구조적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화 구조의 적용 방안 연구 - 캠벨(Joseph Campbell)의 원질신화(Monomyth)의 한국 무속 신화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문학연구학회, 2017.

11)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 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12) 채영희·황경숙, 「바리공주 무가의 애니메이션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가능성 모색」,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방지영¹⁴⁾은 김수로왕신화를, 김성호¹⁵⁾는 단군신화를, 양지욱¹⁶⁾은 삼국유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신화를 문화콘텐츠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둘째, 본풀이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진철¹⁷⁾은 제주 신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신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주 신화를 과거의 재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 신화의 다양한 인물과 복잡한 사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화들의 연관성을 마련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례를 정리하고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는 이외에도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을 '저승을 방문한 영웅' 모티브가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각 장르의 콘텐츠로 전환되고 있음도 밝혔다¹⁸⁾.

강문종¹⁹⁾은 제주 신화가 문화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신당의 원형을 복원하고 굿의 원형에 기반한 퍼포먼스(performance)를 문화상품의 하나로 만들어 신화의 내용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둘째, 제주 신화를 둘러싼 인물들의 네트워크와 사회·경제적인 분야, 민속·의례적인 분야, 제주지역의 역사와의 충돌 및 연합 분야, 역사적 기록물, 현대인들의 이해관계 및 향유방식,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일종의 지식망(Knowledge Network)을 구축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여 신화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신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각 계열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한다면 제주 신화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 신화의 문화콘텐츠의 가능성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제주 신화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가 올라갈 것을 제안한 데 의의가 있다.

전영준²⁰⁾은 제주의 역사 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을 구비 전승된 신화

13) 이상대, 「발해건국 신화를 이용한 게임콘텐츠 요소 개발」,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4) 방지영, 「<김수로왕 신화>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 김성호, 「단군신화의 재해석을 통한 상호문화주의 기반 콘텐츠 기획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6) 양지욱,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연구: <삼국유사> 소재 스토리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7) 김진철, 「신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8) 김진철, 「제주 신화 <차사본풀이>이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집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19) 강문종,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 가능성」, 『영주어문』 32호, 영주어문학회, 2016.
20)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담라문화』 49호, 제주대학교 담라문화

를 생활에서 풀어내거나 역사 속에서 살아 있는 기록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제주인과 문화이주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문화적 가치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에 의미를 두었다.

김진아²¹⁾는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제주 신화 축제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축제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주제성과 진정성을 제시하였는데, 주제성은 정체성 형성의 당사자인 지역민들이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준이고, 진정성은 축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축제 진행 장소들이 신화의 원형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가 축제에 반영됨으로써 축제의 현장에서 제주 신화가 살아 숨 쉬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축제의 정체성과 진정성에 대해 논한 부분이 의의가 있다.

특히 제주 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를 연구 중에는 <세경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송태현²²⁾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화 현황을 조사하고 여성영웅으로서 자청비의 특성을 찾았고, 문학, 만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상품 등 문화콘텐츠화된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동윤²³⁾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현대소설에 수용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김은정²⁴⁾은 이명인의 소설 『집으로 가는 길』과 김달님의 웹툰 만화 『돌아온 자청비』를 중심으로 <세경본풀이>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제주의 본풀이가 현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미정²⁵⁾은 <삼승할망본풀이>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야기 내용에 맞는 매체의 특성을 잘 알고 접근해야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 연구들은 <세경

연구원, 2015.

21) 김진아,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 신화 축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2) 송태현, 「신화와 문화콘텐츠-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3)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자청비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24) 김은정, 「자청비 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5) 김미정, 『제주 <삼승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본풀이>의 현대적인 변용을 다루었고 그 변용을 잘 이룰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들이다.

셋째, 서천꽃밭을 구체적 대상으로 다룬 논문을 살펴보면, 이수자²⁶⁾는 서천꽃밭이란 인간 생명의 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 주는 신화적 생명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고 끝맺었던 생명 원천의 특수공간은 큰굿 속의 신화를 형성한 집단이 창조해낸 독자적인 신비 공간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무속 의례의 꽃장식의 기원과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무속 의례에 있어 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고대에 창안되고 행해졌던 열두거리 큰굿에서 ‘생명꽃’ 및 ‘서천꽃밭’과 같은 내용이 중요한 신화소이며, 무속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현승환²⁸⁾은 신화와 의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불꽃의 원초적 의미는 잉태이며, 새 생명의 잉태는 자신이 죽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식물의 일생에서 차용한 신화적 상징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자의례인 불도맛이를 통해 생불꽃이 잉태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명혜²⁹⁾는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을 능력 증명의 징표, 재생·환생의 상징, 멸망시키거나 죽이는 기능, 인간 생명, 관상(觀賞)의 의미, 생체 치유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본풀이에서의 꽃을 신화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류호철³⁰⁾은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주요 텍스트로 정하고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서천꽃밭에 대해 고찰하였다. 서천꽃밭은 본향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과 무속 제의 무대의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서천꽃밭과 주화와의 관계를 다루며 서천꽃밭은 신과 인간에게도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하였다. 정진희³¹⁾는 일반신본풀이에서 타계로 설정된 천상과 서천꽃밭을 신화적 논리로 살펴보았다. 일반신본풀이에서 타계는 초월적 힘을 기반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신화적 우주의 확장을

26) 이수자, 『제주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27)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과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28)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7.

29) 강명혜,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온지논총』 제48집, 온지학회, 2016.

30) 류호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1) 정진희, 「제주 무가의 타계 상상과 그 신화적 논리-일반신본풀이의 천상(天上)·서천꽃밭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51집, 한국시가학회, 2020.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무가 향유의 집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조리라³²⁾는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서천꽃밭은 서사무가 내에서 독보적인 의미를 지니고 그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며, 서사무가라는 갈래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창일³³⁾은 무속 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를 연구하였는데, 무속 신화의 꽃밭은 현상계를 위한 생명의 공간, 저승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악이 선을 누르고 이승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막이와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하였다. 류호철, 정진희, 조리라, 김창일의 연구는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의 장소성을 각 본풀이마다 구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들은 본 논문의 주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더욱 더 면밀하게 살펴 볼 예정이다.

표인주³⁴⁾는 민속에 나타난 꽃과 관련된 기호적 경험의 형성 토대가 되는 물리적 경험은 기본적으로 생태적이고 시각적인 경험이고, 이것을 토대로 다시 민속신앙을 비롯한 무속신앙이나 불교신앙, 유교의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을 받아 다양한 기호적 경험을 발생시켰다고 하였다. 꽃의 기호적 경험의 다양성은 기호적 전이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꽃이 다양한 의미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꽃의 다양한 의미를 토대로 중층성이 드러나는데, 공공성은 꽃이 신에게 바쳐지는 최고의 봉헌물로서, 꽃은 정화와 재액초복의 도구라는 기호적 의미라고 하였다. 변이성은 기호적 층위로 올라갈수록 강하게 나타나는데 꽃이 ‘탄생-환생-생명’과 신체이자 신격으로서 기호적 의미임을 밝혔다.

김헌선·변남섭³⁵⁾은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의 원형을 이야기와 본풀이를 예로 들었는데 그중 서천꽃밭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공본풀이>에서 꽃과 물이 분리되어 다른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향할 때 세 차례 물 건너기가 등장하는데, 물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기능은 한다. 반면 꽃은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자현장자를 죽이는 기능을 했다. 꽃과 물이 분리되어 별도의 서사적 의미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32) 조리라, 「제주도 서사무가에서의 서천꽃밭의 역할과 의미:<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고향논집』 제67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33) 김창일, 「무속 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34) 표인주, 「민속에 나타난 꽃의 기호적 의미와 변화」, 『호남학』 62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7.

35) 김헌선·변남섭,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 원형:이야기와 본풀이를 예증삼아」, 『구비문학연구』 28권, 한국구비문학회, 2009.

강진옥³⁶⁾은 ‘꽃-생명-세계’는 제주도 무속신화의 신화체계 즉 꽃의 신화학에서 동일한 의미지향을 보여주며,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와 생명을 되살리고 신격으로 좌정한 인물들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꽃의 신화학은 본풀이의 신화체계로서 본풀이적 세계관³⁷⁾이 구현해낸 생명에 대한 예찬이자 삶의頌歌라고 하였다. 최원오³⁸⁾는 <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는데 신화 속에 웃음의 의미와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의 경계적, 생리적, 마법적 기능이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죄를 신성한 범주의 영역으로 끌어 들여 그것을 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민속, 구비문학, 무속에서 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은영³⁹⁾은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에 대한 상이성을 언급하였는데,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천꽃밭은 저승이라는 공간과 구별되는 극락의 세계인 반면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은 살아있는 한락궁이가 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죽은 아이들이 꽃밭에 물을 주는 이승도 저승도 아닌 모호한 성격을 지닌 신

36) 강진옥, 「‘꽃의 신화학’ 서설: 제주도 무속의 신화체계 탐색을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5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37) 강진옥은 서천꽃밭에 나타난 본풀이적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 앞의 논문, 26쪽.

본풀이	주인공	생명현상 쇠퇴	근원적 생명 공간	생명력 표상	운용방법	운용결과 생명현상 갱신
이공본풀이	한락궁	어머니 죽음	서천꽃밭	환생꽃 외	가져오기 실행하기	어머니 소생 꽃감관 좌정
세경본풀이	자청비	정수남 죽음 문도령 죽음	서천꽃밭	환생꽃	가져오기 실행하기	생명의 소생 농경신 좌정
문전본풀이	녹두생이, 일곱형제	어머니 죽음	서천꽃밭	환생꽃	가져오기 실행하기	어머니 소생 문전신 좌정
할망본풀이	명진국 따남야기	검뉴울꽃 피우기 동해용왕따남야기	서천꽃밭	번성꽃 환생꽃 생불꽃	자신이 피운 꽃으로 생불주기/서천꽃밭 조성하여 활용하기	산육신 좌정 *신격 교체
불도맞이	심방 [악심꽃 꺾음]	수레말망악심꽃	서천꽃밭		악심꽃 꺾음	악운 제거
	심방 [꽃타레 등]	불모의 현실 (제의적 기원 필요함)	서천꽃밭	생불꽃	가져와 전달 꽃풀이	생명력 보강 삶의 풍요

38)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위상-〈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꽃’ 신화소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3집, 겨레어문학회, 2014.

39) 고은영, 「모순된 서사의 제의적 반영-〈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41집, 한국무속학회, 2020.

이한 공간이라 두 본풀이 속 서천꽃밭이 모순된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고은영은 본풀이의 서천꽃밭이 동일한 공간이 아니라 본풀이마다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천꽃밭을 다른 나라의 신화와 비교한 연구도 있다. 김선자⁴⁰⁾는 삼승할망과 서천꽃밭의 화소를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에 거주하는 좡족[壯族]을 비롯해 마오난족(毛南族), 부이족(布依族) 등 여러 민족에서 화파(花婆), 즉 꽃의 여신에 관한 신화와 신앙을 전승해오고 있는데, 중국 남부지역에 넓게 퍼져있는 화파에 관한 신화와 신앙을 좡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꽃의 여신, 영혼의 꽃밭 민속 벨트에 제주의 서천꽃밭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제주신화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제주도 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를 살펴보자. 정진선⁴¹⁾은 제주도 신화의 장소성과 경관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주 신화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주목하고 장소성의 획득과 경관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가 지역민의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정체성을 표상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논하였다.

장성수·김관오⁴²⁾는 역사·문화형 테마파크는 소재로 삼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부분을 잘 포장하여 조상의 지혜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문화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역사문화유산의 고유성을 발현해야 한다고 했다. 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제주 무속신화의 주요 등장인물과 장면, 소재들을 활용하여 제주의 문화와 응축된 세계관을 전달하고 친숙함과 흥미를 부여해 제주의 무속신화를 테마로 한 입체 영상센터, 인형극이나 연극공연을 위한 공연장, 신화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캐릭터화한 신화 캐릭터관, 계절·시간별 이벤트 및 축제를 개최하여 대중적인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가 2005년인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장소와 프로그램들을 조성한다는 계획의 시도는 의미가 있다. 테마파크 부지 계획에서 추구되는 일반적인 체계, 절차, 기법 등을 차치하더라도 제주의 역사문화자원 중에 제주무속

40) 김선자, 「중국 남부 소수민족 신화에 나타난 꽃의 여신[花婆]과 민속, 그리고 서천꽃밭」, 『비교민속학』 제45집, 비교민속학회, 2011.

41) 정진선, 「제주도 신화의 장소성과 경관의 변화」, 『로컬리티 인문학』 14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42) 장성수·김관오, 「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계획의 적용사례-제주무속신화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5.

신화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가 특히 고무적인 일이다.

최수웅⁴³⁾은 제주도 테마공원 창작 방법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장면 중심 이야기 구성, 전체 장소를 몇 가지 구획으로 세분화한 뒤 미장센을 갖춘 장면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긴장과 이완의 반복, 테마파크의 운영자는 의도적으로 진행 속도를 조절한다. 셋째, 동선과 방문객 유도, 테마파크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의 활동에 의해 진행된다. 이를 잘 적용한 사례로 제주의 에코랜드테마파크⁴⁴⁾와 카멜리아힐⁴⁵⁾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양성 확보와 운영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제주의 독창적 가치를 반영한 주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자연, 신화, 역사, 생활의 측면에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제주의 테마공원의 현 시점을 검토하였고, 가능성을 타진하여 실행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테마공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성과가 있다.

김은정⁴⁶⁾은 제주 신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내 테마공원의 사례를 통해 그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제주 신화가 실제 콘텐츠화되고 있는 사례를 취합하였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의 여러 설화 자료 기반을 구축하고 제주 신화를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 방안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들은 서천꽃밭의 장소성에 주목하였고 테마공원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신화와 제주의 본풀이를 분석하고 문화콘텐츠화 하는 방안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풀이의 서천꽃밭에 반영된 생명의 순환 원리를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제주의 본풀이의 문화콘텐츠화를 다루거나 본풀이의 여러 대상 중에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다양한 방안을 다룬 연구 역시 아직 진행중이다.

43) 최수웅, 「테마파크 스토리텔링의 창작방법론 연구-제주도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8권 제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에 위치함. 2002년 7월에 설립된 철도 컨셉 생태관광 테마공원, 제주도에서는 교통편으로 이용하지 않는 기차를 이용하여 공원 내에서 에코브리 지역, 레이크사이드역, 피크닉가든역, 라벤더, 그린티&로즈가든역, 4개 각각의 역마다 색이 다른 테마로 구성된 곳을 관람할 수 있는 공원이다.

4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에 위치함. 동백꽃과 각종 꽃들과 조경수들이 어우러진 수목원이다.

46) 김은정, 「제주 신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내 테마 공원 사례와 그 방안 모색」, 『인문학연구』 제22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제주의 테마공원을 구상할 때 제주 본풀이를 장소성과 연관하여 제안한 연구 역시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장에서 이 논문을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본풀이에 나타난 서천꽃밭 양상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서천꽃밭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실제로 서천꽃밭을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룰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서천꽃밭 테마공원 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본풀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풀이가 갖고 있는 삶과 죽음의 원리가 문화콘텐츠에 잘 녹아들어야 한다. 그 전환 과정을 통해 장소 콘텐츠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장 연구대상 정의 및 특성

1. 문화원형의 개념과 특성

1) 문화원형의 개념

문화의 사전적인 정의는 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을 말한다. 즉, 문화란 자연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 문화라는 단어에는 인간들의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의 문화 개념은 고대 시기부터 문명 시기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자연을 지배하고 순화시키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사회, 경제와 같은 모든 산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크게 보면 정신과 물질을 모두 아우르면서 인간이 이룩한 총체적인 삶의 결과라는 뜻으로 넓혀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문화’라는 말은 서양의 다른 개념어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일본사람들이 culture를 문화로 번역해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인 개념이다. 따라서 주된 의미에는 문화 개념의 서구적 발전과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만 인문학적 사유에 기반을 둔 동양 전통적 사고 또한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⁷⁾

그렇다면 원형은 무엇을 뜻하는가? 원형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형(元型, pattern)으로서 주물(鑄物)이나 조각물을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형(型, form)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모양의 산출물을 찍어낼 수 있는 기본 ‘틀’을 뜻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형(原形, originality 또는 archetype)으로서 고유성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디 모양’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틀’이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본디 모양’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다양성의 근거이며, 동시에 다양성 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⁴⁸⁾

문화와 원형을 합한 개념인 문화원형의 개념을 정리하면 전정연⁴⁹⁾은 “그들만의

47)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10쪽.

48) 김교빈, 위의 논문, 11쪽.

예술적·정신적·지적 활동이 녹아 있는 전통문화 가운데 그 민족 또는 그 지역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서 다른 지역, 다른 민족과 구별되며, 아울러 여러 가지로 파생된 현재형의 본디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용원⁵⁰⁾은 “문화원형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이 총체적으로 형성될 때, 그 기반을 이루는 인간 내면의 원초적 관념이나 이미지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원형을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집단 무의식의 본성적 경향, 같은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에서 유사한 경험을 반복하는 동안 일정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의식적 경향”⁵¹⁾이라 정의하였다. 차국환⁵²⁾은 “상품으로 가공 변형되기 이전 상태의 정형성을 갖춘 전통문화”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원형의 개념을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이 총체적으로 문화로 형성될 때, 그 기반을 이루는 인간들의 집단 무의식의 원초적 관념이나 이미지’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문화원형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화원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보편성이라면 각 지역, 나라, 인종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를 특수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전개 요소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보편성일 것이고, 흥미 요소를 느낀다면 그 특성은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처의 신화, 전설 등을 집대성한 12권의 책인 『황금가지(The Golden Bough)』에서 제임스 G. 프레이저(James G. Frazer)는 초개인적 사회와 우주와의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형식적 행위(제식)가 언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곧 신화라고 하였다. 세계의 주요 신화들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아 넘길 수 없을 만큼의 공통요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각 나라의 종교적 의식과 비교를 통해 유사

49) 전정연, 「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바람의 나라 사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5쪽.

50) 박용원, 「문화원형의 개념에 기반한 한국 디자인의 형상성(形像性)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쪽.

5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종합계획』, 2005.

52) 차국환, 「문화원형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8쪽.

점을 밝혔다. 이는 인류학, 고고학, 종교학, 민속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노드럽 프라이(Northrop Frye)는 앞선 연구를 종합하고 비판하여 원형비평의 틀을 확립하였는데 신화의 원형적 패턴을 삶과 죽음의 재생이라는 순환형식에서 찾았다. 사계절의 원형을 하루의 시간, 인간의 일생이라고 보았다.

그는 원형비평의 틀을 확립하였고 소설의 장르가 각기 다른 네 개의 이야기 범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네 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봄의 미토스: 희극, 새벽, 봄 그리고 출생의 단계 - 영웅의 탄생, 부활과 소생, 창조와 신화와 죽음, 겨울, 어둠의 힘의 패배의 신화

② 여름의 미토스: 로맨스, 절정, 여름 그리고 결혼 혹은 승리의 단계 - 신격화, 신성한 결혼, 낙원 입장의 신화

③ 가을의 미토스: 비극, 황혼, 가을 그리고 죽음의 단계 - 시들고 죽어가는 신, 사고로 인한 사망, 영웅의 고립의 신화

④ 겨울의 미토스: 아이러니와 풍자, 어둠, 겨울 그리고 해체의 단계 - 이런 힘들의 승리의 신화, 흥수와 혼돈의 되풀이, 영웅의 패배의 신화, 신들의 몰락의 신화

원형비평은 신화를 사회적 집단적 무의식을 인식한다. 근본적으로 사회적·역사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집단이나 민족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또는 원형)을 문학 작품에서 구체화한다는 견해다. 모든 문학 장르와 개별적인 문학 작품을 어떤 원형이나 신화의 전형적인 형태의 재현으로 해석하는 비평이다. 꿈, 신화, 의식 따위의 원시적 형태 속에 보편적으로 들어 있는 생각, 성격, 행위, 대상 따위를 인류의 원형적 패턴으로 보고 그것을 문학 작품 속에서 통시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비평. 문학을 신화 체계의 한 존재로 보고 문학 속에 있는 신화 체계를 밝히려는 비평이다.

그러나 이 비평은 후에 역사주의와 형식주의 비평가들로부터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事象)이나 상징적 개념의 집합체인 문학 작품에 특유한 형식상의 전제를 한다는 점과 문학 작품의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단일 레벨의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

명하는 태도라며 환원주의(還元主義)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원형비평은 신화의 원형(archetype)을 문학 작품 내에서 찾고, 작가들에 의해 그것이 어떻게 재현되고 재창조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과학기술문명을 불신하고 정신의 중요성, 인류 공동체 의식, 원초적 인간으로서의 신화를 구성하는 힘이 동서고금 인간의 공통된 기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본래 자연적 의식을 강조한다. 신화의 원형은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의 ‘집단 무의식’이 대표적이다. 자신의 무의식과 사람들의 심리 분석 작업을 통해서 얻은 방대한 경험 자료를 토대로, 원시 종족의 심성과 여러 문화권의 신화, 민담,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 종교현상들을 비교한 결과, 인간 심성에는 자아의식과 개인적 특성을 가진 무의식 너머에 인류 보편의 원초적 행동 유형인 많은 원형들로 이루어진 집단적 무의식의 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화 형성에 무의식적인 이미지가 형상화하여 눈앞에 제시됨을 주장하였다.

집단 무의식이란 신화의 원형적 이미지 속에 보존되어 원형적 이미지가 예술적으로 표현되면 독자는 해방감과 압도적인 힘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명작은 집단적 무의식과 개인적 무의식이 적절하게 혼합된 작품을 의미한다.

융의 이론 중 ‘원형’은 그의 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신화나 이야기에 대하여 세계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이 동일한 신화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신화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인류의 과거 기억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렇게 집단 무의식 속에 과거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신화이면서도 비슷한 모티프나 패턴 또는 주제를 지나게 되는 것이다. 융은 이러한 패턴이나 모티프 또는 주제를 ‘원형’이라고 하였다. 원형이라는 개념은 예로부터 대대적으로 물려받은 관념의 패턴이나 철학적 사고라기보다 오히려 자극이 주어질 때 비슷한 식으로 반응하는 성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원형은 후천적으로 습득되었다기보다는 본능의 활동 영역에 속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⁵³⁾

융이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앙리 콜빙은 이슬람 신비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미지 세계(Mundus Imaginalis)’와 연결함으로써 원형에 대한 논의를 인간

53)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의 원형비평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함.

의 삶 전체로 확대하였다. 그는 이미지의 세계를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계와 대등하게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실재(reality) 세계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간 삶의 원형적 해답을 제공해 준 종교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긍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⁵⁴⁾

문화원형에서의 원형(原形)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집단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정체성과 다른 집단과 차별화된 고유성을 의미한다. 각 민족만의 정체성과 고유성이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양성이야말로 원형이 갖는 대표적 특징이다.⁵⁵⁾

인류의 공통된 관심사는 탄생과 죽음이다. 그러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이 행하는 행위이지만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존재하였고 그 신앙은 여러 예술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삶과 죽음은 본풀이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공존한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상상하여 그곳을 형성하는 것도 신화적 사유의 한 축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신화의 공통적 요소이다.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통한 주체성과 민족 구성원 사이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정체성이 담겨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적, 시간적 분화가 가능한 전형성과 함께 창의력과 상상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민족 범주에서 문화원형을 찾는 일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일인 동시에 지금까지의 시대별, 지역별 변화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아울러 앞으로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낼 방향타를 마련하는 일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화원형의 분류에는 시간 축과 공간 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그 위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에 따른 대상의 구분이 입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원형은 크게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구분이 나눌 수 있으며, 정신적인 부분에는 학문, 예술, 종교나 한(恨), 풍류(風流) 같은 정서가 해당하고, 물질적인 부분에는 건축물이나 서적처럼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모든 물질적 요소가 해당한다. 하지만 문화원형이 반드시 오래된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구 세력과 갈등을 보였던 근대에서도 얼마든지 문화원형을 찾을 수 있다.⁵⁶⁾

54)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13쪽.

55) 전정연, 앞의 논문, 5쪽.

56) 김교빈, 앞의 논문, 14~15쪽.

2. 본풀이의 특성과 가치

1) 본풀이의 유형과 특성

‘본풀이’에서 ‘본’은 뿌리, 근본(根本), 내력(來歷), 본원(本源) 등을 뜻하는 말이며, ‘풀이’는 ‘풀다’의 명사형으로 해석, 해설, 설명을 의미한다.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좌정하게 되기까지의 유래와 내력을 해설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를 심방이 무의를 할 때 대부분 제상 앞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노래해가는 것이다. 그러니 본풀이는 심방이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의에서 노래한다는 면에서 서사무가요, 그 내용이 신의 내력·행적을 설명하는 신성한 설화라는 면에서는 신화가 된다.⁵⁷⁾

본풀이는 주인공의 성격과 내용, 지역적 범위 등으로 이를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특수본풀이로 구분한다.

일반신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사상이나 인문 사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이다. 즉 천지, 일월, 산해(山海), 생사, 질병, 생업, 빈부 등을 관장하는 신들의 내력담이다. 주로 어느 마을 무격이나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일반신본풀이가 보편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심방이 구연할 줄 알고, 예사 곳에서 반드시 구연해야 하고, 내용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본풀이와 구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⁵⁸⁾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심방’이라고 한다. 제주도에 많은 심방은 동일한 일반신본풀이를 알고 있지만, 사설을 풀 때는 조금씩 다르다. 본풀이는 고정되는 기록문화가 아니라 구전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와 구연자인 심방에 따라 본풀이의 서사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당신본풀이는 마을신의 이야기이다. 본향당은 마을신의 제사를 지내는 성지로, 제장(祭場)도 있다. 도내의 마을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당이 있다. 이 당에는 마을 토지 및 마을 사람의 제반 생활을 관장하고 수호하는 신이 좌정하고 있어서 이 신을 ‘본향신’이라고 하고, 본향신에게 제사 지내는 당을 ‘본향당’이라고 한다. 한 마을에 두 개 이상의 당이 있는 것은 이 본향당 외에 마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

57)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7쪽.

58)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 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32쪽.

각하는 영역이 별도로 있어 농업신, 어업신, 자식을 키워주는 자육신, 치병신 등 마을의 생업이나 마을 사람의 현실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신들을 모시는 제사하는 당이 있기 때문이다.

조상신본풀이는 일월조상의 내력담이다. 일월조상이란, 한 집안 내지 일족의 수호신을 말한다. 조상은 혈연으로 얽힌 조상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주도에서는 혈연으로서의 조상과 집안 또는 일족 수호신의 조상을 엄격히 구분한다. 그래서 후자를 전자와 구분하여 일월조상이라 표현한다. 이 일월조상신의 내력담이 곧 조상신본풀이다.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곳곳에서 신격을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삽화(插話)로서 불리거나, 제의가 사라져 현재 곳곳에서 구연되지 않는다.

본풀이는 형태적으로 단순한 주문형태에서부터 예술적인 구성을 이룬 설화형까지 전해오고 있다. 본풀이는 제주 사람의 삶이 녹아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제주도는 역사 속에서 많은 탄압과 시련에도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했고 많은 것들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키우는 일, 비옥하지 못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가 다시 섬으로 살아 돌아와야 하는 모든 것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제주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 마을마다 형성된 당은 이러한 간절함의 표상이다. 신과 인간의 매개자인 심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신에게 고하는 이야기인 본풀이는 제주 사람의 삶이고 신앙이자, 신화였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제주도의 무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주도의 곳곳에서 구연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제주도 곳의 구성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제주도의 곳, 본풀이, 맞이, 놀이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신을 초청하고 신의 내력을 풀면서 초청된 신과 곳곳에서 벌이는 놀이를 요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본풀이가 신의 내력과 형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의 내력과 놀이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본풀이는 곳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⁹⁾

제주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사고도 중요시했다. 제주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귀양풀이를 통해 죽은 이의 넋을 기리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59) 김현선 외,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0, 17쪽.

다. 죽음 이후의 삶도 기원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고 단절하는 서양의 문화와는 달리, 죽음 이후에도 죽은 자가 이승에 恨이 남아있지 않도록 죽은 이를 기리고 忌日에는 죽은 이를 떠올려 제사를 지냈다. 본풀이에는 억울한 죽음을 달래주고 악을 행한 자는 징치하기를 바라는 제주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본풀이는 인간과 자연의 근원에 대한 인간들의 고민과 사유를 담고 있다. 본풀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며, 신앙의 대상이자 신성한 역사이다. 세상의 창조, 마을신, 가정신의 기원, 인간 이전의 세계 등 세계에 대한 근원을 찾으려 하였다. 예를 들어 <천지왕본풀이>는 세계 창조의 근원을, <삼승할망본풀이>는 생명 탄생의 근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신화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는 현존하는 세계와 우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의 기원에 관해 설명하는 신성성을 가진 이야기이다. 신화는 우주와 만물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해답을 준다. 하지만 신화를 단순하게 신들의 이야기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신화는 결국 인간을 포함한 우주와 자연의 이야기이다.

본풀이는 천지 만물의 기원과 생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신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야기 속에 신들만 존재할 것이라는 한정된 관점보다 신이 되는 과정에 주된 인물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통해 신과 인간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영원히 사는 신들만의 이야기라면,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은 내용은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문화콘텐츠의 주요 소재로 본풀이를 다룬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전해지는 규범이나 생활양식, 생활 원리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풀이는 삶과 죽음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바라보는 제주 사람들이 가치관도 반영된 무속신화의 성격도 지니기 때문이다.

무속 신화로서의 본풀이는 전설이나 민담에서 많은 소재를 구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면서 일정하게 신화적인 내용을 다시 구성하고 무속신화의 성격을 구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담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일정하게 변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점을 들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한 견해도 있다. 본풀이의 소재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⁶⁰⁾

허남춘은 본풀이의 가치에 대해 “서사무가 속에는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여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금기가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여 공동체적 삶의 문제에 접근하고, 마을 단합 등 인간 결속의 기능을 그곳에서 배우게 된다. 인간의 生老病死와 생산과 안전과 평화를 주재하는 신의 내력을 통한 묘한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신이 인간의 최선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인간은 그런 신의 심성을 닮으려는 땅에서 피어나는 자긍심일 것이다. 신화가 살아 있는 이 땅에서 인간은 서로 신의 심성을 닮은 인간을 만난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각성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⁶¹⁾”고 하였다.

본풀이에는 오래된 과학의 정신이 들어있기도 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일월 조정하는 화소가 등장하는 데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여서 인간들이 너무 덥고 추워서 살 수 없어 이를 각각 하나씩을 없애 인간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오래전부터 인간들이 경험했던 자연 현상을 본풀이 안에서는 인간의 지혜로 그려내고 있다. 오래된 인류의 기억이 남겨져 있어 인류 사회의 흔적을 본풀이가 재구성하는 힘이 있어 허남춘은 제주를 ‘신화의 首都⁶²⁾’라 칭하기도 하였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은 객관적 사실만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 사실의 이면에 들어있는 인간의 사고가 전달된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구비문학 연구자의 몫이다. ‘왜 서사 속 인물의 행위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났을까?’의 핵심은 시대상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자료보다 기록되기 전의 문화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본풀이의 주인공이 겪은 시련과 고통은 단순하게 신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련이자 고통이다. 누군가가 생명 탄생, 장수, 환생 등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목표를 이룬다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본풀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겪었던 수난의 객관적 지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삶의 무게가 구비문학 안에는 투영된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본풀이에 공감하고 본풀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얻는다.

본풀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문화원형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민족

60) 김현선 외,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0, 20쪽.

61)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0, 20쪽.

62)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9, 10쪽.

성, 그리고 세상의 이치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원형이 이전 세대에서 후속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체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풀이는 제주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마을이나 조상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는 뜻에서 본풀이는 구비로 전승되는 역사이다. 구비역사는 기억의 저장 창고의 담기에 이야기를 최적화하고 있으며, 본풀이의 유형적 성격이나 지역 유형이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령 신들의 싸움이나 혼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분화나 갈등은 이러한 유형적 면모를 확인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본풀이는 신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점에서 구비서사시이자 구비 신화의 성격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다. 심방이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상의 내력을 풀이하는 점에서 이것이 자신들의 현재 살아 있는 이야기임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구비생애사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⁶³⁾

신화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대등하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한다. 신화 속에서 인간은 자연의 혜택을 고마워한다. 그리고 자연의 심술에 좌절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인간도 그렇게 닮아 간다. 자연을 파괴하여 지구 종말을 눈앞에 두고도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현대 문명인의 그 잘난 문명(文明)과는 다르다. 거기엔 신과 인간과 만물이 함께 공존하는 신명(神明) 세상이다. 신화는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근대가 신화를 파괴하면서 무의식을 다루는 방법마저 잃게 되었다. 현대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화여야 한다.⁶⁴⁾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들은 처음부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그 대가로 신직을 얻는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서사 안에서 강조되면서 신들이 가지는 권위적인 모습보다 운명에 맞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신들의 계보와 역할을 알려주고, 신들의 상호관계와 위계질서 등이 신성성과 함께 드러난다.

본풀이에는 신의 계보나 당에 좌정한 신명이나 신의 직능 등이 나오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나 제사 절차들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신성성은 전승 집단을 하나로 묶어주고, 질서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63) 김현선, 「특별전시 '제주의 물그릇과 섬그릇' 연계 강좌-제주도의 이야기, 본풀이, 신앙」, 국립공주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5~6쪽 요약.

64)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사, 2011, 2쪽.

대부분 본풀이의 서사구조는 주인공이 태어나고, 神으로 좌정되기까지의 순차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일반신본풀이는 서사 구조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본풀이의 서사 안에는 善과 惡이 공존한다. 선과 악이 대립하기도 하고 승리한 자가 악인을 징치하기도 하지만,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자를 죽이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善이 남는 구조는 善과 惡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은 착한 존재가 남는다는 현대 사회에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한다. 善과 惡은 정도나 상황, 가치관에 따라 주관적일 수도 있다. 모든 인간은 善과 惡의 양면성을 지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善은 惡과 공존하여야 각각의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하다. 본풀이 속 주인공들은 인간이 사는 현상 세계에서 탄생한 인물이 역경을 딛고 천상과 지상을 오가는 능력을 얻고 神으로 좌정된다.

인간에게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다.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살면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고 싶은 세계가 죽음 이후의 세계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지만 인간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나 본풀이에서 죽음은 소멸의 개념이 아니라 변화의 개념이다. <차사본풀이>에서 염라대왕은 주천강 연못의 물을 마르게 했다. 이후 버무왕의 삼 형제의 뼈를 모아 놓고 다시 살려내어 부모에게 돌려보낸다. 과양생이 부부를 처형하고, 사건은 마무리된다. 그리고 김치 원님에게 강림을 데려가서 심부름시키겠다고 말한다. 김치 원님이 이를 거절하자, 강림의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다. 염라대왕이 강림의 영혼을 데리고 가자 강림은 죽었다. 인간 강림은 염라대왕에게 가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저승차사 강림으로 좌정한다.

제주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을 믿고 있었으며, 그 사고는 본풀이에 반영되었다. 삶과 죽음은 순환이 되는 것이고, 이는 서천꽃밭에 나타난다. 서천꽃밭은 神과 인간이 드나들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세 번째, 주인공은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여 자신만이 갖는 직능을 공동체 안에서 발휘한다. 개인적인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지만, 그렇게 얻은 능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 삶 속에서 발휘한다. 이것은 神의 역할이다. 공존

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고, 고난을 견뎌낸다면 희망이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긍정의 사고는 우리가 체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는 순간 긍정의 요소를 찾는다. 힘든 일상과는 잠시라도 단절된 새로운 공간을 원한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비일상적인 공간을 체험하고자 한다. 그곳에서 새로운 놀이를 원하고 놀이를 통해 흥미를 얻고자 한다.

네 번째, 개방적 결말은 미래지향적이다. 神으로 좌정되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좌정된 후에 신들이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이다. 삼승 할망은 아이를 점지하고 자청비는 인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오곡 씨앗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신으로 좌정된 주인공들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각자에게 부여 받은 신적 역할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 네 가지로 본풀이의 서사구조 특성을 정리하였다. 본풀이는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여전히 많은 본풀이가 제주 곳곳에서 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풀이는 심방(무당)을 중심으로 신과 인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신과 인간의 소통 맥락을 고려하면, 본풀이를 구연하는 주체가 심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통의 맥락이 바로 서사무가에서의 구연자인 심방이다. 심방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로 각종 제의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구전되는 서사는 이야기하는 자에 의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이 또한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심방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들의 이야기를 인간들에게 스토리텔링하는 것이다.

본풀이에서 신을 찾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신들의 초월적인 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민중들의 삶을 읽어내야 한다. 제주 사람들이 그간 삶을 이어오고 견뎌내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초점이 아니라 신이 되는 과정이 초점이어야 한다. 그 과정 안에 제주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숨겨 놓았는지 왜 그 가치는 소중한지를 밝혀내는 것이 본풀이의 신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특수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은 모두 다르다. 관장하는 범위부터 관장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 제주 사람들의 삶의 주체 의식도 함께 알 수 있다. 본풀이는 그래서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소중한 공동의 유산이기도 하다. 본풀이 서사 구조 안의 신의 역할은

인류의 신화의 뿌리를 밝힐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신화를 배우기 전에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먼저 배웠다. 우리나라가 가진 신화의 힘을 읽지 못하고 서양의 것을 먼저 배웠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신화의 원형을 서양의 것에서 찾고자 했을 것이며 그로 인한 고정관념도 생겼을 것이다. 한국의 것, 제주의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 코드를 읽지 못한 채 서양의 것을 우선했다는 점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조상신본풀이를 통해 우리 집안을 알 수 있었고 당신본풀이를 통해 우리 마을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신본풀이를 통해 태초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의문을 품었어야 한다. 절대적인 신에 대해 복종해야 한다는 관념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본풀이를 우리가 생성하게 되었으며 신에 상응하는 인간의 역할은 주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구비 문학의 유산은 현재까지도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심방이라는 전문가에서만 구술되던 본풀이는 이제 시간이 지나 일반인들에게는 신성성이 사라지고 서사구조 안의 인물의 행위 중심으로 전설화하여 전해지고 있다.

본풀이가 주는 철학은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예부터 인간에게 소중하다고 전해지는 가치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동일한 가치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2) 본풀이의 민족문화원형 가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나 민족들은 대부분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다.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하늘의 신들이거나 신과 연결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인간, 인간이면서 영웅들이다. 나라마다 신화들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신화에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신과 영웅들의 모험담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공통점은 보편성에 해당한다. 또한 그 나라와 민족의 고유성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민족문화원형은 고유성 외에도 그 집단만이 가진 역사성, 전통성, 지역성, 민족성 등의 요소를 추가로 지닌다.

문화원형의 전제 조건은 앞에서 다루었듯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이것이 집단을 넘어서 민족으로 표상화되었을 때 민족문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문화원형은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통한 주제성과 민족 구성원 사이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정체성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역적·시간적 분화가 가능한 전형성, 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담겨 있다. 인간은 민족의 문화원형이 시대별·지역별 변화로 인식하게 하고, 미래의 민족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주는 특성들이다. 이러한 개념은 문화원형의 시간과 공간, 정신적·물질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오래된 것만이 아닌 미래의 것으로 전이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⁶⁵⁾ 이러한 문화원형의 개념에 민족의 고유성이 더해지면 민족문화원형이 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우리 문화 민족문화원형 발굴사업>에서 제시한 민족문화원형의 개념은 [표1]과 같다.

구분	내용
문화적 정형성	시대적 자극과 충동을 겪으면서 외면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본성을 유지함
문화적 정체성	고대부터 현대까지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면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생태적·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생성의 힘
문화적 동질성	신화, 전설, 민담, 언어, 노래, 예술, 문학 작품 등에서 드러나거나 놀이, 의례, 말, 풍속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행동유형

[표1] 민족문화원형의 특성⁶⁶⁾

조셉 캠벨은 신화와 의례는 마음을 몸에도 조화시키는 수단이며 자연이 가르치는 삶을 자연에 조화시키는 수단⁶⁷⁾이라고 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자연을 벗어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곳곳의 많은 환경 파괴 문제로 몸소 체험하였다. 자연과 인간 공존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해답들은 우리는 결국 신화를 통해 얻었다.

그래서 본풀이는 제주 사람들의 예부터 전해지는 삶의 반영이다. 본풀이의 구조와 인물의 형상화와 가치관 등을 통해 제주 사람은 다양한 현상들을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는 것들이 본풀이 인물들의 행위로 드러난다.

본풀이에는 옛사람들의 시간을 사유하고 그 개념을 인식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65) 김교빈, 앞의 논문, 47~49쪽.

6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편집부, 『2004 문화원형 콘텐츠총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16~21쪽.

67) 조셉 캠벨, 이윤기 번역, 『신화의 힘』, 21세기 북스, 2020.

시간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 자연의 변화를 보고 그것이 일어난 원인을 사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시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었으나 인간이 이것을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사계절의 변화를 근거로 깨달았다. 계절의 변화로 우리는 시간의 움직임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삶의 방식을 점차 갖추었다.

심방이라는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를 통해 제주 사람들은 신에게 소원을 빈다. 심방이 있고 당이 있는 제주의 본풀이는 굿과 함께 신성성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본풀이의 신성성은 심방들에 의해 구전되어 오고 있는 이야기 안에 있다.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탄생은 누가 결정하고 해와 달은 왜 두 개였는지, 인간이 죽으면 가는 세상은 어떠한지보다 근원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의 잔인하고 파괴적인 요소 대신 윤리적인 효 사상이 담겨 있고 공존과 공유의 성격도 띠고 있다.

본풀이 속 주제는 태초의 세계 형성의 기원, 자연의 형성 과정, 인간의 탄생, 고난과 역경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 인간의 신으로의 좌정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풀이는 우리에게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준다. 본풀이는 우리의 내면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과 욕망에 말을 건네기도 한다. 신과 대응하는 관계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한계를 이겨내는 방법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특히, 세상의 가치에 대한 통찰을 통해 현실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본풀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미학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제주의 질서와 제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문화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소멸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사유 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다. 갈등에서 승리한 대상은 문화로 남아 전해졌을 것이고 패배한 대상은 소멸하였을 것이다. 본풀이는 단지 신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역사이며 삶의 기록이다. 본풀이 속 이야기는 상상력이 가미된 초월적인 서사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반영되어 오랜 시간 동안 전승되고 있는 제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기에 이를 통한 신화적인 상상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대에 와서도 본풀이가 민족문화원형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치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 본풀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 구전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는 인류가 누렸던 생로병사와 출생에 대한 기쁨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던 노력 등 삶의 다양한 모습이 오롯이 녹아 있다. 원형은 구전으로 끝없는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작을 끌어내는 힘도 가지고 있다. 이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삶이 모여 집단의 의식이 되고 그 의식은 본풀이의 주제가 된다. 주제들은 다양한 콘텐츠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과거에서 머무는 서사가 아닌 현재의 의미가 부여된 서사여야 한다. 그래야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현대의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본풀이를 매개로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정립할 수 있다. 제주문화의 독자성을 한국문화의 보편성으로 확장하고, 한국문화의 독자성을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과 대비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가 두루 지녔던 문화인데 우리에게만 남아있고 저들에게는 사라진 문화현상을 파악하여 그것을 동아시아의 보편성으로 만들어 가도, 더 나아가 세계적 보편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한류 문화 보급 전파 과정일 것이다. 제주문화는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가능케 하고, 한국문화가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는 세계 신화에 대응하는 풍부한 신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⁶⁸⁾

3) 서천꽃밭의 의미

본풀이의 서사 속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장 큰 특성은 신과 인간을 구분 짓는 초월성이다. 인간과 같은 思惟를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다르다. 서천꽃밭에는 신성성을 근간으로 하는 초월성과 인간의 사유 구조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에 모두 얽혀있는 곳이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타계(他界)한다는 표현을 한다. 이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또 다른 세상은 극락 세상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 극락 세상을 서쪽에 있는 서방정토(西方淨土) 또는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이라고 보았을 때 여기서 '서천'의 의미가 서천꽃밭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정토는 불

68)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서, 2011, 28쪽.

교 용어로 아미타불이 상주한다는 이상 세계를 의미하며 인도 사람들이 방위와 시간을 일치시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도 사람들은 동쪽으로 서서 앞쪽을 과거로, 뒤쪽을 미래라고 한다. 동쪽과 대비되는 서쪽이 죽어서 가는 내세이며, 그곳은 서방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천서역국은 인도의 옛 이름이라고 사전에 명명되어 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서방에 있는 극락을 물리적인 공간의 거리로 보지 않고 마음속의 십악(十惡)⁶⁹과 팔사(八邪)⁷⁰를 버리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여겼다. 극락왕생을 하려는 방법은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염불하면 되는데 이 염불이 무아삼매(無我三昧)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본다면 극락은 현실의 사바세계와 공간적 거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르는 말인 사바세계(娑婆世界)와의 거리를 ‘기천만 기십만’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한역의 <아미타경>에서는 십만 억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 상용된 최대의 숫자가 억이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세속적인 현실과 단절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0만 8000 국토를 지나야 극락세계에 이른다는 설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⁷¹

서천꽃밭이라는 개념이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서천서역국이라는 불교와 연관성에서 보면 부처가 서천꽃밭을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또한,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생불왕 삼승할망이 꽃밭에서 아기를 점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의견에 무게를 두고 서천꽃밭의 의미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천꽃밭은 생명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는 것은 ‘탄생꽃(생불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등장하는 삿살이꽃과 숨살이꽃, 오장육부만들꽃처럼 생명을 살리는 꽃을 통해서도 서천꽃밭과 생명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꽃이 생

69) 십악은 그 행위가 구현되는 영역, 즉 몸[身]·입[口]·마음[意]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귀속된다. 첫째, 몸으로 짓는 악한 행위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생(殺生),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투도(偷盜), 부적절한 성교인 사음(邪淫)을 포함한다. 둘째, 입으로 짓는 악한 행위는 거짓말을 하는 망어(妄語),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양설(兩舌), 저주를 퍼붓는 악구(惡口), 무의미한 잡설을 지껄이는 기어(綺語)를 포함한다. 셋째, 마음으로 짓는 악한 행위는 탐욕[貪], 분노[瞋], 무지[癡] 또는 사견(邪見)을 포함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참조.

70) 여덟 가지 그릇된 길, 곧 팔정도(八正道)의 반대. 사견(邪見)·사사(邪思)·사어(邪語)·사업(邪業)·사명(邪命)·사정진(邪精進)·사념(邪念)·사정(邪定).- 광철환, 『시공 불교사전』, 2003. 참조.

7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참조.

명을 상징하는 것은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식물이 성장 원리와 환경에 대한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것과 꽃피우기 내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① 하룻날에천보살이말하기를

팔푼이지춘화추동따뜻한
극락땅이잇소이다말을 하니
삼신할망이모든보살거느리고
아요산청룡산응천금신산대산가운데
극락지르랏고보니극락지문명하야
칭모람람그는후에,숙석으로레를다그고
서천꽃밭을설시하라하되
꽃씨가없어서지부왕에의논하니
옥황에잇다하야,옥황으로꽃씨를어더서

- 『조선무속의 연구(상)』,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 박봉춘本.

② 일년이못되어,옥황에서편지가왔는데

김진국생어원을꽃감관을하라하니
김생원이서천꽃밭으로꽃감관으로갈때에

- 『조선무속의 연구(상)』, <이공본풀이>, 박봉춘本.

③ “너이덜 얼굴 보건디는 어느 누게 구별힐 수 엇어지고, 생불(生佛) 환생(還生) 주는 디도 어느 누게 구별힐 수 엇어진다. 천제왕을 부르라, 벽제왕을 부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여주건 서천서약국(西天西域國) 제모살왓디 꽃씨(花種) 다 방울을 싱경 꽃번성(花繁盛)흐는 대로 생불왕을 구별히리라.”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할망본풀이>, 안사인本.

④ 옥황상제 대명왕의

분부를 맡으고
서천고장밭에 올라스고
고장씨를 타단에

할망 앞에는
옥새창을 들렸수다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할망본>, 김해옥本.

⑤ 저싱선 ㉠서천꽃밭 꽃감관질로 오랜 현 가게 되는데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이공본>, 조흥대本.

⑥ 서천꽃밭 꽃을 타당 정이어신 정수남일 살려내져,
즈침빈 남즈 입성으로 골아입고 물을 타고
서천꽃밭데레 들려간다.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세경본>, 이달춘本.

⑦ 너희들 경 말앙 서천꽃밭디 가건, 꽃씨 타당
흔 방울씩 주크메 이거, 은수반(銀小盤)에 싱경

- <동이용궁할망본풀이>, 이용옥本.

⑧ 서천꽃밭~, 꽃감관(花監官) 꽃생인(花聖人)으로 살레 오랜 편지 서신이 오난,
그걸 원광아미 신디 골으난

- <이공본풀이>, 이용옥本.

⑨ 할마님은 ㉠서천꽃밭을 베실을 헤연 “아이고, 이 꽃은 그냥 놔두민 어땡허느니, 꽃
감관 꽃성인이나 마련을 헤살 걸”

- <이공본풀이>, 양창보本.

본풀이 채록 자료에는 서천꽃밭이 대부분 서천꽃밭⁷²⁾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72) 고순안본, 서순실본, 양창보본, 이용복본에도 모두 ‘서천꽃밭’으로 채록되어 있다.

‘꽃밭’을 제주 방언인 ‘꽃밭’으로 표기한 것이다. 안사인본(③번 자료)에는 ‘서천서약국(西天西域國) 계모살앗디’라고 하여 서천서약국의 모래밭이라는 서천꽃밭 장소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김해옥본(④번 자료)에는 ‘서천고장밭’이라고 채록되어 있는데 이는 ‘꽃밭’의 제주 방언이 ‘고장밭’이기 때문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서천꽃밭의 표기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채록자료	본풀이	구연자	표기양상	비고
①	조선무속의 연구(상)	명진국생불할망본পুর이	박봉춘	서천꽃밭	
②	조선무속의 연구(상)	이공본পুর이	박봉춘	서천꽃밭	
③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할망본풀이	안사인	서천서약국 계모살앗디	
④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할망본	김해옥	서천고장밭	
⑤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이공본	조흥대	서천꽃밭	
⑥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세경본	이달춘	서천꽃밭 서천꽃밭	혼용
⑦	이용옥십방본풀이	동이용궁할망본풀이	이용옥	서천꽃밭	
⑧	이용옥십방본풀이	이공본풀이	이용옥	서천꽃밭	
⑨	양창보십방본풀이	이공본풀이	양창보	서천꽃밭	

[표2] 본풀이 채록 자료의 서천꽃밭 표기 양상

표기 양상에 관계없이 서천꽃밭을 꽃감관이 관리하는 것은 동일하게 보인다. 15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이 꽃을 키우고 여전히 우리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삶의 위로, 서천꽃밭은 인간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상 본풀이 채록본의 서천꽃밭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저승의 세계를 극락과 지옥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 서천꽃밭은 인간이 사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지만 희망이 있고 꽃처럼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꽃들이 모여 있는 곳의 추상적, 은유적으로 표현한 곳임을 알 수 있다.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며 억울한 죽음 이후에는 환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간은 그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 본풀이의 서사 속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서천꽃밭은 인간과 신의 공유 공간이면서 현실계와는 다른 善과 신성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신화 속의 현실계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속된 공간이다. 그러나 꽃밭은 선택된 사람만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도달할 수 있는 聖의 공간이다. 신화 속의 인물들이 노정기에서 겪는 온갖 수난은 신성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화의식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⁷³⁾

농경사회에서는 씨앗이 곡식이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은 농경사회에서 인간의 생명 체계를 식물 체계에서 유추했고, 이러한 생명에 대한 사고관이 반영된 신화적인 공간이 서천꽃밭이다. 그렇다면 서천꽃밭의 위치는 어디였는지 채록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⑩ 즈침빈 부엉새 아전 알(下)엿 밭을 황세곤간 서천꽃밭디 부엉새 데쳐두고 명암(名衡) 흔 장을 드렸더니 황세곤간이 아 나오란 보고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세경본풀이>, 안사인本.

⑪ 즈침비가 이 밭을 듣고 알엿 널 서천꽃밭 수레멜망악심꽃을 거꺼아전 천제국(天子國) 나라에 들어간 보니,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세경본풀이>, 안사인本.

⑬ 곽새양반 들러타고

서천꽃밭 올라가서

말그를 꽃,

오장육부 그릴 꽃

웃임웃일 꽃, 먼 타다가

용지소에 느려오고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문전본>, 박남하本.

73) 김창일, 앞의 논문, 194쪽.

⑭ 곽새가나라가다가/ 천금대우, 소고기포육/

열두포육을떠서, 내 등에타안즈면 / 서천꽃밭다가서

도환생꽃을구하여울소잇다하니/적은동생이포육을뜨고곽새등에타니

하는말이,갈때여섯,울때여섯

내가올때마다포육하낫식입에너어드라

그리하면갓다올수잇다하야

서천꽃밭다가서도환생꽃을구하고 / 도리와서

- 『조선무속의 연구(상)』 - <문전본푸리>, 박봉춘本.

⑮ [말] “설운 성님네야 빼 츠근츠근, 놓앙 잇입서. [소리]어머님 환싱긱, 헤여근 보
오리다.”

“결랑 기영 하자.”

간~서천꽃밭다

가난 보난 발에 발명이 난다. 곽새를 둘러나 타고

- <문전본풀이>, 고순안本.

⑩, ⑪번 자료에는 서천꽃밭이 아랫마을, 아랫녘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승, 인간 세상일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⑬ ~ ⑮번 자료에 보면 서천꽃밭은 곽새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곽새(곽세)는 두견과의 새이지만 훨씬 큰 새이다. 큰 새를 타고 날아갈 만큼 멀리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허남춘은 서천꽃밭을 “우주 자연과 인간의 중간쯤이다. 제3의 공간이다. 강을 건너면 되기도 하고, 수평적 ‘저기’일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의 중간일 수도 있다. 서천꽃밭은 기독교의 연옥⁷⁴⁾과 같은 천당과 지옥의 중간인 제3의 처소와 닮은 듯하다. 서천꽃밭은 죽은 자가 임시 머무르는 중간적 공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 환생꽃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였다.⁷⁵⁾

본풀이에 나타나는 ‘서천꽃밭’은 제주 사람들의 꽃에 대한 인식이 담긴 곳이다.

74) 연옥(煉獄)은 가톨릭 교리상의 개념으로, 지옥의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닌 죄인이 천국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겪는 정화(Purgatorium)를 말하며 독일어에서는 연옥을 Fegefeuer, 곧 정화(Fege)의 불꽃(Feur)이라 하는데, 이는 연옥이 정화의 단계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 한자어 연옥(煉獄)은 단어 자체가 ‘장소’의 의미를 지닌다.

75) ‘제주 신화 속 꽃의 의미를 찾아’ 서귀포시문화조성사업 세미나 자료 참조(2017.12.15-16).

본풀이에서 꽃은 심방과 신, 인간과 신의 관계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데 꽃은 주화(呪花)로 의례에 사용되었다. 꽃이 모여 있는 서천꽃밭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게 하고,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판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서천꽃밭에 관한 상상의 판타지는 콘텐츠를 무한하게 확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서천꽃밭이라는 장소가 본풀이에 등장하는 이유는 인간이 죽음을 절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기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서천꽃밭은 문화콘텐츠로써 활용 가치가 풍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신성함과 범속함이 넘나들고 탄생과 죽음이 가능한 곳, 서천꽃밭의 수많은 꽃은 인간이 욕망이 모여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꽃들은 인간의 생과 死가 어우러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화(呪花)이다. 신이 가진 능력과 함께 이러한 주화들은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의 힘으로 풀지 못한 현상들을 때론 신화가 대신 해결해 주는 일도 있다. 과학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는 단절성을 극복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화적인 설명보다 과학적인 설명이 자리를 대신한 예도 있지만 반대로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도 많다. 신화의 역할은 인간 세상에 포괄적인 영역에 개입하여 인간들의 호기심을 과학 대신 충족하여 준다. 제주의 신화인 본풀이는 인간의 삶과 더불어 면면히 맥을 이어오고 있는 문화유산이며 인간과 신, 우주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그 사이에 서천꽃밭이 있다. 인간의 삶과 더불어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천꽃밭은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

문화원형을 “과거의 것에 머물지 않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유하는 의미체계가 담겨 있다.”⁷⁶⁾고 한다면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도 문화원형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문화원형은 일반적으로 민족문화를 말한다.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역사적으로 공통적인 심리 경험을 전제한다. 또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물이 구체화된 보편적인 표상이자 결과물로서 민족문화를 말한다. 민족문화에는 문화원형의 고유성이자 보편성으로 공간, 시간, 문화 주체, 사상, 예술, 생활, 기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⁷⁷⁾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이라는 대상에 민족문화원형의 특성을 적용해 보

76) 한교경, 『문화원형이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2013, 45쪽.

77)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9쪽.

자.

첫째,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심방이 구성하였지만, 서천꽃밭의 가진 본성을 유지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둘째, 제주라는 지역적·역사적 특성들이 생성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서천꽃밭이 본풀이라는 서사 속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행동유형의 동질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서천꽃밭을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려면 대중과의 소통의 가치에 중점으로 두고 민족문화원형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3. 문화콘텐츠 개념과 가치

1) 문화콘텐츠의 개념

문화콘텐츠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은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⁷⁸⁾이라고 정의한다. 심상민⁷⁹⁾은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 예술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문화산업’이라고 한다면 놀이와 감상의 성격을 강화한 것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그 가운데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고 매체 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문화콘텐츠’라고 하였다.

현대 사회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대상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못지않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무형의 결과물은 복합적으로 하나로 구성하게 되었고 개인 미디어로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김평수·윤홍근·장규수⁸⁰⁾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평수는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문화콘텐츠라 세분화하여 정의하기

78) 한국행정연구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2007, 161쪽.

79) 심상민, 『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2002, 19쪽.

80) 평수·윤홍근·장규수, 『문화콘텐츠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도 하였다. 백승국⁸¹⁾은 ‘문화 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될 수 있는 재화’라고 하였다. 또한, 박장순⁸²⁾은 문화콘텐츠의 정신적인 교감을 중요시하여 ‘주체와 객체를 구성 요소로 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간에 이어지는 끊임없는 내적 교감이 객체의 감정 변화를 유발시켜 정신적 고양과 해방감, 카타르시스를 얻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정경일과 류철호⁸³⁾는 문화콘텐츠를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두고,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내용으로 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문화상품’이라고 하였다. 이명현⁸⁴⁾은 문화콘텐츠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라고 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기원에 대한 단초는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⁸⁵⁾에서 찾을 수 있다. 캠벨(J. Campbell)에 따르면, 스토리의 초기 형태는 신화이다. 신화적인 스토리는 심오한 심리적 토대를 포함하고 있고, 축제의 종교의식은 참가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그 경험이 강렬했다. 사람들은 악기 연주와 춤, 노래를 즐기고, 디오니소스에게 ‘디티람브(dithyrambs)’라는 합창곡을 바쳤다. 이 합창곡은 그리스 고전시대의 비극, 희극으로 진화하였다.⁸⁶⁾

유제상⁸⁷⁾은 문화콘텐츠의 특징을 규정하면서 콘텐츠는 내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

81)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4, 20쪽.

82) 박장순, 『문화콘텐츠 해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83) 정경일·류철호, 『지역문화와 문화콘텐츠』, 글누림, 2017, 40쪽.

84) 이명현, 『고전서사와 문화콘텐츠』, 경진출판, 2017, 20쪽.

85) 그리스·로마 종교에서 풍작과 식물의 성장을 담당하는 자연신으로 특히 술과 황홀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제우스와 세멜레의 아들로 자연의 생성력 및 포도, 포도주를 다스린다고 한다. 디오니소스는 기원전 8세기를 전후로 고대 그리스 신화가 틀이 잡히면서 널리 알려지고, 디오니소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신화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디오니소스란 이름은 '니사의 제우스'란 뜻이다. 또한 그에게는 폴리노고스(거둬 태어난 자)라는 별명도 있다. 그 외에도 그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브로미오스(거칠고 소란스러운 자), 리아에우스(시름을 덜어주는 자), 니세우스(니사에서 자라난 자), 티오네오스(티오네, 즉 세멜레의 아들), 레아에우스(포도나무를 심은 자), 니텔리우스(밤에 얼굴을 붉히는 자), 이아쿠스(부르짖는 자), 에우한(부르짖는 자), 트리코노스(세 번 태어난 자), 자그레우스(영혼의 사냥꾼), 마이노미노스(광기를 불어넣는 자), 오르토스(일으켜 세우는 자), 벵락의 아들, 두 어머니의 아들, 엘레우시스의 아버지 등으로도 불린다. - 아침나무, 『세계의 신화』, 삼양미디어, 2009. 참조.

86) 송한샘, 「문화콘텐츠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작학적 관점에서」, 『한국극예술연구』 59호, 한국극예술학회, 2018, 155-156쪽(캐롤린 핸들러 밀러, 변민주 외 역, 『디지털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4-8쪽. 재인용)

으나 인위성이 중요시되지 않는다고 한 데 반해 문화콘텐츠는 정신문화를 중시하며 인위적인 특징을 반영한다고 하며 ‘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콘텐츠와 문화콘텐츠의 차이는 [표2] 와 같다.

구분	정의	특징
콘텐츠	유·무형의 내용물 전반	내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인위성이 중시되지 않는
문화콘텐츠	콘텐츠 중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 것	정신문화를 중시하며, 인위적인 특징을 반영함

[표3]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비교⁸⁸⁾

문화콘텐츠란 대중 소비의 산물로 대중의 유희적 소비 욕구에 맞춰 문화 혹은 문화원형을 원천소스로 하여 기획 생산된 창조적 내용물, 특히 다양한 미디어에 담기는 문화적 내용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주요 문화콘텐츠로는 문학,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 축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소비문화의 중심 기반을 이루고 있는 콘텐츠들이다.⁸⁹⁾

종합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문화콘텐츠’는 ‘문화’와 ‘콘텐츠’가 결합한 용어이다.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삶과 결부된 것을 일컫는데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물질적·지적·정서적 특징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콘텐츠’는 유형과 무형을 포함하는 내용물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 연극, 음악, 미술, 광고, 출판,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문화 행위의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풀이의 문화콘텐츠 가치

본풀이에는 대중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다. 대중성이 더 강조되기 위해서는 본풀이에 나타난 통합적인 세계를 정리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창작될 수 있는 환경

87) 유제상, 『문화콘텐츠학 강의』, 컨텐츠하우스, 2017.

88) 유제상, 위의 책,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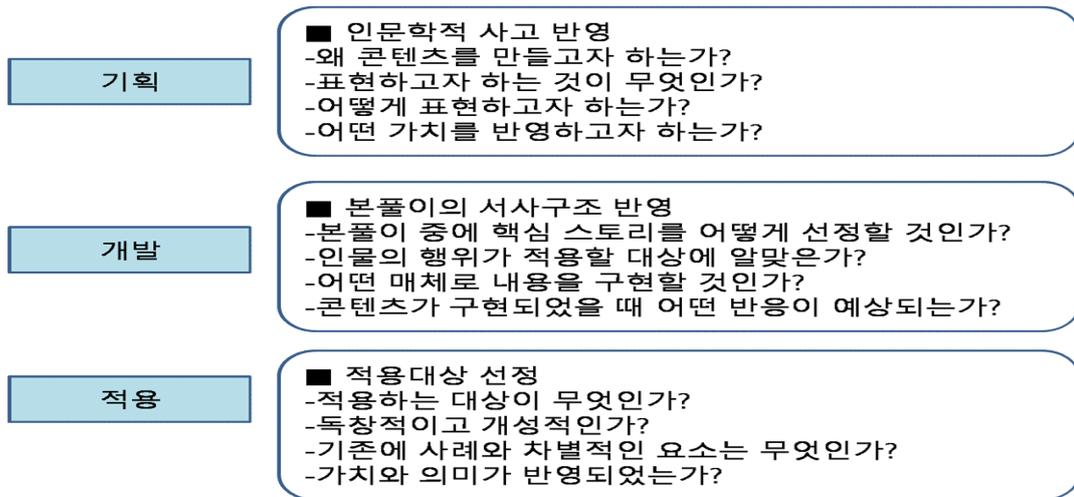
89)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집, 인문콘텐츠학회, 2009, 236쪽.

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란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의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거나 드높인 것으로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계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한다.’⁹⁰⁾고 하였을 때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경제적 측면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를 어떻게 현재화하여 그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주의 본풀이의 현대적 활용이 나아가야 할 연관 관계로 본풀이의 주요 공간 중에서 중첩되는 공간을 뽑아내어 정리한 후 왜 중첩되는 공간이 나타나는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한다. 이는 본풀이에 등장하는 특정 공간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구전되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1] 본풀이의 문화콘텐츠 제작 과정

문화콘텐츠의 형상화는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소통은 문화콘텐츠 전제가 되는 지점으로 사적인 소통이 아닌 ‘공적인 소통을 위한 형상화’라는 점이 문화콘텐츠가 가진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90) 윤찬중, 「한국문화원형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4쪽.

문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바 있다. 때문에 하나의 사회, 문화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소통’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인간의 소통은 경제와 정치를 중심으로 이해됐다. 중앙집중형, 일대다수, 상부와 하부구조, 사회와 개인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소통은 문화를 인식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근대적인 다양한 실체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소통’과 ‘문화’를 인식하게 됐다.⁹¹⁾

한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은 다양한 형태로 일상 문화 속에 수용되거나 이야기를 통해 상징화되어 표현된다.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오거나 기록된 스토리 자원은 그 자체로 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의 원천이다.

오늘날의 의미에서 과거의 것을 다시 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은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하며 공감하고 즐기는 것이다. 옛것을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생성하는 작업은 ‘가치’ 있는 이야기를 ‘체험’을 통해 어떻게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흥미롭고 의미 있게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신화인 본풀이는 이야기와 노래와 놀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대화로 풀어내려는 의지를 기본적으로 바탕에 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스토리텔링의 출발이며 다양한 본풀이들이 오늘날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⁹²⁾, 『반지의 제왕』⁹³⁾은 신화의 구조나 소재를 활용하여 콘텐츠로 활용한 우수한 사례이다. 이 콘텐츠들은 신화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흥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언급한 민족문화원형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전환할 때의 전제는 ‘현재성⁹⁴⁾’이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에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91) 김수영, 「문화콘텐츠 유형 분류의 전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통권 제7집,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4, 30쪽.

92) 영국의 작가 롤링(Rowling, J. K.)이 1997년부터 발표한 판타지 소설 시리즈이다. 제1권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시작하여, 2007년 제7권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을 끝으로 완결되었다. 전 세계에 수억 부가 팔렸으며, 영화로도 총 8편으로 제작되었다.

93) 영국의 작가 톨킨의 동명 소설을 피터 잭슨 감독이 제작한 영화이다. 제1부 『반지 원정대』(2001)와 제2부 『두 개의 탑』(2002), 제3부 『왕의 귀환』(2003)으로 제작되었다. 세계를 멸망시킬 힘을 지닌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원정대의 모험을 장대한 스케일과 판타지로 묘사한 영화이다.

94) 현재성은 사전적 의미로 ‘지금 이 자리 혹은 이 시대에 실재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문화자원을 활용할 때 현재성이란 ‘지금 현대인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한 측면이다. 이는 문화자원이 과거에서 머물지 않고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풀이를 현재 의미에서 전환한다는 것은 개념적 이해나 이론적 규명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다. 실천으로써 전환은 전환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 원천콘텐츠와 거점콘텐츠의 장르별 변별적 특성, 전환의 전제 순서 및 범위, 기대 효과, 다른 기호체계 및 향유 요소들의 전이 과정, 전환 단계별 전략, 주제의 기대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란 대중 소비의 산물로 대중의 유희적 소비 욕구에 맞춰 문화 혹은 문화원형을 원천소스로 하여 기획 생산된 창조적 내용물, 특히 다양한 미디어에 담기는 문화적 내용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주요 문화콘텐츠로는 문학,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 축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소비문화의 중심 기반을 이루고 있는 콘텐츠들이다.⁹⁵⁾

어떤 대상이든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원 소스(One Source Multi Use)를 재창작하는 일이다. 2차원적인 시청각적인 평면, 3차원적인 공간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원 소스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원형이 손실되지 않는 문화콘텐츠 활용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본풀이는 형태적으로 단순한 주문 형태에서부터 예술적인 구성을 이룬 설화형까지 다양하게 전해오고 있다. 현존하는 문화사상은 근원적인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부단히 진화하고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기본적인 구전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분화되지 않은 것에서 분화된 것으로, 동질적인 것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임재해⁹⁶⁾는 문화콘텐츠의 핵심은 디지털 미디어와 결합하여 있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이야기 개념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매체 속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운용된다. 미디어 이용자들을 정서적으로 끌어들이는 이야기라며 문화콘텐츠의 핵심을 스토리텔링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제주의 무속 신앙 체계 안에서 전해진 본풀이는 우리나라 신화의 근원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웅이 등장하는 서사 구조가 유지되는 고대의 건국 신화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더불어 제주의 본풀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연행되고 있는 굿이라는 의례 안에서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95)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집, 인문콘텐츠학회, 2009, 236쪽.

96) 임재해, 「삼국유사(三國遺事) 설화 자료의 문화콘텐츠화 길 찾기」,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다. 어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공동체의 이야기이며 제주 사람들의 공유하는 문화이자 삶이다. 생활문화의 측면으로서의 접근은 본풀이의 현대적인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현재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풀이의 현대적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

정경일과 유철호⁹⁷⁾는 문화콘텐츠로 민속을 활용할 경우 가치를 발굴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 순서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본풀이에 적용하면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의 발굴은 기존에 몰가치한 대상을 새로운 가치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익숙하게 보아오던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대상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둘째, 가치의 재인식은 기존 본풀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통하여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본풀이의 가치를 새로운 의미체계로 재해석하는 것은 말하는 데 재해석의 과정으로 거치면 본풀이가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가치의 극대화란 통합적 인식체계로 본풀이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하나의 본풀이의 가치를 역사, 문학, 기술, 과학, 음악, 공예,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석할 경우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넷째, 가치의 융합이란 본풀이의 가치를 다른 가치 체계와 결합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본풀이와 서사, 본풀이와 인간, 본풀이와 본풀이, 본풀이와 매체, 본풀이와 장르, 본풀이 문화의 교류를 통한 가치의 확장이다.

문화콘텐츠의 창작 과정은 이전의 다루었던 예술작품, 문화상품 등과는 달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희곡이나 소설에서는 서사적 구조만 고려하면 되지만,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서사적 구조 외에 이미지와 동작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게임에서는 시나리오, 이미지, 동작, 인터랙티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 예술작품의 장르로 볼 수 있는 문학, 음악, 미술이 융합된 것이다.⁹⁸⁾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 전략을 설연수⁹⁹⁾는 [표4] 와 같이 제안하였다.

97) 정경일·유철호, 『지역문화와 문화콘텐츠』, 글누림, 2017, 96~97쪽.

98) 김수영, 「문화콘텐츠 유형 분류의 전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통권 제7집,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4, 36쪽.

99) 설연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 연구-문화자원의 활용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5쪽.

추진전략	세부 실행방안
문화자원 활용 기반 구축	① 지역 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② 지역형 스토리텔링 발굴 및 스토리자원의 창조적 활용
소비자 지향 문화콘텐츠 개발	③ 지역 정보를 활용한 생활 콘텐츠 개발 ④ 지역적 가치의 대중적 변용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공간 자원의 브랜드 가치 확대	⑤ EIP100) 발굴을 통한 브랜드형 문화콘텐츠 개발 ⑥ 문화자원과 지역 공간의 연계성 강화

[표4]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 전략

본풀이라는 제주의 문화자원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변형 과정을 통해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단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러 단계를 걸쳐 활용된 문화콘텐츠들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따라 추진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풀이의 지역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잘 발굴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풀이의 서사구조 안에서 가장 제주다운 것이 무엇이며, 다른 지역의 본풀이와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널리 알려진 일반신본풀이도 있지만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특수 본풀이 등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소재들이 풍부하여 문화콘텐츠로써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 신들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도 다룰 수 있고 다양하게 접목하게 시켜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할 수도 있다. 상상력이 가득한 판타지 세계를 표현할 수도 있다.

본풀이를 우리가 문화콘텐츠로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무한한 것이고 우리 문화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00) EIP는 Exhibition/Event Identity Program의 줄임말로 전시·행사의 이미지 통합 계획안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IP는 전시·행사를 위한 주제설정과 함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그래픽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단순히 전시·행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포괄적인 경영활동으로 이해된다. 기존의 전시·행사의 홍보과정에 대부분 활용되는 EI(Event Identity)와의 차이점은 시각적 통일성 이외에 전시·행사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목적성을 내포한다는 점에 있다. - 설연수, 앞의 논문, 65쪽.

본풀이가 문화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 유의미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반해야 콘텐츠로서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가 결국 살아남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그 원천을 본풀이의 서천꽃밭에서 찾고자 한다.

제3장 본풀이의 ‘서천꽃밭’ 구현 양상과 의미

이 장에서는 서천꽃밭의 구현 양상과 의미를 점검하고자 한다. 본풀이와 굿에서 서천꽃밭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상징성과 함께 실제적 면모를 아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풀이에서 일단 꽃과 꽃밭은 단순하지 않으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구분하여 꽃의 양상과 꽃밭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본풀이에 나타난 꽃의 상징

꽃은 주로 아름다움, 화려함, 번영, 영화로움 등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아름다운 여자나, 좋은 일, 영화로운 일에 비유한다. 꽃은 우리가 늘 가까이하는 대상이다. 사랑과 비극을 담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꽃은 문학 작품에 다양한 상징으로도 등장한다.

꽃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색상에 따라 빨간색 꽃은 열정과 활력을, 흰색 꽃은 순결함과 고귀함을, 노란색 꽃은 신비와 따뜻함, 파란색 꽃은 안정과 부드러움 등을 상징한다. 꽃이 가지는 상징성 외에도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향기를 주어 오래전부터 사랑받던 대상이다.

15세기 서양에서 꽃은 주로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됐다. 꽃을 그린 그림은 물론 꽃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작품도 만들어졌다. 중세 이후 꽃은 종교적인 의미도 부여되었다.

꽃이 지닌 주력에 대한 믿음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으로 原古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인들이 매장 의식으로 꽃을 뿌렸다는 고고학적 증거물에 네안데르탈인과 한국의 흥수아이가 있다. 네안데르탈인¹⁰¹⁾은 이미 10만 년 전의 주검에 황토 칠을 하고 그 위에 꽃을 덮어주는 의식을 행하였고, 청원 두루봉 2호 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이¹⁰²⁾ 역시 꽃을 뿌려 매장 의식을 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졌

101) 약 10만 년 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서 제3빙하기와 제4빙하기 대부분에 걸쳐 살았으며 이들은 주검에 붉은 황토 칠을 하고 그 위에 꽃을 덮어주는 의식을 행하여, 원시적 종교 관념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한다. 시신을 방치하지 않고 매장하는 풍습과 종교적 의미를 띤 장례 의식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 중기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네안데르탈인에게 있었다는 의미이다. - 이상은·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95쪽.

102)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처음 화석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다. 이처럼 꽃을 생명의 기원으로 여기는 의식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화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재현·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⁰³⁾

불도맛이에서는 꽃과 관련된 ‘악심꽃 꺾음’, ‘꽃타러 듨’, ‘꽃놀이’ 굿놀이도 연행된다. 이러한 굿놀이를 통해 악심꽃을 제거함으로써 생명현상의 쇠퇴 요인을 없애고, 번성꽃을 이용한 생명력을 살려내며, 삶의 풍요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원을 굿놀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꽃은 그 자체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매력적인 요소를 지녔지만, 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꽃을 단순한 자연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을 통해 삶의 다양한 의미를 축약할 수도 있다. 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근원적이면서 보편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정서적인 바람을 꽃으로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다양한 의미의 ‘꽃’과 ‘꽃밭’은 옛이야기 속에도 자주 등장한다. 무속 의례에서도 꽃은 등장하는 데 대표적인 예로 서울지역의 꽃파는 거리¹⁰⁴⁾, 충남 부여 은산별신제의 꽃받기 의례¹⁰⁵⁾, 굿놀이 중 꽃타러듨과 꽃풀이¹⁰⁶⁾, 악심꽃꺾음¹⁰⁷⁾ 등이 있다.

김헌선¹⁰⁸⁾은 “꽃은 자연물이면서 문화적 창조물이다. 자연물로서 꽃은 고유한 생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석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처음 발견되었을 때 국화꽃 화석이 함께 발견되어 선사 시대 당시 장례 풍습을 유추할 수 있다.

103) 김창일, 앞의 논문, 176~177쪽.

104) ‘꽃파는 거리’란 주당 물림을 하고 난 후 부정청배를 하기 전에 전안에 꽃을 올릴 때 하는 것이었는데, 무당이 화공(花工)에게 꽃을 사는 절차와 의식이 따로 있었다. 이 때 무당은 꽃에 대한 상세한 내력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무당이 꽃에 대한 내력을 알지 못하면 환쟁이가 꽃을 팔지 않았다. 꽃을 산 무당은 네모난 생두부를 쳐가면서 “사모를 바쳐서 육모를 치고, 육모를 바쳐서 팔모가 되고, 팔모가 돼서 열모가 되고 열모를 쳐서 열두 모가 됐네.”라고 하면서 열두 모가 된 두부예다 꽃을 꺾는다. 물론 진실된 떡에도 꽃을 꺾는다. 꽃이 꺾힌 두부는 불사님 몫으로서 수명장수케 하는 신약으로 인식되었다. 이때 잘려져 나온 자투리 두부는 관객들에게 먹도록 하였다.- 이수자, 「무속의례(巫俗儀禮)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참조.

105) 은산별신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백제 부흥군의 영혼을 추모하는 향토신제인 ‘꽃받기’는 별신당에 봉안된 신의에 바칠 꽃을 옮기는 행사다. 꽃받기 꽃은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방을 설치해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다. 꽃은 별신제가 끝나면 도움을 준 사람과 마을 주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데, 꽃을 받은 사람들은 이 꽃을 방안에 꽂아 두면 복이 온다고 해 다음 별신제가 열릴 때까지 보존한다. - 출처: <http://www.kns.tv>(KNS뉴스통신, 2016.3.24.) 참조.

106) ‘꽃타러 듨’과 ‘꽃풀이’는 불도맛이에서 진행되는데 ‘꽃타러 듨’은 꽃을 따러 서천꽃밭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상징적으로 아기를 얻고자 하는 굿놀이이다. 굿에서 심방이 꽃밭에서 가꾸는 꽃을 가져와 제주(祭主)에게 가져가 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제주가 선택한 꽃을 보고 아이의 성별을 점쳐주는 것을 ‘꽃풀이’라 한다.

107) <이공본풀이>에서 악인이었던 장자를 죽인 수레말망악심꽃을 꺾어 버리기 위해 하는 굿놀이에서 변장한 무녀가 서천꽃밭으로 가서 수레말망악심꽃을 꺾는데 인간의 장수를 기원하는 놀이이다.

명을 가지고 인간과 무관하게 피고 지지만, 꽃은 인간에게 문화적 상징을 가진 원형으로 재창조되었다. 문화적 창조 중에 흥미로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장식으로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되살리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라고 하여 “장식품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시간과 공간의 길이와 부피를 더하는 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세계적 보편 현상”이라고 하였다.

꽃은 여러 본풀이에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에서 꽃은 등장한다. 다른 본풀이에서도 이와 준용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소소하게 있지만, 적어도 일반 신본풀이를 통틀어서 이러한 양상이 등장하는 것은 긴요하다. 꽃이 있어야 꽃밭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중시하면서 살펴야 한다.

이 장에서 마련한 것은 앞으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가장 선명하고도 분명한 준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실제적 본풀이에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확실한 준거를 통해서 본풀이의 실제적 양상을 점검하고 이에 입각한 원리를 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천지왕본풀이

<천지왕본풀이>에서 꽃이 인세를 차지하는 경쟁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세상의 경계를 구분하고 동시에 세상의 주인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작용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꽃을 두고 일단의 꽃 피우기 경쟁을 한다. 자신의 무릎 앞에다 꽃을 피우기를 하면서 잠을 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등장한다. 번성꽃과 검뉴울꽃으로 상징되는 번식과 궤멸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서 두 인물은 단순하게 꽃피우기 내기만을 하지 않고, 슬기와 지혜를 묻는 수수께끼를 묻고 답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결 역시 꽃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생명력을 고양하는 주술적인 원리를 묻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동산의 풀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108) 김현선·변남섭, 「구비문학에 나타는 꽃 원형-이야기와 본풀이를 예증삼아」, 『구비문학연구』 28권, 한국구비문학회, 2009, 184쪽.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점이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꽃은 번성과 소멸에 대한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수께끼와 관련된다고 하는 점에서 남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꽃이 이토록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며, 재래의 신화소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정리하면 [표5] 와 같다.

구분	서사 구조
(1)만남	하늘의 천지왕이 꿈을 꾸고 난 후 지상의 총명부인과 인연을 맺는다.
(2)악행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함께 밥을 먹는 과정에서 수명장자의 악행이 드러난다.
(3)징치	천지왕은 악인인 수명장자를 징치해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
(4)승천 (증표)	천지왕은 총명부인과 사이에 두 형제를 낳을 것이라 말하면서 박씨 두 방울을 주고 하늘로 올라간다.
(5)탄생	총명부인은 두 형제를 낳았다.
(6)부친 탐색	어느 날 형제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물어 형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나 만나지 못한다.
(7)일월 조정	이후 형제는 월일을 조정해 인간세상의 혼란을 수습한다.
(8)경쟁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수수께끼, 꽃피우기 내기를 벌이다 소별왕은 술수로 대별왕은 이기려고 하나 들킨다.
(9)좌정	대별왕은 저승을,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고 혼란스러운 이승의 법과 맑고 청량한 저승의 법이 정해진다.

[표5] <천지왕본풀이>의 서사 구조

<천지왕본풀이> 나타난 세계의 구조는 이승과 저승으로 한정된다. 이승과 저승의 성격이 구분되기 전에 하늘, 땅, 인간, 짐승들의 세계는 혼돈스러웠다. 이승과 저승,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속임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병존하게 된다. 신들 사이에 이루어진 우주적 혼란을 우주의 질서로 정리하고,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성립시키자 곧 바로 인간의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대별왕과 소별왕의 경쟁으로 이승은 인간과 짐승의 세계로 지상에 존재하고, 저승은 신과 귀신의 세계

로 하늘에 위치하게 된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경쟁의 배경에는 천지왕이 부여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김쌍돌이가 구연한 <창세가>를 본다면, 그것은 미륵과 석가의 이야기와 관련되는 신화소여서 서역에서부터 유래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석가의 속임수가 발동하여 미륵이 꽃을 훔친 것과 비교된다. 특정한 주체가 꽃을 두고 내기를 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신화소의 양상이 되기 때문이다.

활짝 번성한 꽃을 훔쳐서 이를 자신의 것과 바꿔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신화소가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이나 주권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권력은 약삭빠르고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들의 것임을 말하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권력의 속성과 주술의 번식과 소멸이라는 원리와 일정하게 맞닿아 있는 것임을 환기하게 된다. 생명을 고양하는 것과 주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 권력의 속성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리가 꽃이 등장하는 본풀이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신들 사이의 경쟁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경쟁을 다른 신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힘에 의한 대결이 아니라, 예숙쟁기(수수께끼)와 꽃 피우기 경쟁을 한다. 수수께끼의 핵심 문제는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알고 있는 생명의 신비가 아니라 모든 방향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승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경쟁에서 이러한 사실을 두고 심각한 논란을 벌인다. 생명의 신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생명의 신비를 실천하는 섭리에 대한 논란을 꽃 피우기 경쟁으로 하는데, 그것은 인식과 실천의 합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대별왕은 꽃 피우기에 성공한다. 이른 바 번성의 꽃을 피우지만, 소별왕은 ‘검뉴울꽃’을 피우게 된다. 소별왕은 곧 번성의 꽃을 훔치는 속임수로 결과적으로는 소별왕의 부정한 방법은 승리를 하였고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화에서 시련의 과정이 영웅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의 경쟁의 시련은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격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근거인 셈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꽃이 등장하는 부분

은 (8)번인데,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이승과 저승 중에 누가 이승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꽃 피우기의 내기가 등장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① 은동이에 고장을 싱건 보난

대별왕 앞인 고장은 만발하고

소별왕, 이녀 앞잇 고장은

유물 고장이 되어가는구나.

그 영혼난

밤인 부연 자는디

소별왕은 일어난 슬찌기

성 앞잇 고장을 지앞더래

등기여다놓안

물른 척 현 누언 잤수다.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천지왕본>, 이무생本.

② 서천꽃밭 도올란, 꽃시 라당

은수반(銀小盤)에, 그 꽃씨를 싱근 데, 슬口 주고 물을 주단 보난 대별왕 싱근 꽃은 시양삭삭, 줄음데 다에-.

번성꽃(繁盛花)이 돼어간다.

소별왕, 싱근 꽃은 검뉴을, 돼여가난

소별왕이, 꿩을 부러간다.

“성님아, 읍서 우리가, 즘이나 혼 즘 자기가, 허나 어찌 허오리까?”

“어서 기영 허라.”

누언, 즘을 자는 게, 대별왕은

무정눈에 짙은 즘, 들어간다 소별왕, 예시 즘 자단, 일어난, 꽃사발을 바짜간다.

- <천지왕본풀이>, 이용옥本.

③ 꽃씨 연씨 네여놓고, 꽃을 싱그난 [말] 대별왕 아피 꽃은 등성하게 피고, 소별왕 아피 꽃은 멜망이 돼어간다.

[말]영 허난 “옴서, 우리 누엡 자게.” 누엡 자는디, 밤이 성님은 누엡 코롱코롱코롱
자가난, 발딱 일어난-, 성님 아피 꽃은, 동생신에 갖다놓고, 동생 아피 잇는 꽃은, 성
아피 갖다놓고 경 허연

- <천지왕본풀이>, 양창보本.

④ “우리 설운 성니망 꽃씨나 저꾸기, 어찌하로리카에-.”

은수반에 늦수반에

꽃씨를 저꾸다. 성님 받은 꽃은, 수왕상상 번싹꽃(繁盛花)이 돼었구나.

소별왕 데별왕에 받은 꽃은, 금뉴을꽃 돼었구나. 불휘는, 가지는 웨불휘 웨가지여, 불휘
는 스만오천육백(四萬五千六百)가지로, 벌어지움데다에-

(중략)

무정눈에 즘이 든다

꽃사발을 바짜눔데다.

- <천지왕본풀이>, 고순안本.

⑤ 데별왕은 은수반에 꽃씨를 심으난, 불리는 웨불리

송에 난 디 가지는 벌으난, 동더래 서더래 남더래 북더래, 중앙더래 벌은 가지 스만오천
육백 가지

동(금방 땃기 시작한 열매)은 모자니 꽃은 피니

종지만씩 사발만씩

벌거버럭 곱게 피어, 흐 번을 보민 칠년(千年) 산 듯 흐 번을 보민, 말년(萬年)을 산 듯
이, 동청목(東靑木), 서백금(西白金), 남적화(南赤火)는 북화수(北黑水) 돼었구나.

소별왕은 꽃씨 은수반에 심으난에

불리는 웨불리

송에 난 디 가지가 웨가지로구나.

동은 모지어 꽃은 피난 검뉴을꽃 돼었구나.

“서룬 성님아 옴서 즘을 자래,”

즘을 자단 소별왕이 먼저 일어나근

성님 앞에 꽃사발, 나 압더래 바짜 놓아그네

“서룬 성님아 무신 즘을 경 잠이과.

일어남서. “ 일어난 보난에, 꽃사발이 서로 오착 바짜지었구나.

① ~ ⑤ 자료를 보면 꽃피우기 내기에서 대별왕의 꽃(고장)은 만발하고, 수왕상상, 등성하게 피어 번성꽃이 된다. 서순실本에는 꽃을 잘 피워냈다는 것을 동서남북으로 뻗을 정도로 풍성하게 꽃이 곱게 핀 것을 강조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소별왕이 피운 꽃을 유율 고장, 검뉴울꽃, 멜망꽃, 금뉴울꽃 등의 시든 꽃으로 표현한 것은 각 본마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자 소별왕은 대별왕이 자는 동안 대별왕 앞의 그릇을 자신의 것과 바꾸는데 이 행위 모든 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강진옥¹⁰⁹⁾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꽃 바꾸기는 두 신격이 발휘한 각각의 직능이 상호 교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별왕이 피운 검뉴울꽃은 시든 꽃, 즉 생명 현상의 쇠퇴를 보여준다. 대별왕이 피운 번성꽃이 풍요와 다산 즉, 생명 현상의 극성(極盛)을 보여 주는데 반해, 소별왕이 피운 검뉴울꽃은 정점에 도달한 생명 현상이 쇠퇴해가는, 생명체의 유한성을 대변한다. 그런데 소별왕은 생명 현상의 쇠퇴라는 한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꽃 바꾸기를 선택한다. 소별왕의 ‘꽃 바꾸기’는 쇠퇴해가는 생명 현상에 번성꽃으로 상징되는 충만한 생명력을 보강하는 행위이다. 신화적 상상력으로 본다면, 그 행위는 불모의 현실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우주적 갱신(更新)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¹¹⁰⁾”라고 하여 소별왕의 대별왕과 꽃을 바꾸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언급하였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의 생성이나 성립에 관한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승과 저승은 마땅히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승은 꽃이 번창하는 장소이므로 생명이 충만하고 인간의 생존 공간임을 강조한다. 이에

109) 강진옥, 「‘꽃피우기 내기’로 구현되는 창세신화의 신화적 원리와 세계관념」, 『구비문학연구』 제 5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26-27쪽.

110) 강진옥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꽃피우기 경쟁의 서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경합자	출생 순서	기득권	문제 접근방법	발현 행위	속성	태도	결과	생명 주관	
대별왕	선(형)	유	규칙준수-순리적	꽃 피우기	생명력 생산성 창조성	순리적 수용적	저승차지 저승법 맑고 엄정	근원성	창조자
소별왕	후 (아우)	무	규칙위반-파격적	꽃 바꾸기	운용 활용 경영	도전적 논리적	인세차지 이승법 혼돈	현상성	활용 및 경영자

견주어서 저승은 꽃이 이물어지는 곳이며 흔히 우리가 아는 지옥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이승과 저승의 관념을 넘어서지 못했다.¹¹¹⁾

꽃피우기 경쟁 화소는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화소이다. 다른 창세신화의 꽃피우기 경쟁 화소가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⑥ 너와나와한房에누어서,

모란싯치모랑모랑피여서,

너무럽헤올나오면내歲月이오, 너무럽헤올라오면너歲月이라.

釋迦는盜賊心事를먹고반잠자고, 미력님은찬잠을잡다.

미력님무업우에, 무란싯치피여올랏소아,

釋迦가中等사리로씩거다가, 저무렵에싯졌다

- <창세가>, 김쌍돌이本.

김쌍돌이본이 <창세가>에서 인세차지경쟁의 주체는 미륵과 석가이다. 처음에 인세차지 경쟁을 제안하는 것은 미륵이다. 미륵이 처음에 제안한 내기에 지자, 석가는 다시 내기를 제안한다. 결국 경쟁의 승리자는 석가이다. 그러나 속임수를 통해 미륵의 승리를 훔쳐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승에는 각종 악과 혼란을 빚어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세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정명수本도 내기의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속임수로 인해 부정적인 역할을 한 석가가 인세를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다.

⑦ 잠자기 내기쌍을 하여보자

미력님이 잠을 자니 미역님이 잠을 들면 눈을 뜨고 잠니다.

서가여래 잠을 자는데 꾀잠을 드러

것눈은 감고 속눈을 뜨고 미력님이 자는 것 보니

미력님의 무르페야 청년화 백년화 오색년화 피어나서

어떤 가지 슬어지고 어떤 가지 활작 피고

어떤 가지 봉오리에 매자낫데

석가여래 무르페는 서리화¹¹²⁾ 한 대 피였구나

111) 김현선, 「한국과 일본의 창조신화 비교 연구」, 『창조신화의 세계』,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02, 113쪽.

<창세가>에서 석가와 미륵의 첫 번째 대결은 금병에 금줄을 달고 은병에 은줄을 달고 줄다리를 하는 것인데 이 대결에서는 미륵이 승리했다. 두 번째는 자연 기 후 조절에 대한 대결을 하는데 미륵이 성천강을 열리기 위해 주술적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서 미륵이 승리를 했다. 이어 세 번째에서 석가와 미륵은 모란꽃 피우기가 경쟁을 한다. 석가의 농경적 면모는 모란꽃 피우기 시합에서도 확인되는데 석가가 미륵의 꽃을 훔쳐서 결국은 승리한다. 김헌선은 이를 두고 “석가의 승리는 생명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아는 경작단계의 문화적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어로, 자연, 채취의 단계에서 문화, 경작, 재배의 단계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단계의 전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석가가 평가 절하된 것은 왜일까? 그것은 신화적 주술의 권능을 지지하는 계층의 의식이 반영되었던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의 전이가 바람직하면서도 기왕의 신화적인 세계에 의존하던 쪽에서는 패배이기 때문에 이 패배를 선악의 문제로 환치한다.¹¹³⁾”고 하며 석가와 미륵의 대결은 문화적 생활의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왜 무릎에서 모란꽃을 피울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무릎은 우리의 몸에서 힘을 생성하는 힘, 활력과 강인함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식을 무릎에 앉히는 것은 부권을 의미하고, 어머니의 진정한 보살핌을 나타내기도 한다. ‘슬하’의 자식이란 단어는 친자(親子)의 확인이면서 양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에서 무릎은 남성의 권위와 여성의 생산력을 포괄하고 상징하는 셈이다. 힘을 생성하는 힘의 원천이 무릎에 있다고 인식하면 무릎에서 꽃을 피우는 행위가 이해가 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에도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되었을 것이다. 대별왕이 꽃피우기 내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소별왕은 계략을 이용해서 이승을 차지하지만 능력이 부족했기에 이승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대별왕에게 도움을 청한다. 꽃피우기를 잘한, 즉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별왕은 이승의 법도를 잡아주게 된다. 그러나 역적, 살인, 도둑, 간음 등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

112) 서리를 맞은 꽃이나 혹은 서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꽃으로 본다면, 서리화라 함은 미륵의 천년 화나 백년화에 비하여 정반대적으로 차별되는 오히려 안 좋은 꽃으로 본다.- 김창일, 앞의 논문, 84쪽.

113) 김헌선, 앞의 논문, 2002, 72쪽.

기에 이승에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이다.¹¹⁴⁾

<천지왕본풀이>에서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은 자연 현상인 베포와 인문 현상인 도업의 출현이 공존하는데, 천개 분리와 개명(開明)과 별의 탄생과 일월 조정까지가 자연현상이라면, 인간세계에 존재하는 귀신을 저승으로 보내고 인간처럼 말하는 동물과 식물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승과 저승을 구획하는 것까지는 인문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꽃피우기 내기로 의한 이승과 저승 차지 화소는 오래 전부터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인다.

꽃 피우기 내기에서 각기 발휘된, ‘피우기’와 ‘바꾸기’에는 생명현상의 ‘창조적 생산성’과 ‘생명현상의 ’운용 및 활용’이라는 양대 특징이 유추된다. 이는 제주도 무속신화에서 풍부하게 나타나는 꽃과 관련한 신화적 상징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에는 근원적 생명의 상징으로서 꽃을 피우는 존재가 나타난다. 그들은 생명현상을 주관하는 근원적인 생명력의 표상이다. 또한 제주도 무속신화에는 서천꽃밭에 가서 꽃을 가져와 생명을 되살리는 존재들도 나타난다.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은 꽃을 가져와서 그것을 활용하는 존재들이다.¹¹⁵⁾

이현정은 이를 두고 ‘꽃 피우고 차지하기 경쟁’이라고 명명하고 “<천지왕본풀이>의 ‘꽃 피우고 차지하기 경쟁’은 신격의 자질과 직능, 신격 좌정 공간의 특성, 나아가 신화를 매개로 현상을 이해하려 한 전승층의 세계관뿐 아니라, 욕구와 보상 심리 등을 총체적·적극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결국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대별왕과 같은 치세신의 내력담으로 운용된 ‘꽃 피우고 차지하기 경쟁’ 삽화는 신격 자체로부터 발현되는 신성능력이나 자질로써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완전한 교체를 결정짓는 창세신화류의 ‘꽃 피우고 차지하기 경쟁’ 삽화가 전승층의 사유 체계에 걸맞은 방향으로 운용된 결과인 셈이다.¹¹⁶⁾” 라고 하였다.

꽃은 식물의 정수로서 생명의 현상성을 표상한다. 반면, 뿌리는 식물을 유지시키는 원천으로서 생명의 근원성을 표상한다. 이를 각각의 세계 공간에 대응하면 이승과 저승은 각기 삶과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삶의 공간인 이승은 피어 있는 꽃에 비유할 수 있다. 삶은 활짝 핀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언젠가는

114) 강명혜,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온지논총』, 48, 2016, 41~42쪽.

115) 강진옥, 앞의 논문, 2018, 31-32쪽.

116) 이현정, 「‘꽃 피우고 차지하기 경쟁’ 삽화의 운용 양상과 의미-신격 위계에 따른 동아시아권 삽화의 변용에 단서하며」, 『남도민속연구』 제45집, 남도민속학회, 2022, 250쪽.

지고 마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소별왕의 검뉴울꽃은 생명의 유한성을 표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⁷⁾

<천지왕본풀이>는 여러 신화소를 통해서 창세과정의 전반적인 내력을 서술하고 대별왕과 소별왕의 등장으로 인한 인간 세상의 성립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우주 창조 의 결과를 정리하는 서사이다.

삶의 공간인 이승에 생명현상의 이면인 쇠퇴와 소멸이 내재해있는 반면, 죽음의 공간인 저승에는 불모의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근원적 생산성이 내재하는 것으로 관념된다. 이승과 저승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다. 대별왕의 번성꽃은 죽음을 거쳐 재생하는 생명현상의 극성을 표상한다. 이처럼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번성꽃과 검뉴울꽃은 서로 단절되는 현상이 아니다. 마치 식물이 꽃으로 피었다가 시들면서 열매를 맺고, 그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트는 것처럼 ‘생명현상의 순환’을 보여준다. 그렇게 죽었다가 꽃으로 피어나 열매를 맺고 또 다시 피어나는 식물의 삶과 죽음의 반복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열망을 재현한다. 이러한 식물적 상상력은 우리 무속신화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생명 원리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¹¹⁸⁾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이 심은 꽃은 활짝 핀 꽃이 되었으나, 소별왕이 심은 꽃은 시들은 꽃이 되었다. 그래서 형님이 잠든 사이에 소별왕이 대별왕의 꽃을 훔쳐서 옮겨 놓는다. 그리하여 소별왕이 승리했다. 인간세상은 태어나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많아야 하므로 자연히 번성꽃이 피어야 한다. 대별왕의 꽃이 번성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본디 소별왕은 저승을 차지하기로 했으므로 꽃이 이우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소별왕은 대별왕의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어겼다. 인간세상의 죽음과 부정은 곧바로 신의 부정한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처음에 주어진 제1대 신의 분부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사회의 질서는 그릇되게 구현된 셈이다. 결국 인간사회의 혼란은 영원히 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일치하나 인간사회의 질서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신들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다.¹¹⁹⁾

꽃피우기 경쟁보다 먼저 등장하는 내기는 지혜를 묻는 수수께끼였다. 여기서 주

117) 강진옥, 앞의 논문, 2018, 29쪽.

118)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학회, 2005, 336-338쪽.

119) 김헌선, 앞의 논문, 2002, 122쪽.

목해야 할 점은 두 개 질문의 소재가 모두 식물이라는 점에 있다. 두 개의 수수께끼를 묻고 답하는 장면¹²⁰⁾을 ‘질문-대답-반박’의 순서로 살펴보자.

⑧ **질문:** 동박남입흔무사겨울이드러도, 썩러지지아니한가

대답: 속이아니구리난아니썩러진다

반박: 그러면수리덴속구려도무사썩러지지아니함닉가

- 『조선무속의 연구(상)』, <천지왕본푸리>, 박봉춘本.

⑨ **질문:** 속이 읊은 낭기 저실이영 으름이영 섯이 삼네편까 속구린 낭기 저실이영 으름이영 섯이 삼네편까

대답: 속이 읊아사 저실이영 으름이영 섯이 산다

반문: 게난, 무사 댓작은 속이 구리여도 저실이영 으름이영 섯이 퍼렇게 돕음네편까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천지왕본>, 이무생本.

⑩ **질문:** 어떤 낭은 동지 섯 들 설한풍(雪寒風), 줄어가민 풀잎세, 프릿프릿 남아군, 잎이 아니지언 시양삭삭 종곡, 어떻 낭은 잎이 떨어지멍 녹하(綠下)가, 뻬니까?

대답: 속이 읊은 낭은 잎이 아니지고 속이 구린 낭은, 잎이 지는 법이로다

반박: 어떻허난 머구낭은 속이 읊아도, 잎이 문딱 떨어지고 왕대 죽개 즈죽대 믹디므두 구려도 썩이, 시양삭삭 고와 지움네편까?

- <천지왕본풀이>, 이용옥本.

⑪ **질문:** 어떤 낭은 동삼철 무룬허고 입(葉)이 아니 지고, 어떤 낭은, 저울 들른 입을 짚네편까

대답: 속이 팽팽음은 낭은, 입을 아니 지고, 속이 청청 구린낭은 입을 진다.

반박: 왕대 죽데 즈죽데 속이 청청 구려도 동삼철 무룬허곡 아니 진다. 속이 읊은 낭도, 저울 들어가면 입이 진다.

- <천지왕본풀이>, 양창보本.

120)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는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의 112-119쪽을 참조하면 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 이후에 구연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한다.

⑫ **질문:** 어떤 나무는 동시 셋들 설한풍, 입이 아니 떨어 지옴네까

대답: 속이 옴은 나무는 입이 아니 떨어지고 속이 곁을 나무는 입이 떨어진다.

반박: 머구낭은 텅텅 옴아도 입이 떨어집네다. 왕데 므작은 므디므디 속이, 곁어도 입이 아니 떨어, 지옴네다.

- <천지왕본풀이>, 서순실本.

첫 번째 수수께끼의 질문 내용은 ‘어떤 나무는 겨울이 되었는데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가?’이다. 이는 식물의 성장 원리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기존의 ⑧번 자료에는 속이 구려서 안 떨어진다고 했으나 최근 구연 자료인 ⑨ ~ ⑫번 자료 모두 속이 꼭 찬 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속이 빈 나무는 잎이 떨어진다고 하여 동일한 대답 구조를 보인다. 질문의 공통구조는 ‘질문-대답-반박’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반박을 하였지만 결론은 없다. 질문을 하고 대답에 대한 반박을 하였으나 대답이나 반박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수수께끼로 인간 세상인 이승을 차지할 사람을 정하지 못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절의 변화와 식물의 원리를 질문하고 대답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이어 두 번째 수수께끼의 내용도 살펴보자.

⑬ **질문:** 쏘동산에곡석은 잘아니되고 무사아래밭곡석은잘됨닉가무르니

대답: 우의혹과물이 알에 흘너오니 아래는 잘된다.

반박: 대답을 못하야서

- 『조선무속의 연구(상)』, <천지왕본풀이>, 박봉춘本.

⑭ **질문:** 짚은 굴형에가 풀이 걸게 남네까 높은 동산이가 풀이 걸게 남네까

대답: 어디, 높은 동산이 풀이 걸게 나랜 말이나 짚은 굴형에가 풀이 걸게 나지

반박: 계난, 무사 사름 머리엔 높아도 머리턱이 거멍케 나고 발등엔 꺼럭 흔점도 안났수가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천지왕본>, 이무생本

⑮ **질문:** 동산에 풀은 메(茁)가 즐르곡 굴형(구형)의 풀, 메가 지는 법입네까?

대답: 동산에 건 물, 알더레, 굴형더레 자기로, 동산에 풀은 메가 즐르곡, 굴형에 풀

메가 지는 법이로다.

반박: 우리 인간은 어찌허연, 쉬양섭섭~ 수페머리가, 지중 우이라도 머리가, 지옴네까

- <천지왕본풀이>, 이용옥本.

⑩ 질문: 어떤 밭딘 풀은 메가 좋고 어떤 밭디는 풀을 아니 나고 어떤 밭딘 풀이 남네
까?

대답: 흔 밭디라고 동산 우이는 메(苗)가 즐란, 풀이 잘 아이 나고 굴렁에는 메가 깊
으난, 풀이 잘 나고 영 현다.

반박: 사람은 머리에, 데가리에 머리는 질고, 발등에 털은 어떻허난 아니 집네까.

- <천지왕본풀이>, 양창보本.

⑪ 질문: 어떻호난 동산에 메(苗)는 즐라지고, 굴렁에 메는 높음네젠?

대답: 나 동싱아 비가 오민, 동산에~건물¹²¹⁾은 굴렁더레 네리난, 메가 즐라지고
굴렁에 메는 동산에서 건물을 먹으나, 메가 질어진덴.

반박: 우리 인간은 머리가 지중 우에라도 쉬은데 자 수페머리 김네다.

- <천지왕본풀이>, 서순실本.

두 번째 수수께끼 질문 내용은 ‘동산의 풀은 왜 짧고 구렁의 풀을 길게 나는가?’이다. 식물의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질문이다. 대답은 비가 오면 물은 아래로 흐르므로 동산보다 구렁에 있는 풀이 더 잘 자란다고 한다. 이 구조도 역시 첫 번째와 같이 ‘질문-대답-반박’ 구조이다. 심지어 대답을 하고 반박을 하지 못한 경우(⑩번 자료)도 있다. 반박을 해도 결론은 역시 나지 않는다. 반박 또한 엉뚱한 내용이다.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여 잘 자라는 이유를 대답하였는데 반박의 내용은 인간의 머리카락 문제를 언급한다. 사람의 머리는 위에 있는데 왜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는지 다시 반박한다. 질문과 대답에 대한 반박의 서로 연관성이 희박하여 보인다. 결국, 두 번의 수수께끼로도 인세차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다음 방법으로 꽃피우기 내기를 한다.

강진옥¹²²⁾은 <천지왕본풀이>에 등장하는 수수께끼를 식물적 상상력-식물의 생태

121) 거꾸로 흐르는 물.

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현상에 접근하는 사고의 다양성을 일깨우는 ‘다름’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했다.

두 개의 수수께끼는 최근 4개의 구연본 중에서 양창보본은 수수께끼 순서가 바뀌어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물어보고, 고순안本에서는 이 수수께끼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질문의 순서가 바뀌거나, 구연 시 거론되지 않는 구연본이 있다는 것은 수수께끼로 경쟁하는 하는 것이 꽃피우기 내기보다 덜 중요하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수수께끼를 두 차례나 실시하고도 인세 차지를 누가할 것이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세 번째 경쟁인 꽃피우기 내기까지 한 것이다.

꽃의 상징성과 연관 지었을 때 수수께끼의 내용이 식물의 성장 원리임을 감안한다면 인세차지 내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식물의 원리와 생명의 순환 원리를 아는 것이 적어도 인세 차지를 하는데 의미 기능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에서 꽃의 상징적인 사용은 있어도 일단 공간적인 분할에 의한 직접적인 꽃밭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승과 저승의 주권, 이승할망과 저승할망의 주권 차지를 핵심적으로 발현하면서도 공간에서 취한 꽃은 아니다. 공간의 분할과 관련되는 상징적인 대결과 주권의 경쟁에 꽃이 사용되었을 뿐이고, 공간의 시현에 이러한 꽃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과 소멸, 삶과 죽음의 변별을 위한 꽃만을 활용하고, 공간의 분할에 관여된다.

이승할망인 멩진국따님애기의 꽃을 저승할망이 뜯어가는 형국이므로 <천지왕본풀이>의 그것과 일정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번성꽃은 멩진국따님애기의 몫이고, 검누울꽃은 동해용왕따님애기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번성꽃을 일부 가지고 가는 대목에서 저승할망이 자신의 지분을 차지하는 면모를 가진다. 꽃이 주권이고 생명의 고양을 담당하는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의 고양은 다른 외부 인물에게서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점을 보여준다. 주권의 온당한 행사에 일정한 장애가 생기고 생사여탈권의 일부가 서로 작동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출생의 문제를 다룬 본풀이인 <삼승할망본풀이¹²³⁾>는 아기를 산육시키는

122) 강진욱, 앞의 논문, 2018, 22쪽.

생불신과 아이의 질병을 일으키는 저승할망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마마신 등 세 신이 등장하는데, 마마신만男神이다. 아기 산육신에 관한 본풀이인 만큼 이 본풀이에는 아이의 수태 및 출산, 그리고 잉태한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 여신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 <삼승할망본풀이>의 공통적인 서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서사 구조
(1)탄생1	동해용궁을 아버지로 하고 서해용궁을 어머니로 동해용왕따님애기가 태어나는데, 불효하기 짝이 없었다.
(2)쫓겨남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열다섯 살이 되자 인간 세상에 나아가 생불왕이 되도록 마련되어 무쇠석갑 속에 넣어서 동해바다에 버려진다.
(3)탄생2	임박사가 바다에 떠다니던 석함을 발견하고 그녀를 구출해 주자, 그녀는 오십이 넘도록 무자한 그 부부에게 생불(아기)을 준다.
(4)기원	그러나 동해용왕따님애기가 행복시키는 방법을 몰라 임박사 부인이 열두 달이 넘도록 행복하지 못하고 죽어가자 임박사가 원통하여 요령과 금바라를 올려 하늘에 상소하다.
(5)승천	하늘신이 이 사연을 알고 저승이나 인간 세상에서 생불왕으로 들어 설만한 존재를 찾아 올리라 하자 멩진국따님애기가 추천되어 하늘에 올라간다.
(6)만남	멩진국따님애기는 옥황의 시험을 통과하고 생불왕이 되어 생불 주는 법과 행복시키는 법을 배워 지상으로 내려오다가 수양버드나무 밑에서 울고 있던 동해용왕따님애기를 만난다.
(7)경쟁	두 여신은 서로 자신이 생불왕이라고 다투다가 옥황의 뜻을 묻고자 하늘에 오르는데, 옥황상제는 모래밭에 꽃씨 뿌리기 경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8)좌정	번성꽃을 피운 멩진국따님애기는 한 손에는 번성꽃을, 한쪽 손에는 환생꽃을 들고 생불신이 되고,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시든 꽃을 피워 아이들의 질병과 죽음을 맡는 저승할망이 된다.
(9)생명 점지	생불신이 된 멩진국따님애기는 지상에 내려와 하늘에서 가져온 꽃씨를 뿌려 서천꽃밭을 만들고,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점지·잉태시킨다.

[표6]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조

123) 현용준은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구조를 ‘삶-이승-육지-승리-번영’, ‘죽음-저승-바다-패배-쇠멸’이라고 2항으로 도식화하였다. -현용준,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52쪽.

<삼승할망본풀이>에는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부분은 서사구조의 (7)~(9)인데, (7)번과 (8)번은 멩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가 꽃피우기(또는 꽃씨 키우기) 내기를 통해 서천꽃밭의 생불꽃¹²⁴⁾을 키우는 내용이다. 꽃피우기 내기에서 한 손에는 번성꽃을, 한 손에는 환생꽃을 키운 멩진국따님애기는 아이의 탄생을 점지하는 이승의 삼승할망이 되었다. 삼승할망이 되어 옥황에게서 받은 씨앗으로 서천꽃밭을 만들고 인간 세상에 가서 꽃씨로 아이들을 점지한다. [(9)번 자료] 삼승할망은 자신이 점지해준 아이가 15세가 될 때까지 무탈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면에 시든 꽃을 피운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아이들의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는 저승할망이 된다.

삼승할망의 ‘삼승’의 의미를 현용준¹²⁵⁾은 순우리말 ‘삼’과 ‘승’이 합쳐진 말이라고 하고 ‘삼’은 ‘三’이 아니라 ‘생기다’의 옛말인 ‘삼기다’에서 온 말로, ‘아기를 잉태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말의 어근이라고 봤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백과에서도 역시 ‘삼신’의 어원에 대해 ‘삼줄’(탯줄) 등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삼’이 포태(胞胎)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승’은 ‘이승’과 ‘저승’의 ‘승’에서 나온 말이라고 봤다. 즉, ‘삼승’은 ‘아기를 잉태시키는 세상’, ‘아기를 점지해주고 키워주는 세상’이란 의미인 것이다. 또한 ‘할망’은 단순히 ‘할머니’라는 뜻이 아닌 ‘굿’과 같은 의례에서 존대의 의미로 신을 높여 부르는 칭호로 제주 방언이다.

김현선은 두 여신의 꽃피우기 내기를 두고 “두 여신의 각기 다른 행복의 권능으로 영토를 두고 갈등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곧 꽃 피우기를 하는 것이다. 둘은 각기 생명을 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주술적인 대결의 방식으로 설정한 셈이다. 슬기, 주술, 무공 등은 갈등하는 고대의 전형적인 영웅의 능력 시험과 관련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천지왕본풀이>의 모방이고 이 신화소를 차입하면서 변형한 것으로 이해된다.¹²⁶⁾”고 하였다. 이어 그는 “<천지왕본풀이>의 꽃피우기 경쟁은 시베리아와 동아시아 일대의 신화에 등장하는 것인데, 꽃피우기 방식을 제안하고 꽃을 훔치거나 대결의 패배에도 다른 방식으로 트릭을 써서 이긴다. 하지만 <삼승할망본풀이>의 꽃피우기 경쟁은 트릭 없이 꽃을 피우고 가꾼 결과 승리와 패

124) 생불꽃에서 ‘불’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고대에 있어 우리민족은 인간, 혹은 아기를 뜻하는 말로 ‘불’이란 말을 사용했던 적이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생불신, 생불꽃, 불도제, 원불수룩과 같은 무속언어 및 남성의 신체어인 불알이란 말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수자, 『한국문화에 나타난 ‘불’의 다층적 의미와 의의』, 『역사민속학』 10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참조.

12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56-57쪽.

126) 김현선, 「할망본풀이 생명·죽음·질병의 신 이야기」,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0, 240-241쪽.

배가 정확하게 되고, 번성꽃은 생불할망, 시든 꽃은 저승할망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차이점”¹²⁷⁾이라고 하였다.

꽃피우기 내기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창세가>에서는 다만,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 사술(邪術)으로써 승자(勝者)와 패자(敗者)가 뒤바뀌는데 반하여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그 가운데에 시합을 주관하는 상위의 신격이 끼어들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피어난 꽃은 승패만을 결정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꽃으로 삼승할망이 생불을 내리고 다니게 되는 것이다. 즉, 내기에서 피어난 꽃으로 생불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¹²⁸⁾

<삼승할망본풀이>를 구송하면서 생불신, 저승할망, 마마신을 모시고 행하는 제의는 특별히 ‘불도맛이¹²⁹⁾’라고 한다. 동해용왕따님애기가 태어났지만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러 무쇠석함에 싸여 바다에 버려졌다. 임박사는 바다에 떠다니는 석함을 발견하고 동해용왕따님애기를 구해주었고 보답으로 임박사에게 아기를 점지하여 준다. 생불왕이 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지상의 생불왕 멩진국따님애기를 만나 서로 지상의 생불왕이라며 갈등을 빚게 된다. 결국 멩진국따님애기가 경쟁에서 이겨 번성꽃을 피웠고 옥황상제의 지정을 받아 지상의 생불왕이 된다.

반면에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시든 꽃을 피워 저승할망이 된다. 지상의 생불왕이 된 멩진국따님애기는 지상에 내려와 하늘에서 가져온 꽃씨를 뿌려 서천꽃밭을 만들었고, 생불꽃을 따서 다니면서 아이들을 점지하고 잉태시킨다. 아기를 탄생시키는 꽃은 ‘생불꽃’이며 아기를 탄생시키는 신은 생불신이다. ‘생불꽃’과 ‘생불신’은 바로 ‘불’을 생기게 하는 꽃과 신이란 뜻인데, 이때의 ‘불’은 바로 ‘아기’를 뜻한다.

김헌선¹³⁰⁾은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꽃피우기는 문화적 단계를 함축한다고 해석하였다. 자연적 채취의 단계에서 농경정착의 단계로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식물의 재배는 시간의 복잡성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씨→꽃→열매라고 하는 과거→현재→미래의 단계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신화적 시간

127) 김헌선, 위의 논문, 241쪽, 참조.

128) 류호철, 앞의 논문, 86쪽.

129) ‘불도맛이’는 큰 곳 속에서도 행해지지만 아이의 잉태를 기원하거나 병이 들었을 때 또는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기원할 때 단독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여기서 ‘불’이란 ‘아이’ 또는 ‘생명’을 뜻하는 말이다. 강진옥은 불도맛이에는 [악심꽃 꺾음], [꽃타러듬], [꽃풀이]라는 세 단계의 놀이곳이 꽃의 효용과 관련하여 되는데 이 과정은 모의적인 놀이를 통해 ①생명현상의 쇠퇴(불모) 요인 제거[악심꽃꺾음]하고 ②번성꽃을 가져와서 생명력을 보강[꽃타러듬]함으로써 ③삶의 풍요를 이루고자 하는 [꽃풀이와 액막이 등] 제의적 기원을 표현하고 있다. - 강진옥, 앞의 논문, 2015, 25-26쪽.

130)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67-168쪽..

이 미분화성에서 분리된 시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강진옥¹³¹⁾은 서천꽃밭의 꽃을 관장하는 역할을 결정짓게 되는 꽃피우기 내기는 신격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며, 신격의 교체를 생산신의 생산능력이 쇠퇴하면 해당 신격을 숭양하는 집단의 삶에도 불모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고 하였다. 생산신 신화에서 신격의 생산력은 필수적이며 꽃피우기 내기는 생명현상이 쇠퇴(검뉴올꽃)로 인해 교체되는 신격(구할망)과 그러한 불모성을 갱신시키는 생명현상의 극성(번성꽃)을 표상하는 생불할망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교체는 꽃의 신화학에서 중요한 신화소로 부각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⑱ “너희덜 경 말앙 서천꽃밭디 가건, 꽃씨 타당

흔 방울씩 주크메 이거, 은수반(銀小盤)에 싱경~, 수뚝 주고 물을 주어 보라.”

수뚝 주고, 물 주언

키웁는 건 보난

할마님이 싱근 꽃은

불취(根)는, 웨블리에 가지가지 송에송에 스만오천육백 가지

벌어지고, 동이용궁(東海龍王) 싱근 꽃은

불위는 스만오천육백 불취, 가지 송엔 흔 가지가 올라온다.

- <동이용궁할망본풀이>, 이용옥本.

이용옥本에는 <삼승할망본풀이>가 <명진국할마님본풀이>와 <동이용궁할망본풀이>로 나누어져 채록되었는데 <명진국할마님본풀이>에서는 내력만 나와 있고 <동이용궁할망본풀이>에 <삼승할망본풀이>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를 두고 정제호¹³²⁾는 <동이용궁할망본풀이>가 오히려 하나의 본풀이로서 지위를 갖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용옥本에는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의 꽃을 피우는 경쟁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삼승할망본풀이>의 내용 중에서 ‘불도신’ 또는 ‘생불신’이 될 수 있는 관건인

131) 강진옥, 「‘꽃의 신화학’ 서설: 제주도 무속의 신화체계 탐색을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 5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132) 정제호,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과 신화적 의미-출산화소의 특이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꽃피우기 내기’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꽃’은 생명을 의미한다. 이어 ‘꽃’은 다시 인간에게 생명을 되살리는 기능도 하게 된다. 번성꽃을 피운 존재는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생불신’이 되고, 시든 꽃을 피운 존재는 질병이나 죽음을 유발하는 존재가 된다고 한 것에는 인간의 생명은 곧 ‘꽃’으로 보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시든 꽃가지를 꺾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병을 앓도록 하겠다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삼승할망본풀이>라는 이야기를 창조한 집단은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체계와 관련하여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서천꽃밭’이나 ‘생불꽃’이다.

맹진국따님애기는 하나의 뿌리에서 사만오천육백가지의 가지를 번성시켰으나 동해용왕애기는 하나의 가지만 피워냈다. 맹진국따님애기가 생불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지를 양적으로 많이 피워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해용왕따님애기는 한 뿌리에 한 가지만을 피워내 특별하고 희소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 필요한 것 특별함을 출산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생산량의 측면이다. 인간의 출생 능력이 필요했고 그러한 이유로 맹진국따님애기가 생불왕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①9 삼신할망과구삼신할망을위하여

은대야에꽃들을심으시고

이꽃이번성하는데로생불하라하시니

구삼신할망차지는처음에는꽃이성하다가

다음에유을고삼신할망차지는

처음엔약하다가다음에성하여

사만오천육백가지가번성하니

- 『조선 무속의 연구』, <맹진국생불할망본풀이>, 박봉춘本.

②0 옥항에 올라가난, 옥항상저님 보난 얼굴고 ㄱ따지고 말도 ㄱ따지고, “나도 구별 (區別) 못 헬로구나.” 은수반을 네어준다. “꽃을 심으렌,” 허니, 맹진국이 따님아기 은수반에 꽃씨 심으난 불리는 웨블리, 송에 나난 가지 벌었구나. 동청목(東靑木) 서백금(西白金) 남적화(南赤化) 북화수(北黑水) 동더래 벌은 가지, 스만오천육백(四萬

五天六百) 가지 번성, 종지만씩 사발만씩 낭품만씩 버럭버럭, 혼 번을 보민 칠년(千年)을 산 듯 혼 번을 보민, 말년(萬年)을 산 듯 번성꽃(繁盛花)이 돼고 환생꽃(還生花)이 돼였구나. 동해용궁뜨님아기, 은수반에 꽃씨 디리치난 불리도 웨블리어, 송이도 웨송이 가지도 웨가지 동은 멧엉 꽃은 핀 건 보난, 검뉴을꽃이 돼였구나. 꽃빈장을 험 데다 “멧진국이, 뜨님아기랑 인간 생블할망으로 가고, 동해용궁뜨님아기랑 저싱할망으로 가렌.” 허난, 동해용궁뜨님아기 용심이 바락허게 나멍, 멧진국뜨님아기 꽃사발에 놀려들어, 상가지 꽃을 오독독허게 꺼끄난, “아이고 동해용궁뜨님아기야 무사 그 꽃을 꺼끔시니?”, “나도 저싱 가민 얻어 먹어사 쉐 거난, 아기 생블꽃 주멍 나두민 피로 싯쳐 네리게 하고, 베 안에서 다서 으섯 설 넘어가민 승(凶)보왕 물숨, 놓게 헤어 불고~

- <동해용궁할마님 본풀이>, 서순실本.

서순실本은 가장 최근에 채록된 자료이다. <삼승할망본풀이>는 <동해용궁할마님 본풀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⑳번 자료 서순실本에는 동해용궁따님애기와 멧진국 따님애기와 대화 내용까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처음에는 경쟁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둘이 화해하는 부분까지 다룬다.

⑱, ⑳번 자료의 ‘은수반’ ⑲번 자료의 ‘은대야’ 의 은그릇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은그릇의 의미에 대해 류호철은 “이는 <김쌍돌이本¹³³⁾>에서도 나타난다. <창세가>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벌레가 각각 금쟁반과 은쟁반에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금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남성으로, 은쟁반에 떨어진 벌레는 여성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때, 금쟁반과 은쟁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쟁반’은 다른 무가에서나, 비나리의 사설에서 흔히 고귀함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오히려 현존 무속의례나 사제계승에서 중시되던 명도로 가정할 수 있다. 명도에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새기는 것으로 보아서 금쟁반과 은쟁반은 명도의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고, 금쟁반과 은쟁반이 일월의 상징체라 여겨진다. 즉 인간의 기원이 일월에 있

133) 1923년 당시 함경남도 함흥군 운전면 본궁리에서 女巫 김쌍돌이가 구연한 것을 손진태가 채록하여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에 수록하였다. 신화소별로 내용을 요약하면 천지의 분리, 해와 달의 조정, 의복의 마련, 물과 불의 발견, 인류의 시원, 인세 차지 경쟁 중 본문과 관련된 내용의 ‘인류의 시원’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을에 祝詞하니
한을에서벌기찌러져
金쟁반에도다섯이오
銀쟁반에도다섯이라 -<김쌍돌이 本-창세가>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변이와 의미』, 1980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다고 하는 매개적 상징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생명의 근원을 하늘에 두고, 여성성의 발현으로 인한 달의 이미지를 본따서 은대야, 은쟁반 등으로 연결된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다.¹³⁴⁾” 라고 하였다.

달이 여성을 의미하는 경우는 동·서양의 여러 신화에도 나타난다. 중국 신화의 ‘창어’는 미모가 비범하고, 부드럽고, 현명하며 풍류를 즐기다가 젊은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불사약을 훔쳐 먹은 후 달로 도망쳐 영원히 달에서 산 여신이다. 일본 신화의 ‘카구야 공주’는 달에서 유배를 온 여신으로 남성의 뉘을 빼앗을 정도로 빼어난 미모와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녔으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데 귀족의 제안을 거부한 후 달에 다시 날아갔다고 전해진다. 잉카 문화의 ‘마마 킬야’는 자신이 직책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달의 신이다. 그리스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로마 신화의 디아나는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정결을 영원히 지키기로 한다.¹³⁵⁾

달의 의미를 여성으로 보고 꽃을 곧 생명이라고 본다면, 은쟁반에 꽃을 피우는 일은 여성에게 자손을 생기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삼승할망이 옥황에게서 꽃씨를 얻어다가 꽃밭을 가꾸었다는 것과 연결된다.

삼승할망은 인간 세상 출신이다. 이전에 출산을 담당하던 할망은 동해용왕따님애기였다. 용왕의 딸이었던 그녀는 어미의 젖가슴을 때리고 아버지의 수염을 뽑은 죄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다. 옥황상제는 그녀에게 삼승할망 자리를 맡겼지만 부모에게서 쫓겨나 급히 용궁을 나오느라 아기를 잉태하는 기술은 알지만 출산하는 기술은 익히지 못했다. 이때 등장한 이가 멩진국따님애기이다. 문제는 이 둘 중에 무엇으로 삼승할망을 결정할 것인가이다. 옥황상제는 은대야에 꽃을 심어 번성하게 하는 능력을 갖춘 이를 삼승할망으로 정하기로 한다. 구삼승할망인 동해용왕따님애기의 꽃은 금방 시들고 삼승할망은 번성꽃을 피워낸다. 이 꽃을 생불꽃이라고 하는데 생불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뜻이다. 꽃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꽃이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는 설화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좡족의 화파 신앙에서도 나타난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부부는 화파에게 아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의례[求花¹³⁶⁾]를 거행하며, 화파가 영혼의 꽃밭에 있는

134) 류호철의 앞의 논문, 32쪽.

135) 황신연·최동혁, 「동서양 영상콘텐츠에서 표현된 달의 여성 상징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2019년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함.

꽃을 보내주는 의례[送花], 그 꽃을 받아 잘 모셔두는 의례[安花¹³⁷]를 행하기도 한다. 때로는 아이 영혼의 꽃이 꽃밭에서 잘 자라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공[師公]이나 무파[巫婆]를 정해 ‘꽃의 상태를 살펴보는[問花]’ 의례를 거행하기도 한다. 화파에게 부탁하여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화파에게 감사의 의례를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환화원(還花願)¹³⁸’ 의례이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화파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여, 심하면 화파가 아이를 다시 거두어가기도 한다고 생각했다.¹³⁹

중국 소수민족의 화파는 제주의 삼승할망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띤다. 화파와 삼승할망이 아이의 탄생을 점지하고 아이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적인 영역이 그러한데, 아이의 영혼을 관장하는 화파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정성을 들이지 않을 경우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의례를 요하는 일이지만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내고자 하는 노력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신적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아이가 건강하게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삼승할망은 서천꽃밭에 몰래 들어가 꽃을 따와 인간 세상에 뿌리는데 서천꽃밭에 몰래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의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천지왕본풀이>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꽃밭의 주인인 대별왕이다. 대별왕 역시 소별왕과 꽃피우기 내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자는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과 그의 아들 한락궁이다. 이들이 서천꽃밭을 지키는 이들이다. 다음 자료에 두 본풀

136) 왕족 부녀자들은 해마다 설달이 되면 산에 올라가 들꽃을 따다가 집에 돌아와 제사를 지내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집안이 번성하기를 기도했다. 신혼부부 혹은 혼인한지 오래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죽(金竹)과 오색 찰밥, 수탉, 붉은 달걀, 아기의 신발과 옷, 양말 등을 준비하여 다리를 놓아 꽃(아기)을 보내주기를 화파에게 청하는 ‘가교구화(架橋求花)’ 의례를 행한다. 마을의 냇물 위에 화교(花橋)를 만들어 꽃의 영혼이 무사히 다리 위를 건너오게 한다.- 김선자, 「중국 남부 소수민족 신화에 나타난 꽃의 여신[花婆]과 민속, 그리고 서천꽃밭」, 『비교민속학』 제45집, 비교민속학회, 143쪽.

137) 신혼부부가 침실에 화파의 신위를 만들고, 아이가 태어난 지 일 년이 되었을 때 사공이 길일을 택하여 거행한다. 외가에서 금죽과 오색 찰밥, 수탉, 붉은 달걀, 아이 신발과 모자 옷 등을 보내오면 사공을 청하여 꽃의 노래를 부르고[唱花歌], 꽃을 꽂는 통을 만들며[制花筒], 꽃가지를 꺾고[剪花枝], 꽃이 들어오는 문을 설치하며[拱花門], 영혼의 꽃밭에서 꽃이 건너오는 다리를 만든다[架花橋]. 의례를 주재하는 사공은 두 명의 노부인을 데리고 마을 앞의 사왕(社王)이 있는 곳에 가서 꽃을 받아온다. 7척 길이에 반은 붉은 색, 반은 흰색인 천을 사용해서 꽃을 가져오는데, 설치해놓은 꽃 다리[花橋]를 지나 집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꽃을 담은 통에 넣어 벽에 걸어 놓는다. 동시에 외할머니는 아이에게 새로 옷을 입히고 밥[魂飯]과 고기[魂肉]를 먹인다. 그러면 화파가 아이의 영혼 꽃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한다.- 김선자 앞의 논문, 145쪽.

138) 환화원은 아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화파가 꽃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의례이다. 환화를 할 때에는 화부(花符)를 태워서 화파에게 보내어 아이가 이미 독립된 개체가 되었음을 알린다.- 김선자, 앞의 논문, 144쪽.

139) 김선자, 앞의 논문, 135쪽.

이의 연결 내용이 나타난다.

㉑ 꽃이 번성할 때도, 인간의 생불을 주시다가
집에 도라가 부리면, 꽃을 꺾어버리는 자잇서서
옥황께 꽃감관을 원하니, 지부왕을 불러서
적당한 인간이 있느냐 무르시니

금시상땅의 김정국 아들

동과남상주 절 수록 드러나온 인간이 잇사온대

세상나온 후에 족물도 주재 지은 일이 없어서

행실이 얹전하오니, 적당한 인물이 돼다

- 『풍속무음』

㉑번 자료는 <풍속무음>에만 전하고 있는 것으로,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자료를 보면, 삼승할망은 꽃씨를 하늘에서 받아다가 꽃밭을 만들고, 꽃이 피어오르자, 그 꽃으로 인간에게 생불을 점지하고 다녔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쉬고 있을 때면 꽃밭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꽃을 해하는 지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꽃밭을 지킬 사람으로 김정국의 아들-사라도령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사라도령은 동과남상주 절(寺)에 수록불공으로 태어났으며, 태어난 이후, 조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행실이 얹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일을 옥황을 맡겼던 것이다.¹⁴⁰⁾

<삼승할망본풀이>에서 꽃은 생명과 소멸이라고 하는 주술적인 원리를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된다. 가지가지 송이송이 번성하는 꽃과 가지가지 송이송이 이물어가는 꽃은 서로 대립한다. 이 꽃의 등장은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멩진국따님애기의 대결에서 확인된다. 이른 바 저승할망인 구삼승할망과 이승할망인 생불할망의 대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꽃피우기 경쟁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이승의 생명 부여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점이 대결의 핵심이다.

꽃을 생명의 원천으로 해명하는 방식은 상징이면서 실제로 곡령을 섬기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상과 후손이 관련되는 것을 곡식의 종자와 열매를 유지하면서 꽃을 핵심으로 드러내는 번성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상징이

140) 류호철, 앞의 논문, 65-66쪽.

면서 주술적인 사고의 핵심으로 보아도 잘못은 아니다. 생명을 꽃을 피우는 것으로 이해하고, 꽃의 생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신의 소관사로 보는 그러한 뜻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꽃을 씨앗과 열매의 관련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주술적인 사고나 마법적인 발현으로 보는 것의 핵심적인 사고임을 알 수 있다.¹⁴¹⁾

아이의 잉태와 출산을 관장하는 삼승할망이 서천꽃밭에 꽃씨를 심어 여기에서 피어나는 꽃은 삼승할망이 주관하여 돌보는데 정진희¹⁴²⁾는 서천꽃밭의 꽃을 초월적인 타계의 생명력이라고 하였고, <이공본풀이>에서 한락궁이가 어머니는 살리는 장면을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지닌 환생꽃으로 그 의미가 변주, 확장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인간을 탄생시키는 ‘생불꽃’과 꽃이 피어있는 ‘서천꽃밭’이 있다고 상정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 ‘생불할망’은 하늘에서 얻은 꽃씨를 석해산에 심고 서천꽃밭을 만든다. 서천꽃밭에서 피는 ‘생불꽃’을 따서 다니며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이다. ‘생불꽃’이 곧 ‘애기꽃’이며 ‘생명꽃’이라는 점에서 보면 ‘서천꽃밭’이란 바로 생명을 창조해 내는 신화적인 생명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화적인 생명 공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신을 창조한 집단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 외경심을 갖고 이것을 해명해 보고자 노력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아기를 만들어내는 꽃씨를 하늘로부터 가져왔다고 하는 것에는 신을 창조해 낸 집단이 인간의 생명이나 탄생을 하늘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3) 이공본풀이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꽃감관이 옥황상제와 삼승할망에 의해 정해지는 서사는 <이공본풀이>에 자세히 등장한다, 사라도령과 월강아미의 출생과정부터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결정되는 과정, 꽃감관이 되어 서천꽃밭으로 떠나는 여정이 등장한다. <이공본풀이>는 인간의 현실적 삶과 관계되는 존재들을 관장하는 신

141) 김헌선, 앞의 논문, 2002, 246-247쪽.

142) 정진희, 「제주 무가의 타계 상상과 그 신화적 논리- 일반본풀이의 天上·서천꽃밭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51집, 한국시가학회, 2020.

이다. <이공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서사 구조
(1)기원	옛날 한 마을에 임진국은 부자로 잘살고, 김진국은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둘은 40세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 탄식하다가 동개남 절당에 백일 불공을 드렸다.
(2)탄생1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았다. 김진국의 아들을 '원강도령' ¹⁴³ 이라 이름을 짓고, 임진국의 딸은 '원강아미'라 이름을 지었다.
(3)결혼 [임신]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는 커서 부부가 되어 원강아미는 임신을 했다
(4)부여	옥황상제로부터 서천꽃밭의 꽃감관 벼슬을 하러 오라는 전갈이 사라도령에게 내려왔다.
(5)시련1	사라도령이 가려는데 부인 원강아미가 따라가기를 원하여 부부가 같이 서천꽃밭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는데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해서 끝이 없었다.
(6)갈등	부인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자기를 종으로 팔아 두고 가라고 하고 사라도령은 자현장자 ¹⁴⁴ 의 집에 가서 원강아미와 뱃속의 아이를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았다.
(7)떠남 [증표]	만일 아들을 낳으면 '신산만산한락궁이', 딸을 낳으면 '할락덱이'라 이름을 지으라 하고 ¹⁴⁵ , 상동나무 머리빚 ¹⁴⁶ 을 반으로 꺾어 한쪽을 부인에게 증표로 남기고 원강도령은 혼자 서천꽃밭으로 떠났다.
(8)대처	원강아미는 자현장자 집에서 종으로 지냈는데, 자현장자가 원강아미와 하룻밤을 보내려고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아기를 낳은 뒤에야 동침하는 법이라고 하여 모면하였다.
(9)탄생2	원강아미는 아들을 낳게 되어 '한락궁이'라 이름을 지었다.
(10)시련2	자현장자의 제안을 원강아미가 번번이 거절하자, 화가 난 자현장자는 원강아미와 한락궁이에게 갖은 고역을 시켰다.
(11)부친 탐색	한락궁이는 그제야 자신의 아버지는 서천꽃밭 꽃감관임을 알았고, 어머니에게서 열레빗 한쪽을 받아 서천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났다.
(12) 부친과 만남	열레빗을 맞추어 본 꽃감관은 자기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너의 어머니는 네가 도망쳐 나오자 흑형을 받아 자현장자한테 죽었으니 원수를 갚으라."고 하며 웃음웃을꽃, 싸움꽃, 수레멸망약심꽃을 주었고, 어머니를 살리라며 환생꽃을 꺾어 주었다

구분	서사 구조
(14)해소	한락궁이는 그 꽃을 가지고 와서 자현장자의 친족들을 다 모아 놓고 꽃을 뿌렸다. 웃음판이 벌어지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수레멸망약심꽃으로 모두 죽어 멸망하였다. 그런 뒤 어머니의 시체를 찾아 환생꽃을 뿌려 살려내었다.
(14)좌정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으로 가서 사라도령의 뒤를 이어 서천꽃밭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7] <이공본풀이>의 서사 구조

<이공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부분은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오라는 옥황상제의 전갈을 받고 원강아미와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장면[(4), (5)번], 한락궁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가는 장면[(11)번], 한락궁이가 여러 시련을 이겨내고 서천꽃밭에서 아버지 사라도령과 만나는 장면[(12)번],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의 자현장자를 멸망시킨 후 꽃으로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고 꽃감관이 되는 장면 [(13), (14)번]이다.

서천꽃밭은 어린 나이에 이승을 떠나게 된 아이들이 꽃을 가꾸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도 있다. 꽃밭을 관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승을 먼저 떠난 아이들에게도 꽃에 물을 주는 작은 역할을 주었다는 것에는 제주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소중한 곳이기에 그곳을 관리하는 이를 둘 필요가 있었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이승 너머 또 다른 삶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 다른 삶의 공간이 바로 인간들이 생사까지 관장할 수 있는 서천꽃밭이다. <이공본풀이>의 서사 중에 꽃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라도령이 한락궁이에게 꽃을 건네줌: 어머니를 죽인 자현장자에게 가서 원수를 갚으라고 서천꽃밭에서 웃음웃을꽃, 싸움꽃, 수레멸망약심꽃을 꺾어 주고 어

143) 현용준의 자료에는 '원강도령'이나, 동일 인물이나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에는 '사라도령'으로, '원강아미'는 '원강아미'로 표기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라도령으로 사용한다.

144) 현용준의 자료에는 '자현장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진성기의 위에 제시한 자료에는 '천년장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자현장자'로 표기한다.

145) 진성기의 자료에는 남자는 '한락동이', 여자는 '한락대기' 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표기하였다.

146) 진성기의 자료에는 '용얼래기'라고 표기되었다.

머리를 살리라고 환생꽃을 꺾어줌

㉠ 한락궁이가 자현장자 징치: 웃음웃을꽃, 싸움꽃, 수레멸망악심꽃으로 자현장자의 가족을 멸망시킴

㉡ 한락궁이가 어머니의 환생시킴: 어머니의 시체를 찾아 환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려냄

㉢ “니네 어멍 니 나오라부난

초공전에 초데김 이공전에 이데김 삼공전에 삼데김을 받아

청뎃섭에 목 걸련 신동박 알에 죽었구나.

니네 어멍 살령 오라.”

꽃감관 꽃생인 서천꽃밭디

꽃 구경 가난 “요 꽃은 피 울틀 꽃.

이 꽃은 슬(肉) 울틀 꽃.

이 꽃은 오장육부(五臟六腑) 살아날 꽃.” 꺼꺼근, 품 안터레 놓아간다.

“요 꽃은 웃음 웃을 꽃이에여.

이 꽃은 싸울 꽃이에여. 요 꽃은 죽을 꽃이에여.”

수리멸망악심꽃 꺼짱 앓엉

제인장저 집이 들어오랏구나.

[말] 한락궁이 봐지난 죽이젠 헤어가난 “아이고 일가방상 어른덜 이레 모여 들

서.” [소리] 웃음꽃을 노난에 향천데급(仰天大及) 웃음 웃어간다.

싸울꽃을 노난에, 니 머리 나 머리 허운데기 심으멍 싸와간다.

멸망꽃을 네노난에

[말] 다 죽었구나. 장방 알엔 곱은 건 보난, 메족은뜰아기 [소리]꿈앗구 나-.

- <이공본풀이>, 서순실本.

㉢번의 내용은 한락궁이가 사라도령에게 받은 꽃들로 자현장자네집에 가서 징치하는 장면이다. 한락궁이는 웃음웃을꽃, 싸움꽃, 수레멸망악심꽃으로 자현장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으로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죽인다.

김혜정¹⁴⁷⁾은 한락궁이가 사용하는 ‘수레멸망악심꽃’은 한 개인을 죽이고 살리는

147) 김혜정, 「자식 점지 기원 신화의 측면에서 살핀 <이공본풀이> 신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38집, 2019, 64쪽.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그 집안 전체에 징벌이 내려져 한 집안의 대(代)가 모두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공본풀이> 끝에는 당연히 ‘수레멸망악심꽃’의 기운을 없애도 꺾어버리는 행위가 따라야 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정진희¹⁴⁸⁾도 ‘수레멸망악심꽃’이 인간의 불행을 상징하는 꽃이어서 <이공본풀이> 구연 뒤에 이 꽃을 꺾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는 결국 미리 부정적인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신연우¹⁴⁹⁾는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은 꽃을 주술적인 도구로 보기 때문이며, 꽃이 마음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술적 도구라는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서로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의 통합적 세계관의 소산일 것이라고 하였다.

한락궁이가 수레멸망악심꽃을 이용하여 자현장자의 가족을 멸족(滅族)하였다는 것은 한락궁이가 단순히 아버지 사라도령의 업을 이어받아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닌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을 지니게 되어 신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고 신으로 좌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라도령은 천상에서 꽃감관으로 지정을 받고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좌정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임신한 아내인 원강아미와 헤어지는 것 말고는 큰 시련도 없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살던 한락궁이는 사라도령과는 달리 서천꽃밭을 가게 되는 과정에도 여러 관문을 거쳐야만 했다. 또한 죽은 어머니를 환생꽃으로 살리고 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게 된다.

㉓ “아이고, 어머님아 살아남서. 슬 오를 꽃 빼 오를 꽃 걸음걸이 황신혈 꽃 오당육 부 거릴 꽃 말 곶아 행신혈 꽃 노완 죽낭 막뎡이로
“어머님, 뜨리는 메가 아니라- 어머님이 살아남서. 허는 메난, 하다 승을 보지 맘서.
죽낭 막뎡이로 삼식 번 두드리난, 죽엇던 어머님이[소리] 살아남메다.”

- <이공본풀이> 양창보본.

㉔ 아이고 설운 어머님 죽엇구나
열두 뼈(骨) 즈근 ㄹ근 놓아 놓안

148) 정진희, 「제주무가<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185-186쪽.

149) 신연우,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성』, 민속원, 2017, 160쪽.

사름 생길 곳~, 번성할 곳

차례(次例)대로 놓안 멩천(明天) ㄹ든 하늘님전 축원(祝願)허길

“하늘님아~하늘님아 지에(地下)님아

어찌 자식이 부모님안리 매를 눕네까? 우리 어머님 살리젠, 허염시메, 이내 몸 용서(容恕)를 빌업수다.”

축원을 허여두언

송악낭 막대기로 연세번 착착 후리난, 어머님이 와들랭이 일어나앗구나.

- <이공본풀이>, 이용옥本.

서천꽃밭에서 한락궁이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닌 꽃들을 알게 되고 각각의 꽃들의 기능을 확인한다. 주화들을 이용하여 자현장자의 일족을 모두 죽이고 환생꽃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살린다.(⑩ ~ ⑪번 자료) 한락궁이는 어머니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증명하였기에 꽃감관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족낭 막대기(㉓번 자료), 송악낭 막대기(㉔번 자료)로 죽은 어머니를 세 번을 두드리니 어머니는 환생하였다.

<이공본풀이>의 특징은 꽃을 상징으로 삶과 죽음을 표현하는 점이다. 물론 꽃은 <차사본풀이>나 <바리데리> 등에서도 사용되고 전국의 무속 의례에서 중요한 도구이고 소재이지만 <이공본풀이>에서 가장 깊고도 넓게 사용되고 있다. ‘서천꽃밭’이 악의 현장인 장자 집과 대조되면서 전체 서사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현실의 악을 시정해 줄 초월적 세계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서 가져 온 꽃으로 사람을 살리고 악을 징치한다. 비뚤어진 세상의 균형을 바로 잡는다. 이런 역할을 꽃에 부여했다는 점은 이 본풀이가 보여준 아름다운 상상력이라고 하겠다.¹⁵⁰⁾

<이공본풀이>의 꽃감관은 생명을 주는 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내리는 징벌을 의미하는 ‘악심꽃’도 관장한다. 이는 선과 악이 모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꽃감관은 서천꽃밭에서 생명의 존재를 지배하면서 선악에 따라 존재를 특징하게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공본풀이>에서 꽃감관이 관장하는 서천꽃밭의 꽃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질서를 유지하고 주술적 도구로 기능을 하여 꽃감관에서 신적인 능력을

150) 신연우, 「이공본풀이 신화적 특징과 연행양상」,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0, 170쪽.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4)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정수남을 다시 살리기 위해¹⁵¹⁾ 꽃을 꺾으러 서천 꽃밭으로 가는 장면과 문도령이 남장을 한 자청비와의 약속을 지키지 위해 서천꽃밭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천상과 인간 세상이 등장하는데 등장인물들의 행위로 보면 서천꽃밭은 이 둘의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 독자성을 가진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복잡한 갈등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세경본풀이>의 서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서사 구조
(1)탄생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 사이에 자식이 없어 동관음 상주사에 쌀을 가지과 원불수룩제를 드렸더니 백 근 중에 한 근이 부족하여 딸인 자청비가 태어났다.
(2)만남	자청비는 주천강 연못에 빨래하러 갔다가 거무선생에게 글공부하러 가던 하늘옥황 문국성의 아들 문도령을 만나 남자(자청도령)로 가장하여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떠나 3년 동안 문도령과 함께 숙식하며 공부한다.
(3)경쟁	자청비는 삼천 선비 중에 장원급제를 하고 문도령과 오줌 내갈기기 내기를 한다.
(4)서약	문도령은 하늘옥황 아버님으로부터 서수왕아기와 혼인하라는 연락을 받고서 하늘로 돌아가려 할 때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5)승천 [증표]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박씨 한 방울을 주고 재회를 약속하고서 하늘나라로 떠난다.
(6)쫓겨남	자청비는 집안의 종인 정수남의 꾀에 빠져 문도령을 만나러 갔다가 자신을 겁탈하려 한 정수남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종을 죽인 사실을 안 부모는 자청비를 집에서 쫓아낸다.

151)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살해하는 것은 수렵적 속성의 죽음과 농경적 속성의 재생으로도 볼 수 있다.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부여한 과제는 나무를 해오라는 것인데, 이를 농경과 관련된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서 강족(羌族)을 비롯한 중국 소수민족의 농경기원신화를 들 수 있다.- 최원오, 「한국 설화와 중국 소수민족 설화의 비교연구-문화기원설화를 중심으로」,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1997.

구분	서사 구조
(7)극복 /환생	자청비는 정수남을 환생꽃을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부엉이를 잡아 꽃을 관리하는 사라장자의 눈에 들어 그 집의 사위가 되어 환생꽃을 구한 후 굴미굴산으로 가서 죽은 정수남을 살려 집에 데려간다.
(8)조력자	자청비는 길을 가다 밤이 되어 머물 곳을 찾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만난 주모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긴 비단을 짜서 바쳐 문도령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린다.
(9)시련	자청비의 소식을 접한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러 왔으나 자청비의 하찮은 장난으로 상봉에 실패한다.
(10)재회	자청비를 그리워하던 문도령이 내려 보낸 선녀들을 도운 공으로 자청비는 선녀들의 안내를 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문도령과 재회하여 부모 몰래 그의 방 병풍 뒤에서 숨어 지낸다.
(11)결혼	마침내 이 사실을 안 문도령 부모는 자청비가 며느리감인지를 시험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자청비는 문도령 부모의 허락을 받아 문도령의 아내가 된다.
(12)환생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자 자청비가 출전하여 멸망꽃으로 적을 무르고 하늘나라 청년들의 음모로 죽은 문도령을 자청비가 서천꽃밭으로 가서 도환생꽃을 구해와 남편을 살린다.
(13)하강	자청비는 문도령의 아버지인 천지왕으로부터 오곡(五穀)씨를 받아 땅으로 내려가 7월 14일은 백중이 된다.
(14)해소	배고픈 정수남에게 밥을 안 준 사람의 밭에는 흉작이 되게 하고, 밥을 준 사람의 밭에는 풍작이 되게 하였다.
(15)좌정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이 되어 곡신(穀神)으로 좌정되고,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축산신(畜産神)으로 좌정하였다.

[표8] <세경본풀이> 서사 구조

서천꽃밭은 <세경본풀이>에서 두 번 등장하는 데, 자청비는 집안의 종인 정수남의 꾀에 빠져 문도령을 만나러 갔다가 자신을 겁탈하려 한 정수남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종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자청비를 집에서 쫓아낸다. 자청비는 결국 자신이 죽인 정수남을 되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에 들어간다. [(7)번]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의 사위가 되어 당당하게 꽃을 구해와 정수남을 살려낸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고 하여 자청비는 다시 부모에게서 쫓겨난다. 이후 자청비를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자 자청비가 출전하여 멸망꽃으로 적을 무찌르고 하늘나라 청년들의 음모로 죽은 문도령을 살리고 주화(呪花를) 얻어온다.〔(12번)〕

자청비는 이미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고도 서천꽃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리기 이전에 자청비는 그 이전에 서천꽃밭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㉕ 초채를 노았더니 굴미굴산 지픈 곳(藪) 정수남이 죽은 디 훑아가니 브레여보난 풀이 덤방허여시난 은장도칼(銀粧刀) 내어놓고 동서레레 비여 잣현 환생꽃(還生花)을 노안 종남막덩이로 삼식번(三番)을 후렸더니, 정수남이 매방석(驚方席) ㄹ똥 머리 박박 읊으멍

‘아이고 봄잠(春眠)이라 오래 잤수다’

와들랭이 일어나 ‘상전(上典)님아 어서 물을 타옵소서’

물무제밀 심어아전 흐던 행실(行實) 그만두고 집으로 느려간다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세경본풀이>, 안사인本.

㉖ 정이엇인 정수넴이, 간 보난에 뼈(骨)만 슬그랑 헤엿구나. 뼈를 가운데데 모다단 놓안, 슬 울를 꽃 피 울를 꽃 오장육부 살아날 꽃을 놓안, 흥남체로 뚜드리난 맥방석 ㄹ똥 머리로구나 박박 읊으멍 “상전님아~ 봄잠이라 너미 늦게[소리] 자졌수다.

- <세경본풀이>, 서순실本.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리는 과정에서 자청비는 살오를 꽃, 피오를 꽃 등을 정수남이 옆에 놓고 종남 막덩이(㉕번 자료), 흥남체(㉖번 자료)로 정수남을 세 번을 두드린다. 정수남은 봄잠을 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환생한다.

정수남은 자청비를 속이고 각종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수남은 자청비가 신성한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계기를 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자청비

는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데 인간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자청비는 정수남과 상호 관계에서 얻게 된 갖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서천꽃밭에 들어가 환생꽃을 얻게 된다. 자청비는 자신이 죽인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가서 환생꽃을 구하기 위해 부엉새를 잡고 꽃감관의 사위가 된다. 이 환생꽃으로 죽은 정수남을 살리게 되는데 이로써 자청비는 신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서도 환생꽃을 이용한다. 전쟁이 났을 때에는 수레 멸망약심꽃으로 군사들을 모두 죽이는데, 이는 자청비가 남장으로 하고 꽃감관의 사위가 되면서 서천꽃밭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생사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청비가 두 번째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다시 가지고와 문도령을 살린다. 문도령을 살리는 장면을 살펴보자.

㉞ 자청비는 알(下)엿 녘 서천꽃밭(西天花田)디 들어가 따시(又) 서천꽃밭 도환생꽃(還生花)을 타단 죽은 남군 살려두고 나오더니, 그 고을에 방(榜)이 부떠 이신디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세경본풀이>, 안사인本.

㉟ 문도령을 살리젠 허난, 그때엔, 자청비가 정이엇인정수남이 살려난 곳, 앓어단, 따시 문도령을, 차례(次例)대로 놓안 살렸구나에

- <세경본풀이>, 이용옥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들어가 꽃구경을 하다가 몰래 꺾어온 환생꽃으로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린다. 이를 가능하게 한 계기는 서천꽃밭으로 자청비가 진입을 한 것인데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생명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청비는 농경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현설¹⁵²⁾은 생명을 되살리는 자청비의 능력은 통과의례를 거쳐 세경신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는 곧, 씨앗을 땅 속에서 소생시키는 농경신의 직능에 대한 은유라고 표현하였다.

<세경본풀이>에서 두 차례의 서천행은 동일한 구조를 보여준다. 죽음과 소생의

152) 조현설, 앞의 책, 224쪽.

레는 그것을 주재하는 여성인물로 인해 유발된 성적욕망이 중요 동기로 작용하며, 소생의 매개물이 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⁵³⁾

자청비가 두 번째 서천꽃밭에 들어가 환생꽃을 가지고 나와 문도령을 살리면서 자청비의 신직 획득의 자격은 더욱 확고해진다. <세경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이처럼 복잡한 갈등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5) 문전본풀이

<문전본풀이>에서도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환생꽃으로 녹디생이가 어머니를 환생 꽃으로 살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문전본풀이>의 전체 서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서사 구조
(1)결혼	남선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었지만 가난하게 살았다.
(2)탄생	이후 부부는 아들 일곱이 낳았다.
(3)부재	가난하여 도저히 일곱 아기를 키우며 살 수 없게 되자 여산부인은 남선비에게 무곡장사를 제안하고 남선비는 배를 마련하여 장사를 하기 위해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갔다.
(4)만남	오동고을의 노일제대귀일의딸은 남선비를 유혹하여 그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도록 하고 남선비에게 남은 재산이 없자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초막에서 지냈다.
(5)떠남	여산부인은 3년 동안 남편에게 소식이 없자 아들들이 배를 만들어 주어 그 배를 타고 남선비를 찾으러 오동고을로 갔는데 그곳에서 여산부인은 아이의 새를 쫓는 노래를 듣고 남편의 거처를 찾았다.
(6)재회	남선비는 여산부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부인이 찾아왔음을 알고 부부가 다시 해후했다.
(7)속임수1	노일제대귀일의딸은 여산부인을 형님이라 부르고 거짓 대접하고 목욕할 것을 제안하여 여산부인을 물속에 밀어 넣어 죽이고 여산부인인 체하며 남선비와 집으로 부부가 집에 도착하였다.
(8)해결자	영리한 막내 녹디생이는 노일제대귀일의딸이 집을 못 찾고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아님을 알고 다른 아들들도 차차 어머니가 아님을 눈치 채게 되었다.

153)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315쪽.

구분	서사 구조
(9)속임수2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배가 아파 죽는 시늉을 하여 남편이 문복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 점쟁이로 가장하여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한다는 점을 쳐 주었다.
(10)해결1	남선비가 칼을 갈아 아들들을 죽이려 하자 녹디생이는 자신이 직접 형을 죽여 간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죽은 어머니가 꿈에서 알려준 대로 형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가 멧돼지를 잡아 간을 내어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가지고 갔다.
(11)해결2	노일제대귀일의딸은 간을 먹는 척 하다 자리 밑으로 숨기고 이를 엿본 녹디생이는 그녀의 행위가 거짓임을 폭로하고 여섯 형제들이 달려들었다.
(12)징치	노일제대귀의딸은 변소 발판에 목을 매어 죽고 남선비는 도망가다 정낭에 목이 걸려 죽었다. 형제들은 노일제대귀의 딸의 시체를 찢어 버렸는데 많은 생물로 변화였다.
(13)환생	형제는 서천꽃밭에서 도환생꽃을 얻어 주천강 연못에서 어머니를 찾아 살려내었다.
(14)좌정	녹디생이는 살아난 어머니를 조왕할머니로 좌정케 하고, 아버지는 올레 주목 정쌀지신으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도부인 변소신으로 좌정케 하였다. 나머지 형들은 오방장군으로 여섯째 형은 뒷문전으로 좌정케하고 자신은 일문전이 되었다

[표9] <문전본풀이>의 서사 구조

<문전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부분은 녹디생이가 어머니인 여산부인을 살리기 위한 공간일 때 등장하는 (13)~(14)번이다. 여기서도 서천꽃밭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와 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은 주인공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는 꽃들이 있는 공간이며, 신화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다.

<문전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녹디생이가 어머니를 살리는 장면을 살펴보자.

⊗ [말] 아이구 어머니 신체(身體)가 잇구나. 슬은 다 지고 뼈(骨)만 남앗구나~.[소

리] 일곱 성체가 서천꽃밭 도울른다.~

[말] 슬 오를 꽃 뼈(骨) 오를 꽃 걸음걸이 황신혈 꽃 오장육부 말 골을 꽃 다- 커커앗 언 오란, “어머님께 떼리는 메가 아니라 어머님 살아남서, 허는 메난 하다 승보지 말서.” 족남 막대기로 삼식 번 두드린 게 죽었던 어머님이 살아옴데다-.

- <문전본풀이>, 양창보本.

③⑩ 일곱성전 서천꽃밭(西天花田) 올라가 황세근간 지달래여 도환생꽃(還生花)을 타다 네 오동나라 주천강(酒泉江) 연못(蓮池)덜 간

‘맹천(明天) ㄹ똥 하늘님아 주천강 연못이나 빨게 허여 줘서. 어머님 신체(身體)나 좃으리다’

주천강 연못이 삼시에 좃아지난, 어머님 죽은 뼈(骨)는 슬그랑 허여시니 뻔 도리도리 모다 난 도환생꽃(還生花)을 놓고 금풍채(金扇)로 후리니, 감태(甘苔) ㄹ똥 머리 허봉 치명

‘아이고. 봄잠(春眠)이라 늦게 잤져. ‘

어머님이 인간(인간) 도살아 오랴구나.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문전본풀이>, 안사인本.

<문전본풀이>는 문전신, 조왕신, 측간신 등 집을 구성하는 공간의 신들에 대한 본풀이인데 서천꽃밭의 주화를 활용하여 일곱 형제 중 막내인 녹디생이로 인해 어머니를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 서천꽃밭은 이처럼 인물의 겪는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신화는 선악을 뛰어넘어 순환의 질서를 환기시킨다.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저데귀일의 딸은 악인의 전형처럼 보인다. 그래서 징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악을 증오하고 짓밟고 삶에서 퇴출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선한 것은 칭찬되지만 악한 것은 철저히 배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허용한다. 삶 속에 선과 악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일재귀일의 딸은 측간신이 된다. 그리고 측간의 똥은 다시 사람을 살리는 퇴비가 되어 입으로 돌아온다. 똥에서 입으로의 순환이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해체되어 온갖 해산물이 된다. 머리카락은 미역이 되고 손톱은 굴뻛이 되고, 음부는 전복이 되는 식으로 시체화생(屍體化生)의 모티브를 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

작이 되는 순환적 질서가 제시된다. 자연계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고대 사유가 묻어난다.¹⁵⁴⁾

서천꽃밭에 있는 꽃들은 인간의 생과 사와 연관되어 사람을 탄생하게 할 수도 있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인 생명과 연관된 현상들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장수하고자 하는 것들은 인간들이 늘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이를 자유롭게 이룰 수 있는 건 신들의 영역인 것이다. 신적인 능력을 지닌 누군가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신성한 일들을 서천꽃밭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이상 5편의 본풀이를 통해 본풀이에 등장하는 꽃의 상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꽃을 인간의 생명과 연결시키는 모티브에 대해 현용준¹⁵⁵⁾은 꽃이 생식기관이라 꽃피고, 열매 맺고, 씨를 퍼트려 종족을 번식함을 인간에게 변이시켜 작용한 것으로 보아 농경민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강명혜¹⁵⁶⁾는 제주 신화 속 꽃의 의미와 상징성을 능력 증명의 징표, 재생·환생의 상징, 멸망시키거나 죽이는 기능, 인간 생명을 상징, 관상(觀賞)의 의미, 생체 치유의 기능으로 총 6가지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식물의 성장 원리를 묻는 수수께끼 대결과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인세차지를 누가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꽃이 등장한다. 그러나 꽃을 번성하게 키운 대별왕이 이승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별왕의 꽃그릇을 바꾼 속임수를 사용한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 이승을 차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생명형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꽃바꾸기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속임수를 사용하여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여 이승에는 악과 혼란이 존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인간의 탄생 원리, 출생 원리, 양육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신화라는 점에서 우리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인간의 삶을 꽃과 연관시켜 신화 내용을 구성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꽃

154)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150쪽.

155) 현용준,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56) 강명혜, 앞의 논문.

을 잘 피우는 존재가 인간의 생명을 탄생,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은 맡아온 신적 존재는 인간의 생명은 물론 식물의 생명도 잘 키워야 한다는 인식도 내재되어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구조는 경쟁구도를 통한 인세차지 경쟁에서 이긴 삼신의 좌정 과정을 생명 탄생 과정을 판타지로 그린 모험 플롯을 띠고 있다. 또한 동해용왕애기의 행동과 말의 악적인 요소와 멩진국다님의 선적인 구조를 이분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생명을 관장하는 신의 자격에 대한 신성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서천꽃밭은 온갖 생명이 잉태되어진 공간으로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가하는 신화적인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좋아할 삼신과 대별상신과의 대결구도는 통쾌함과 흥미를 줄 수 있어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다.¹⁵⁷⁾

큰곳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식물 체계에 비유하고 있다. 꽃은 피어났다가 시들어 가지만, 그 속에는 다섯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생’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신화가 생성될 당시의 고대인들에 있어서는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꽃이 개화하고 시드는 전 전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삶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인간의 삶은 식물 체계와 닮아있다. 또한, 생불꽃은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는 모습과 맥을 같이한다. 여성이 자신의 씨앗을 꽃처럼 내부에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체계로 인하여 인간들은 ‘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꽃이 피어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둘 필요가 생겼다. 꽃피우기 내기 신화소가 이러한 사상의 기조가 된 곳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신들은 꽃피우기 대기를 통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시험하고자 승패를 나누었던 것이다. 꽃피우기 내기에서 삼승할망의 꽃은 외뿌리에 사만오천육백가지가 사방으로 뻗은 꽃 나무를 키워내게 된다. 이 꽃은 각각 가지가 뻗은 방향으로 생불을 내릴 적에 아기의 일생의 운명 지어진다.¹⁵⁸⁾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꽃씨를 심어 서천꽃밭을 창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곳에서 생불꽃을 통해 생명을 점지한다. 서천꽃밭의 주화는 인간의 생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을 옥황상제가 지정한 사라도령

157) 김미정, 「제주<삼승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6쪽.

158) 류호철, 앞의 논문, 89-90쪽.

이 맡게 되고 그의 아들 한락궁이가 이를 이어받게 되는 과정에서 각종 꽃을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한락궁이는 아버지인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에서 꺾어 준 웃음웃을꽃, 싸울꽃, 수레멸망약심꽃으로 자신과 어머니 원강아미를 괴롭혔던 자현장자 일족을 멸망시키기도 하였다.

본풀이에 등장하는 꽃들은 생명을 생명답게 해주는 원천이다. 생명의 원리는 꽃의 원리에 반영되었으며 꽃을 통해 내세관을 이야기한다. 서천꽃밭에서 등장하는 꽃들은 본풀이 속 인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도 성취할 수 있는 신이한 능력을 가진 꽃들이다. 이런 신이한 능력을 가진 꽃들은 본풀이의 주인공들이 신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권능에 힘을 실어주고, 신으로 좌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2 서천꽃밭의 상징성

꽃과 꽃밭은 서로 깊이 관련된다. 애초에 신화소로 사용되는 꽃과 꽃밭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서천꽃밭의 등장은 인간의 생명을 고양하고 죽은 인물을 살리는 신의 직능을 확장하는데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서천꽃밭의 등장한 것은 부활과 재생의 공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본풀이에서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설정은 자체 설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기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임을 환기하게 된다.

꽃만이 아니라 서천꽃밭으로 등장하는 공간 구성의 집합 개념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공간인 꽃밭의 꽃이 긴요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서천꽃밭의 등장을 통해서 상징성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하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심방들의 구연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서천꽃밭’과 ‘서천고장밭’ 등으로 불리는 것을 보게 된다. 서천꽃밭의 의미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서천꽃밭이 가지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㉓ 옥황상제 대명왕의

분부를 맡으고

서천고장밭에 올라스고

고장씨를 타단에

- 『제주무가본풀이사전』, <할망본>, 김해옥本.

㉔ 하룻날에 천보살이 말하기를

팔푼이지 춘화추동따뜻한

극락땅이잇소이다말을하니

삼승할망이 모든보살거느리고

아요산청룡상응천금신산대산가운데

극락지를찾고보니극락지분명하야

청모람람그는후에,숙석으로데를다그고

서천꽃밭을설시하라하되

꽃씨가없엇지부왕에의논하니

옥황에잇다하야, 옥황으로꽃시들어더서

삼월삼종일에오색꽃을오방에심으니

- 『조선 무속의 연구(상)』, <명진국생불할망본풀리>, 박봉춘本.

㉕ 이제는 옥황상제님이

꽃삼월 초사을날

맹진국 애기신디

중선반에 은대양에

고장씨 은씨를 내어주고

- 『제주무가본풀이사전』, <할망본>, 김해옥本.

㉕번 자료를 보면 삼승할망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서천꽃밭에 가서 꽃씨를 따다가 심었다고 하였다. 이는 서천꽃밭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㉔번 자료에는 삼승할망이 모든 보살을 거느리고 극락지에 가서 서천꽃밭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삼승할망이 필요에 의해 서천꽃밭을 창조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삼승할망은 인간 세상에 가서 생명을 점지해주는 일을 행하는데 그 생명(생불)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불꽃이 필요했다.

그러나 생불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씨가 필요한데 이는 삼승할망이 만들 수 있

는 능력이 없어서 ㉔, ㉕번 자료에 나타나듯이, 옥황상제에게 꽃씨를 달라고 요청한다. 옥황상제에게 꽃씨를 받아온 삼승할망은 서천꽃밭으로 가서 꽃씨를 심어 생불꽃을 얻는다. 삼승할망은 서천꽃밭을 만들었다는 여부와 상관없이 서천꽃밭을 드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관장하는 일을 맡기는 않았다. 주 업무는 인간 세상에 꽃(생명)을 뿌리는 일이었다. ㉑ ~ ㉕번 자료는 꽃씨의 근원을 하늘에 둔 것을 강조한 부분이다. 꽃은 곧 인간이므로 인간의 근원을 하늘에 둔 셈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밭이 창조되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서천꽃밭에서 삼승할망의 역할은 꽃씨를 심는 일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꽃은 생불꽃임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생불꽃은 곧 인간의 생명의 시작인 셈이다. 서천꽃밭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삼승할망의 역할을 증명이 된 것이며 서천꽃밭의 꽃들은 주화의 역할을 한다.

앞에서 다룬 <천지왕본풀이>이나 <삼승할망본풀이>에도 이러한 꽃밭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되고 아울러서 본풀이의 양상을 통한 것으로 이룩되는 점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꽃이 구해지는 공간과 꽃을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술적인 대상의 꽃과 이를 공간화하여 가지고 있는 서천꽃밭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창조되는 대상으로의 꽃과 실제 꽃이 자라는 꽃밭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서천꽃밭의 등장은 예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재래의 공간과 외래의 공간 유입에 따른 변형을 하나의 축으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재래의 공간은 무속적 기풍이 완강한 자료인 민담이나 굿의 본풀이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무속의 본풀이 <바리공주>에서 무장승이 거주하는 공간은 양유수와 사람을 살리는 꽃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천서역국이라고 하는 점을 준거로 삼는다면 이 공간 역시 재래의 것이기는 하지만 불교적 영향이 일부 확인되는 면모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재래의 민담에서는 가령 계모형설화인 <버들도령>이나 <여우누이>와 같은 데서 이를 찾을 수 있다. 이 공간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고, 적대자를 물리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공간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서천꽃밭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매우 높은 공간을 설정하고, 이를 세계관

적으로 확신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 공간의 설정과 활용은 제주도 무속이나 신성한 공간의 개념으로 긴요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본풀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는 일이 긴요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다양한 사건과 연계되고 있으며,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의 꽃감관으로 간 곳이 주목된다. 이는 현실적인 공간과 분리되어서 고도의 상징성을 갖춘 곳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 모습이다. 아울러서 한락궁이가 원강아미를 두고 가서 죽은 존재를 살리는 곳으로 가는 것도 서천꽃밭에 도달하는 이유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원강아미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의 꽃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핵심적으로 발현한다.

서천꽃밭에서 공간은 인간의 생명의 원리가 반영된 근원적인 공간으로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식물과 인간 생명의 비유,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생불꽃을 다룬 신을 결정하였다. 그렇게 하여 삼승할망으로 결정된 멩진국따님애기는 서천꽃밭의 탄생꽃을 이용하여 인간 세상의 아기를 점지하고 다녔다. <이공본풀이>에서는 한락궁이가 자신과 어머니 원강아미를 괴롭힌 자현장자를 아버지 사라도령으로부터 받은 꽃들로 징치하였고, 함께 받은 환생꽃으로 죽은 어머니를 살렸다.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에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에서 환생꽃을 가지고 와 죽은 이를 다시 살려내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서천꽃밭은 고대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진 문제 해결의 공간이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과정의 서천꽃밭의 꽃들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곳의 꽃들이 주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풀이의 서천꽃밭에 피어 있는 가지각색의 꽃들은 인간의 삶과 죽음은 물론, 희노애락애오욕의 다양한 감정을 표상한다.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생불꽃과 사람을 죽이는 멸망꽃이 있다. 살오를꽃, 뼈오를꽃, 오장육부간담꽃 같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환생꽃도 있다. 또한 웃음웃을꽃, 울음울을꽃, 불붙을꽃, 약심꽃과 같이 사람의 감정과 연관된 꽃도 있다.

서천꽃밭에서 구하는 꽃은 두 가지이며, 이는 앞에서 살핀 번성꽃과 검뉴울꽃의 상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의 원천이 된다. 신들이 하는 주체적인 것들의 원천을 전환시켜서 그곳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되는 모습을 하고 변천이 생긴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 꽃밭의 등장은 꽃의 원천이 의존적인 공

간이고, 꽃을 필요로 하는 인물이 이 공간에 가서 가지고 오는 특성이 있다.

<세경본풀이>나 <문전본풀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죽은 정수남을 살릴 수 있는 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서천꽃밭이며, 녹디생인의 막내아들이 죽은 어머니를 살리는 방편으로 서천꽃밭에 가서 그곳에서 꽃을 구해다가 죽은 어머니를 살리는 수단으로 이 서천꽃밭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꽃은 생명의 부활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풀이에서 꽃과 꽃밭은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다양한 측면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생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서사 구조 안에 녹아 있다.

김창일은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꽃밭에 대해 “혼돈 속에 빠진 이승을 질서의 세계로 원상회복 시켜주는 구실을 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본풀이>나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에서의 꽃밭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이상향이 아니라 현상계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간주한다. 즉 한국 무속신화에서 꽃밭은 파괴된 현상의 세계를 원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매개 공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⁵⁹⁾”고 하였다.

서천꽃밭은 삶과 죽음이 각각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공존하는 이중적인 공간이기도 한다. 삶과 죽음이 연결되는 신성한 공간이다. 이승과 저승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신비로움을 주는 공간이며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다. 이곳에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락궁이가 그랬던 것처럼 험난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곳에서 자라는 주화(呪花)들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지는 것으로 인간의 시작과 끝을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제주도 큰굿에서 나오는 꽃밭은 인간의 생명 체계를 식물 체계에 유추해서 생각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견해도 있다. 서천꽃밭이라는 특수한 생명 원천의 신화적 공간은 이런 사고에서 생겨났다. ‘인간 생명 체계+생명 체계’로 사고하는 인식 체계는 바로 인간도 식물처럼 재생하거나 영생 또는 환생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서천꽃밭은 인간의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고(생불꽃), 죽이기도 하는(악심꽃) 꽃들이 피어 있는 신화적 공간인 꽃밭이다. 이들 서천꽃밭은 큰굿과 큰굿의 신화를 창조한 집단이 인간의 생명 체계를 식물 체계에 비유해 생각하고, 인간 생명의 원

159) 김창일, 앞의 논문, 2006, 179-180쪽.

천 장소로 형상화한 특수한 신화적 공간으로 여겨진다. 즉 이러한 사고를 기저로 형성된 것이 바로 큰곳에서 벌이는 시왕맞이제이며 여기에 나오는 저승과 지옥에 관한 내용이라고 여겨진다.¹⁶⁰⁾

허남춘¹⁶¹⁾은 모든 생명이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평범할 수 있지만, 인간이 땅에서 탄생하고 또한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식물의 영원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는 신성한 힘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식물은 무한한 생명의 회로(cycle)를 갖는데 반해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 신화의 주인공이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식물과 같은 무한한 생명력의 산출이란 신성성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서천꽃밭은 아기 산육신인 생불신이 만든 것인데, 이 여신은 하늘에서 꽃씨를 받아 지상에 심어 서천꽃밭을 만들고, 여기에 핀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기를 점지 잉태시킨다. 아이는 동쪽의 푸른 꽃으로 점지하면 아들, 서쪽의 하얀 꽃으로 점지하면 딸, 그리고 북쪽의 검은 꽃으로 점지하면 단명(短命), 남쪽의 붉은 꽃으로 점지하면 장수(長壽), 그리고 가운데의 황색꽃으로 점지하면 이 세상에서만과출세한다고 한다. 생불꽃은 인간의 생명기원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꽃밭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꽃들이 피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신화적 생명공간이며, 이상향으로서의 이계라 할 수 있다. 생불꽃, 악심꽃, 도환생꽃 같은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꽃들이라는 점에서 <생명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무속에서는 원래 <생명꽃>과 <서천꽃밭>이 중요한 신화소이며 무속소였다고 할 수 있다.¹⁶²⁾

김정윤¹⁶³⁾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한락궁이가 더 큰 생명 활동을 하게 되고 한락궁이의 역할로 어머니가 다시 소생한다는 모티브로 한 개체의 죽음이 다른 개체의 생명활동을 열어주는 계기, 양분이 되는 생명 순환론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런 순환론적 사고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만 있을 때는 생명이 순환된다는 논리가 필연적이지 않지만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재생과 순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

160) 이수자,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창, 1990, 68쪽.

161)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도남학회』 제23집, 도남학회, 2011, 19쪽.

162) 이수자, 앞의 논문, 438쪽.

163) 김정윤, 「제주 설화의 생태학적 인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다.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인물들은 그동안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곳으로 등장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정수남을 다시 살리기 위해 꽃을 꺾으러 서천꽃밭으로 가는 장면과 문도령이 남장을 한 자청비와의 약속을 지키지 위해 서천꽃밭으로 간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천상과 인간세상이 등장하는데 자청비의 행위로 보면 서천꽃밭은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서는 녹디생이가 여산부인을 살리기 위한 공간일 때 등장하는 데 이 역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서천꽃밭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과 기대가 가꾸어낸 신화적 공간으로서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는 무속적 신앙력의 소산이다. 덧없이 사라지는 현상세계의 허무함을 초극하고 싶은 기대가 피워낸, 생명으로 충만된 아름다움 꿈의 세계이다. 서천꽃밭은 무속신화의 세계 곳곳에 존재하면서 쉽 없이 그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있다.¹⁶⁴⁾

조홍윤¹⁶⁵⁾은 이원적인 공간 설정을 지닌 <세경본풀이>에서 사라대왕의 꽃밭에 진입하기 위한 통과 의례나 매개체의 설정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이 공간은 현실계에 속한 것으로 보고 이 공간에서 신성을 얻었다는 것은 이 공간이 신성계에 속해 있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수자¹⁶⁶⁾는 인간계나 저승계 또는 천상계와도 구분되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소윤¹⁶⁷⁾은 서천꽃밭이 지닌 매개성·경계성이라는 공간적 성격이 이원적 가족의식 투영의 기저가 되고 있는 것이라 해석했다. 그 과정에서 서천꽃밭의 매개성·경계성은 자청비의 인물형상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지상과 천상 그리고 서천꽃밭이 지닌 공유지점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남성지배의 영역이라고 의미화하였다.

실제로 심방들이 집전하는 꽃밭의 등장은 차사영맛이와 같은 의례에서 흔하게 등장하는데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는 공간으로서 지속적인 상징적인 작용을 하게

164)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의 농경적 생명원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339쪽.

165)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66쪽.

166) 이수자, 『한국 설화문학의 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67) 이소윤, 『〈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된다. 차사와 영가를 경계를 나누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데 미여지뽕디와 서천꽃밭의 등장은 소중한 기능을 하는 준거로 작동한다. 이것은 세계관적 요소와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는 주목할 만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 사람들의 독자적 창조라고 하는 점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따로 존재하고, 이곳에서 번성꽃과 검뉴울꽃을 구하고, 그곳에 도달하는 인물의 모험담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성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공간의 설정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으나, 이를 독창적 공간으로 창조하고 변형시키면서 장식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세경본풀이>에는 삶과 죽음의 교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자청비가 농경신으로 좌정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농경의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삶과 죽음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순환 구조와 같이 결국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이승과 저승은 이원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서천꽃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진옥은 저승은 죽음의 공간이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으로서, 생성을 준비하는 혼돈의 세계¹⁶⁸⁾이다.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의 꽃들은 꽃과 생명의 상관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문화사적으로 당시 사회상을 반영해 보았을 때 이는 수렵·어로에서 농경문화로의 전이되는 과정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미분화된 신화적 시간에서 ‘씨앗-꽃-열매’라는 자연의 순환을 통해 우리 삶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분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서천꽃밭은 제주도 본풀이에서 특수한 공간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승을 떠나야만 갈 수 있지만 아랫동네처럼 가까운 곳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직능을 부여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임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서천꽃밭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이며 천상계와 지상계와는 다른 특수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제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천꽃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본풀이의 등장인물들은 신격을 획득하고 신으로 좌정된다.

168) 강진옥, 앞의 논문, 338쪽.

서천꽃밭은 신이한 꽃들이 가득한 본풀이의 서사 속 공간이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과 재생이라는 상징성이 담긴 공간이다. 인간의 삶의 과정은 꽃의 피고 지는 식물들의 과정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 이는 계절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탄생과 성장, 성숙, 죽음이라는 단계와 사계절이 맞물려 순환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꽃이 자라며 가을에는 꽃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꽃은 진다. 서천꽃밭을 장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탄생과 죽음, 꽃의 개화와 낙화의 시간적인 개념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3. 서천꽃밭의 상징과 변환 원리

‘꽃=생명’의 체계는 본풀이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꽃은 생명 현상의 표상이다. 그래서 다양한 꽃들이 모여 있는 서천꽃밭은 삶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곳이다. 서천꽃밭의 꽃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만든다. 꽃과 사람은 운명공동체란 의미다. 식물을 생태를 차용하여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상상력은 꽃을 매개로 생명 현상에서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순환의 구조와 연결된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본풀이의 서천꽃밭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순서로 적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초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서천꽃밭이 생명과 탄생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는 죽음과 재탄생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네 번째는 긍정과 부정의 조합 원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상징되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1) 생명 탄생의 상징

생명의 출생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신이 관장하는 일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삼승할망이 서천꽃밭을 창조한 과정을 살펴보면,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인간 세상에 생불을 내리는 일을 하는 역할을 획득한 후 생불을 내리고 다니면서 서천꽃밭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꽃씨가 없자 하늘에 가서 옥황에게서 꽃씨를 얻는

다. 옥황에게서 얻어온 꽃씨를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먼 곳에 심는다. 이곳은 인간은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며 그곳에서 피어난 꽃으로 삼승할망은 생불을 내리고 다니게 된다. 이곳이 서천꽃밭이다. 인간의 탄생을 주관하는 서천꽃밭은 신화 속에서 이상향과 같은 공간이다. 생명의 탄생은 축복할 일이고 매우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림2]을 보면, 삼승할망은 꽃씨를 심어 서천꽃밭을 만들고 꽃을 따서 잉태시키는데, 꽃의 색깔과 방향에 따라 아이의 운명이 결정된다. 꽃풀이를 하여 아이의 미래를 예언하기도 한다. 제주가 뽑은 꽃가지의 생김새를 보고 자식의 유무나 잉태시기, 아이의 성별 등을 해석하여 예언하는 것이다.

삼승할망의 아이를 점지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2]과 같다. 이러한 생불꽃은 인간의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인간의 생명을 정해주는 이가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2] <삼승할망본풀이>의 자식 점지 관계도

<삼승할망본풀이>를 보면 삼승할망이 꽃씨를 삼고 서천꽃밭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리고 서천꽃밭에서 생불꽃을 따 잉태를 점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의 탄생을 서천꽃밭의 주화(呪花)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주관하는 삼승할망은 인간 세상에 아이를 내려주는 것이 그 임무이다. 따라서 잉태를 가능하게 하는 서천꽃밭의 생불꽃은 인간의 ‘생(生)’을 가능하게 하는, 이 주화와 서천꽃밭의 존재는 삼승할망의 존재 의의를 증명해주며 신의 직능을 지속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⁹⁾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멩진국따님애기의 꽃피우기 경쟁하는

169) 조리라, 「제주도 서사무가에서의 서천꽃밭의 역할과 의미」, 『고향논집』 제67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40쪽.

부분을 살펴보자.

㉔ 할머니가 하나 두 개, 땡기멍 거느를 수가 엇이난, 세경암데전이라 영 허영, 서천
꽃밭을, [소리] 어- 돌아보고 수뚝 주고 물주멍~, 번정(蕃盛)혜영, 천지왕에 들어강,
꽃씨 연씨를 타당 수뚝 주고 물주멍 꽃씨 디리곡, 이월 이똥일이 순날 시에 입이 나
곡, 삼원 삼진날은 당허난, 버럭버럭 환싱꽃이 돼엄시난 “이만허민, 즈손 번성을 웰
로고나.” 영 허연, 할머니 흐 손은 번싱꽃, 흐 손에 환싱꽃을 들언,

- <맹진국할마님본풀이>, 양창보本.

㉕ 저싱 할머니은

흐 날에 나난

느도 할머니이여

나도 할머니이요. 싸움 싸움을 헤여가옴데다. “기영 허거들랑 우리 꽃시나 저파보
게.” 꽃시를 저파간다.

할머니은 은수반에

저싱 할머니은 늦수반에, 꽃씨를 췌 돛날(豚日)에 간, 싱거가는구나에.-

할머니은

번싱꽃이 돼고

저싱 할머니은

가지는 왜가지에 불리는 스만오천, 육백(四萬五千六百) 가지로 벌어지고, 인간 할머니

은 가지는 왜가지여 불리는, 스만오천육백 가지로, 벌어지옴데다에-

꽃 번싱 돼는 데로, 이싱할망, 저싱할망 곱 갈롭데다.

- <인간불도할마님본풀이>, 고순안本.

㉔번 ~ ㉕번 자료 공통적인 요소인 서천꽃밭의 생불꽃은 인간의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주화이고 생불꽃은 서천꽃밭과 함께 삼승할망 존재의 의미와 신의
직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삼승할망은 신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맹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가 꽃씨를 심고 누가 번성하는지 내기를
통해 각각 이승할망과 저승할망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서사까지 등장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고순안본은 <인간불도할마님본풀이>, <동이용궁할마님본풀이>로 구분되어 채록되어 있는데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는 <동이용궁할마님본풀이>에 나타나 있다. 서두에 동해용궁 따님아기의 탄생과 부모에게 불효하여 무죄석갑에 갇혀서 쫓겨나는 부분만 나타나 있고 이후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㉔번 자료 고순안본을 살펴보면 이승할망과 저승할망이 왜 구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㉔ 할마님이 하나 두 게, 뎡기멍 거느롤수가 엇이난, 세경암데전이라 영 허영, 서천꽃밭을, [소리] 어- 돌아보고 수뚝 주고 물주멍~, 번정(蕃盛)혜영, 천지왕에 들어강, 꽃씨연씨를 타당 수뚝 주고 물주멍 꽃씨 디리곡, 이월 이똥일이 순날 시에 입이 나곡, 삼원삼진날은 당허난, 버럭버럭 환싱꽃이 웨엄시난 “이만허민, 즈손 번성을 웰로고나.” 영허연, 할마님이 흰 손은 번성꽃, 흰 손에 환싱꽃을 들언,

- <맹진국할마님본풀이>, 양창보본.

양창보본은 서두에 동해용궁따님애기의 탄생의 서사를 전개하지 않고 맹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생불할망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다른 자료들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㉔번 자료는 꽃피우기 내기를 해서 동해용왕따님애기와의 경쟁에서 이긴 맹진국따님애기가 인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삼승할망 역할을 서천꽃밭에 꽃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시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동해용왕따님애기와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생불왕이 된 맹진국따님애기는 하늘에서 꽃씨를 얻어 산에 뿌려 서천꽃밭을 만들고 그 곳에서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는 생불꽃으로 인간 세상에서 아이를 점지하고 잉태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생명이 하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하늘을 존귀하고 신성한 것으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그림2]를 통해 앞서 언급했듯이 동쪽 꽃을 딴 후 점지하면 남자, 서쪽 꽃은 여자, 북쪽은 단명, 남쪽은 장수, 중앙의 꽃으로 점지한 아기는 출세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동서의 방향을 성별 분할의 표지이고 남북의 방향은 수명과 관련하여 인식했던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운명을 예정된 것으로 보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탄생의 원리를 장소 콘텐츠 기획 시 기본 원리로 반

영하고자 한다.

2) 성장과 성숙의 상징

삼승할망이 서천꽃밭의 꽃을 가지고 분주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점지한다. 그러나 수레멸망악심꽃이 집에 올 때는 질병이나 재난을 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을 막고 환생꽃으로 집안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이공본풀이>를 한다. <이공본풀이> 제차는 심방이 제사상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며 노래를 하고 먼저 굿을 사유를 신에게 고한 뒤 본풀이를 하고 기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옥황상제가 삼승할망을 통해 인간 세상에 생불을 주면서 다녔는데 누군가가 그 꽃을 꺾는 이가 있었다. 옥황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를 인간 세상에서 찾는다. 인간세상에서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 김정국의 아들인 사라도령이었다. 옥황은 조건에 부합하는 사라도령을 꽃감관으로 선정하고 그에게 꽃감관으로 오라는 서신을 보낸다.

㉞ 할마님은 ㉞서천꽃밭을 베실을 헤연 “아이고, 이 꽃은 그냥 놔두면 어떻허느니, 꽃감관 꽃성인이나 마련을 헤살 걸” 영 헤여 소문들음들음 헛 것이 사라도령이 역역허고 똑똑허난, 꽃감관에 꽃성인을 마련헛다.

- <이공본풀이>, 양창보本.

㉞ 은대양에 물을 떠 세술(洗手 ㄷ) 허전헛 게, 퍼딱하게, 편지 서신(書信)이 오랏구나. 무신 건고 봉간 보난

서천꽃밭~, 꽃감관(花監官) 꽃성인(花聖人)으로 살레 오렌 편지 서신이 오난, 그걸 원광아미 신디 곶으난

- <이공본풀이>, 이용옥本.

㉞ [음영]옥황상제(玉皇上帝)님에 충언(忠言)을 올립긴, 멩진국 할마님이로구나. “서천꽃밭디 꽃감관(花監官) 임명(任命) 시저주랜.” 허난, [소리] 서천꽃밭기 꽃감관 살레 오렌 헤여

- <이공본풀이>, 서순실本.

하늘나라에서 사라도령을 꽃감관으로 발탁하였다는 것은 사라도령이 더 이상 인간계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㉞ ~㉟번 자료) 사라도령은 똑똑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 지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원해는 천상계의 인물이며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역할을 줌으로써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꽃감관으로 발탁이 되어 사라도령은 부인 월강아미와 서천꽃밭을 향해 가지만 서천꽃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가진 자는 사라도령이다. 신격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서천꽃밭이다. 월강아미는 사라도령의 부인이지만 신성성이 있는 공간을 들어갈 수는 없는 존재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더 큰 짐도 짊어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사라도령과 월강아미의 아들인 한락궁이가 아버지인 사라도령을 찾으러 서천꽃밭으로 가는 여정 부분을 다루겠다. 이 화소를 다루는 이유는 한락궁이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꽃감관이 되는 시련의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㉞ 그디 접쟁이가 맞안

“느 어디레 감디?

한락등이가 아니냐?”

“예, 기우다. 부친님을 좇으레 가는 중이우다.”

-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이공본>, 조홀대 本.

㉟ 가마귀일곱머리울엄거늘 (중략)

그때헌집고치는데잇스니(중략)삼신녀가울고있으니

- 『조선무속의 연구(상)』, <이공본풀이>, 박봉춘 本.

㊱ (재인장자의 총전들이) 물먹으레 가는 순간에 신산만산 할락궁인 서천꽃밭에 들어가는구나

- 『제주도 큰 굿 자료』, <이공본풀이>, 한생소 本.

④③ 그때헌집고치는데잇스니
거의들고뭇기틀,
서천꽃밭을어디로가느냐무르니,
여기서우리와갓치연삼년
일을하면알려주마하니,
연삼년잇스후에다시무르니,
가당보면발똥뜰물이 잇고
적음턱이뜰물이 있으니넘어가라 하니,
가다가이물을넘어가니,

- 『조선무속의 연구(상)』, <이공본풀리>, 박봉춘本.

한락궁이는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④①번~④②번 자료들을 보면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으로 가는 동안 많은 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직면하게 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로부터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을 안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②번 자료에는 자현장자의 풀어놓은 충견들이 물을 먹으러 가는 순간에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다.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④①번의 자료처럼 점쟁이를 만나거나, ④①번 자료에서 까마귀를 만나고 ④③번 자료에서처럼 선녀를 만나 집을 짓게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준 대가로 서천꽃밭까지 가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④④ ~ ④⑤번의 자료처럼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 한락궁이는 중간 중간에 발등까지 차는 물, 등에 차는 물, 목에 차는 물을 건너게 된다. 세 단계의 물을 건너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물은 서천꽃밭을 가기 위한 과정이자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

④④ 가단 보난 [말] 발등에 뜨는 물이 싣구나. 그거를 넘어사니[소리] 준등이에 뜨는 물도 넘어간다
가단보난 야가기에 뜨는 물이 싣구나~[말]제우제우 그딜 건너가난, 서천꽃밭에[소리]

들어감테다.

- <이공본풀이>, 양창보 本.

④5 넘어가난 발등진 물 당헤영, 발등진 물 넘어간가
즌등친 물 당허난 즌등친 물 넘어가는구나.
목진 물이 당허난 목진 물도 넘어간다.

- <이공본풀이> 서순실 本.

물은 인간의 심리적 상상력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낳는다. 그리고 물은 모든 대상을 한 곳에 집합시키고 조화 있게 결합시켜, 다시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작용을 갖는다. 물은 부상(浮上)과 수몰(水沒)을 통해 모든 것의 존재 가능성을 부여하는 원천(fons et origo)이다. 그러므로 물은 원천으로서의 기원이며 모든 존재 가능성의 모태이다. 한락궁이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구분하는 월천강이나 통천 앞바다와 같은 이미지의 원강아미의 다짐받던 눈물로 이루어진 물을 건너는 순간, 한락궁이는 인간 세상에서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한락궁이가 신격(神格)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꽃밭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한락궁이는 인간이 아닌 신격(神格)이 주어진 후이다.¹⁷⁰⁾

우리나라와 같은 농경문화권의 나라에서 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신화에서 물은 창조의 원천이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화의 기능도 한다. 고대인들의 물에 대한 사고는 신화 속에 고스란히 담여 있다. 물은 생명을 생성하고 농경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농경생활에서 땅이 비옥하기 위해서 물은 필수조건이다. 또한 물은 시련의 과정에 놓인 장애물의 역할도 한다.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에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물은 시련이 과정에 놓인 경우이다. 고난의 물을 건너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물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그 곳에 가야 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는 박봉춘本을 제외하고 세 번에 걸쳐 물을 건넌다. 이는 물의 높이에 따라 다른데,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 잔등이까지 차오르는 물, 목 위로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넌다. 여기서 ‘물’은 인간의 세계와 서

170) 류호철의 앞의 논문, 59쪽.

천꽃밭의 경계를 구분하고 역할을 한다. 이 물을 건너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서천꽃밭은 현실의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임을 명확하게 한다.

한락궁이가 아버지인 꽃감관 사라도령을 찾으러 여러 시련의 과정으로 겪고 서천꽃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김창일¹⁷¹⁾은 선의 공간이며, 신이 공간이고, 동시에 현실계의 인간 또한 도달할 수 있는 공간, 인간의 생명과 유관한 꽃이 자라는 공간으로 생명의 공간이라고 밝혔다. 류호철¹⁷²⁾은 서천꽃밭은 본향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무속 제의의 무대로서도 역할을 수행하며, 서천꽃밭과 주화는 필요불가분의 관계이며 서천꽃밭은 인간과 신에게 있어서도 필수적인 공간임을 언급하였다.

조리라¹⁷³⁾는 서천꽃밭을 천계와 지계로 양분된 이원화 질서가 제시되는 서사 속에서 서천꽃밭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그 질서에 대한 파기와 극복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존재질서를 파괴하고 신성세계에 수용되고 다시 이 신성을 지상세계에 펼치는 것이 서사무가 내의 서천꽃밭이 근원회귀를 추구하는 원본상이라고 하였다.

정진희¹⁷⁴⁾는 서천꽃밭을 일반신본풀이에서 초월적 힘을 기반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신화적 우주의 확장으로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무가 향유 집단의 기획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재생한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돌아간 한락궁이는 꽃감관으로 좌정한다. 꽃감관은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에 들어간 한락궁이의 여정은 사회적 존재로서 거듭나는 성인식에 해당되며, 아버지로부터 꽃을 받으러 이승에 나온 한락궁이의 행적은 꽃감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다양한 꽃을 이용하고 그 효능을 확인해보는 일은 꽃감관이라는 직책에 부합되는 입사식 과제이다. 꽃성인과 꽃감관으로 각기 좌정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성공담은 아내이자 어머니인 원강아미가 겪어낸 혹독한 시련을 발판으로 이루어진다. 그녀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처절하게 재현하고 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만 꽃피는 봄이 오는 것처럼, 결국 꽃성인과 꽃감관이라는 신직은 원강아미의 희생을

171)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6집, 한국무속학회, 2003, 155~182쪽.

172) 류호철, 앞의 논문.

173) 조리라, 앞의 논문, 41-42쪽.

174) 정진희, 「제주 무가의 타계 상상과 그 신화적 논리-일반신본풀이의 천상(天上) · 서천꽃밭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51집, 한국시가학회, 2020, 5~28쪽.

닫고 피어난 또 다른 꽃인 것이다.¹⁷⁵⁾

한락궁이가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 받아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잘 둔 덕이 아니라 원강아미의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조현설¹⁷⁶⁾은 이에 대해 <이공본풀이>와 비슷해서 선후 시비가 붙어 있는 불교의 위경 <안락국태자경>이 원강아미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설명을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며 대자대비한 관음보살의 여성적 이미지가 원강아미의 자기희생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진희는 <이공본풀이>는 기본적으로 수레멸망악심꽃을 담당하는 이공신인 한락궁이에 대한 신화로, 한락궁이 중심으로 질서 체계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레멸망악심꽃을 제어할 수 있는 신의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근거로 하는 신 중심의 질서, 신의 질서 체계 내에 포섭되지 않은 자(장자)에 대한 징벌, 질서의 주변에 있는 자(원강아미)가 그 내부로 포섭되어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¹⁷⁷⁾고 하였다.

한락궁이는 목적지인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아버지인 사라도령을 만나서 자신이 겪는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이처럼 아들이 부친의 부재로 인해 부친의 존재를 알게 되어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부친탐색담’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본풀이에서는 <천지왕 본풀이>, <이공본풀이>¹⁷⁸⁾, <초공본풀이>에서도 나타난다.

175) 강진옥, 「‘꽃의 신화학’서설: 제주도 무속의 신화체계 탐색을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5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18쪽.

176) 조현설, 『우리신화 수수께끼』, 한겨레 출판, 2011, 192쪽.

177)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192쪽.

178) 김진철은 세 개의 본풀이 중에서 <이공본풀이>의 부친탐색담의 구조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이공본풀이	특징
부친의 부재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으로 떠남	주인공이 태어나기 전 부친이 떠남
부친탐색의 계기	제인장재 집에서의 노비생활	외부로부터의 시련
부친탐색의 여정	추격을 따돌리고 서천꽃밭으로 찾아가감	고난과 장애 극복
부친과의 조우	사라도령과 만남	혈연관계 확인
부친의 임무 부여	제인장재에 대한 복수와 원강아미 부활	복수와 모친의 재생
부친능력 계승	꽃감관으로 임명	평화적 세력 교체

- 김진철, 「제주신화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의 현재성 투영 양상」, 『영주어문』 제32집, 영주어문학회, 2016, 14쪽.

<이공본풀이>에서 한락궁이에게 닥친 문제 중에 서천꽃밭에 가서 해결된 문제는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찾은 것이며, 두 번째는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살리는 방법으로 환생꽃을 사라도령에게서 얻어 어머니를 다시 살린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과 어머니를 사악하게 괴롭힌 자현장자의 가족까지 징치한 것이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한락궁이가 아버지인 사라도령을 만남으로서 서천꽃밭의 꽃으로 모두 해결되었다. 권능을 인정받은 한락궁이는 사라도령의 뒤를 이어 꽃감관이 되어 신성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꽃감관이 되는 과정에서 성장과 성숙의 원리를 주테마로 하여 콘텐츠 활용 시 반영하고자 한다.

3) 죽음과 환생의 상징

제주 사람들에게 죽음은 삶과 대립되는 것이지만, 부정적이거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죽어서 가는 저승이라는 공간은 하늘, 땅, 바다 외에도 신화적인 공간이며 인간의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서천꽃밭에 반영되어 있다.

인간은 자연의 순환을 생명의 순환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서천꽃밭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공간이다. 서천꽃밭에서는 꽃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되살렸다. 삶과 죽음의 경계의 공간에서 얻은 꽃으로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수남은 죽음에서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자청비가 농경신으로 좌정할 수 있던 이유도 삶을 되살리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에서도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에서 꽃을 얻어 어머니인 원강아미를 살리는데, 여기서의 서천꽃밭도 <세경본풀이>에서의 사라대왕의 꽃밭과 같은 의미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에서 환생꽃을 이용하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부분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한락궁이는 어머니를 살렸고, 자청비는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렸다. 녹디생이는 어머니를 살렸다. 이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획득하여 신으로 좌정되는 공통점을 갖는다.

서천꽃밭의 환생을 통해 우리는 이승과 저승의 순환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천꽃밭이라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놓인 대칭점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자연과

어우러짐과 동시에 인간의 죽음과 재생을 통한 순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순환은 인간과 자연과의 순환과도 연결된다.

강명혜¹⁷⁹⁾는 서천꽃밭에서 꽃으로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것을 이승에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며 생명의 영원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였다. 결국 꽃이 영원히 되풀이 되어 피듯이 인간 수명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류의 오랜 원형상징인 ‘겨울’과 ‘봄’의 싸움이 내재되어 죽음을 당하는 대상이 살리는 대상보다 연장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오래된 것은 죽고 새것이 대치하는 것은 바로 ‘겨울’과 ‘봄’의 싸움이며 영원이 지속되고 되풀이 되는 인간 삶의 법칙에 꽃이라는 상징물이 구체적 설명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한락궁이가 어머니를 재생시켜 자신과 같이 서천꽃밭으로 들어오게 하여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저승할망으로 좌정시킨 이유를 김혜정¹⁸⁰⁾은 한락궁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어머니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의 반영이며,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 조상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인식했다. 그 중에서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크다고 인식한 것이 무가와 의례에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효섭¹⁸¹⁾은 본풀이에서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난 세계 역시 현실세계가 된다고 하면서 <이공본풀이>에서 한락궁이가 환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린 것,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에게 죽음을 당한 정수남을 자청비가 환생꽃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 부인과 노일저데귀일의 딸라 죽음 이후 인간으로 환생하지 않고 조왕신과 측간신으로 좌정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현실계와 초월계, 삶과 죽음에 대한 분화가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죽음이 현실적 삶의 종말로서 뚜렷이 인식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풀이의 탄생과 죽음의 연쇄는 ‘탄생-재탄생’ 혹은 ‘탄생-(죽음)-재탄생’과 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공본풀이>, <문전본풀이>, <세경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의 꽃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본풀이 속의 인물이 위기를 겪는 장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179) 강명혜, 앞의 논문, 45-46쪽.

180) 김혜정, 「자식 점지 기원 신화의 측면에서 살핀 <이공본풀이> 신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38집, 2019, 70쪽.

181) 송효섭, 「‘본풀이’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4권, 1998, 문학과 지성사, 149쪽.

풀이 속 인물들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현실 세계에서 해결하기보다 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신으로 좌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생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계의 공간이 서천꽃밭이다.

4) 긍정과 부정의 조합 원리

고대인들의 관념 속에 하늘 혹은 신들의 세계는 너무도 막대한 권능과 영험을 가졌기에, 그들은 스스로의 도덕률을 신화에 투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계율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법제적 규범성을 확보하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였고 또 삶의 지혜를 발휘하였다. 이 점은 역사의 순리인 듯하지만 그러나 엄연한 인간 이성의 진보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인간이성의 승리는 충돌로써 모순의 해결은 지향한 것이 아닌 조화로써 모순의 공존을 지향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대립물 혹은 적대적 대상과의 화합·합일을 추구한 점이다.¹⁸²⁾

꽃이란 죽은 뒤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승에서의 삶이 꽃처럼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는 기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로 서천꽃밭은 죽은 이들의 전당이면서 동시에 삶이 시작되는 곳이다.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의 꽃으로 어머니 원강아미를 되살렸다. 뽕오를 꽃으로 뽕을 되살리고, 살오를꽃을 뿌려 살을 되살리고, 피오를꽃을 뿌리니 어머니의 몸에 피가 돌았다. 솜트일꽃을 뿌리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때죽나무 회초리로 몸을 세 번 때려 어머니를 완전히 부활시켰다.

농경신 자청비는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과 문도령을 역시 살려내었고, 천계에 반란이 일어나자 멸망꽃으로 적들을 혼자서 쓸어버린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일곱 형제 중 막내 녹기생이가 어머니인 여산부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에 환생꽃을 가지러 간다. 그곳에서 살오를꽃, 피오를꽃, 웃음웃을꽃 등의 환생꽃을 가지고와 역시 나무 회초리로 어머니를 세 번 때려 되살린다.

서천꽃밭의 꽃들은 각자 특수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데, 새로운 생명과 환생, 인간의 감정을 상징한다. 긍정과 부정의 조합의 원리가 공존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서천꽃밭의 환생꽃은 긍정의 역할을 하고 잘못을 한 사랑을 징치하는 웃음웃을꽃, 싸울꽃, 수레멸망약심꽃들은 부정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천꽃

182) 임태승, 「신화적 세계관과 유가적 세계관」, 『창조신화의 세계』,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02, 413-414쪽.

밭이라는 한 곳에 존재한다.

서천꽃밭은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이 경계선에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삶에서 죽음으로 가기 전,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기 전에 중간쯤에 있는 공간이다. 특정한 능력을 가진 이들은 이곳으로 직접 들어가 환생꽃을 가지고 나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 등장하는 꽃들을 살펴보자.

④⑥ 서천꽃밭의 들어가고 번승꽃과 환승꽃

오장육부 생길 꽃, 말 곶을 꽃, 웃음웃을꽃

꺾어 들고 멜망악심 수록꽃을 꺾어 들고 허야

- 『제주무가본풀이사전』, <이공본풀이>, 고대 중本.

④⑦ [말] “처음에는 웃임꽃을 네어주라. 두 번째랑 싸움허는 꽃을 네어주라. 식번째랑 수레악심멜말꽃을 네어주되, 그 집의 죽은딸은 느네 어멍 사랑사나난 하도 므음씨가 고난, 율데레 동경 신칭(神廳) ㄱ리메¹⁸³⁾ 하나 딱쳐뵈, 다른 사람이랑 몬 수레악심멜 망꽃을 주어그네, [소리] 어~ 심어당몬 죽여볼라.” 영 헤어두언. 번성꽃, 황심꽃, 어멍 살리는 꽃, 슬 오를 꽃, 배 오를 꽃, 걸음걸이 황신흔 꽃, [소리] 오장육부 거릴 꽃, 말 곶아 행신흔 꽃

- <이공본풀이>, 양창보本.

④⑧ 꽃감관 꽃쟁인 서천꽃밭디

꽃 구경 가난 “요 꽃은 피 울를 꽃.

이 꽃은 슬(肉) 울를 꽃.

이 꽃은 오장육부(五臟六腑) 살아날 꽃. “꺼꺼근, 품 안터레 놓아간다.

“요 꽃은 웃음 웃을 꽃이에여.

이 꽃은 싸울 꽃이여, 요 꽃은 죽을 꽃이에요.”

수리멜망악심꽃 꺼꺼 앓엉

- <이공본풀이>, 서순실本.

183) 백지나 창호지 따위로 당클이나 제상을 가린 것

본풀이에 등장하는 꽃의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을 살펴보면, 긍정과 부정으로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긍정의 역할: 생불꽃, 환생꽃, 번성꽃, 힘오를꽃, 뼈오를꽃, 살오를꽃, 숨실꽃, 오장육부오를꽃

부정의 역할: 수레멜망악심꽃, (검)유울꽃, 웃음웃을꽃, 싸움할꽃, 가난할꽃

인간을 탄생하게 하거나 다시 환생하면서 뼈와 살을 오르게 하고 숨을 쉬게 하며 오장육부를 살게 하는 꽃들은 긍정의 의미가 있다. 반면 사람을 죽이는 수레멜망악심꽃과 싸움을 하게 만들거나 가난하게 만드는 꽃과 검뉴울꽃은 시든 꽃이다. 웃음웃을꽃이 부정적인 이유는 너무 웃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에 꽃으로 분류하였다. 긍정과 부정으로 꽃을 분류하였지만 이 꽃들은 서천꽃밭에 한 데 모여 있는 꽃들이다. 조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 탄생과 죽음, 환생 등이 한 곳에 공존하는 곳이 서천꽃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도 서천꽃밭은 긍정과 부정의 조합 원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풀이의 체계에서 저승과 이승의 대립, 갈등으로 가득 찬 이승의 세계를 화해시키는 존재로 출현한 신격이 '생불할망'인 셈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꽃피우기 경쟁'은 신화 속의 속임수가 없다. <천지왕본풀이>에서처럼 꽃이 잘 피지 않는 신의 꽃이 활짝 핀 신의 것을 꺾거나 훔쳐서 신들의 싸움이 승리자가 인간 세상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이다. 생불할망은 싸움을 걸어오는 저승할망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좋은 마음'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창조신이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은 이승과 저승의 대결관계를 협조관계로 바꿔버린다. 두 본풀이의 역대응관계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역시 '할망'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다. 생불할망은 저승할망과의 어울림을 통해 지금 인간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별왕과의 또 다른 어울림을 이룩한 것이다.

본풀이의 서사 세계는 하나의 순환체계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인간 세계의 문제만의 아닌 자연과 공존하려는 인간들의 삶의 의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천꽃밭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 어디엔가 위치한 곳임을 추측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끝일 수도 있는 공간이며 또 다른 삶의 시작의 공간일 수도 있다. 긍정과 부정이 원리

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것의 이면이 있다는 원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풀이의 담화에서 신직을 부여받은 신은 인간으로부터 제의를 통해 음식을 받고 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지킨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그 이득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순환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신에게 빌고 얻고자 한다. 자연의 천재지변과 인간이 이루는 땅에서의 농업도 바다에서의 어업도 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화의 신성성을 여기서 출발한다. 인간과 구별되는 신의 능력은 신성성이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전지전능한 무엇, 신에게만 있는 것이라 믿는 인간에 의해 신화는 생겨났다. 본풀이는 제주의 신화이다. 제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바랐던 소망이 투영된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 안에는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이 깔려 있다. 따라서 굿의 과정을 신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존재와 존재 간에 관계를 맺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본질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두 대립적 대상 사이에서, 두 대상을 연결하려는 추동력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질적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더욱 적극적 특성을 지닌다. 두 대상 간에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필요로 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더욱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 매개 장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얻고자 하는 인간의 지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이 추구하는 지표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⁸⁴⁾

이 장에서는 꽃과 꽃밭의 상징성과 서천꽃밭의 상징성, 본풀이에 나타난 서천꽃밭의 탄생, 성장, 성숙, 죽음, 환생, 긍정 부정의 조합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본풀이에서 생명을 꽃과 연관시켜 서사를 구성한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꽃씨에서 자라서 꽃이 된 후 다시 꽃씨로 돌아가는 순환 원리와 생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 환생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간절함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84) 변숙자, 「제의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기반한 신화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6-27쪽.

인간과 자연은 순환 구조에 의해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공존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환경의 파괴로 자연은 훼손되고 있다. 이 모든 파괴적인 것들이 곧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자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인간을 위한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 변화를 시작으로 환경 변화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태초부터 지구 곳곳에서 많은 존재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보호를 받던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는 각종 인공적인 요소로 이미 곳곳에서 파괴가 시작되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인공 댐 조성, 화학비료의 지나친 사용 등으로 지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야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일회용품에 익숙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못한다. 인간과 식물, 문화와 자연 생태계의 적절한 조화는 모두의 안녕과 즐거움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사이자 주제일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서 중시하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게 가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인간과 자연은 공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배려하는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여 이전엔 미처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환경오염에 무너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꽃감관이 서천꽃밭의 꽃들을 귀하게 다루듯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때이다.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에서 생명의 순환원리와 꽃의 순환 원리를 확인하였다. 생명의 탄생 이전부터 많은 노력과 공이 들어가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보존하는 과정을 본풀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죽은 생명을 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함은 환생꽃이 되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들이 모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의지로 변환 할 때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와 나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너지를 자연과 더불어 세상을 키워나가하고자 하는 힘으로 발산하는 순간, 세상은 오염 없이 순수하고 생명 순환의 원리가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돌고 도는 생명의 원리가 반영된 서천꽃밭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본풀이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소적 특성을 가진 곳이 서천꽃밭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서천꽃밭의 꽃이다. 꽃이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이러한 상상력과 신비함은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콘텐츠 사례 분석

1. 문화콘텐츠 현황

앞 장에서는 꽃과 꽃밭의 상징성, 본풀이에 나타난 꽃과 생명의 순환 원리, 꽃과 생명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본풀이 서사에 나타난 서천꽃밭이 실제 문화콘텐츠로 반영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후 분석하고자 한다.

21세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문화예술 이전의 개별 영역을 융복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문화현상이 등장하였지만, 그 바탕에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를 기반으로 매체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인해 서로 연결되며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기도 한다.

서천꽃밭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전체 사례 현황은 [표10] 와 같다.

연번	장르	작품명	특징
1	소설	서천꽃밭 가는 길	- 서천꽃밭을 주제로 6개의 이야기로 구성 - 서천꽃밭이 가진 다양한 특징을 알 수 있는 작품
2	소설	집으로 가는 길	- <세경본풀이>를 모티브로 스토리텔링, - 본풀이의 인물을 중심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3	동화	마두의 말씨앗	- <이공본풀이>를 모티브로 한 부친탐색담 - 마두와 아빠의 행동 변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 창작 작품
4	동화	아버지를 찾아서	-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창작동화 - 부친탐색담
5	동화	서천꽃밭 한락궁이	- <이공본풀이>를 소재로 한 동화
6	동화	서천꽃밭 매점 얘기 1,2,3	- 웹소설로 재 콘텐츠화되었음
7	동화	한락궁이야, 네 집을 지어라	- <이공본풀이>를 소재로 한 동화
8	동화	미션! 저승꽃을 피워라	- 본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서천꽃밭의 꽃들을 통한 삶의 원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철학 동화
9	시집	서천꽃밭에 계십니까	- 서천꽃밭에 4·3의 아픔을 반영함 - 서천꽃밭을 문화원형으로 활용함

연번	장르	작품명	특징
10	연극	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	- 전통악기, 굿과 현대적인 음악과 협연한 공연 -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음 - 서천꽃밭의 삶과 죽음, 신성,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다 양한 형식, 볼거리, 등장인물을 통해 전달
11	인터랙티브 전시공연	서천꽃밭	- 서천꽃밭과 미디어 설치예술의 결합 - 서천꽃밭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 - 공연이면서 서천꽃밭의 장소성이 반영됨
12	한국 무용	련: 다시 피는 꽃	- <도미부인설화>와 <이공본풀이> 설화를 조합한 창작공연 - 극적 흐름을 춤으로 풀어가는 극
13	설치미술& 퍼포먼스	제주 신화 속 꽃의 의미를 찾아	- 서천꽃밭의 미학적 재해석 - 학술 세미나의 주제가 공연으로 기획, 실제 공연이 됨
14	마당극	적벽대전	- 한국전쟁이라는 슬픈 역사를 서천꽃밭에 반영
15	연극	가자, 서천꽃밭으로	- 기생의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 - 전통악기 연주와 춤이 어우러진 공연함
16	레파토리 공연	음악굿: 꽃풀이	- 제주굿을 바탕으로 연물타악, 기악선률, 랩이 어우러진 공연 - 제주의 자연 훼손과 환경 문제를 다룸 -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 협력한 공연
17	그림자 공연	서천꽃밭	- 어린이들이 서천꽃밭의 꽃을 직접 만들고 그림자 공연을 함 - 교육적 효과와 예술적 감각을 동시에 전달
18	회화 전시	<이공본풀이 -서천꽃밭 이야기>	- 제주 본풀이를 스토리화하여 그림
19	회화 전시	<이공본풀이 -탄생 삶죽음>	-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냄
20	사진 전시	귀로	- <세경본풀이>의 서천꽃밭을 차용
21	민화	<서천꽃밭>, <제주도>	-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 - 불교적 색채와 인도풍의 그림 가미
22	종교화	설위설경	- 서천꽃밭의 생명의 꽃을 소재로 함
23	일러 스트	<서천꽃밭과 자청비>	- 제주 신화의 여신을 형상화
24	섬유 디자인	생불꽃 디자인	- 서천꽃밭 생불꽃 이미지를 디자인하여 섬유로 제작함
25	배지	제주신화 속 서천꽃밭 꽃배지	- 서천꽃밭의 각종 꽃을 개별 디자인하여 배지로 제작, 판매
26	보드 게임	서천꽃밭	- 서천꽃밭을 주제로 한 파티형 보드게임 - 1명부터 4명까지 만14세 이상 참여 가능

연번	장르	작품명	특징
			- 게임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
27	뮤지컬 다큐멘터리	서천꽃밭	- 다크무비(다큐멘터리+뮤지컬+영화)라는 새로운 장르 -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 서사를 중심으로 총 2부로 제작 - 1부:생명의 여신 삼승, 2부: 꽃감관 사라도령
28	영상	삼승할망	- 제주어 애니메이션 들엄시민 주제가로 제작 - 제주어, 표준어, 영어 세 가지 버전으로 시청 가능
29	영상	농업의 여신 자청비	- 제주어 애니메이션 들엄시민으로 제작 - 서천꽃밭의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전달 - 제주어, 표준어, 영어 세 가지 버전으로 시청 가능
30	축제	2012 탐라대전	- 서천꽃밭을 재해석한 탐라공원 조성
31	축제	2022년 탐라입춘굿	- 자청비놀이: 꽃탐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
32	축제	2023년 탐라입춘굿	- 자청비놀이 - 굿놀이로서 관객들에게 흥미적 요소만 전달
33	축제	서천꽃밭축제	- 2012년~2014년까지 총 3회 개최 - 실제 꽃밭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함
34	축제	제주신화 페스티벌	- 2019년~2020년 2회 제주신화공원에서 개최
35	테마 거리	자청비거리	- <세경본풀이> 서사 내용을 벽화로 안내 했음
36	테마 거리	신화의거리	- 조성된지 5년만에 철거됨
37	테마 거리	신나락만나락	- 제주 신화·전설 탐방로 - 꽃자왈 숲길과 돌담길로 이루어짐 - <이공본풀이> 줄거리 안내와 서천꽃밭 조형물만 있음

[표10] 문화콘텐츠 현황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난 후 기존 문화콘텐츠 사례의 미비한 점을 무엇이고 앞으로 제안할 문화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문학 콘텐츠, 시각 콘텐츠, 공연 콘텐츠, 복합 콘텐츠, 장소 콘텐츠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문화콘텐츠 사례

1) 문학 콘텐츠

서천꽃밭이 문학으로 콘텐츠화 된 경우는 대부분 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모티브로 한 경우가 많았다. 시, 소설, 동화 등 문학의 기본은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가 형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연번	구분	작가	제목	내용 및 특징
1	소설	오진원	서천꽃밭 가는 길	서천꽃밭을 주제로 6개의 이야기로 구성
2	소설	이명인	집으로 가는 길	<세경본풀이>를 모티브로 스토리텔링
3	동화	문선이	마두의 말씨앗	<이공본풀이>를 모티브로 한 부친탐색담
4	동화	박재형	아버지를 찾아서	<이공본풀이>를 모티브로 한 창작동화
5	동화	김태옥	서천꽃밭 한락궁이	<이공본풀이>를 소재로 한 동화
6	동화	차정	서천꽃밭 매점 얘기 1,2,3	웹소설로 재콘텐츠화 되었음
7	동화	안수자	한락궁이야, 네 집을 지어라	<이공본풀이>를 소재로 한 동화
8	동화	용민하	미션! 저승꽃을 피워라	본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
9	시집	김관후	서천꽃밭에 계십니까	서천꽃밭에 4·3의 아픔을 반영함

[표11] 문학 분야 문화콘텐츠 사례

오진원¹⁸⁵⁾ 『서천꽃밭 가는 길』(현복스, 2021)에서 등장하는 ‘서천꽃밭’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어느 중간쯤인 환상의 공간이다. 이 작품은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본풀이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삼신할머니가 만든 서천꽃밭’, ‘서천꽃밭을 찾아간 바리데기’, ‘서천꽃밭을 가꾸는 아이들’, ‘서천꽃밭을 지키는 한락궁이’, ‘서천꽃밭을 마음대로 드나든 자청비’, ‘서천꽃밭에 광새 타고 간 사람’ 총 6장으로

185)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를 주로 쓰고 있는 작가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신기한 이야기 반점』, 『어린이가 안전할 권리』, 『달려라, 꼬마 보발꾼』, 『책 빌리러 왔어요』 등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서천꽃밭이 가진 다양한 특징을 동화로 풀어냈다.

‘삼신할머니가 만든 서천꽃밭’은 <삼승할망본풀이>를, ‘서천꽃밭을 찾아간 바리데기’는 <바리데기>, ‘서천꽃밭을 가꾸는 아이들’, ‘서천꽃밭을 지키는 한락궁이’는 <이공본풀이>, ‘서천꽃밭을 마음대로 드나든 자청비’는 <세경본풀이>, ‘서천꽃밭에 괘새 타고 간 사람’은 <문전본풀이>를 콘텐츠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서천꽃밭의 탄생한 과정과 꽃감관의 역할, 꽃밭에서 자라는 각종 꽃들의 역할 등을 쉽게 풀어 쓴 작품이다.

소설 『집으로 가는 길』(문이당, 2000)은 이명인¹⁸⁶⁾이 <세경본풀이>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스토리텔링 하여 지은 소설이다. 제주도 토속 신앙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사랑을 다룬 이 소설은 <세경본풀이>의 주요 인물인 자청비 외에도 서천꽃밭 사라대왕, 저승길 길라잡이 강림, 설문대할망 등 제주도의 토속 신들에게 인간 속성의 캐릭터를 부여하여 소설을 흥미롭게 전개하였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세경본풀이>의 내용을 골자로 했다기보다 인물의 캐릭터를 그대로 살리면서 줄거리는 현대에 맞게 비교적 많은 변화를 주며 인간과 신이 어울려 함께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이복 남매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 그 사랑의 이면에 다양한 제주의 이야기를 장치하여 소설적인 흥미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 제주 설화의 현대적 변용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주인공들 운명의 엇갈림, 사랑의 비극성, 한의 맺힘과 풀림 등을 소재로 전개하였다.

작가는 작품에서 생명의 끈질김을 강조한다. 아버지 부재 상태 속에서의 2대에 걸친 임신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현 세태에 대한 작가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독자들을 끌리게 하는 것은 청비라는 한 여인의 주술적 힘이다. 근친상간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청비의 도덕 너머에 있는 사랑과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작품 속에 녹아 있다.

<이공본풀이>를 모티브로 한 부친탐색담 동화인 문선이¹⁸⁷⁾의 『마두의 말씨앗』

186) 1992년 장편 소설 『먼 하늘 가까운 사람들』로 <현대소설> 신인상 당선, 『아버지의 우산』을 비롯한 8편의 장편 소설이 있다. 『빼앗긴 들의 사람들』,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생각』, 『치즈』, 『낙타』, 『은밀한 유산』을 썼다.

187) 199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아버지」가 당선되었다. 같은 해에 동시 「별님」으로 눈높이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에는 『나의 비밀 일기장』으로 MBC 창작동화 대상 장편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상력과 관찰력으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이다. 2005년에는 『지엠오 아이』로 창비 제9회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창작 부문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작품으로는 『나의 비밀 일기장』, 『제키의 지구 여행』, 『양파의 왕따 일기』, 『엄마의 마지막 선물』, 『벌레 구멍 속으로』, 『딱친구 강만기』, 『내 친구 고슴도치』 등이 있다.

(사계절, 2007)에 등장하는 말씨앗은 아이들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말씨앗 관리자는 본풀이에서 꽃감관 역할이다. 이 부분의 <이공본풀이>의 내용과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 마두는 아빠를 미워한다. 자기와 놀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운 아빠를 심지어 바꾸고 싶어 한다. 마두가 원하는 대로 아빠를 바꾸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동화이다.

마두가 아빠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공본풀이>와 <원천강본풀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원천강을 지나 서천꽃밭을 너머 아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 죽은 사람 살리는 뻥살이꽃, 살살이꽃, 피살이꽃, 숨살이꽃, 혼살이꽃들과 천리동이 만리동이와 사계절을 뜻하는 문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마두도 한락궁이나 오늘이처럼 진정 소중한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되찾는 여정에서 용기와 의지를 가진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아버지와 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동화이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한락궁이의 모험을 통해 가족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마두의 말씨앗』은 마두와 아빠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¹⁸⁸⁾

<이공본풀이>를 모티프로 골격을 만들고, 상상력으로 살을 붙여 의미 있는 창작 동화를 완성한 박재형¹⁸⁹⁾의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우리나라의 신화를 읽는 재미를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동화이다. 옛이야기가 가득한 땅, 제주도에는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살오를꽃, 피오를꽃, 도환생꽃, 멸망꽃이 있는 서천꽃밭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작품에는 서천꽃밭의 꽃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동화 『아버지를 찾아서』(박재형, 네버엔딩스토리, 2011)는 꽃을 너무나 사랑하는 누리 아버지 덕분에 꽃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누리집 마당은 갖가지 꽃들로 가득했다. 어느 날, 임금님의 행차 길을 꽃으로 꾸미는 문제를 둘러싸고 누리네는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급기야 길목에 심어둔 꽃을 몽땅 도둑맞는 불길한 사고까지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옥황상제에게 하늘나라 꽃밭지기로 오라는 부름을 받고

188) 김진철, 「신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제주신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87-88쪽.

189) 저자 박재형은 1951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1983년 <아동 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어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계몽사 아동문학상'을 받았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동화 「해맞이」가 실렸으며, 지은 책으로는 동화집 『까마귀 오 서방』, 『쌍둥이 행진곡』, 『돌하르방』, 『짜장면』과 장편 동화 『내 친구 삼레』, 『검둥이를 찾아서』, 『다랑쉬오름의 슬픈 노래』 등이 있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바람에, 어머니와 누리만이 집에 남게 된다. 결국 누리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여행하면서 다양한 이들을 만난다. 하늘나라의 꽃밭지기로 떠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두 번이나 하늘나라로 험난한 여행을 떠나는 누리를 통해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는 부친탐색담의 동화이다.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태옥¹⁹⁰⁾, 『서천꽃밭 한락궁이』 (봄봄출판사, 2011)는 <이공본풀이>를 모티브로 하여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아 씩씩하게 여행을 떠나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이다. 신비로운 생명의 꽃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입말체의 문장으로 완성한 그림책이다.

차정의 『서천꽃밭 매점 얘기 1,2,3』(스튜디오 봄봄, 2018)는 모녀가 잘 살기 위해서는 모녀가 떨어져 살아야한다는 점쟁이의 말에 엄마는 제주도에서, 세진은 육지의 오빠 집에서 3년간 떨어져 살았다. 3년 후 좋은 대학에 합격한 세진이는 대학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이동하던 버스를 탔는데 사고를 당한다.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어린 나이에 죽은 세진이가 노잣돈이 없어 저승을 못 간다고 말하며 서천꽃밭에 가서 매점 생활을 하고 돈을 벌라고 한다. 이 작품은 세진이가 서천꽃밭 매점에서 좌충우돌 겪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총 6편의 웹소설로 다시 콘텐츠화되었다. 텍스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흥미요소를 더하여 문화콘텐츠로 만든 작품이 다른 매체로 다시 콘텐츠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서사구조가 잘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중성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안수자¹⁹¹⁾, 『한락궁이야, 네 집을 지어라』, (해출판사, 2020.) 등은 <이공본풀이>의 한락궁이와 서천꽃밭을 소재로 다루면서 동화이다. 주인공 아리아가 헌책방에서 할머니의 물건을 뒤지다가 비밀 서랍 속에서 ‘한락궁이야, 네 집을 지어라’라는 책을 발견하면서 아리아에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머니의 책 속에서 걸어 나온 한락궁이를 만나고, 할머니의 상상 속 숲인 천태산에 간다. 아버지가 있는 서

190) 1961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으며, 1997년 월간 <아동 문예>에 동화 「도시로 간 호박」으로 신인상을, 199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박물관 가는 길」이 당선되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내일로 흐르는 강』, 『달빛계로 가다』, 『작은 나라』, 『결떡이와 움살』, 『야호 난장판이다』, 『아쉬이 봉산탈춤』 동화로 읽는 파브르 곤충기 등이 있다.

191)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귓속에 사는 무당거미』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뿌사리」로 한국안데르센문학상, 2015년 『우주나무 정거장』으로 MBC창작동화대상, 2015년 『모해를 찾아라』로 송순문학상, 2016년 「얘야 문을 열어다오」로 열린아동문학상을 받았다. 작품으로는 장편동화 『우주나무 정거장』, 『파랑게르치 날다』, 『모해를 찾아라』, 『단자요!』, 『느티나무 괴물들』 등이 있다.

천꽃밭에 가기 위해 서천강을 건너지만 서천꽃밭에는 아버지도 없고 꽃들도 없다. 한락궁이가 숨트일꽃을 잃어버려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이다. 작가는 주인공 아리아와 한락궁이가 잃어버린 숨트일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고 나아가는 참된 용기에 대해 주인공들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한다. 이 동화는 책을 매개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다른 세계로 이동하면서 극적인 분위기 전환을 가져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이공본풀이>의 원형을 유지한 채 현대적인 인물인 아리아와 잘 어우러진 동화라고 할 수 있다.

용민하¹⁹²⁾의 『미션! 저승꽃을 피워라!』(글 용민하, 그림 배한나, 나무말미, 2021)는 저승꽃을 피워야만 살 수 있는 주인공 진수가 저승에 가서 체험하는 이야기다. 저승에서 삼승할망이 서천꽃밭 한락궁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저승꽃을 피우는 미션을 수행해야만 진수는 다시 죽지 않는다. 삼승할망, 염라대왕, 한락궁이가 등장하며 아이의 시선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배우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이다. 꽃을 피우는 미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철학을 서천꽃밭의 꽃들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잘못을 알았을 때 용기를 가지고 사과를 하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화를 통해 전하는 콘텐츠이다. 이 작품은 본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본풀이의 인물을 새로운 이야기로 구성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김관후¹⁹³⁾의 시집인 『서천꽃밭에 계십니까』(제주콤, 2020)는 4·3 당시 정뜨르비행장에서 떠나보낸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과 역사적 흐름과 인물에 대한 84편의 시가 담겨 있다. ‘애기물매화’, ‘4월 3일’, ‘조선은 미국의 적’, ‘너븐송의 꽃밭’, ‘북으로 간 김달삼’ 등 총 5부로 이뤄졌다. 시집의 대표작인 「서천꽃밭에 계십니까」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막막 저승을 향하여 떠나셨습니까

192) 동화와 그림책 교육을 하고 있고, 작품으로는 『뱀피루스』, 『종이 인형 슈슈』가 있다. 『인간 세상에 온 힘센 선녀』는 ‘2020우수출판콘텐츠’에 선정되었다.

193) 1991년 시인으로, 1995년 소설가로 등단하였다. 시집 『섬꽃 떠난 내 아버지』와 『함덕리』, 소설집 『어허령 달구』와 『본풀이』를 냈다. 제주문화원 부원장을 지냈고 2022년 4월 작고하였다

저 아늑한 섬꽃 끝자락에서
 보이셨다가 사라지신 무심한 당신
 어느 곳에서 무얼하고 계십니까
 동쪽에서 숨죽이며 사시다가
 해지는 서쪽으로 떠나가신 당신
 광명과 생성을 상징하는 동쪽에서
 죽어서 영혼으로 떠난 서쪽으로
 그곳 서천꽃밭에서 죽은 이를 살린다는
 그 아늑한 환생꽃으로 피셨습니까
 검은꽃 노란꽃 빨간꽃 파란꽃 하얀꽃
 뼈와 살과 피와 숨과 혼을 살려내는
 그 꽃으로 피어 향기를 뿜고 계십니까
 눈물이 말라 흐르질 않습니다
 가슴이 막히고 말문도 막혔습니다
 총소리가 가슴을 후비고 지나는 날
 동백무리가 똑똑 꽃잎을 흩날리는 날
 동네 고샅길 넘어 동네 삼촌들 함께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신 당신
 비애 끓는 소소리바람 멀리 하고
 서천꽃밭으로 당신을 보내는 심정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빈 꽃상여 메고 저 멧부리 따라
 일가친척 영이별하고 산천벗님 영이별한
 당신은 그 꽃밭에서 영원하십니까

-「서천꽃밭에 계십니까」 전문

이 시집은 <이공본풀이>에서 인간 생명의 근원이 되는 꽃을 가꾸는 곳인 서천꽃밭에 4·3의 아픔을 잘 녹여낸 작품이라 평가 받고 있다.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반영된 작품이다. 4·3¹⁹⁴⁾은 제주 사람에게 평생

194)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미군 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

상처로 남은 사건이다. 제주도는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남아 있어 끝나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 시에는 4·3 때 희생당한 분 중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넋을 위로의 공간인 서천꽃밭에 보내더라도 그 마음마저 편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작가는 시를 통해 말하고 있다. 여전히 아픈 마음을 서천꽃밭으로 보내 달래려는 화자의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서천꽃밭은 그리움의 대상이며, 그 곳에서 만큼이라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편하게 계시길 바라는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 시는 본풀이의 구조나 소재를 활용하여 문화원형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은 전반적으로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를 반영한 작품이 대다수였다. 특히 동화는 <이공본풀이>의 등장인물인 한락궁이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였다.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꽃감관이라는 역할은 다른 신화에서는 보기 힘든 캐릭터이고, 이 캐릭터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김태옥의 『서천꽃밭 한락궁이』, 차정의 『서천꽃밭 매점 애기 1,2,3』, 안수자의 『한락궁이야, 네 집을 지어라』 등이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서천꽃밭이라는 장소보다 인물 중심의 서사이므로 서천꽃밭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전달하기에는 미흡했다. 『마두의 말씨앗』과 『아버지를 찾아서』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서천꽃밭은 대부분 배경으로만 등장하고 있다. 소설 『집으로 가는 길』은 <세경본풀이>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니 현대적 감각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제주의 토속 신앙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 문화원형으로써 서천꽃밭의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작품이 김관후의 시집 『서천꽃밭에 계십니까』인 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서천꽃밭을 제주의 가슴 아픈 역사인 4·3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서천꽃밭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환생꽃으로 다시 환생하길 바라는 마음을 오롯이 시에 담아냈다. 서천꽃밭의 환생의 원리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서천꽃밭을 주제로 하다보니 대부분의 문학 작품의 텍스트는 <이공본풀이>인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도 <삼승할망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를 활용한 문학 작품이 더 창작되길 바란다.

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2) 시각 콘텐츠

시각 콘텐츠는 회화, 민화, 사진 등 전시 사례와 일러스트, 섬유 디자인, 배지 디자인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례는 [표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번	구분	작가	일시	장소	전시명/작품명	내용 및 특징
1	회화	강동균	2013 4.8- 4.12.	제주 문예회관	<이공본풀이 -서천꽃밭 이야기>	제주 본풀이를 스토리 화
2	회화	강동균	2014. 12.7.- 12.20.	설문대 여성문화 센터	<이공본풀이 -탄생·삶·죽음>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냄
3	사진	고경빈	2022. 11.1.- 11.10.	갤러리 브레송	귀로	<세경본풀이>의 서천꽃 밭을 차용
4	민화	루씨쑤			<서천꽃밭>, <제주도>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 진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불교적 색채 와 인도풍의 그림 가미 함
5	종교 화	고은주			설위설경	서천꽃밭의 생명의 꽃 을 소재로 함
6	일러 스트	이강인			<서천꽃밭과 자청비>	제주 신화의 여신을 형 상화함
7	섬유 디자 인	장애란· 현명관· 김현미			생불꽃 디자인	서천꽃밭 생불꽃 이미 지를 디자인화함
8	배지	야호호 프로젝트			제주신화 속 서천꽃밭 꽃배지	서천꽃밭의 각종 꽃을 배지로 디자인하여 판 매함

[표12] 시각 콘텐츠 사례

2013년 <이공본풀이-서천 꽃밭 이야기>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던 강동균 작가는 <이공본풀이-탄생, 삶, 죽음>이란 주제로 연작 시리즈를 전시했다. 이공신인 꽃감관의 이야기인 <이공본풀이>에 제주인의 삶을 곁들여져 그림으로 승화됐다. 2014년 12월 20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사라도령과 원강아미, 아들 한락궁이의 삶의 모습을 더욱 세밀화된 신화의 이야기가 포함하였다.

사실적인 유화 기법이 형상화된 30여 점의 유화 작품이 전시돼 도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¹⁹⁵⁾

서천꽃밭을 주제로 한 전시는 총 3건이었다. 이 중 미술작가 강동균은 <이공본풀이>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만큼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그림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이공본풀이는 인간이 시련 극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신의 이름과 직능을 갖는다. 이러한 서사 전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대처와 행위에서 성격과 성품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창작자는 주인공의 외형적·내면적인 특성을 사건과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되는 캐릭터의 성격과 성품에서 해석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 캐릭터 이미지의 시각적 형상화에 대한 의의는 캐릭터의 신체적인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이 성격과 성품으로 잘 드러나게 생명력을 심어놓는 창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신화에 묘사되는 캐릭터의 생명력 있는 재현을 위한 신화 스토리텔링은 신화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해석이 강조되며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함께 창작자의 역량도 반영됨을 알 수 있다.”¹⁹⁶⁾고 하였다.



19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671>(제민일보 2014.12.7.) 참조.
 196) 강동균, 「제주 신화 이공본풀이의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3쪽.
 197) <https://blog.naver.com/dongindi/220140253750> 발췌.
 198) <https://blog.naver.com/dongindi/220140253750> 발췌.
 199)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671> 발췌.



[그림3] 강동균의 회화 작품

회화의 캐릭터는 인물의 외면적인 특성과 내면적인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생명력을 넣어 이미지를 창작하는 것이다. 서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캐릭터의 생명력 있는 재현이며, 창작자는 서사의 배경, 캐릭터, 주제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독립적인 작품으로 미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과 원강아미라는 인물을 [그림3]과 같이 이미지를 형성하여 회화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그는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심방에 의해 전승되는 제주 신화는 살아 있는 신화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공동체의 의례 속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주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상징은 예술 작업에서 끊임없는 체험과 창작의 모티브로 작용한다.”²⁰⁰⁾고 말하였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독특한 시각으로 표현한 고경빈 작가의 <귀로 개인사진전>²⁰¹⁾[그림3]을 통해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열여섯의 칠월 입어본 하얀 적삼과 노란 베치마는 고왔다. 물 한 모금 겨우 넘기고 흙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처럼.”이라고 회상했다.

작가는 “화산섬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무덤은 나의 놀이터요 정월이다. 아귀다툼이 없는 그 공간은 고요가 흐르는 나의 ‘헤테로토피아²⁰²⁾’이다.”라고 규정한다.

200) <http://m.jejuex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42> (제주신문, 2014.12.7.) 참조.

201)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소재한 갤러리 브레송에서 2022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시되었다.

202)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장소라면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현실에 실재하는 유토피아적 장소라 할 수 있다. 미셸 푸코가 『말과 사물』에 처음으로 언급한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적 신화를 해체하는 ‘장소-언어적’ 전략으로 전복, 와해, 혼란, 무효 등의 문학적 수사에 근거한 부정적 또는 비판적 상상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장소성의 개념이다.- 엄경희, 「헤테로

결국 작가는 삶과 죽음을 사진의 형식을 빌려 표현했다.

그는 사진에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을 차용했다. 고향 가는 길인 서천꽃밭을 한 컷 한 컷 작업해 나가는 과정은 작가 개인에게 귀로 같은 것이다. 사진에 차용된 그녀의 죽음은 사(死 혹은 헤테로피아)이고 서천꽃밭의 죽음은 생명을 모두 수용한다.



[그림4] 고경빈 작가 개인전²⁰³⁾

그의 사진전에 관한 기사에서 “서천꽃밭 차용은 자신만의 스타일 확장을 위한 시도이자 노력이다.” 이로 인해 지금보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사진작가로 평을 받았다. 또한 그의 사진은 편견과 혐오를 질편하게 드러낼 수도 있었으나 최대한 자제시킨 점은 놀랍지만 다섯 개의 작은 미장센, 물론 다섯 개 방(미장센)의 나열은 다소 작위적인데 이는 색상과 정보를 과잉되게 삭제한 탓이지만 이를 퍼즐처럼 연결해 시·공간은 서로 연결했다는 평을 받았다.²⁰⁴⁾

고경빈의 흑백 사진에서는 무덤을 죽음의 예술이라는 설정을 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제주에 있는 오름과 사찰, 무덤 등을 찾아다니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속 공간의 느낌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색을 배제한 채 모든 작품을 흑백으로 구성하였다. 그의 사진에서는 생과 사가 모두 존재하는 곳, 그곳이 곧 서천꽃밭이다.

토피아(heterotopia)의 장소성에 관한 시학적(詩學的) 탐구, 『국어국문학』 제186호, 국어국문학회, 2019, 399쪽.

203) 위 기사 참조.

204) <http://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75> (미디어인뉴스 202211.03.) 참조.



[그림5] 한국화가 루씨쑤의 제주 민화²⁰⁵⁾

[그림5]²⁰⁶⁾은 화가 루씨쑤이 제주에 내려와 지내면서 그린 민화이다. 이 그림은 서천꽃밭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었다. 이 작품은 전통 민화에 현대적인 상상력을 가미하여 작품을 만드는 화가 루씨쑤이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제주의 실제적인 풍경의 재현보다 제주에서 느꼈던 감정에 더 집중하여 상상 속의 제주를 표현하였고, 그리스로마 신화보다 더 진보적이고 재미있는 제주 신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을 서천꽃밭의 본연의 의미를 그려 내기보다 불교적 색채와 인도풍의 그림 느낌이 가미되어 제주가 가진 이미지를 드러내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림6]의 작품은 ‘설위설경(設位說經)’이라는 전통이 모티브로 만든 종이 작업인데, 설위설경은 원래 불경을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무속에서 굿을 하는 굿당을 장식하는 장엄구로 축원의 문구나 악귀를 물리치는 내용을 담아 종이를 오려내어 만든 장식이다. 고은주의 작품은 음양오행과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가 결합하여 각 성격이 다른 꽃으로 등장한다. 서천꽃밭은 죽은 이들이 가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삶이 시작되는 곳인 썸이다. 작가는 생명의 꽃밭에 여러 형상을 중첩하면서 새로운 설위설경의 장식을 만들어 내었다.

205) 루씨쑤, 『제주, 민화 그리고 고양이』, 니들북, 2020.

206) 개인전은 아트인명도암갤러리에서 2022년 9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그림6] 고은주의 '설위설경'

작가는 궁극적으로 아이를 향한 축원의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한다. 보통 종교 화에서 보는 것처럼 작품은 삼단 구조로 되어있으며. 맨 아랫단에는 사람의 형상이 나란히 배치되어 이 세상을 의미하고 축원의 상징들을 떠받들고 있다. 중간 부분과 상단은 대칭된 형태로 길조라 여겨지는 원앙이나 봉황과 같은 새와 꽃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풍성한 꽃밭이 펼쳐져 있다. 이 작품은 서천꽃밭을 이미지화하여 종교적인 특색을 반영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특색을 반영하다 보니 서천꽃밭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온전히 반영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서천꽃밭은 꽃감관이 관리하는 꽃밭이다. 서천꽃밭에서 자청비는 멸망꽃을 구하여 싸움판을 막아내어 제주 땅을 일구어낼 오곡씨앗을 얻는다. 이강인이 서천꽃밭을 그린 작품은 <세경본풀이>에서 모티브를 따왔으며, 이 작품은 제주의 여신들을 주인공으로 한 일러스트 전시회(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 전시실에서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시)에서 전시되었다. 전시회는 제주 신화의 여신을 형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강인 작가는 서천꽃밭과 자청비를 일러스트로 형상화하였다.[그림7]



[그림7] 이강인, <서천꽃밭과 자청비>²⁰⁷⁾

서천꽃밭을 소재로 그린 그림들의 주 소재는 꽃과 꽃밭이다. 서천꽃밭이 꽃이 주는 느낌을 상상하여 이미지화 하였다.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고 그 간극을 꽃과 꽃밭으로 표현하였다. 작가들이 이미지로 전하는 서천꽃밭은 꽃이 가득하고 환상적인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장애란·현명관·김현미²⁰⁸⁾는 제주 신화의 서천꽃밭에서 생불꽃을 이용한 섬유무늬 디자인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생불꽃의 신화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신화적 섬유무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생불꽃에 대한 전형적인 상징을 기반으로 동백꽃 모티프를 그려 신화 패턴을 만들어 서천꽃밭을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그림8]

그림과 일러스트, 민화 등으로 서천꽃밭을 표현한 경우와 달리 서천꽃밭의 꽃 이미지를 디자인화하여 실용적인 상품을 제작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섬유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 이미지는 향후 다양한 물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장애란·현명관·김현미는 이 디자인을 연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주 신화나 무속 신화에서 인간 본연의 생명과 삶을 식물 체계로 비유하여 형상화한 서천꽃밭의 신이한 주술적 능력이 부여된 주화(呪花)를 고찰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

207)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67>(제주도민일보, 2015.10.6.) 참조.

208) 장애란·현명관·김현미, 「제주신화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응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4호, 한국생활과학회, 2013.

천꽃밭에 등장한 생불꽃의 형상 및 의미를 규명하였다. 또한 신화와 신화적인 공간이 재연되는 제청의 종이무구(기메)를 비교함으로써 신화와 기메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찰한 후 기메의 형태 및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꽃이라는 화소(花素)에 대한 원형을 유추함과 동시에 실제의 식물체계에서 동백꽃으로 규명한 후 신화적 의미를 함축시켜 시각화된 문양콘텐츠와 기메 문양콘텐츠를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디자인 등록을 하였다.”209)

또한, 신화적 이미지와 상징 문양을 삽입한 섬유무늬 디자인은 패션문화상품 및 임부복, 유아복 디자인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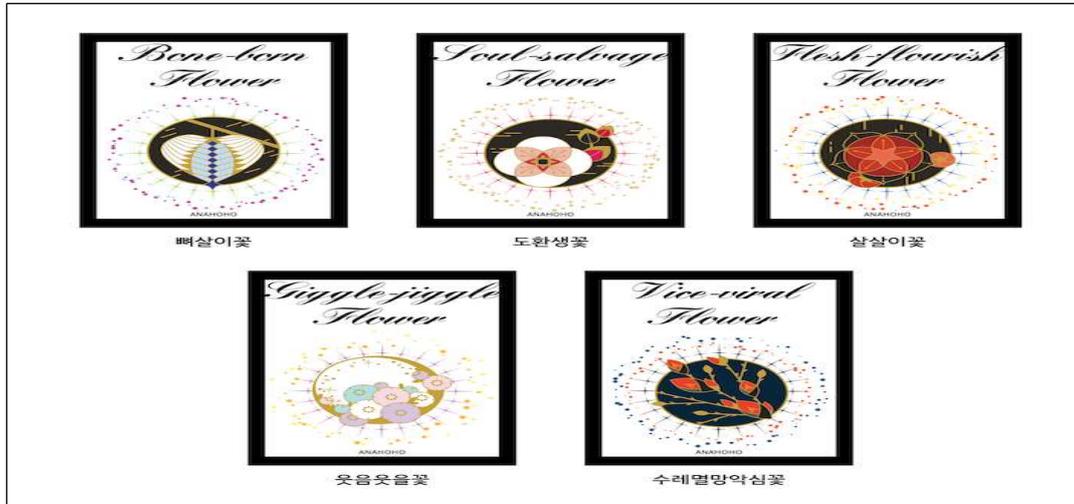
No.	one repeat	color	color+repeat	pattern design	mapping of developed product
4-1		Main Color M100 Y100 White Sub Color C100 M30 Y100 G50 M15 Y10 M30 Y100	 pattern application 		
4-2		Main Color C30 M30 Y10 White Sub Color C100	 pattern application 		
4-3		Main Color G50 Y100 C100 M65 Sub Color C100 M100 Y100	 pattern application 		

[그림8]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이용한 섬유무늬 디자인²¹⁰⁾

아나호호 디자인팀은 신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하였다. <이공본풀이>의 ‘한락궁이와 서천꽃밭’이라는 주제로 뽕살이꽃, 도환생꽃, 살살이꽃, 웃음웃을꽃, 수레멸망악꽃을 디자인하여 꽃배지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는 서천꽃밭의 꽃을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디자인한 사례이며 각각의 꽃의 이미지를 물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사례이다.[그림9]

209) 장애란, 『제주신화 서천꽃밭을 응용한 문양디자인 개발』, 2012년 선정 중견연구자지원사업결과보고서,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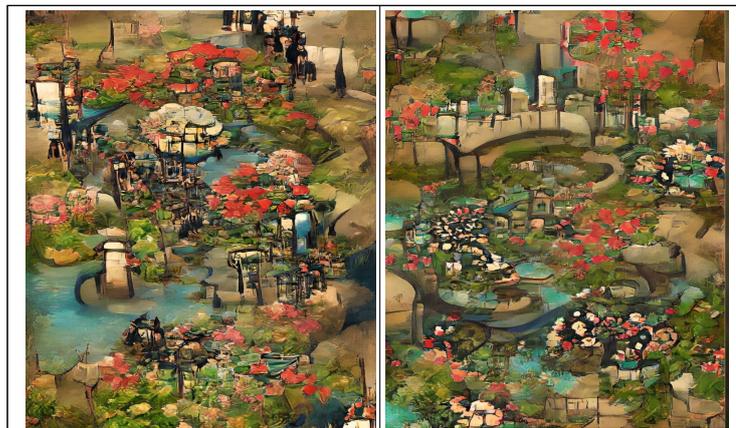
210) 장애란·현명관·김현미의 결과보고서, 674쪽.



[그림9] 서천꽃밭 꽃배지 디자인²¹¹⁾

[그림10]은 인공지능 그림 사이트로 구현해 본 서천꽃밭의 형상이다. 서천꽃밭의 전체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키워드로 사후세계의 강과 꽃밭, 한국풍의 이미지를 넣어 그림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서천꽃밭의 이미지는 이를 구현하는 작가와 표현매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제주가 가진 본풀이 속에 내재된 의미와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서천꽃밭의 환상적이고 신비한 분위기에 제주의 정서와 정체성 반영된다면 서천꽃밭은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10] 인공지능 그림 사이트로 구현한 서천꽃밭²¹²⁾

211) <https://tumblbug.com/mythflower> 발췌.

3) 공연 콘텐츠

서천꽃밭을 소재로 한 공연 콘텐츠 작품은 총 8편이 조사하였다. 공연의 종류는 다양하고 내용이나 특성도 다채로웠다. 공연일자를 중심으로 공연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개인/단체	일시	장소	공연명	내용 및 특징
1	연극	극단 장자번덕	2011. 5.6.- 5.8	사천시 문화예술 회관	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	전통악기, 굿과 현대적인 음악과 협연한 공연
2	인터랙티브 전시공연	기종석	2016. 8.3.	제주 문예회관	서천꽃밭	서천꽃밭과 미디어 설치예술의 결합
3	한국무용	경기도립 무용단	2017. 4.6.- 10.29.	국립 정동극장	련: 다시 피는 꽃	<도미부인 설화>와 <이공본풀이> 설화를 조합하여 창작한 공연
4	설치 미술& 퍼포먼스	법환 해녀& 제주작가 회의	2018. 12.26.	법환 해녀의집, 바다	제주 신화 속 꽃의 의미를 찾아	서천꽃밭의 미학적 재해석
5	마당극	우금치	2020. 10.23.-24	옛충남 도청 야외극장	적벽대전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국가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6	연극	극단 춘추 & 극단 RM	2020. 11.24- 11.29	서울 동숭무대 소극장	가자, 서천꽃밭으로	기생의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
7	레파토리 공연	제주돌문화공원관 리소&국악연희단	2021. 8.12.- 8.13.	제주 돌문화 공원	음악굿: 꽃풀이	제주굿을 바탕으로 연물타악, 기악선률, 랩이 어우러진 공연
8	그림자 공연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2021	안양시 초등학교 대상	서천꽃밭	아이들이 서천꽃밭의 꽃을 직접 만들고 그림자 공연을 함

[표13] 공연 콘텐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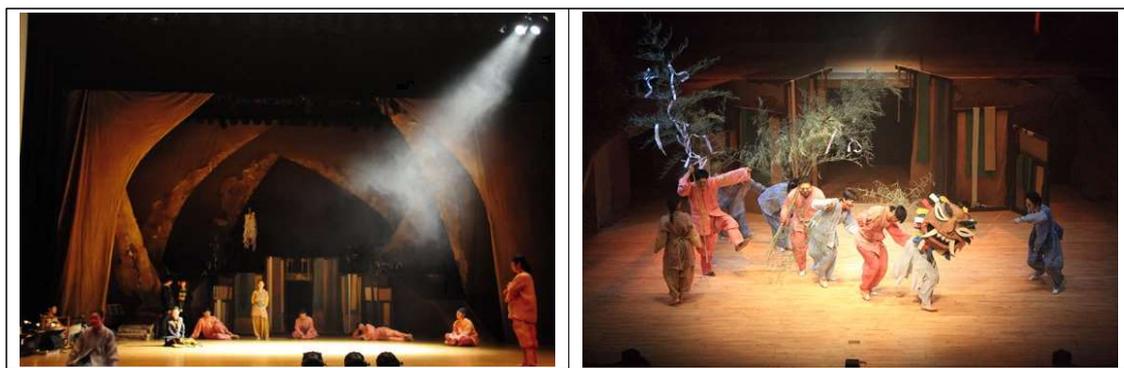
212) <https://dream.ai/create> 발췌.

극단 장자번덕이 남해안 별신굿 팀과 전통 타악 연주 팀인 마루와 협연한 공연 <바리, 서천꽃그늘 아래>²¹³⁾([그림11])는 전통악기와 우리 소리, 굿 형식을 차용하여 한국적인 문화원형을 잘 살리면서 현대적인 음악 감각과 무대, 소품 등을 배치하여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바리는 아버지인 오구대왕을 살릴 제물로 신에게 바쳐진다. 바리는 “하늘이 내린 운명, 그러나 사람이 사는 운명, 사람 손으로 내 운명을 밝혀보고 고쳐보겠다.”며 죽음의 의식을 통해 저승 세계를 지나 서천꽃밭에 이른다.

바리는 생명수를 지키는 하늘이 버린 동수자와 결혼해 일곱 자녀를 낳고 바리는 생명수를 구해 돌아가는 중 황천강가에서 아버지 오구대왕을 만난다. 그러나 바리는 서천 여행길에 본 이승과 저승에서 버림받아 구천을 헤매는 사령들을 인도하고자 이승을 등지고 떠난다.²¹⁴⁾

이 공연의 가장 핵심은 공연이 원 서사의 주제 의식인 삶과 죽음의 문제, 인간 관계에서의 용서와 화해의 문제, 여성적 측면에서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연에서 백성들이 오구대왕에 대한 원망이 크고 바리 역시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으나 그것은 현대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그 맥락이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²¹⁵⁾



[그림11] <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 공연 장면²¹⁶⁾

213) 극본 정가람, 각색 백하룡, 연출 이훈호.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8일 동안 사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었다. 같은 해 열린 제9회 경상남도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14) <https://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492> (idomin.com, 2011.5.10.) 참조.

215) 송영림, 「바리데기 신화의 연극 공연으로의 변용과 그 의미-연극 <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6집, 겨레어문학회, 2016, 117쪽.

216) 경남연극협회 제공.

공연은 바리데기 신화가 말하는 삶과 죽음, 신성, 용서와 화해, 여성적 측면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형식과 볼거리, 연출, 등장인물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²¹⁷⁾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단원인 기종석의 인터랙티브 전시공연인 <서천꽃밭>([그림12])은 제주도 굿에서 등장하는 주화신(呪花神)의 등장하는 서천꽃밭과 미디어 설치예술을 결합한 작품이다. 성스러운 신화적 공간이자 생명 공간인 서천꽃밭을 미디어아트 설치물과 굿 의식을 통해 구현했다. 이 공간에서 공연자들이 선보이는 주화(呪花)의 춤과 노래를 통해 감각적으로 서천꽃밭의 이미지를 그려내었다. 이 작품은 굿과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이색적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종석씨는 이 공연을 통해 서천꽃밭이 제주문화예술의 생명적·신화적·상생적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무대예술로 전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고 했다. 그는 서천꽃밭을 인간의 혼을 꽃이라는 개념으로 담아낸 인간 생명의 본원적인 공간, 신화적 상생의 공간이라고 여겼다.²¹⁸⁾



[그림12] 기종석의 인터랙티브 전시공연 <서천꽃밭>

이 공연은 서천꽃밭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면서 서천꽃밭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천꽃밭의 신비로운 특성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하였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 서천꽃밭을 보고, 듣고, 느끼며 주화의 춤과 노래 같은 의식을 치르며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연 안에 제의적인 면과 오락적인 면이 모두 있어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연출되었다는 점이다. 공연이지만 서천꽃밭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인 특성이 비교적 잘 반영되었으며 본

217) 송영림, 앞의 논문, 119쪽.

218)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85>(서귀포신문,2016.8.1.) 참조.

풀이와 미디어 설치예술이 만나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콘텐츠로 관객이 시·공간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례이다.



[그림13] 공연 <서련: 다시 피는 꽃> 219)

<서련: 다시 피는 꽃>²²⁰⁾([그림13])은 우리 전통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드라마 구성을 통해 극적 흐름을 갖추고 ‘춤’으로 풀어가는 극이다. 이 공연은 삼국시대의 <도미부인 설화>와 제주의 <이공본풀이>를 조합해 창작한 공연이다.

<도미부인 설화>는 백제의 왕이 미친한 신분인 ‘도미’의 부인에게 정념을 품고 간계를 부리다가 도미부인의 슬기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을 주 서사로 한다. <이공본풀이>는 남편 사라도령을 서천꽃밭으로 떠나보내고 자현장자네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은 원강아미 이야기이다. 그녀는 후에 남편 사라도령과 아들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다시 되살린다.

이 공연은 도미부인과 원강아미의 의연하고 결연한 태도를 주인공 ‘서련’에 투영했다. 서련은 ‘극복’과 ‘소생’이라는 한국 전통의 정신과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서련이 자신의 뜻을 지켜나가는 여인의 모습을 가상의 조선 왕실을 배경으로 화려하고 찬란한 춤으로 피워냈다.²²¹⁾

<서련: 다시 피는 꽃>은 장르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융·복합 공연이다. 궁중 연희를 바탕으로 재창작된 한국 무용은 제례의식인 ‘일무’, 왕과 왕비가 직접 추며 나라의 태평성대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태평무’, 칼을 사용하는 ‘검무’ 등 다

219) 위 기사에서 발췌.

220) 대본 박춘균, 연출/안무 김충한, 작곡 김태곤, 국립정동극장에서 2017년 4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연하였다.

221) <http://www.narasarang.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 (나라사랑, 2017.9.4.) 참조.

양한 춤을 볼 수 있으며, 연주곡과 함께 박애리 명창의 보컬곡을 감상할 수 있다.²²²⁾

이 공연은 <도미부인 설화>와 제주 <이공본풀이>에 서천꽃밭을 모티브로 두고,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삶에 대한 원강아미의 의연한 태도를 주인공 서련에게 투영하여 화려한 춤으로 표현하여 현대적인 콘텐츠로 해석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두 설화가 낯선 대중들에게는 춤으로 전달하고자 하던 본래의 내용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제주 신화 속 꽃의 의미를 찾아>([그림14])은 서천꽃밭의 의미를 재해석한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로 2018년 12월 29일에서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바다와 해녀의집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 공연은 2017년 12월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학술세미나 ‘제주도 신화에 등장하는 꽃의 상징성과 의미 연구’가 출발점이 되었다. 세미나에서 신화 속 제주 꽃의 담론을 생생하게 풀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20명의 예술인과 10여 명의 법환 해녀, <현대문예제주작가회의²²³⁾>가 참여해 ‘서천꽃밭의 미학적 재해석’을 주제로 설치 미술과 공연을 하였다.²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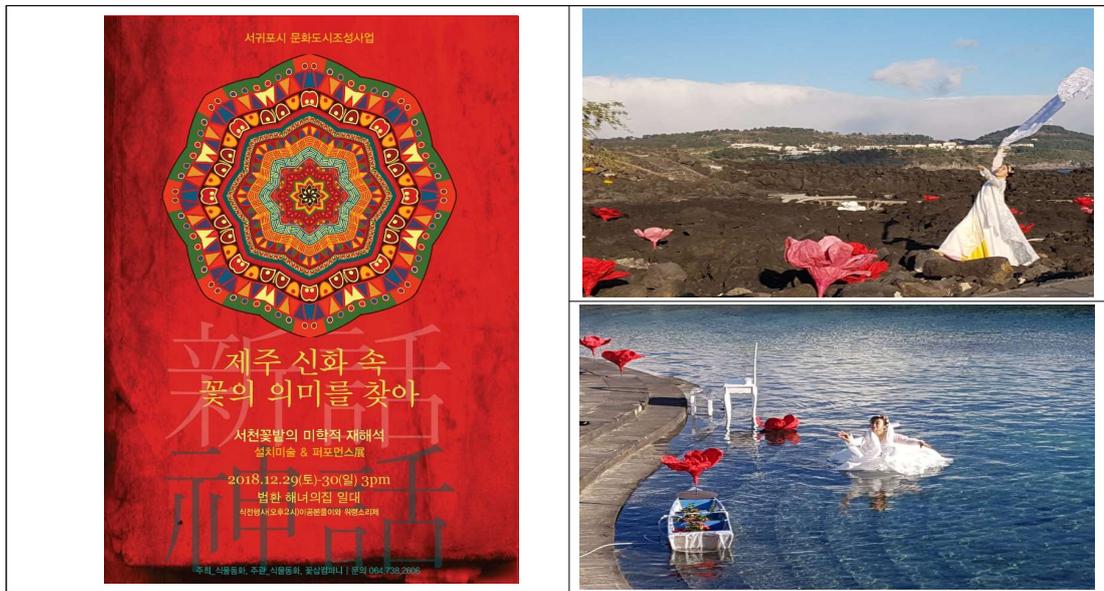
이 설치미술 프로젝트는 제주 신화의 생명력에 담긴 ‘生과 死’의 아름다움을 성찰하는 ‘꽃’이라는 모티브에서 시작에서 출발하였다.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땅 제주에서 척박한 삶을 험난한 바다와 거친 땅을 일궈내며 꽃으로 피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연을 표현하였다.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아픔까지도 포함해 ‘섬’이 품은 이야기는 ‘生과 死’를 건너는 섬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²²⁵⁾

222) <http://www.rpm9.com/news/article.html?id=20170821090007> (RPM9, 2017.8.21.) 참조.

223) 현대문예로 등단한 제주 지역 작가들로 구성되어 2007년 창립한 문화예술단체이다.

224)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45825600617067036> (한라일보 2018.12.26.) 참조.

225)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42> (서귀포신문 2018.12.16.) 참조.



[그림14] 설치미술& 퍼포먼스 <제주 신화 속 꽃의 의미를 찾아>²²⁶⁾

설치미술과 함께 서천꽃밭에 푸른 바다에 잠겨있는 영혼이 처절한 울림으로 환생하는 것을 다양한 퍼포먼스로 표현되었다. 학술세미나의 주제가 공연으로 기획되고, 실제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이 퍼포먼스는 설치미술과 어우러진 갯바위의 서천꽃밭에 바다 속에 잠겨있는 영혼이 환생한 울림을 주면서 꽃을 소재로 자연생태적인 공간에서 치유적 개념의 예술 행위를 통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본풀이가 만나 새로운 예술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금치의 마당극 <적벽대전>²²⁷⁾([그림15]) 70년을 맞아 집중한 것은 ‘죽음’이다. 국가를 위해 죽고, 국가에 의해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중 한국전쟁 당시 대표적 학살 사건이었던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70년을 맞아 풀리지 않은 슬픈 역사를 드러내고 화해와 용서로 풀어내고자 했다.

226) <https://blog.naver.com/casachoga/221430022112> 사진 발췌.

227) 2020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옛충남도청 야외극으로 공연, 2021년에는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수차례 공연되었다. 2022년 11월에는 금산문화원에서 ‘임희재문학제’에서 초청 공연되기도 하였다.



[그림15] 우금치의 마당극 <적벽대전>(228)229)

마당극 <적벽대전> 은 ‘프롤로그’, ‘서천꽃밭’, ‘소풍’, ‘가자 서천꽃밭’이란 소제목으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프롤로그’에서는 세상과 소통하는 대전의 모습이 해방 이후 열차 조선해방호가 시대가 바뀌면서 통일호에서 무궁화호로 다시 KTX로 오고 가며 영상으로 등장한다.

2부 ‘서천꽃밭’에서는 이승에서의 모든 증오, 분노, 억울함도 버리고 가벼운 몸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서천꽃밭으로 가기 위해 영혼들이 썩부쟁이들과 연습을 한다. 그러나 영혼들은 이승에서의 분노의 기억이 놓지 못한다. 여기서 서천꽃밭은 영혼들이 가야 할 저승을 의미한다. 3부는 ‘소풍’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해방 직후 전쟁까지 이어지는 시기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1945년 해방 직전의 징병, 해방, 4·3, 여순사건, 보도연맹까지 역사적 사건을 연출했다. 3부 ‘가자 서천꽃밭’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재소자들이 끌려가 학살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죽은 이들과 국가에 의해 죽은 이들을 대조시킨다. 국가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이 현충일 기념식 실황 소리를 통해 이승에서의 분노와 증오를 떨쳐버리고 서천꽃밭으로 가기를 기원한다.

228) <http://m.sisatouch.com/view.php?num=20040> (시사터치 2020.10.21.) 발췌.

229) <https://m.blog.naver.com/storydaejeon/222309797840> 발췌.

<적벽대전>에서 서천꽃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위로 받기 위해 가는 곳으로 그려진다.

극단 춘추와 극단 RM이 공연한 연극인 <가자, 서천꽃밭으로>([그림16])에서 서천꽃밭은 아름다운 환상과 신비함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표현되었다. 이 연극은 유교적인 전통 사회에서 기생으로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남모르게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했던 안타까운 삶이 이야기이다. 가야금과 창, 그리고 춤을 추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당시 여인들의恨과 구슬픈 삶을 재조명하였다. 기생이었던 할머니 ‘화수’와 ‘화수’의 딸이자 ‘동희’, ‘미향’, ‘희주’의 어머니 무기수 ‘진옥’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극은 아버지를 죽인 죄로 무기징역 살이 중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진옥의 시신을 인계받은 뒤 ‘희주’의 딸들이 옛집에 모이면서 극은 시작된다. 녹록지 않았던 할머니와 엄마의 삶을 세 딸이 되짚어 보면서 공연은 전개된다. 첫째 딸은 회고담을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죽도록 만든 사실을 고백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세 자매는 선녀가 되어 꽃밭에 물을 주면서 생명의 꽃들을 키워낸다. 서천꽃밭을 마지막으로 공연은 막을 내린다.

연극에서 서천꽃밭은 세 자매의 안식처이다. 세 딸은 할머니와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던 ‘동희’의 제안으로 기구했던 할머니와 엄마의 삶을 역추적한다. 딸의 옷을 안고 ‘가자, 서천꽃밭으로’를 읊조리는 할머니의 대사가 그녀들 삶을 대변한다.

이 연극에서는 서천꽃밭이 전반적으로 주 콘텐츠 활용 소재는 아니다. 그러나 주인공들이 위안받고자 찾아가는 장소로 서천꽃밭이 설정되어 있다. <이공본풀이>나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구조 방영 대신 주인공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서천꽃밭을 놓고 구성했다는 점에서 사례에 포함하였다. 전통악기의 연주를 춤이 어우러져 복합공연을 시도했으나, 서천꽃밭을 통한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난해하다는 평이 있다.²³⁰⁾ 하지만 주인공이 할머니와 엄마의 삶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서천꽃밭으로 가자고 하는 장면에서 서천꽃밭이 여성들의 안식처로 대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풀이의 서천꽃밭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다.

230)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98> (인터뷰365, 2023.5.10.) 참조.

이승과 저승의 꽃-밭 모양새 닮았지
하지만 서로 피어나야 하는 꽃은 다르지
탐라국 서룬 백성들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는 저승의 꽃들을 누가 분간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피-어난 걸까
할락궁의 능력을 빌어서 꺾어 버리세

마을과 바닷가에 흩어진 악취를 맡았지
사람들 욕심에 망가진 오름은 말없이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모아 놓았지
숨든 것의 숨비소리 숨쉬기가 힘들지
이승의 이슬이 맺히지 않는 욕심꽃
지독한 향기가 진동하고 있어, 악심꽃
알 수 있을까, 어디에 피-어난 걸까
할락궁의 능력을 빌어서 꺾어 버리세
(중략)

청대 밭의 까마귀 밥
빼만 남은 원강암이 손과 발
꽃감관의 능력 지켜봐
다시 살려내자, 이제 담판

웃음꽃과 울음꽃
수레 멸망 악심꽃
피와 살이 도는 꽃
그리고, 숨을 불러내는 꽃
(중략)

아이들의 웃음 피어나는 꽃
꽃자왈의 숨이 불어나는 꽃
수애기의 꿈이 헤엄치는 꽃
이웃들의 선심 피어나는 꽃

악심꽃은 모두 뽑아 버리자
싸움꽃은 모두 꺾어 버리자

악심꽃은 모두 뽑아 버리자
 싸움꽃은 모두 꺾어 버리자

혈쭈 혈장 장단을 타며 건자²³⁴⁾

- <꽃풀이> 공연 중에서

이 공연은 서천꽃밭을 소재로 하여 현재 제주의 자연 훼손과 환경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자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서천꽃밭에 정의와 평화를 뿌리고 지성을 드린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마을과 바다에는 악취가 나고 오름은 망가지고 있다. 숨든 것의 숨비소리마저 힘든 이곳은 제주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제주가 살아나길 기원하는 희망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아이들이 웃음 피어나는 꽃, 꽃자왈의 숨이 불어나는 꽃, 수애기(돌고래)의 꿈이 헤엄치는 꽃, 이웃들의 선심 피어나는 꽃들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제주 곳곳에 퍼져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시 공존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림17] <음악국 꽃풀이>²³⁵⁾

노래가 좀 더 대중적으로 되려면 <음악국 꽃풀이>에서만 일회적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과 함께하는 신명 나

234) 랩: 엠씨세이모, 작성자: 박학재홍, <https://blog.naver.com/buzzhong/222583430608>

235)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제공.

는 문화예술축제를 표방한 이 공연은 서천꽃밭에 제주의 환경 문제까지 다루며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인 랩과 어우러진 혼합 공연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공연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돌문화공원²³⁶⁾에서 공연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돌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에게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주의 타령과 민요를 기반으로 현대 재즈 소리와 랩까지 한데 이루어진 공연은 현대적인 콘텐츠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다.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관계자는 “공연을 빌어 제주가 처한 현실과 아픔을 돌아보고 치유하며 우리네 삶의 고단함도 함께 풀어내는 등 신명 나는 판으로 한 장단씩 그려봤다”라고 말했다.²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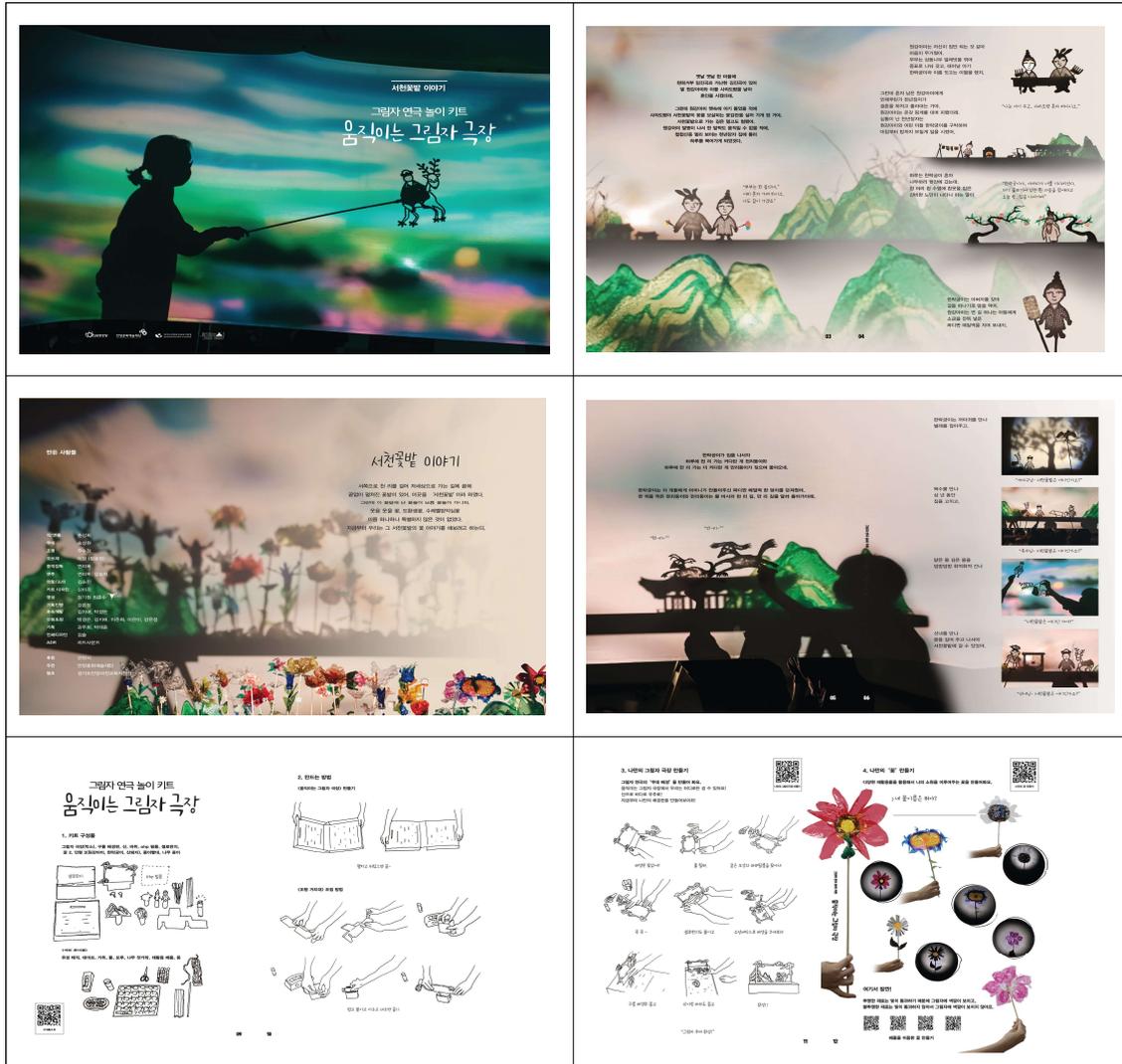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²³⁸⁾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서천꽃밭을 주제로 공연하였다. 무대 예술가가 학교로 찾아가 그림자 창작극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와 인형극을 만들어 공연하는 방식이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지원으로 2021년 7월부터 학교를 방문하여 서천꽃밭을 주제로 하는 공연을 진행하였다(그림 18)). 공연 내용은 <이공본풀이>의 한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 공연은 그림자 인형극을 이용한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이다. 빛과 물체의 다양한 변화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와 예술적 감각을 동시에 전달한다.

2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에 위치하였다.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을 모토로 2005년 2월 22일에 개소한 제주의 돌을 활용한 테마공원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5월 15일을 '설문대할망제'로 지정하여 개최하고 있다.

237) <http://m.jeju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67> (제주신문 2019.12.17.) 참조.

238)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그림자 인형극을 만들고, 일상적 공간을 빛과 그림자로 변신시켜 아이들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단체로 2015년에 설립되었다. 교육연극 전문가와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동을 중요한 축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그림18]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서천꽃밭 이야기>239)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감각적인 예술 체험은 <이공본풀이>의 이야기를 듣고 서천꽃밭의 꽃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그 꽃들을 모아 그림자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한다. 아이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 ‘서천꽃밭’이라는 장소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면서 꽃밭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참여형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다.

다양한 형식의 공연은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을 신화적이고 상상적인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신성성을 이미지화하여 서천꽃밭을 친숙한 소재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일회성 공연에 그쳤다. 서천꽃밭의 장소의

239) https://blog.naver.com/e_afca/222522023907 발췌.

특성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공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거나, 서천꽃밭의 장소의 원리를 보여줄 수 있는 공원, 테마 거리, 축제 등에서 상시적인 공연이 제공된다면 서천꽃밭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될 것이다.

4) 복합 콘텐츠

<서천꽃밭>보드게임²⁴⁰⁾은 본풀이를 이용한 파티형 보드게임이다. 서천꽃밭에 다양한 꽃들이 존재하는데 서천꽃밭의 관리를 맡은 꽃감관이 잠깐 존 사이 꽃밭은 영망이 되었다. 꽃감관을 도와서 예쁜 꽃밭을 완성하라는 안내로 게임을 시작한다. 원더러스트라는 사이트 로컬 콘텐츠로 제시되는 보드게임의 구성품은 총 5가지이다.([그림19])

이 보드게임은 1명부터 4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게임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사용연령은 만 14세 이상이다. 게임 방법²⁴¹⁾은 다음과 같다.

<게임 준비>

- ① 꽃밭카드를 가로 5장, 세로 5장의 배열한다.
- ② 참여자들은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중 자신의 꽃화분 색을 정하고 꽃화분 타일(총 9개)를 가져온다.
- ③ 꽃화분의 색과 일치하는 컴포넌트 6개를 가져온다.
- ④ 배열된 꽃밭카드 옆에 종을 내려놓는다.

<게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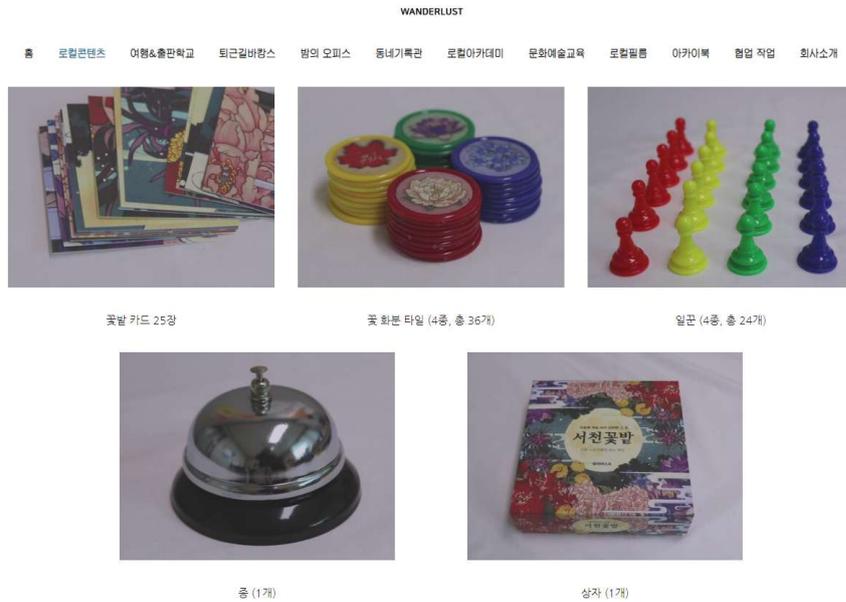
- ⑤ 배열된 꽃밭카드에서 자신이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뒤집는다.
- ⑥ 뒤집어진 카드에서 3*3의 꽃이 그려져 있다
- ⑦ 참여자 자신에게 주어진 꽃화분을 앞뒤로 바꾸거나. 배열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카드의 그림 배열과 똑같이 만들어준다.
- ⑧ 가장 먼저 배열을 완료한 사람이 종을 친다.
- ⑨ 똑같이 심었다면 뒤집어진 꽃밭카드 위에 자신의 컴포넌트 하나를 올려놓는다.

240) 원더러스트 자체 제작, 가격 49,800원.

241) <https://thewanderlust.co.kr/flower> 참조.

<게임 종료>

- ⑩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⑪ 만약, 꽃밭을 막는 상대방의 컴포넌트가 있다면 다른 땅에 컴포넌트를 놓아 소진시키면 승리한다.
- ⑫ 또는 꽃밭을 막는 상대방의 컴포넌트가 없다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자신의 컴포넌트 5개를 한 줄로 이어지게 놓는다면 승리한다.



[그림 19] 서천꽃밭 보드게임의 구성품²⁴²⁾

서천꽃밭을 소재로 하여 직접 체험하는 콘텐츠로는 보드게임이 유일하다. 대부분 문학, 전시, 공연, 다큐멘터리 등 일방향 소통방식인 콘텐츠와는 달리 보드게임은 적어도 2명 이상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콘텐츠이다. 서천꽃밭의 직접 꽃감관이 되어 꽃밭을 운영해보는 기획이 뛰어난 문화콘텐츠이다. 보드게임에 직접 참여하면서 서천꽃밭을 가꾸는 묘미가 있는 콘텐츠이다.

JIBS 뮤지컬 다큐멘터리 <서천꽃밭>²⁴³⁾(2017)은 서천꽃밭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작품은 ‘다크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로 제작하였는데, ‘다크무비’란 다큐

242) <https://thewanderlust.co.kr/flower> 발췌.

243) 이 뮤지컬은 ‘2014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었고, 2017년 5월 제50회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멘터리와 뮤지컬, 영화가 결합된 형태로 만든 새로운 장르이다. 서천꽃밭을 주제로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연결하며, ‘생명의 여신 삼승’(1부)과 ‘꽃감관 사라도령’(2부)이란 제목으로 각 편마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뮤지컬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1부 ‘생명의 여신 삼승’(12분 41초)에서는 서천꽃밭의 탄생을 다루었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시작은 서천꽃밭을 차지하고자 하는 두 여신의 다툼이다. 천지왕이 준 꽃씨를 키우고 백일 뒤에 심사를 받기로 한 명진국 딸과 동해용왕의 딸의 꽃가꾸기 경쟁은 명진국 딸의 승리로 끝난다. 명진국 딸은 천지왕이 일찍이 삼승으로 점찍은 여신이다. 꽃피우기 경쟁에서 이긴 명진국 딸은 아이를 점지하며 이승에서 ‘삼승할망’이 되었고 동해용왕 딸은 저승에서 죽은 아이를 관장하는 ‘구삼승할망’이 되었다. 제주 사람들은 삼승할망이 서천꽃밭에서 어떤 꽃을 점지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다고 믿었다. 동쪽 푸른 꽃은 남자, 서쪽 하얀 꽃은 여자, 북쪽 검은 꽃은 단명하고, 남쪽 붉은 꽃은 장수, 중앙의 노란 꽃은 출세를 한다고 믿었다.

제주 사람들은 서천꽃밭과 인간 세상을 넘나드는 삼승할망에게 자손의 번영과 육아의 안정, 새 생명을 얻기 위해 기원한다.

2부 ‘꽃감관 사라도령’(14분 6초)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삼승할망은 갖가지 꽃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 번성과 쇠약, 희로애락까지 관장하는 서천꽃밭을 지키기 위해 천지왕에게 꽃감관을 보내달라고 한다. 그렇게 지명된 것이 사라도령이다. 사라도령은 원강아미와 결혼을 하고 원강아미는 임신을 한다. 꽃감관으로 가는 길에 들은 닭소리를 듣는다. 그 집은 자현장자의 집이다. 임신한 몸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원강아미는 자현장자 집에서 종으로 머무른다. 사라도령은 아들을 낳으면 ‘한락궁이’, 딸을 낳으면 ‘할락데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고 서천꽃밭으로 떠난다. 얼레빗을 반으로 나누어 증표로 갖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

아들인 한락궁이가 청년이 되도록 사라도령은 원강아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자현장자의 괴롭힘으로 수난을 겪다가 결국 원강아미는 죽는다. 한락궁이는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사라도령을 만나 얼레빗 반쪽을 내놓는다. 사라도령에게서 웃음웃을 꽃, 싸움싸울꽃, 멸망악심꽃을 받은 한락궁이는 이 꽃들로 자현장자에 가서 복수를 하며 그 집안을 멸족한다. 그리고 뻘오를꽃, 살오를꽃, 환생꽃으로 어머니인 원강아미를 환생시킨다.



[그림20] JIBS 뮤지컬 다큐멘터리 <서천꽃밭>

이 다큐멘터리는 노래와 춤을 통해 삼승할망의 간절한 기원이 반영된 서천꽃밭의 새 생명의 탄생을 잘 그려냈고,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의 서사를 중심으로 복합 콘텐츠의 요소를 잘 갖춘 작품이다.

1부와 2부가 자연스러운 서사로 연결된 점은 좋았으나, 각각 15분이 채 되지 않는 작품에서 인물들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사가 짧고 춤과 노래만으로 본풀이의 서사를 표현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도내 방송에서 제주의 문화유산인 본풀이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한 점과 삼승할망과 사라도령을 1부와 2부의 주인공으로 정하여 서천꽃밭의 탄생과 꽃감관의 역할, 서천꽃밭이 갖는 의미 등을 서천꽃밭의 서사를 두 편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JIBS 뮤지컬 다큐멘터리, <서천꽃밭>은 영상콘텐츠로 서천꽃밭을 문화콘텐츠화 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작품으로 서천꽃밭의 시작과 꽃감관의 역할을 영상으로 잘 풀어내어 서천꽃밭의 의미가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244) <https://www.youtube.com/watch?v=-Q384fjv7Ic>

245) https://www.youtube.com/watch?v=ithUQby_5_Q

<p>제주어 애니메이션 들엄시민 주제가 <삼승할망>²⁴⁶⁾</p>	<p>제주어 애니메이션 들엄시민 <농업의 여신 자청비>²⁴⁷⁾</p>

[그림21] 제주어 애니메이션 들엄시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은 제주 신화와 역사를 제주어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들엄시민²⁴⁸⁾’을 제작·보급하였다. 제주교육청 홈페이지 애니메이션을 게재하고 도내 학교에도 배포하였다. ‘들엄시민’이란 제주 방언으로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린다)’의 의미로 소멸 위기에 있는 언어인 제주 방언을 어린이들에게 보다 쉽게 알려주기 하기 위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2022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은 제주 신화와 자연환경, 역사, 생활문화 관련 소재로 만든 ‘제주 사람과 돌 이야기’, ‘우리 누나 시집가는 날’,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밥상’, ‘청소년용, 저승차사가 된 강림’, ‘농업의 여신 자청비’, ‘옛 그림으로 떠난본 300년 전 제주’ 등 6편이 있다.²⁴⁹⁾

이 중에서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제주설화 주제가 <삼승할망>(10분 57초)과 <농업의 여신 자청비>(14분 24초)는 어린이들에게 본풀이의 내용을 친숙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영상을 제주어, 표준어, 영어의 3가지 언어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51회 탐라문화제²⁵⁰⁾ <2012탐라대전>(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

246) <https://www.youtube.com/watch?v=8H9nYA-kRdg>

247) <https://www.youtube.com/watch?v=jewnyll9sxw>

248)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즐겨볼 수 있는 제주어 애니메이션 40편을 개발·보급하여 제주어 교육 관련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개발 자료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자료도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249)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023> (BBS NEWS 2022.12.5.) 참조.

250) 탐라문화제는 1962년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순수예술단체인 제주예총이 주최하여 '제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다. <제주예술제>는 1965년 4회 때부터 <한라문화제>로 이름이 바뀌고,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룬 종합적인 향토문화축제로 전환되면서 제주를 대표하는 문

최)은 제주 신화에 축제의 상상력을 더했다. 탐라의 탄생과 위기와 부활을 연결하는 메인스토리 마지막에 다음 축제를 예고하면서 ‘내년에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열라. 그리고 서천꽃밭에서 부활의 꽃을 찾아오라’는 설문대할망의 말로서 탐라대전의 지속성을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메인스토리 주제공연인 ‘탐라판타지아(아트불꽃쇼)’와 도민참여 퍼레이드(바람마차퍼레이드), 서천꽃밭을 재해석한 탐라공원 조성 등으로 축제를 구성하였다.

<2012탐라대전>은 탐라문화제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형 이벤트로 축제로 구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축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탐라 부활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제주 땅에 2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향했던 다른 나라와의 교류, 당시 사람들의 개척과 도전 정신을 21세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심 가치로 승화시키는 도민대화합 잔치로 기획하였다. <2012탐라대전>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제주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보려는 시도는 매우 좋았다. 하지만 축제의 운영과 내용에서 탐라문화제와는 다른 뚜렷한 위상을 정립하지는 못하였다.²⁵¹⁾

현대 축제는 과거의 축제처럼 생업과 제의가 통일된 단일한 기반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前산업사회의 축제가 제의공동체와 생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제의였던 것에 비해 새로이 생겨난 축제들은 문화·산업·관광·레저·스포츠 등 오락성을 중심으로 하며 과거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²⁵²⁾

2022년 탐라국입춘굿²⁵³⁾에서는 <자청비놀이-꽃탐>이 재현되었다. ‘꽃탐’을 통해

화축전으로 그 위상을 드높였다. <한라문화제>는 2002년 제41회부터 <탐라문화제>로 개칭하고 ‘제주의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문화전통’을 되살리는 문화축제로 그 성격과 내용을 재정립했다. <탐라문화제>는 <개천예술제>와 <백제문화제>와 더불어 전국의 3대 문화 축제로 성장하였고, 2004년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지역 민속축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탐라문화제> 홈페이지 참조.

제주예총은 1962년 4월 29일에 창립하여 <제주예술제>를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제60회 탐라문화제를 개최하는 동안 <탐라문화제>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잘 드러내기 위해 향토문화, 한라문화, 탐라문화 등의 단어를 축제 슬로건에 포함하며 제주만이 가진 문화유산을 축제에 오토이 녹여 현대의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제주예총 60년사』,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021. 참조.

251) <탐라문화제> 홈페이지 내용 참조.

252) 한진오, 앞의 논문, 324쪽.

253) <탐라국입춘굿>은 먼 옛날 탐라시대부터 이어지는 역사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841년 이원조가 쓴 『탐라록』을 비롯해 여러 문헌에는 탐라국의 왕이 친경전(親耕籍田, 왕이 몸소 농사를 지으며 농업을 장려하던 풍속)과 더불어 풍년을 기원하며 의식을 치렀다고 밝힌다. 일제 치하에 제주인들의 정신적 결속력을 해체시키기 위해 중단됐다가 1999년에 <탐라국 입춘 굿놀이>로 복원됐다. 굿에 이미 ‘놀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데서 꼬리표를 떼고 <탐라국입춘 굿>이라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까지 복원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축제를 주관하는 제주민예총이

꽃줄기를 하나하나 꺾으면서 입춘굿에 모인 인원부터 모든 제주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²⁵⁴⁾

한진오에 따르면 “탐라입춘굿은 축제화된 연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행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고 전승시기 입춘굿을 골자로 진행되는 중심적인 연행극이 있으며, 갖가지 축하 공연을 비롯한 체험 행사 등 부대적인 연행들이 따로 행해지고 있어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²⁵⁵⁾고 하였다.

따라서 “탐라국 입춘굿놀이의 경우는 전승시기 입춘굿의 성격을 이으며 현대적인 사회에 재맥락화시키는 원리적 복원과 창조적 계승을 시도하고 있다.”²⁵⁶⁾고 하였다.

2022년 입춘굿²⁵⁷⁾은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라는 간절한 제주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희망의 문 열리는 날’로 지정하여 일상의 회복과 한 해의 무사안녕, 풍요를 기원하는 희망을 담아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입춘굿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자청비놀이-꽃탐>은 입춘굿 초감제의 일부로 자청비놀이를 특화한 프로그램이다. 신구간²⁵⁸⁾ 기간 동안 세경신 자청비가 하늘에 올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 세상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옥황상제에게 보고하였다. 옥황상제는 서천꽃밭의 꽃감관과 의논하여 생명꽃과 번성꽃을 내어주기로 한다. 입춘을 맞아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생명꽃과 번성꽃을 들고 인간 세상을 번성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행하였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는 입춘굿 행사이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²⁵⁹⁾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꽃탐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탐라국입춘굿>을 “명맥이 끊긴 전통사회의 입춘굿을 오늘에 맞게 부활시킨 새로운 축제”라고 소개할 만한 역사가 있는 셈이다. - VISIT JEJU 홈페이지 참조.

254)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8133> (제주의소리, 2000.2.4.) 참조.

255) 한진오, 앞의 논문, 311쪽 참조.

256) 한진오, 위의 논문, 324쪽.

257)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었다.

258) 제주도에만 있는 오랜 풍습이다. 신구간은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들이 임무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신들은 옥황상제에게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 제주 도민들은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모두 자리를 비운 이 기간에 이사하거나 집수리를 해도 동티(신의 성냄으로 인한 재앙)가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신구간은 24절기의 하나인 대한 이후 5일째부터 입춘 전 3일까지다.

259)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진행되지 못했고, 2021년과 2022년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악심꽃을 꺾는데, 악심꽃의 모습, 악심꽃의 괴력, 악심꽃을 꺾는 방법 모색, 악심꽃 꺾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후 심방은 <이공본풀이>를 부른다. 심방은 꽃감관 역을 하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시늉, 꽃감관이 자는 흉내를 내고, 꽃을 훔쳐와 제주 부인에게 팔고 꽃풀이를 한다. 꽃탐에서는 말·노래·음악·몸짓·무구 등의 연행요소가 나타나고, 재담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재현된다.²⁶⁴⁾”라고 하였다.

‘무당굿놀이’는 굿과 놀이를 함께 전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근원이 아주 오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이 이를 수 없는 것을 신에게 기원했고, 신과 인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무당 곧, 심방이 담당하였다. 굿의 언어는 그들만의 언어이다. 서사적이고 언어적인 것이 굿이라면 놀이는 연극적이고 행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을 섬기는 의례가 놀이로 발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당굿놀이’에는 제의적인 요소가 포함되는데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탐라입춘굿에서 <자청비놀이>, <꽃탐>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세경신을 맡은 자청비의 역할을 올곧이 대중들에게 세경놀이로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서천꽃밭축제>는 2012년 5월에 조천읍 선흘리에서 퇴직 교사부부인 김형식, 오순덕 부부에 의해 처음 열리기 시작하여 이들 부부가 5년간 손수 가꾸어온 꽃밭에 제주 신화를 재현해 테마공원 형성에 주력하였다.

<제1회 서천꽃밭축제>(2012년 5월 19일부터 2012년 5월 26일까지 개최)는 5년 동안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만든 선흘 꽃밭에서 문화 소통의 장으로 열렸다. 조천읍 선흘리 꽃밭에는 새로운 제주의 신화가 펼쳐졌다. 이들 부부의 생각에 공감한 오재영 작가는 제주 신화 ‘서천꽃밭’ 이야기를 풀어냈고, 천사의 집 아이들이 합창과 합주공연을 하였다. 꽃밭 입구에서 꽃감관 명패도 만들고 꽃물염색도 체험행사로 진행하였다. 김강훈 화가의 전시와 김미화 작가의 도자기 전시 등 축제는 작지만 알찬 문화공간으로의 역할도 했다.

<제2회 서천꽃밭축제>(2013년 5월 18일부터 2013년 5월 25일까지 개최)는 같은 장소에서 이두 부부에 의해 다시 열렸다. 세계자연유산지역 람사르 습지의 동백동산과 거문오름, 4·3성터 등이 있는 선흘리에 꽃밭을 구성하였다. 꽃밭에 ‘설문대할망과 서천꽃밭’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축제를 열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

264) 윤동환의 위의 논문, 211-212쪽.

이 아름다운 제주의 이야기를 자연 경관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오재영 작가의 ‘서천꽃밭 신화이야기’, 김강훈의 ‘설문대할망’ 그림 전시, 금관악기 5중주·오카리나·난타 공연, 차세나 독창, 설문대할망 모종 나눔, 오백장군 꽃 이름 짓기, 꽃차 시음, 꽃물 염색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제3회 서천꽃밭축제>(2014년 5월 17일부터 2014년 5월 24일까지 개최)는 제주의 아름다운 신화이며, 우리의 마음에 늘 살아있는 서천꽃밭의 생명꽃으로 환생한 ‘설문대할망’을 모토로 열렸다. 생명이 움트는 ‘서천꽃밭’은 환생꽃, 살오름꽃, 뽕오를꽃, 솜트일꽃, 혼살이꽃, 피어오를꽃 등 100여 가지 야생화 등이 핀 실제 꽃밭으로 펼쳐졌다. 어린이 합창과 오재영 작가를 통한 서천꽃밭 신화이야기, 서천꽃밭 한라궁이의 꽃 무료 나눔과 함께 서천꽃밭 꽃감관 명찰 만들기, 그림 및 도자기 전시, 꽃차 시음, 꽃물 염색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²⁶⁵⁾



[그림23] <서천꽃밭축제> 관련 사진

서천꽃밭축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1회씩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몇 년 동안 가꾼 꽃밭에서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아날로그적인 꽃밭 외에는 보고 느낄 수 있는 대상을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축제에서 방문객들을 위한 몇 가지의 체험을 진행하고, 꽃을 판매했으나 서천꽃밭의 삶과 죽음, 생명의 원리를 전달하는 것은 미흡했다. 제주 신화를 재현하여 전통 문화의 초석을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천꽃밭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65) 김은정, 「제주 신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내 테마공원 사례와 그 방안 모색」, 『인문학 연구』, 제 22집, 2017, 18-19쪽.

26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265801?sid=102> (연합뉴스 2013. 5.18.)발췌.

267) <http://tvdaily.co.kr/read.php3?aid=1397456585684400016> (티브이데일리 2014.4.14.) 발췌.

축제를 기획하였지만 축제와 제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서천꽃밭이 가진 삶과 죽음의 의미를 축제에 오롯이 녹여내지 못하였고 관람객들에게도 향유되지 못했다.

2019년에 개최된 <제주신화페스티벌>²⁶⁸⁾의 5개의 전체 프로그램²⁶⁹⁾ 중 하나로 ‘서천꽃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로컬 아티스트 공연과 부대행사로 제주신 퍼포먼스, 신과 함께 대결 이벤트, 神나장 만나장 플리마켓 등이 서천꽃밭에서 진행되었다.

<제주신화페스티벌>은 제주의 신화를 알리고, 신화에 담긴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제주 신화를 재발견하는 축제의 장이다. ‘나는 어떤 신이랑 닮았을까?’라는 슬로건으로 제주의 신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창작동요제, 뮤지컬, 인형극과 함께, 제주 신 퍼포먼스, 신화토크쇼, 신화 책방, 신화 런앤런(Run & Learn), 신화 사생대회, <신과 함께> 영화 상영, 제주 로컬 아티스트들의 길거리 버스킹, 제주 민화 전시전 등을 통해 제주 신화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수와 세계 정상급 비보이그룹 등의 축하공연을 진행하였다.²⁷⁰⁾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 내용과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와 제주 신화와의 연계성이 매우 약해 축제를 참여하는 관람객들이 축제를 통해 제주 신화를 체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제주 신화의 키워드를 뽑아 5개의 장을 펼쳐 놓았지만 각각의 장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축제의 전체적인 테마 역시 제주 신화의 소재나 주제와 명확하게 연결되지 못했다.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축제 운영 문제로 인하여 이름만 제주 신화를 걸고 정작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제주 신화의 내용이 제외되어 경제적인 측면만이 부각된다면 축제로서의 의미는 상실된다. 제주신화페스티벌이라는 축제 이름에 걸맞는 제주 신화의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제주신화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함은 물론 제주신화를 어떻게 드러내고 프로그램에 적용할 것인가를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제주신화페스티벌>이라면 제주 신화의 서사, 주인공,

268)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문제로 218에 위치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되었다. 2018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제2회 페스티벌이다.

269) 대별왕소별왕 마을, 도개비광장, 설문대의 바다, 자청비오름, 서천꽃밭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70) <https://v.daum.net/v/20191001194317449> (파이낸셜 뉴스 2019.10.1.) 참조.

배경이 프로그램 전반에 녹아 있어야 하고, 관객들은 이를 통해 제주 신화에 대하여 알게 되어야 의미가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p>포스터 271)</p>	<p>서천꽃밭 안내표지 27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background-color: #f0f0f0;">대별왕 소별왕 마을 [대별왕대 / SOBEOLWANG]</th> <th style="background-color: #f0f0f0;">도개비광장 [대별왕대 / DOGAEBI]</th> <th style="background-color: #f0f0f0;">설문대의 바다 [대별왕대]</th> <th style="background-color: #f0f0f0;">자청비오름 [대별왕대 / JACHEONGBIORIM]</th> <th style="background-color: #f0f0f0;">서천꽃밭 [대별왕대 / SECHON]</th> </tr> <tr> <td> 무대프로그램 · 개·페마닉 · 개마 춤아공연 · 신화 토크쇼 · 신화 창작동요제 · 신화 뮤지컬퍼포먼스 · 신화 사생대회 체험프로그램 · 신화 RUN&LEARN · 신화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부스 </td> <td> 공연프로그램 · 길트기 공연 · 제주 신 퍼포먼스 · 동내신방 </td> <td> 전시프로그램 · 신화 시간 여행 </td> <td> 공연프로그램 · 제주 신화 인형극 전시/무대행사 · 영화 상영 · 신화 책방 · 북한 민화전시 편의시설 · 화장실 · 카페테리아 · 수유실 </td> <td> 공연프로그램 · 로망 아티스트 공연 무대행사 · 제주신 퍼포먼스 · 신마함께 대결 이벤트 플리마켓 · 신(神)나라 만남시장 먹거리 · 제주 향토 음식 · 푸드트럭 </td> </tr> </table>		대별왕 소별왕 마을 [대별왕대 / SOBEOLWANG]	도개비광장 [대별왕대 / DOGAEBI]	설문대의 바다 [대별왕대]	자청비오름 [대별왕대 / JACHEONGBIORIM]	서천꽃밭 [대별왕대 / SECHON]	무대프로그램 · 개·페마닉 · 개마 춤아공연 · 신화 토크쇼 · 신화 창작동요제 · 신화 뮤지컬퍼포먼스 · 신화 사생대회 체험프로그램 · 신화 RUN&LEARN · 신화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부스	공연프로그램 · 길트기 공연 · 제주 신 퍼포먼스 · 동내신방	전시프로그램 · 신화 시간 여행	공연프로그램 · 제주 신화 인형극 전시/무대행사 · 영화 상영 · 신화 책방 · 북한 민화전시 편의시설 · 화장실 · 카페테리아 · 수유실	공연프로그램 · 로망 아티스트 공연 무대행사 · 제주신 퍼포먼스 · 신마함께 대결 이벤트 플리마켓 · 신(神)나라 만남시장 먹거리 · 제주 향토 음식 · 푸드트럭
대별왕 소별왕 마을 [대별왕대 / SOBEOLWANG]	도개비광장 [대별왕대 / DOGAEBI]	설문대의 바다 [대별왕대]	자청비오름 [대별왕대 / JACHEONGBIORIM]	서천꽃밭 [대별왕대 / SECHON]							
무대프로그램 · 개·페마닉 · 개마 춤아공연 · 신화 토크쇼 · 신화 창작동요제 · 신화 뮤지컬퍼포먼스 · 신화 사생대회 체험프로그램 · 신화 RUN&LEARN · 신화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부스	공연프로그램 · 길트기 공연 · 제주 신 퍼포먼스 · 동내신방	전시프로그램 · 신화 시간 여행	공연프로그램 · 제주 신화 인형극 전시/무대행사 · 영화 상영 · 신화 책방 · 북한 민화전시 편의시설 · 화장실 · 카페테리아 · 수유실	공연프로그램 · 로망 아티스트 공연 무대행사 · 제주신 퍼포먼스 · 신마함께 대결 이벤트 플리마켓 · 신(神)나라 만남시장 먹거리 · 제주 향토 음식 · 푸드트럭							
<p>행사장 안내도</p>											

[그림24] 제2회 <제주신화페스티벌>

271) 파이낸셜 뉴스 2019.10.1.에서 발췌.

272) <https://blog.naver.com/jejuanna/221669507012> 발췌.

2022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마을이 국내 최대 규모 민속축제인 제 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제주도 대표로 출전하여 <서천꽃밭 영장소리>를 선보였다. 한국민속예술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 공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예술제이다. <서천꽃밭 영장소리>는 제주 전통상례의 경건함과 환생 공간인 서천꽃밭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소리와 놀이로 담아낸 작품이다.²⁷³⁾ 마을 주민들이 직접 예술제에 참여하기 위해 제작하여 공연까지 참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서천꽃밭 영장소리>에서 ‘서천꽃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환생 공간으로 반영되었다.



[그림25] <서천꽃밭 영장소리> 장면²⁷⁴⁾

제주의 축제에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축제는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본풀이가 전승되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이다. 제주 신화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안목을 지니고 축제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참여가 가능한 축제를 더 깊게 모색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를 구성해야 한다.

273) 앞의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함.

274) <http://www.jej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896> (제주인뉴스 2022.10.30.)참조.

5) 장소 콘텐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자청비 거리>는 벽에 벽화를 새겨 넣어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농경의 신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표현했다.

이 거리에는 문도령과 자청비의 동상이 있고, <세경본풀이>의 서사에 따른 내용도 벽화로 소개된다. 여기에 서천꽃밭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거리의 길이가 짧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으며, 거리가 만들어진 지역과의 연관성도 부족하여 관람객을 이끌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림26] <자청비거리> 관련 사진²⁷⁵⁾²⁷⁶⁾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한 거리가 조성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0억을 투입하여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의 <신화의 거리>를 조성했지만, 훼손이 잦아 보행에 불편을 주었다. 제주석과 화강석을 이용한 판석포장을 하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였으나, 제주 신화와 전혀 연관성이 없고, 쇼핑거리와는 맞지 않는 경관조형물로 인해 2015년에 철거가 되었다. 조성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거리>는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 거리로 조성하였지만, 조성 직후부터 거리가 훼손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화의 거리>라고 붙여진 이름과 거리의 환경이 전혀 어울리지

275) <https://blog.naver.com/mind0map/222009969655> 발췌.

276) <https://blog.naver.com/wowjejusi/222859528348> 발췌.

않고,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제주 신화의 인물, 서사, 경관물 디자인이 모두 조화롭지 못해 5년 만에 거리는 사라졌다. 결국 이 길은 제주 신화의 가치를 오롯이 담지 못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성과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화역사공원²⁷⁷⁾ J지구 내에 제주 신화, 전설을 주제로 한 길로 <신나락 만나락-제주 신화·전설 탐방로>(이하 신나락 만나락)를 조성하였다. ‘신나락 만나락’이란 ‘신과 사람이 만나 함께 즐거워 한다.’는 의미로 총 길이 3.2km의 꽃자왈 숲길과 돌담길로 이뤄진 탐방로이다.



[그림27] <신나락 만나락-제주 신화·전설 탐방로>의 서천꽃밭²⁷⁸⁾

앞에서 설명한 <신화의 거리>와는 다르게 14개의 쉼터 곳곳에 제주의 신화와 전설의 줄거리와 인물을 알리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탐방로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 중 서천꽃밭을 소재로 한 길을 살펴보면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옆에 서천꽃밭의 조형물을 설치하였다.([그림27]) 그러나 서천꽃밭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조형물의 설치와 함께 꽃을 심어 더욱 확장해서 표현했다면 서천꽃밭의 이미지를 더욱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2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 제주 및 한국·아시아·유럽 등의 신화·역사를 핵심 테마로 한 문화·관광·휴양·식음 등이 어우러진 복합관광단지이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홈페이지 참조.

278) <https://blog.naver.com/goldook/220891947501> 발췌.

또한 야외 테마 거리라는 한계가 있지만 탐방객들이 대상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으로만 그치게 하는 것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탐방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하려 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테마 거리 분야에서는 서천꽃밭을 소재로 다양한 시도를 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나 대중에게 공감을 주는 방식은 아직 미흡하고 본풀이의 장소성이 문화콘텐츠에 적용된 양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 특징

본풀이 텍스트에 나타난 서천꽃밭의 의미를 꽃의 상징, 서천꽃밭의 상징성, 상징과 변환 원리 등으로 3장에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서천꽃밭이 문화콘텐츠에 반영되었을 때 본풀이에서 나타난 의미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실제 사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고대에 신앙으로 역할을 했던 본풀이와 현재 구연되고 있는 본풀이는 엄연히 다르다. 구연자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대의 본풀이는 신앙의 의미가 매우 강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인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신에게 기원했다. 그러나 현대에 구연되는 본풀이는 기원이 측면과 구연의 측면이 더해졌다. 문화콘텐츠로 확장되면서 의미는 더욱 달라졌다.

장르별로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문화콘텐츠에서 서천꽃밭은 원형으로서의 활용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문화콘텐츠로 구연된 서천꽃밭은 때론 죽은 이들이 가는 저승이기도 하고, 환생이라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기도 했다. 저승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생불꽃과 멸망꽃, 울음꽃, 웃음꽃, 환생꽃 등 가지각색의 신비로운 꽃이 피어 있는 상상의 세계이기도 했다. 서천꽃밭을 통해 위로를 받고자 했고 힘든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도 했다. 서천꽃밭에 있는 각종 꽃으로 상상의 물건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고, 꽃을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서천꽃밭의 신성성을 춤, 음악, 공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문학작품을 통해 표현한 서천꽃밭은 삶과 죽음이 모두 존재하는 곳이었다. 때론 화려한 곳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때론 어둡고 슬픈 곳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콘텐츠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더욱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만들었다. 구전되어

전해지는 서천꽃밭이라 가능했을 것이다. 서천꽃밭의 이러한 다양성은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에 좋은 소재라는 것도 기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서천꽃밭 자체를 소재로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한 사례는 문학작품은 물론, 공연, 전시, 설치미술, 퍼포먼스, 그림자공연에서부터 보드게임, 축제, 테마 거리까지 매우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서천꽃밭을 소재로 인간의 혼을 꽃으로 담아낸 인간 생명의 본원적인 공간이자 곳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던 신화적 상생의 공간을 잘 표현해 냈다.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을 신화적, 상상적 공간으로 그려내며 신성성을 대중들에게 한층 가깝게 표현해내는 역할을 했다.

특히 보드게임으로 표현한 서천꽃밭은 매우 창의적이었다. 전시, 공연은 배우와 작가가 표현한 작품을 관객들이 관람을 하고 공감하는 문화콘텐츠였다면 보드게임은 직접 참여해야 알 수 있는 서천꽃밭의 매력에 충분히 빠질 수 있게 만든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천꽃밭이라는 대상을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이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서천꽃밭을 직접 공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장소 콘텐츠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서천꽃밭은 우리의 상상 속 공간이자 장소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로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성 부분에서 활용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본풀이의 구조와 소재를 활용한 사례는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가 큰 축으로 작용한다. 특히 서천꽃밭이 만들어지고 꽃감관으로 발탁된 사라도령과 그 아내인 월강아미의 서사가 핵심을 이룬다. 문학 작품에서는 사라도령과 월강아미 사이에서 태어난 한락궁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많았다.

특히, 서천꽃밭을 주제로 제작한 JIBS 뮤지컬 다큐멘터리, <서천꽃밭>은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으며 서천꽃밭의 시작과 공간의 특성을 대중성있게 잘 풀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뮤지컬과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문화콘텐츠가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서천꽃밭’이라는 본풀이의 소재를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하였다.

강동균의 회화는 <이공본풀이>의 주인공인 사라도령과 월강아미를 이미지화하여

표현한 매우 정교한 작품이다. 본풀이에서 이들의 서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림에 적용하였다.

문화콘텐츠 사례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대부분 표현 매체가 문학과 회화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학 작품에는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시각 콘텐츠는 이미지화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서천꽃밭의 장소의 신비성을 어떻게 콘텐츠화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경빈 작가는 그의 사진 작품을 “화산섬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무덤은 나의 놀이터요 정원이다. 아귀다툼이 없는 그 공간은 고요가 흐르는 나의 ‘헤테로토피아’이다.”라고 표현했다. 서천꽃밭은 상상 속 신화적인 공간이지만, 문화콘텐츠로 살아난다면 우리에게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문화원형으로서 서천꽃밭의 힘이다.

창조적 상상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많은 콘텐츠의 장르가 융·복합이 되고 있다. 신화적 상상력에 삶의 철학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서천꽃밭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우리에게 더욱더 흥미와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으로 서천꽃밭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하고 신화적인 장소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서천꽃밭이라는 신화적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서천꽃밭의 생명의 순환 원리를 반영한 비일상적인 장소인 테마공원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5장 문화콘텐츠 전환 과정

서천꽃밭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본풀이에 나타난 서천꽃밭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사례의 경우는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통해 서천꽃밭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었으나 대부분 일회성에 그쳐 상시적인 문화콘텐츠의 사례는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천꽃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문화콘텐츠 제작 방법과 테마공원을 기획하기 위해 문화원형으로서 콘텐츠의 가치, 문화콘텐츠로서 서천꽃밭의 가치, 서천꽃밭의 공간 이미지화, 서천꽃밭의 장소 문화콘텐츠 전환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서천꽃밭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테마공원 문화콘텐츠를 제안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문화콘텐츠로서 서천꽃밭의 가치

1) 이상향으로서 서천꽃밭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본풀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상향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임을 알려 준다. 죽어서 저승에서 잘 사는 방법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천꽃밭은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으로도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인간과 신이 공유하고 공존하는 이색적인 장소이며, 이곳을 드나들 수 있는 능력으로 신의 능력을 부여하는 장소이다.

서천꽃밭에는 탄생, 성장과 성숙, 죽음, 환생 등 생명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3장에서 확인하였다. 꽃의 탄생은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고 그 역할은 삼승할망이 담당한다.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꽃감관이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데 그 역할은 <이공본풀이>의 사라도령이 담당한다. 이는 곧, 그의 아들인 한락궁이가 이어받게

된다. 한라궁이는 서천꽃밭의 꽃으로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힌 자현장자를 응징하고 환생꽃으로 죽은 어머니를 환생시킨다. 이와 같은 능력을 증명한 후에 신직을 물려받는다. <문전본풀이>의 녹디생이도 환생꽃으로 죽은 어머니를 살려낸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려낼 때 환생꽃을 이용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곳, 신화 속 ‘이상향’ 같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도 있다. 제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낸 ‘이어도’가 그런 곳이다. 이어도는 바다에 어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곳에선가 잘 살고 있다고 남겨진 가족들이 믿고 싶은 곳이다. ‘이여도’, ‘이허도’라고도 불린다. 제주에 유배된 이용호가 남긴 1897년 『청용만고²⁷⁹⁾』라는 시문집에는 ‘이여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1923년 강봉옥의 잡지 『개벽』 제23호에는 이어도의 전설을 소개하면서 ‘이허도(離虛島)’ 라고도 전해진다.

우리는 이상향을 꿈꾼다. 힘들고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현실에서의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되는 곳, 도교의 무릉도원, 중국 신화에서 곤륜산이 그런 곳이다. 곤륜산에는 황제, 서왕모 등 대단한 능력을 지닌 신들이 산다. 고대 중국인들은 곤륜산이 고비 사막 너머 서쪽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다. 상상의 공간이자. 희망의 공간이다. 그리스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 산, 북유럽 신들이 사는 아스가르드, 인도의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인드라의 하늘은 최고의 이상향이다.

김창일은 무속신화에서의 꽃밭은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로서의 선경과는 다르다고 언급하며 “우리 민족은 도교의 선계를 지극히 유토피아적인 세계로 이해하였다. 그곳은 죽음이 없으며 궁전은 화려하고 황금으로 장식된 뜰과 백옥의 계단이 있으며 진주가 가득하다. 또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으며 밤낮없이 仙酒를 마시고 시를 짓고 춤추며 노래한다. 그곳은 奇花妖草가 만발하고 전혀 때 묻지 않는 미남미녀가 거주하고 학을 타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 그런데 한국 무속신화의 서천꽃밭에서 사라도령은 시들어가는 꽃을 살리기 위해 섬 없이 꽃밭에 물을 퍼 나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술 마시고 시를 짓고 춤추며 노래할 여가 같은 것은 없다. 화려한 궁전도 황금으로 장식된 뜰과 백옥의 계단, 진주 등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선계의 기화요초는 이상경으로서의 장식적 요소이

279) 아석(我石) 이용호(1842-2905)의 한시집으로 총532수의 시가 실려 있다.

지 무속신화의 꽃밭에서 보이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성스러움의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²⁸⁰⁾” 하고 하며 한국 무속에서의 꽃밭은 불교, 도교에서의 명부 혹은 선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언급하였다.

이상향은 곳곳에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동산도 있고, 도가 사상에서는 무릉도원도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여 평화로운 들판으로 묘사되는 엘리시온도 있다. 엘리시온에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으며 날씨는 언제나 화창하다. 언제나 따뜻한 봄인데 사후세계라는 특성을 제외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도교의 무릉도원 같은 곳이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발할라가 있다. 이곳은 용맹한 전사들만 갈 수 있는 곳인데 발할라는 이름에는 ‘전사자들의 집’이란 의미가 있다.

고대 이집트 정원의 모습은 파라다이스의 전형이다. 생명 같은 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 그들이 있는 쉼터, 즉 모든 즐거움을 위한 공간이다. 이런 정원을 만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갖고자 했을 것이다.²⁸¹⁾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고, 다시 살아난다면 ‘아아루’라는 곳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아아루’는 갈대밭이라는 의미로 풍요로운 곳이다. 이곳은 화려한 궁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밭이 있다. 사자가 소를 부려 농사를 짓고 살며 밀과 보리를 심는다. 이곳은 먹을 것이 늘 넘쳐나는 곳이며, 사자들은 그것들은 즐길 뿐이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교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이곳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가 있다. 이를 찬바트 다리라고 한다.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42명의 배심원 앞에서 신성 모독이나 을 한 적이 없어야 하고, 게으른 적도 없고 저울을 속인 적도 없으며 도둑질과 살인한 적도 없어야 하는 등 42가지 항목이 모두 깨끗했음을 고백해야 한다. 찬바트 다리에서 심판을 통과하여 선한 영혼은 아름다운 여인의 도를 받아 이 다리를 건너게 된다. 그렇지 못한 영혼은 추한 노파의 인도로 다리를 건너지만 다리가 칼날이 되어 영혼은 아래 지옥으로 떨어진다. 악한 이는 결국 벌을 받는 것이다.

본풀이에서도 뿔은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을 떠나보내고 아들 한락궁이와 함께 살고 있는 원강아미를 어떻게든 탐하려는 자현장자의 탐욕, <삼승할망

280)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182쪽.

281)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501031412000001>(문화일보, 2021.2.15.) <박원순의 꽃의 문화사> 참조.

본풀이>에서의 구삼승할망의 욕심, <천지왕본풀이>에서 소별왕이 대별왕과의 내기에서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이기려는 탐욕, <문전본풀이>에서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질투와 탐욕은 모두 그 자체로 지옥이다. 인간의 가지 탐욕들이 존재하는 곳이 곧 지옥인 셈이다.

인간이 꿈꾸는 이상향과 대비되는 신화 속 공간도 있다. 불교에서 지옥은 인간계 아래에 있다고 알려진 장소이다. 윤회에 따라 가장 업보가 깊은 자가 향하게 되는 지점이다. 서양에서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 가는 불구덩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북유럽 신화에는 지옥을 다스리는 죽은 자들의 신인 헬(Hel)도 있다.

북유럽 신화의 경우 선악과는 관계없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발할라²⁸²)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니플헤임으로 간다고 전한다. 다만 니플헤임²⁸³)이 곧, 지옥이 아니라 니플헤임으로 간 자들 중 죄인은 나스트론드²⁸⁴)로 가서 그곳의 독사로 되어 있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독을 맞으며 고통을 받다가 늑대와 니드호그의 밥이 된다고 전한다.

힌두교에서는 업을 쌓지 못하면 더 낮은 카스트로 환생해서 고통을 받지만 죽은 이후의 지옥과 같이 이승에서 지은 죄를 저승에서 받는다는 개념은 따로 없다.

이상향과 지옥처럼 특정한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곳으로 떠나는 여정의 신화도 존재한다. 죽음을 거부한 영웅 길가메시 이야기이다.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길가메시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으로 죽음 앞에서는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길가메시는 생명의 땅을 찾아 나서기로 하고 여행을 떠난다. 길가메시의 여정 중 꿈에 엔키두가 나타나 생명의 땅을 찾기 위해 태양신 우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준다. 그는 친구의 조언대로 우투를 찾아갔지만 그는 길가메시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길가메시의 완강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험난한 일곱 개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길가메시는 결국 생명의 땅에 도착해 영생을 얻은 우트나피쉬티를 만난다.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쉬티를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불로초를 얻을 방

282) 북유럽신화에서 오딘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전사들이 머무는 궁전을 의미하며 지붕이 방패로 덮인 아름다운 궁전으로 묘사된다.

283) 고대 노르드어로 어둠의 세계를 의미하며, 얼음과 냉기가 가득한 세계로 영웅적인 죽음을 맞지 않는 인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284) 북유럽신화에서 니플헤임 안에 존재하는 곳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 간통한 자, 맹세를 어긴 자는 이곳에 떨어지게 된다.

법을 알아낸다. 그 풀은 가시가 있고 물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다리에 무거운 돌을 묶고는 물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가시에 손이 찢리면서도 그 식물을 잡았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불로초를 길가메시가 샘에서 목욕을 하는 순간에 뱀이 물어가 버린다. 길가메시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우루크로 돌아간다. 후에 길가메시는 가족의 수호신, 목축의 신으로 신앙이 대상이 되었다. 김창일도 길가메시의 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길가메시가 생명의 약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는 한국 무속 신화에서 생명의 꽃을 찾아 나서는 여행담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 무속 신화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나서는 헛된 발걸음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생명의 꽃은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가 장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로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가 저승으로 간다. 이는 억울하게 죽거나 한을 가지고 죽은 자는 조상신이 될 수 없다는 우리 민족의 의식이 투영된 결과물이 아닌가 여겨진다. 생명의 꽃에 의해 재생하여 이승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저승으로 가서 자신의 영역을 담당하는 신으로 좌정하는 것이다. 즉, 생명의 꽃에 의해 재생된 후 신의 좌정하는 환생을 하는 것이다. 재생(再生)과 환생(還生)²⁸⁵⁾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²⁸⁶⁾

인간들은 고된 현실을 이겨내고자 꿈을 꾸었다. 꿈에서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풍요롭다. 현실에는 없지만 희망하는 세계가 이상향이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이자 낙원이다. 아무도 찾을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역사 속에서 이러한 곳을 찾았다면 그곳은 더 이상 이상향이 아니다.

무속에서의 이상향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이다. 그 현실 세계가 질서와 조화를 잃은 것이 고통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재적 삶의 상황인 것이다. 고통을 통해 그 파괴된 균형과 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현실을 이상향으로 만들 듯 무속신화에서의 꽃밭 역시 그 자체가 이상향이 이라니 파괴된 현실을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인 것이다.²⁸⁷⁾

285) 김창일은 앞의 논문에서 재생과 환생의 차이를 두고 再生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승에서 그 생명을 계속하는 것으로, 還生은 죽은 사람이 생명체가 아닌 神·精靈·山神 등으로 되는 것으로, 還生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동·식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 김창일, 앞의 논문 185쪽 참조.

286) 김창일, 앞의 논문, 184-185쪽.

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위로의 공간이다.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고 탄생 과 환생의 장소이지만 누구나 갈 수는 없다.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가 곧, 신이 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판타지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기회의 작용은 문화콘텐츠로 발현된다.

2) 서천꽃밭의 현재성

서천꽃밭의 신성한 이미지는 예술 작품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의 작품들로 표현된 서천꽃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통해 우리는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서천꽃밭으로 갔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고, 한락궁이와 녹디생이가 죽은 어머니를 살리려는 간절함에서 우리는 지쳐있던 삶이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할 것이다. 신화적인 장소는 인간의 장소와 분리된 이분법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해 우리 미래의 삶을 볼 것이고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철학을 얻게 될 것이다. 심승구는 문화콘텐츠와 문화의 원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화콘텐츠란 곧 문화의 원형(originalform+archetype)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를 찾아내어 매체(on-offline)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다. 현재 문화콘텐츠 분야가 새로운 응용학문 분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배경이자 특성은 '다학문의 통합성과 다양한 문화가치의 창출,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활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는 공유되는 상징과 규범의 체계라는 고전적 의미만으로 더 이상 정의되지 않고, 사람들의 실천(practice)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며 또는 재확인되거나 변형되거나 때로는 부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역동성과 가변성이 문화콘텐츠 영역을 통해 포착되고 끊임없이 시험된다. 실제로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사회구성들 사이에 문화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그러한 이해가 실천을 통해 복원(restoration)과 재현(represent) 되는지가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 점은 문화콘텐츠가 다양한 문화 가치의 창출 기반인 동시에 현실적 적용과 구현이라는 활용성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콘텐츠는 '실용학문의 허브'인 동시에 '21세기형 실학'이라는 실천적 가치를 함의한다.²⁸⁸⁾

287) 김창일, 앞의 논문, 183쪽.

288) 심승구, 「한국 술문화의 원형과 콘텐츠화」, 『인문콘텐츠학회 학술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05. 참조, 차국환, 앞의 논문, 18쪽 재인용.

서천꽃밭은 인간의 갈등에서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만능의 장소이자 상상의 장소이다. 인간의 원론적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주는 신화적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면 서천꽃밭에 반영된 세계관은 어떤 장소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장소 문화콘텐츠를 형성하는 출발점이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서천꽃밭은 특정한 능력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자는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능력을 획득한 후에야 갈 수 있는 비범한 장소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서천꽃밭이 장소로 제공되는 본풀이 안에서 찾은 의미와 원리를 문화콘텐츠에 반영해야 한다.

이승과 대비되는 저승이라는 공간은 많은 신화 속에 등장하지만 본풀이의 저승에 대한 사고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저승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다. 죽음 이후 세계는 인간들이 쉽게 넘나들 수 없다. 그러나 본풀이는 끊임없이 사후 세계에 대해 언급한다. 미지의 세계인 그 곳을 우리의 사유체계 안으로 끌어들인다. 본풀이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생명이 있는 장소인 이승이 있기에 죽음이 있는 장소인 저승이 있는 것이다.

본풀이를 통해 서천꽃밭은 제주도 본풀이에서 특수한 장소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강명혜²⁸⁹⁾는 제주 본풀이 속 꽃과 꽃밭은 여러 가지의 원관념을 지닌 보조 관념으로서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형상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직조시킨 응집물이라고 하였다.

서천꽃밭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이며 천상계와 지상계와는 다른 특수하고 신성한 장소로 제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천꽃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본풀이의 등장인물들을 신격을 획득하고 신으로 좌정된다.

제주 사람들에게 죽음은 삶과 대립되는 것이지만 부정적이거나 공포의 대상은 아니다. 인간이 죽어서 가는 저승은 하늘, 땅, 바다 외에도 신화적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믿었다.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서천꽃밭에 반영되어 있다. 생명이 순환되고 있는 원리 자체가 서천꽃밭이 가지는 현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성으로 서천꽃밭 테마공원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지는 6

289) 강명혜, 앞의 논문, 59쪽.

장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의 가치는 장소적 특성과 현재성이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조합을 이룬다면 테마공원의 공간은 서천꽃밭이 가진 특성이 잘 드러날 것이다.

2. 서천꽃밭의 공간 이미지화

1) '공간'과 '장소'의 개념

공간은 시간과 함께 우리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서사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이야기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한다. 삶의 근원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공간은 유·무형의 수많은 자원의 발현이다. 인간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체험하고 느끼고 기억하려고 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낯선 공간은 익숙하고 친밀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인간의 삶은 공간과 분리할 수 없다. 시·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방식을 만들고, 공간을 확장하고 의미를 탐색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서사를 창조하기도 한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은 우리를 새로운 공간으로 안내하였으며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었다.

요즘 흔히 사용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universe’가 만나 현실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세계와 연결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나를 만나기도 하였다.

공간이 일정한 활동이나 사물들 또는 환경을 가지는 위치들 간의 연장으로서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와 관련된다면,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된다. 인간이 어떤 장소와 맺은 깊은 친밀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출발점이 된다.²⁹⁰⁾

장소는 ‘인간이 물리적·활동적·상징적 측면을 포함해 한정된 공간을 인위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²⁹¹⁾ 일상적으로 공간과 장소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문화콘텐츠의 활용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원리와 문화적인 요소가 반영된 ‘장소’의 개념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음 [표14]와 같이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공간(Space)	장소(Place)
인식 작용	인간의 물리적 인식 작용 (경관, 방향, 위치 등)	인간의 상징적 인식 작용 (문화적 특성, 지역 정체성 등)
특성	추상적, 환경적	인간 활동 경험과 상호작용

[표14] 공간과 장소의 비교²⁹²⁾

장소의 개념을 이론화한 캐나다의 지리학자인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장소는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장소는 의미, 실재 사물, 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²⁹³⁾라고 하였다. 그는 “장소는 주위 공간이 일부이면서도 그 공간과는 별개라고 하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면서 나아가고 그러한 관계가 정체성과 안정감의 근원이며, 한 인간이 외부를 지향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였다.

정치지리학자 조 애그뉴는 ‘의미 있는 곳’으로서 장소의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위치(location), 로케일(locale), 장소감(sense of place)로 요약하였다.²⁹⁴⁾ 도린 매시는 “결국 장소는 지도 위의 점이나 구역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통합물이다. 곧 장소는 공간-시간적 사건이다”라고²⁹⁵⁾ 하였다. 이푸 투안은 ‘토포필리아²⁹⁶⁾’ 즉

290) 백선혜,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1쪽.

291) 어정연, 「장소가치 개념에서의 플레이스 브랜딩 평가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201쪽.

292)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5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김자영, 『지역문화콘텐츠의 공간 요소와 스토리텔링 서사 구조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함.

293)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87-288쪽.

294) 팀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장소』, 시그마프레스, 2016, 19쪽.

295) 도린 매시 저, 박경환·이경민·이용균 저,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254쪽.

296) 장소를 뜻하는 희랍어 Topos와 사랑이라는 의미의 Philia가 합쳐진 복합어임.

장소와 사람을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였다.²⁹⁷⁾ 심승희는 “공간은 법칙 추구를 목적으로 가정된 동질적인 영역이고, 장소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하게 의미화한 영역²⁹⁸⁾”이라고 하였다.

장소의 개념을 더욱 의미화 한 개념은 ‘장소성’이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나 가치들로 가득한 상태를 장소성이라고 하는데 장소성에 대한 개념은 여러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홍경구²⁹⁹⁾는 장소성이란 인간이 일정기간 체험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붙여진 특정 공간을 말하며 장소성은 장소 차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장소성이 바로 장소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정의하였다. 이옥정³⁰⁰⁾은 장소성은 인간이 장소를 경험하면서 특정 의미를 갖게 되거나 부여된 인식환경을 갖는 장소적 특질이라고 정의하였다. 백선혜³⁰¹⁾는 장소성을 인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의식으로 보았다. 이는 가시성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구조를 설명했는데 형성 원인을 물리적·환경적 요인, 인적·문화적 요인, 상대적 요인, 정서적·상징적 요인을 제안하였다.

김성수³⁰²⁾는 E.Relph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활동, 의미 그리고 정적인 물리적 장치의 3가지로 장소성 형성 구조를 제안하고 이와 더불어 시·공간적인 맥락의 결합과 요인들 간의 상호 조합을 통해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장소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장소는 ‘장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케빈린치(Kevin Lynch)는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제공하며, 독립된 하나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는 토대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장소 정체성’은 물리적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 눈, 마음,

297) 이푸 투안 저,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에코리브르, 2011, 21쪽.

298) 심승희, 「지리학에서 장소 개념과 그 변화」, 『장소 철학 1회 학술 대회(장소 존재론) 발표집』, 2018, 22쪽.

299) 홍경구, 「주제가로의 장소성 형성 요인이 장소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제1호, 2009.

300) 이옥정·전한중, 「랜드스케이프 건축적 측면에서 본 장소성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24호, 2008.

301) 백선혜,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302) 김성수, 「한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장소성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의도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호주관적으로 결합되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³⁰³⁾

이를 근거로 하여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에서는 공간보다 ‘장소’, ‘장소성’의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장소를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보기에는 그 의미에 미비함이 있다. 장소에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 등 다양한 의미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간과 장소의 가장 큰 구별점에는 ‘인간’이 있다. 장소에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투영되고 가치관이 반영된다.

장소는 구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개인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개념이기도 하다.³⁰⁴⁾

장소성의 개념은 설화를 공유하는 한 집단의 세계관과도 연결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승과 죽어서 가는 저승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도 있고, 고대에서부터 전해지는 다양한 설화의 세계관은 크게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로도 구분된다. 천상계는 신들의 공간이고 지상계는 인간들의 공간이며 지하계는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공간이다.

장소성은 역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장소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만나며 현재를 살피게 되고 미래의 희망도 볼 수 있다. 모든 시간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곳이 곧 ‘장소’이다. 장소는 곧, 해당지역 사람들의 삶을 정서적으로 연결해주고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성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장소가 문화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함과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낯설고 새로움까지 함께 주어야 한다. 곧, 공감적인 요소를 주는 동시에 환상적이고 신비한 요소가 함께여야 한다는 의미다.

2) 서천꽃밭의 장소성

서천꽃밭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주는 동시에 환상적인 장소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본풀이를 통해 전해지는 많은 화소들은 제주의 익숙한 역사이자 소중한 문화자원이면서 구전 자료이고, 상상의 공간이므로 우리에게 충분히 신비감을 주는

303) 김희재·길태숙, 「지역문화콘텐츠의 지역성을 바라보는 관점」,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7, 94쪽.

304) 김은지, 「테마파크 특성을 이용한 장소성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4권 1호 통권 27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2, 46쪽.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풀이, 혹은 무가의 공간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조망되어 온 주제이다. 이는 대부분 신화 속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모형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신화적 세계는 인간계와 그 밖의 세계로 구성되며, 인간계를 제외한 그 밖의 세계들이 일관성 있는 구조로 반복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르면 무가의 세계 모형은 일반적으로 층위를 가지는 세 공간으로 나뉜다. 삶의 공간으로 대표되는 지상의 공간, 옥황상제의 초월적 세계로 대표되는 천상의 공간, 그리고 일반적으로 죽음과 사후 세계로 대표되는 지하 공간을 잇는 수직적 공간의 체계가 그것이다. 혹은, 삶의 공간인 지상의 공간을 기준으로 ‘저기 저편’으로 표상되는 서역이나 바다로 연결되는 수평적 공간의 체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³⁰⁵⁾

서천꽃밭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장소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기승전결의 서사 진행방식을 이용하여 본풀이의 스토리가 연결된 장소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통일될 수 있도록 연출한다. 본풀이에 등장하는 사랑과 여정, 시련, 갈등과 화해를 주제로 하는 장소를 콘텐츠로 구성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서천꽃밭은 이승과 저승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공간이다.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삶이 시작과 끝에 관여하는 곳이다. 서천꽃밭은 사라도령처럼 등장인물이 꽃감관으로 불려가 갈등의 요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갈등이 해소되고 목적이 달성되는 장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강동균은 서천꽃밭의 공간적인 특성을 스토리텔링적인 관점으로 보아 물리적·개인적·사회적·정치적으로 구분하여 [표15]와 같이 정리하기도 하였다.

305) 황인순, 「제주 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 연구:<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32집, 한국기호학회, 2012, 88쪽.

스토리텔링에서 공간-서천꽃밭		
물리적	특정한 공간의 배경	서천꽃밭(저승세계)
개인적	개인의 특정한 공간	서천꽃밭 이공신과 저승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내력이 시작된 공간
사회적	특정한 공간이 내포하는 사회적 문제 및 의미	이승세계 인간의 생명과 악을 주관하고 징치하는 다양한 효능의 서천꽃이 피며 15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이 머물며 살아가는 공간
정치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 공간	이승세계의 질서에 관여라는 저승세계

[표15] 스토리텔링에서 공간-서천꽃밭³⁰⁶⁾

인물, 사건, 공간과 건물, 사물 들 다양한 형태를 지닌 문화적 소재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동시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동시대성이 약하다 해도,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다루어질 만한 흥미로운 인물과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면 그 평가는 재고될 수 있다.³⁰⁷⁾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를 자신과 연관 지으려고 한다. 그 장소가 물리적인 특성만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것이 장소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본풀이 자료들을 보면 어디에도 서천꽃밭으로 갈 때 죽어서 갔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이승과 저승을 구분할 때 서천꽃밭은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가 임신을 하여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사라도령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서천꽃밭은 이승과는 다른 또 다른 공간일 수도 있다. 원강아미가 자현장자 집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꽃감관이 되면 사라도령은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강아미가 사라도령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가는 여정은 이승의 끝나는 어느 지점이다. 그 지점을 지나면 서천꽃밭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 끝이 저승의 공간은 아니다.

이에 대해 고은영³⁰⁸⁾은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에 대한 상

306) 강동균, 앞의 논문, 25쪽.

307) 유제상, 『문화콘텐츠학 강의』, 컨텐츠하우스, 2017, 102-103쪽.

308) 고은영, 「모순된 서사의 제의적 반영-<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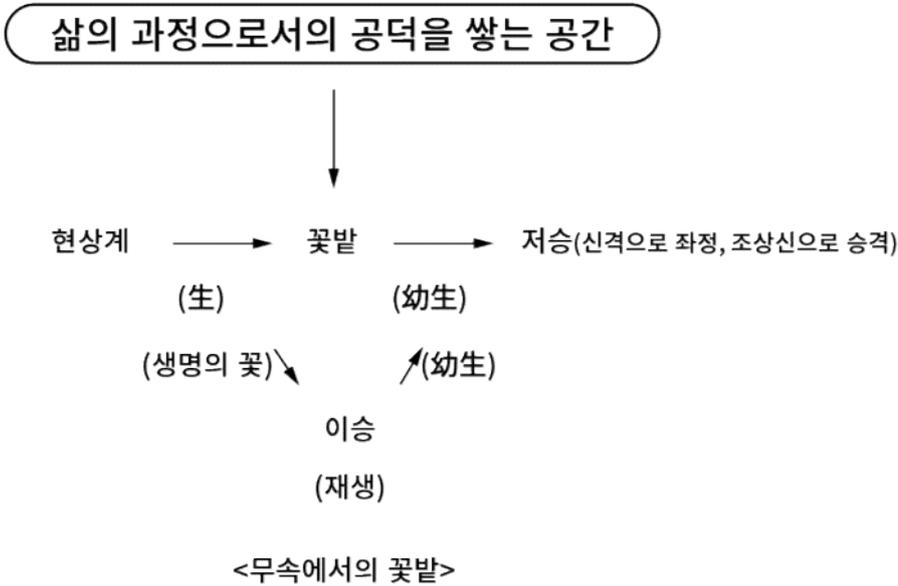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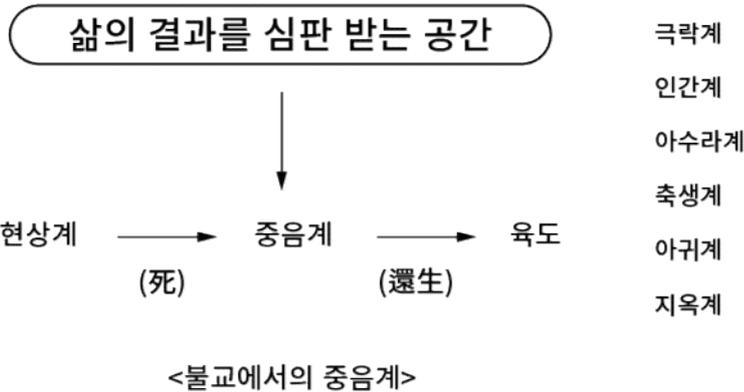
이성을 언급하였는데,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천꽃밭은 저승이라는 공간과 구별되는 극락의 세계인 반면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은 살아있는 한락궁이가 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죽은 아이들이 꽃밭에 물을 주는 이승도 저승도 아닌 모호한 성격을 지닌 신이한 공간이라며 두 본풀이 속 서천꽃밭이 모순된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사라도령의 경우 꽃밭에서 공덕을 쌓아 바로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고, 월강아미나 바리공주의 아버지는 재생을 거친 후 신격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세경본풀이>의 문도령이나 정수남과 <문전본풀이>의 일곱 형제의 어머니 역시 재생과 환생(幻生)의 과정을 거쳐 신격으로 좌정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천꽃밭에 물을 퍼 날라 생명의 꽃을 가꾼 꽃감관의 공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꽃밭은 공덕을 쌓는 공간으로서 중음계³⁰⁹⁾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에서 장자집으로 갔다가 죽을 위기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는 한락궁이가 생사를 초월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리공주나 자청비 역시 서천꽃밭을 다녀왔으나 생사를 초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꽃밭은 인간의 경험으로 미칠 수 없는 초월적 세계로 보기 힘들다. 꽃밭이 저승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생불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이다. 이 무속신화에서 생불할망은 천상의 옥황으로부터 꽃씨와 참실 등을 받고 구덕삼승, 걸레삼승, 업계삼승을 거느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꽃씨를 심어 서천꽃밭을 만든다. 생불할망은 자신이 직접 씨를 뿌려 만든 서천꽃밭에서 생불꽃을 따 가지고 아이의 잉태를 점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곳은 금세상 생불땅 석해산이라는 곳으로 인간 세상과도 구별되는 또 다른 신성공간인 것이다.³¹⁰⁾

속학』 41집, 한국무속학회, 2020

309) 사람이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아 태어날 때까지의 49일 동안 머무는 세계를 말한다. 중음계(中有界)라고도 한다. 극히 선안 업이나 극히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은 중음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 중음계에 있는 동안에 다음 생의 과보가 결정된다. - 원불교100주년기념 성업회, 『원불교대사전』 참조.

310) 김창일, 앞의 논문, 189-190쪽.



[그림28] 무속에서의 꽃밭과 불교에서의 중음계³¹¹⁾

인간의 삶은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서사무가는 문제 해결을 염원하며 구연되는 갈래로, 이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무가는 다시 인간의 삶과 동일하게 삼중구조와 할 수 있으며, 이때 이계의 역할을 하는 공간은 서천꽃밭이 되는 것이다. 즉 서천꽃밭은 개인의 삶에서 서사무가가 차지하는 역할을 서사무가 작품 내에서 차지하며 작품의 갈래를 구현해내는

311) 김창일, 앞의 논문, 189쪽.

장소라고 할 수 있다.³¹²⁾

서천꽃밭은 하늘도 땅도 아니며 신성성을 지닌 장소이지만 모순과 유한성을 넘어선 질서와 생명이 있는 장소이다. 본풀이에서 신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소이며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신이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은 한 락궁이가 물을 건너 도달하는 수평적 확장 속에 있으며,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 현상계와 융합되어 비일상적인 세계를 인간적 차원으로 아우른다. 죽음의 세계와는 또 다른 삶과 질서가 존재하고, 죽음에 대해 초연하고 위로 받으려는 고대 신앙민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는 15세 이전에 죽은 어린 아이들은 서천꽃밭으로 보내 살게 하여 자식의 죽은 넋을 달래고 부모들 역시 자신들을 위로했던 것이다. 이런 공간을 서쪽으로 설정한 것도 서방정토사상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서쪽은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에서 생명의 원천, 또 다른 삶과 질서가 존재하는 비일상적인 세계로 인식된 것으로 전환하는데 이 전환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융합된 것으로 추측된다.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인물들이 그동안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곳으로 등장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꽃을 꺾으러 서천꽃밭으로 간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천상과 인간 세상이 등장하는데 자청비의 행위로 보면 서천꽃밭은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은 녹디생이가 어머니인 여산부인을 살리기 위한 장소로 등장하는 데 이 역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장소로 그려진다.

<문전본풀이>는 문전신, 조왕신, 측간신 등 집을 구성하는 공간의 신들에 대한 본풀이이다. 서천꽃밭의 주화를 활용하여 일곱 형제 중 막내인 녹디생이로 인해 어머니를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 서천꽃밭은 이처럼 인물의 겪는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3. 서천꽃밭의 장소콘텐츠 전환 방법

오늘날 지역의 문화 공간들은 창작과 전시, 체험 시설을 넘어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

312) 조리라, 앞의 논문, 42-43쪽.

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화 공간은 다양한데 공통적인 요소는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요 핵심 공간으로 작용하며, 문화공동체의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문화 공간에서는 예술, 역사, 문화, 교육, 소통, 체험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얻는다. 장소 문화콘텐츠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적인 소통 장소로서 다기능적 역할을 주목한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를 콘텐츠화 한다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재생산하여야 한다.

장소콘텐츠의 특성은 먼저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직접적으로 교감을 형성하고 감성적인 체험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발굴할 수 있다. 테마공원의 특성이 일상에서 벗어나 비일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경험을 마치면 다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비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일상적과 비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예술적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치는 사람마다 재해석이 될 수도 있고 공감과 소통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장소 콘텐츠에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장소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시각적·청각적인 전시 차원을 구축하고 그 지역의 물리적인 이미지도 형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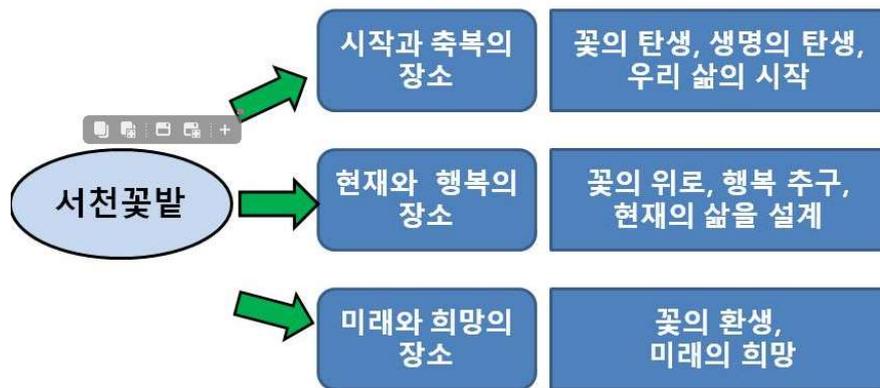
본풀이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활용하고자 할 때 본풀이 서사 속의 주요 공간 중에서 중첩되는 공간을 뽑아내어 정리한다. 이후 왜 중첩되는 공간이 나타나는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한다. 본풀이의 서사 속에 등장하는 특정 공간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구전되고 있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옛것에서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현재화하였을 때 문화콘텐츠로서 가치는 발현된다.

서천꽃밭은 본풀이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 중에서 신성성이 부여된 곳으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장소이다. 서천꽃밭에 그러한 의미에서 신성성이 있는 장소이다.

한진오는 신성성에 대해 “세상 어디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신이 존재한다. 누구나 삶의 문제와 실존적 번뇌를 풀어낼 의지처로 신의 품을 갈망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신을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존

재하지만 부재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신성을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원시의 조상들로부터 오늘날의 현대인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신의 형상을 그리고, 새기고 빚으며 거룩한 신성의 이미지를 상상해왔다.³¹³⁾”고 했다.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이 왜 장소 콘텐츠 소재로 적합한지 이미 앞 장에서 언급하였다.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본풀이의 서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반영된 장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테마를 정할 수 있고 테마를 중심으로 장소가 형성되면 다양한 콘텐츠를 그 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천꽃밭의 장소성을 시작과 축복의 장소, 현재와 행복의 장소, 미래와 희망의 장소로 정리하였다. 이 특성을 기반으로 장소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한다.



[그림29] 서천꽃밭의 장소성의 특징

서천꽃밭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양한 장르의 소재로 활용되었지만 장소성 부분에서는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테마 거리가 반영되어 있었지만 본풀이 전체 중 서천꽃밭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중심 테마는 아니었다.

또한 대부분 공연, 전시 등은 일회성에 그쳐 서천꽃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상시적으로 공간을 형성하여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 테마공원이다.

313) 한진오, 『모든 것의 처음, 신화』, 한그루, 2021, 38쪽.

테마공원의 주제는 역사, 모험, 자연 등 다양하고 비일상적으로 환상적이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의 세계의 세계를 마음껏 오갈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으로도 자유로워야 한다. 때로는 여러 개의 주제를 하나의 공원에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테마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결국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명인 셈이다. 아이디어는 기획 과정에 반영된다. 다른 테마공원과의 차별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마공원은 테마가 곧 기획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어떤 테마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설공간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며 테마공원 외부와 내부에 구성되는 모든 공간적 요소에 반영된다. 결국 테마는 관람객의 방문 여부와 빈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테마공원의 테마를 선정하는 대상 중에 가장 많이 택하는 것이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자원이다. 세계 어느 장소를 가도 오직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테마공원의 테마가 가장 적절한 대상인 것이다. 이는 지역정체성과도 연결된다.

테마공원은 더 이상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다양한 주제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통일성을 유지하며 놀이, 휴양, 교육, 체험 등을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천꽃밭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해 공간과 장소의 개념, 이상향으로서의 서천꽃밭, 서천꽃밭의 현재성과 장소성에 대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실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6장 테마공원 조성 방안

이 장에서는 서천꽃밭 테마공원을 기획하기 위해 테마공원의 개념과 유형, 기존 테마공원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테마공원의 기획 전략과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획 방향과 테마, 계절과 색의 상징성, 세부 주제 구성 내용, 공간 구성 배치 및 이동 경로, 프로그램의 구성 양식 순으로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테마공원 개념과 유형

테마공원은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가 있고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며 전시, 공연, 체험, 이벤트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오늘날 많은 지역들이 교통이 편리해져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자 각종 테마를 이용한 테마공원³¹⁴⁾을 형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테마공원 산업은 비일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형 시설물 설치 위주의 아이템 제공을 통해 관람객 유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새로운 시설 도입은 기존 콘텐츠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통일감이 결여된 단순 기능 제공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테마공원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새로운 축제 콘텐츠 부재 및 공급자 중심의 무분별한 상업화 추세는 이용자들의 재방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 결국 특정한 주제와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짜임새를 구축하지 못한 테마파크는 방문객들의 목적성을 상실케 하여 고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³¹⁵⁾

인간은 유희적인 존재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체 등을 통해 우리는 놀이를 추구한다. 놀이를 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것을 찾는다. 그것은 대상일 수도 있고

314) 테마공원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교역박람회나 여러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마련된 일정한 장소들이 원시적 형태의 테마공원으로 파악된다. 근대적 의미의 테마공원은 17세기 르네상스 시대 말기에 형성된 영국의 플레저 가든(Pleasure Garden)을 들 수 있다. 플레저 가든은 도시의 주변 지역에 위치하여 녹지의 넓은 공간, 인공 호수나 화훼 등으로 이루어진 공원시설로 초기에는 음악회 등의 이벤트를 제공하였고, 여기에 기구 탑승형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유원지 형태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테마공원의 내용과 형식은 초기의 플레저 가든과 유사한 형태로 출발한 것으로 설명된다. - 이기호, 김형수, 「한국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성공 요인 분석-문화콘텐츠 기반형 테마파크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애니메이션연구』 51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8, 325쪽.

315) 이기호·김형수, 위의 논문, 322쪽.

공간일 수도 있고 놀이 방법일 수도 있다.

테마공원은 유희적 본성이 발현되기를 원하는 곳이다. 인간의 유희적인 본능은 단순한 생각이나 사교의 집합체가 아니라 섬세한 기술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원인이 된다.

테마공원의 핵심은 '테마³¹⁶⁾'이다. 테마는 공원을 구성하는 가장 큰 개념의 기획 의도이며 관람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테마는 테마공원을 구성하는 정체성이며 다른 시설과 구분할 수 있는 변별적인 특성이다. 테마가 정해지면 이와 관련하여 테마공원의 구성과 표현 방식, 표현 매체 등이 결정된다.

테마공원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주제라는 관념적 울타리를 갖는 공원'³¹⁷⁾으로 정리되어 있고, 방문객들에게 일상을 탈피한 경험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장소를 말하며 테마공원의 기본 원리는 방문객의 기억과 공간 체험의 상호작용에 있다.³¹⁸⁾ 허태학³¹⁹⁾은 테마공원이란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 환경과 오락 시설 및 엔터테인먼트를 설정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레저를 위한 시설의 한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테마공원은 기존의 단순 놀거리를 제공하는 놀이공원과는 다른 형태의 기획과 공간 구축을 통해 테마와 정감 있는 연출을 부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테마공원은 각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된 지형이나 역사 등이 테마의 모티브로 조성되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³²⁰⁾

무형의 테마를 유형의 소재로 변환하여 이를 구현하고 테마공원의 독특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방문객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테마공원의 역할이다. 테마공원에 대한 개념이 제시한 주요 요소는 첫째, 특정한 주제를 가질 것, 둘째, 비일상적일 것, 셋째, 일정한 공간을 가질 것, 넷째, 시설 및 운영방식은 해당 주제와 연속성을 가질 것, 마지막으로 기본체계가 통일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다 등이다.

즉 테마(Theme)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있는 서사적인 부분이고, 공원

316) 독일어로 Thema, 주제, 화제, 제목, 창작이나 논의의 중심 과제나 주된 내용 등을 의미한다. 테마공원의 테마는 그 공원의 성격의 전체를 나타내는 특성이며 다른 공원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17) 최혜실,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 글누림, 2008, 78쪽.

318) 정명철·김미희·이은미, 「지역 설화를 활용한 공간스토리텔링 연구-영광 불갑산 상사화테마파크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25집, 남도민속학회, 2012, 240쪽.

319) 허태학, 「테마파크의 시나리오 구상」, 『산경논집』 제11호,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연구소, 1997, 444쪽.

320) 이기호·김형수의 앞의 논문, 325쪽.

(Park)은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이다.³²¹⁾

테마공원은 방문객들에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는 카타르시스와 색다른 대상에 몰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테마공원에서 방문객들은 특정한 메시지를 얻고 그것을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테마공원 여러 구획 중에서도 첫째는 입구와 출구가 중요하다. 입구는 방문객들을 일상에서 분리시켜 테마파크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출구는 여운을 유지시켜 재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긴장과 이완의 반복의 테마공원의 운영자는 의도적으로 진행 속도를 조절한다. 긴장은 주로 각 구획에 마련된 어트랙션·라이드·전시·체험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완은 구획과 구획 사이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제공된다. 셋째, 동선과 방문객 유도, 테마파크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의 활동에 의해 진행된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서는 동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제가 두드러지면 방문객들이 반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미지·상징·복선 등을 활용한다.³²²⁾

현대사회는 디지털의 발달로 더욱더 익명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기 쉬울 수 있다. 대면의 방식보다 비대면의 방식이 더 쉽고 편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테마공원은 이러한 본능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접촉할 계기를 마련해주고 공감과 공존을 인식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것들은 테마공원에서 제공받음으로써 방문객들은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이나 장소를 설정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테마공원이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에 적합한 시설, 이미지와 상징, 운영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비일상적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적 문화예술 관광시설’³²³⁾로 정의하는 것이 서천꽃밭 테마공원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테마공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자. 유형은 테마공원을 기획하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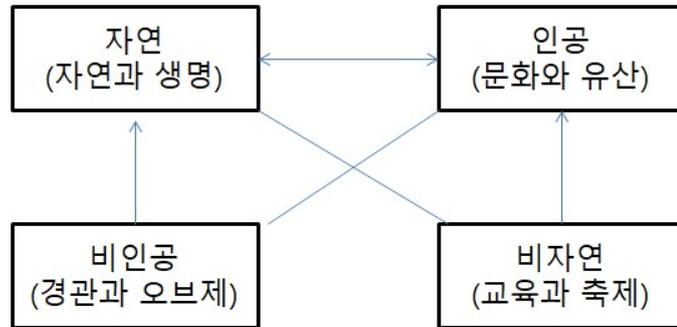
321) 김희경, 『어린이과학관의 테마파크적 기획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90쪽.

322) 최수용, 「테마파크 스토리텔링의 창작방법론 연구- 제주도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8권 제1호, 2019, 102쪽.

323) 최수용, 앞의 논문, 107쪽.

테마공원의 성격과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박여성³²⁴⁾은 테마공원을 [그림30]와 같이 기호학적 시각에서 다음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림30] 테마공원의 기호사각도

그는 이 기호사각도를 기반으로 건축 형태, 설계와 내용, 기능의 기준으로 테마공원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서천꽃밭 테마공원 유형을 정하기 위해서 그 분류 내용을 건축형태, 설계와 내용, 기능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 건축형태

- ① 실외형: 놀이공원에 혼한 형식으로, 야외에 다수의 테마 공간을 배치해 조합한 형태
- ② 실외와 실내 조합형: 실내외에 다양한 체험공간과 놀이기구 및 공원을 테마별로 배치하여 군집을 이룬 형식
- ③ 실내와 실내 조합형: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큰 실내공간에 다수의 소형 실내 테마 공간을 조성한 경우
- ④ 실내와 실외 조합형: 실내를 중심으로 잡고, 부수적인 편의 및 위락시설을 실외에 배치한 형태
- ⑤ 실내 단독형: 공간이 협소한 경우 박물관이나 체험관 등을 단독 또는 소규모로 설계한 형태

324) 박여성, 「텍스트기호학의 입장에서 본 박물관/테마파크 문제-테마파크 평가지수(TPAI)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구상」,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4권,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2009, 69-71쪽.

B. 설계와 내용

- ① 라이드 파크(Ride park): 놀이기구(어트랙션)를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
- ② 캐릭터 파크(Character park): 영화나 만화 및 온라인에서 성공한 콘텐츠를 오프라인에 접목하고 등장인물의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한 경우
- ③ 오브제 파크(Object park): 후쿠오카 <하우스 텐 보스³²⁵⁾> 같은 미니공원, 독일 뮌헨 독일박물관(Deutschers Museum)³²⁶⁾, 제주도 조천읍 선흘리의 <선녀와 나뭇꾼³²⁷⁾>처럼 실재하는 사물을 테마로 구성한 경우
- ④ 이미지 파크(Image park): 역사 및 과학 분야에서 창출된 이미지를 활용한 과학박물관, 프랑스 리옹 뤼미에르 박물관³²⁸⁾, 제주도 <유리의 성³²⁹⁾>처럼 연상작용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현한 경우

C. 기능

- ① 오락 테마파크(Amusement theme park):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놀이동산형 테마파크(디즈니랜드³³⁰⁾나 에버랜드³³¹⁾). 시설물을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메인 스토리와 하부스토리를 구현한 놀이기구로 구성된다.
- ② 환경 테마파크(Enviroment theme park): 자연친화적인 주제를 구현하는 환

325)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인근에 위치한 테마공원이다. 1992년에 개장하였으며, 네델란드 왕궁 중 하나인 하우스텐보스 궁전에서 유래하여 명칭을 지었다.

326) 국립독일박물관. 1925년에 개장하였으며 독일 뮌헨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기술 박물관 중 하나이다.

327) 현재 정식 명칭은 <선녀와나무꾼테마공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97에 위치하였으며 어릴 적 추억을 주제로 한 실내 테마공원이다. 테마 전시로 추억의 영화마을, 달동네, 인쇄소, 학교, 추억의 거리 등 과거의 장소와 거리를 재현해 놓았다. 옛날 교복체험, 민속놀이, 공포의 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328) 세계 최초 상업 영화를 만들어 상영한 리옹 출신의 뤼미에르 형제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박물관이다. 그들이 실제 거주했던 집을 개조하여 박물관 내에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 제작과정과 실제 사용했던 장비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직접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는 곳이다.

3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에 위치한 2008년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유리 전문 등록박물관(제1종 미술관)이자 유리전문 테마공원이다. 정식 명칭은 <유리조형 체험 테마파크 제주 유리의 성&마법의 숲>이다. 현재 잠시 휴장중이며, 2023년 9월 1일 재개장 예정이다. . 실내외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3D크리스탈존이 유명한 테마공원이다.

330) 1955년 7월 17일에 개장한 세계 최초의 테마공원이다. 월트 디즈니가 고안해냈으며 디즈니랜드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위치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와 미키 마우스가 서로 손을 잡을 동상은 디즈니랜드의 상징이며 어린이가 주된 고객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쿄, 파리, 홍콩, 상하이 등에도 건설되어 있다.

33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이다. 1976년 <용인자연농원>으로 개장하여 1996년 에버랜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계절을 테마로 하였으며 유럽을 테마로 한 유러피안 어드벤처, 동물들의 지상낙원인 주토피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테마파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목 받는 곳으로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³³²⁾, 독일 함(Hamm)의 막시밀리안 파크³³³⁾가 있다.

③ 교육테마 박물관(Education theme park): 박물관의 고답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전시를 위해 테마파크의 공간구조에 혁신을 꾀한 박물관형 테마파크이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일본의 오사카 역사박물관³³⁴⁾, 동경 미래과학관³³⁵⁾,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³³⁶⁾, 독일 뮌헨 Deutsches Museum³³⁷⁾을 들 수 있다.

④ 도시형 경제테마파크(Economy theme park): 건축과 쇼핑, 현대 생활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21세기형 테마파크 및 기업전시관.

이 분류방법을 기반으로 서천꽃밭 테마공원의 특성을 기획하고자 한다. 건축 형태는 실내와 실외 조합형으로 정하고자 한다. 테마공원의 실내에는 서천꽃밭의 원리와 특색이 반영된 4개의 장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실내를 중심으로 하지만 부수적인 편의 시설과 전시물 등은 실외에 배치하고자 한다. 설계와 내용 분야에서는 이미지 파크와 캐릭터 파크를 접목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서천꽃밭의 이미지는 계절과, 색 등을 반영하여 표현하고,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본풀이 속 인물들을 캐릭터화하여 관람객들에게 서천꽃밭을 더욱 친숙하게 구성하여 다가가고자 한다. 기능 분야는 교육과 오락의 기능을 접목하여 구성하고 메인스토리를 넣어 스토리텔링 테마공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을 박여성이 처음 제시한 기호사각도의 유형으로 정리하면 자연(자연과 생명), 인공(문화와 유산), 비자연(교육

332) 영국 잉글랜드 콘월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 온실이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돔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식물 약 5,000여 종이 서식한다.

333) 루르 공업시대의 산업유산을 재활용한 공원이다. 현지인들은 막시파크라고 부른다. 넓은 정원에 놀이시설이 많고 탄광 건물에 장식과 조명을 덧대어 코끼리를 형상화한 건물 등이 볼거리이다.

334) 오사카 서쪽에 위치하여 나니와 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오사카 지역의 문화, 유물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시물이 소장되어 있다. 총마다 오사카를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와 기모노 체험, 메이지 시대의 전통 게임 체험관, 유적 발굴 체험 등의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다.

335) 일본과학미래관, 오다이바에 위치하였고 2001년도에 개장하여 '미라이칸'으로 불린다. '세계를 탐색하다', '미래를 만들다', '지구와 연결되다'의 세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로봇 시연부터 태양계 탐험까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336)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항공, 우주, 물리, 생물 등 여러 과학 분야를 전시하고 있는 과학 박물관이다. 우주 왕복선 엔데버가 상설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으며 과학체험 캠프, IMAX관람 등 각종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337) 독일 뮌헨에 있는 세계 최대의 과학과 기술 분야의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1903년 6월 독일 공학자 협회에서 오스카 폰 밀러의 계획에 의해 설립되었다.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50개 전시실에서 28,000개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과 축제)의 의미의 테마공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16] 과 같다.

구분	서천꽃밭 테마공원 유형	기호사각도 유형
건축형태	실내와 실외조합형	자연(자연과 생명) 인공(문화와 유산) 비자연(교육과 축제)
설계와 내용	이미지 공원	
기능	교육테마+오락+스토리텔링	

[표16] 서천꽃밭 테마공원의 유형

2.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과 전략

1) 기존 테마공원 사례 분석

앞에서 테마공원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였다. 이 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꽃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과 정원이 있는 테마공원, 최근 여러 지역에 새롭게 등장하여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테마공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에는 꽃밭이나 꽃축제들이 이루어지는 테마공원이 있다. <제주한림공원>³³⁸⁾, <상효원수목원>³³⁹⁾, <카멜리아힐>³⁴⁰⁾ 등이 대표적인데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하고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한다. 국내 사례는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꽃밭, 국외 사례는 일본의 큐주 꽃공원 <하나코엔>³⁴¹⁾, 후쿠치산로쿠 <하나코

338) <제주한림공원>은 1971년 창업인 송봉규 선생이 10만 여 평의 황무지 모래밭에 야자수 씨앗을 파종하여 녹색의 낙원으로 만든 개척정신이 살아있는 현장이다. 환상적인 9가지 다양한 테마가 펼쳐지는 한림공원은 장쩌민 중국 전 국가주석과 나가소네 전 일본수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이 방문한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다. - <제주한림공원> 홈페이지 참조

339) 2014년 4월 25일 개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2847-37에 위치. 튜립축제가 유명하고, 야외수목원에 다양한 식물과 꽃을 전시한다. - <상효원수목원> 홈페이지 참조

3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에 위치. <카멜리아힐>은 30년 열정과 사랑을 제주의 자연에 담은,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 수목원이다. 6만여 평의 부지에는 가을부터 봄까지 시기를 달리해서 피는 80개국의 동백나무 500여 품종 60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또 향기가 나는 동백8종 중 6종을 보유하고 있어서 달콤하고 매혹적인 동백을 보유하고, 제주자생식물 250여종을 비롯해 모양과 색깔, 향기가 각기 다른 다양한 꽃이 동백과 어우러져 계절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 <카멜리아힐> 홈페이지 참조

341) 큐슈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웅대한 일본 큐슈의 꽃 정원이 있는 대형공원이다. 22만㎡의 부지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약 500종, 500만 송이의 꽃이 핀다. 공원 내에는 숲 구역과 꽃밭 구역, 들꽃 구역 등 다채로운 경치를 즐기면서 정취를 체험할 수 있다.

엔>342), <인도네시아 꽃공원>343)이 세계적으로 꽃이 전시되어 있는 대형 정원으로 유명하다.

테마공원도 이들 정원들의 야외 공간을 참고하여 다양한 꽃이 화려하게 전시되고 서천꽃밭의 꽃들을 스토리텔링하여 전시한다면 꽃밭이 갖는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1] 꽃을 테마로 하는 공원

꽃을 테마로 하는 공원 중에 순천만 일대에 조성된 대형 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국가정원으로 조성된 테마공원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콘텐츠 구성이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조성된 <순천만국가정원>은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면서 국제 공인 정원박람회이기도 하다. 박람회 기간 이후 2014년 4월

342) 후쿠오카현 노가타시 에이만지 유리하라 1498에 위치하였다. 후쿠치산의 기슭에 있는, 녹음에 둘러싸여진 꽃공원이다. 봄은 벚나무, 피피, 여름은 수국, 수련, 가을은 코스모스, 단풍과 사계절 꽃들을 즐길 수 있다. 또, 백합원이라고 하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명으로 인해 백합도 종류가 풍부하다. 멸종 침입위구종으로 지정되고 있는 조릿대 백합(5월 하순~6월 상순 개화)등, 각각 색인 진귀한 백합을 볼 수 있다.

343)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위치한 전 세계 모든 종류의 꽃들과 인도네시아에만 서식하는 꽃을 모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꽃공원이다.

344) <http://www.hallimpark.com/> 발췌.

345) <https://scpark1214.tistory.com/933> 발췌.

346) <https://camelliahill4.wixsite.com/camelliahill01> 발췌.

347) <https://blog.naver.com/barotool/222871828146> 발췌.

348) <https://www.welcomekyushu.or.kr/event/?mode=detail&id=9999901003724&isSpot=&isEvent=1> 발췌.

349) <https://koyuri37.tistory.com/31> 발췌.

20일부터 <순천만정원>으로 개장되어 운영되다가 개장 10년만인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는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순천 시내 전체 부지를 활용하였다. ‘함께하는 정원, 회복하는 자연, 순환하는 경제’를 추진 방향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 속 정원, 생활 속 전원으로 추구하여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될 수 있다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람회는 노을정원, 키즈가든, 개울길 광장이 있는 테마공원과 미국정원, 스페인정원, 프랑스정원이 있는 세계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정원식물원’, ‘시크릿가든’, ‘가든스테이’ 등이 추가로 정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일상 속에 침투하여 삶의 질을 증대할 수 있는 체감형 정원박람회로 기획하여 일상의 정원을 가꾸며 정원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교류하며 지역 가치를 창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천꽃밭 테마공원을 구성할 때 자연과 함께하는 체감형 공원 조성 시 참고한다면 꽃이 모여 있는 꽃의 정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간 구조³⁵⁰⁾

12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의 나이트 디지털 테마파크인 <루나폴>³⁵¹⁾([그림33])은

350)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https://scbay.suncheon.go.kr/expo/0002/0002/0001/>)

3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에 위치하였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달에 소원을 빌었고, 소원이 가득 찬 달이 제주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밤길을 걸으며 즐기는 곳이다. 영상을 관람하고 안개 터널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첫 번째 테마로 나를 위해 소원을 빌고 입장 시 구입했던 워싱볼을 구멍 안에 넣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두 번째 테마는 너와 함께 소원 빌기, 세 번째 테마는 누군가를 위해 빌어준 소원, 네 번째 테마는 이루어진 소원들이다. 디지털 체험방식으로 새롭게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루나폴> 테마공원은 기존 테마공원과 다른 차별적인 요소로 달과 소원을 주제로 스토리가 연결된 체험 공간을 조성하였다.



[그림33] <루나폴> 352)

365일 펼쳐지는 감성 테마파크 <별빛정원 우주>³⁵³⁾([그림34]) 미디어아트로 살아 숨쉬는 듯한 환상적인 빛으로 가득한 공원이다. ‘우주를 만나다’, ‘우주를 즐기다’, ‘우주에 반하다’라는 세 가지 대주제로 ‘스페이스 가든’, ‘달빛산책로’, ‘우주놀이 터’, ‘블루 애비뉴’ 등을 통해 마치 우주에서 걷고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공원이다.

352) https://www.instagram.com/lunafall_jeju/ 발취

353)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54번길 287-76 /덕평자연휴게소 내 위치하였다.



[그림34] <별빛정원 우주> 354)

통영시에서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테마파크 <디피랑>³⁵⁵⁾([그림35])을 지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통영시는 도심 속 야간 관광 특화 콘텐츠인 ‘투나잇 통영’을 통해 디지털 관광을 특화하였다.



[그림35] <디피랑> 356)

2) 기획 방향과 테마 구성 방법

테마파크의 ‘테마’는 이미 서사(narrative)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의 공간스토리텔링의 원칙은 OSMU에 입각한 각색의 원칙의 적용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1인칭 시점의 직접 체험의 관점에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내러티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관람객의 ‘일탈’과 ‘향수’를 자극하는 연출적 고려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사성을 결합하여 놀이성을 극대화하며 관람객에게 현장성, 현재성, 체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354) <http://www.ooozoo.co.kr/> 발췌.

355) 2021년 대한민국 상품대상 수상 관광부문 대상 수상하였다.

356) <http://dpiarang.com/> 발췌.

것이 테마파크 콘텐츠 스토리텔링의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연출적인 고려와 분석, 그리고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³⁵⁷⁾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하는 단계에서 모색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천꽃밭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 지역 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본풀이의 서사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천꽃밭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역 기반의 테마공원은 정부와 지역, 기업의 협력 구조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확한 행정 능력과 지역주민 등의 본풀이를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 기업의 경영 효율성 등의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과 본풀이와 서천꽃밭은 물론 인문학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테마공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테마공원은 물론 공간 콘텐츠와의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차별성과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테마공원은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방문객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공간이다. 인간의 상상력과 각종 기술적 측면이 융합한다면 상상력은 방문객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다. 백승국·유동환³⁵⁸⁾은 이를 이미지니어링(imagineering)라고 일컬었는데 이는 상상력(imagination)과 공학기술(engineering)을 조합하여 형성한 단어이다. 이미지니어링의 핵심 키워드는 총 4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이다. 테마공원을 구성하는 공간구조의 핵심 스토리는 무엇이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하는 매개 스토리가 무엇인지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미학의 개념이다 공간 주체의 미학적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각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가치론적 개념이다. 테마공원은 각종 놀이시설, 영상, 게임, 식음료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유희적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재미를 체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트랙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들이 생성되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넷째, 환상적인 문화기술의 개념이다. 테마공원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공간 주체의 무한한 감각을 확장시키는 역할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와 영상기술이다.

357) 조준희, 「국내 테마파크 콘텐츠 연출방법 연구- 해외 테마파크 최신 콘텐츠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1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267쪽.

358) 백승국·유동환, 「테마파크 기획을 위한 공간기호학적 방법론 연구」, 『기호학연구』 23권, 한국기호학회, 2008, 387-3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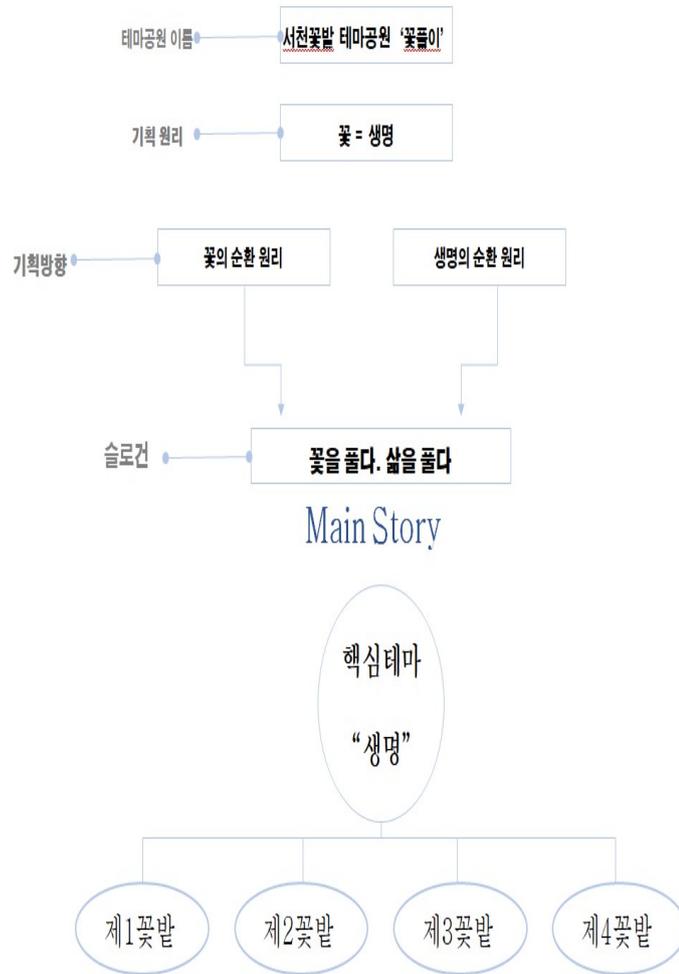
결국, 테마공원의 이미지니어링 전략은 공간 주체의 감각을 매개로 미학적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 핵심개념이다. 스토리를 기반으로 건축물과 영상이미지의 융합기술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공간 주체인 대중들이 유희적 가치와 유토피아적 가치를 획득하게 하는 장치이다.

서천꽃밭이 장소에 순환 원리의 구조를 부여하여 콘텐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천꽃밭에 신성한 장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장소의 가치를 재창조하여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적 의미에서 과거의 것을 다시 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은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하고 공감하고 즐기는 것이다. 옛 것을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생성하는 과정은 ‘가치’있는 이야기를 ‘체험’을 통해 어떻게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흥미롭고 의미 있게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장소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기승전결의 서사 진행방식을 이용하여 본풀이의 스토리가 연결된 장소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통일될 수 있도록 연출하고 본풀이에 등장하는 사랑과 여정, 시련, 갈등과 화해를 주제로 하는 장소를 구성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테마공원의 전체 테마를 결정하고 기획 방향과 이를 근거로 하는 슬로건, 메인 스토리, 내부 공간의 구체적인 장소 명칭, 외부 공간, 공간 이동 경로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테마공원의 성격은 전시·체험형이고 디지털 방식을 반영하여 기획하고자 한다.



[그림36] 서천꽃밭 테마공원 기획 방향

[그림36]을 보면, 테마공원의 이름은 ‘꽃풀이’로 하였다. 서천꽃밭의 꽃과 본풀이에 풀이의 의미를 조합하였다. ‘꽃풀이’는 풀이는 본풀이의 ‘풀다’와 같은 맥락이다. 꽃풀이는 원래 아들을 낳거나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고 비는 곳에서 자식을 점지해주는가를 점을 치는 부분을 말한다. 꽃풀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강렬한 기원(祈願)일 것이다.

서천꽃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계절과 연결한 각각의 테마를 관람하고 체험하면서 현재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게 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기획 원리는 ‘꽃=생명’이고 이를 기반으로 기획 방향은 꽃의 순환 원리와 생명의 순환 원리다. 슬로건은 ‘꽃을 풀다. 삶을 풀다’로 정하여 Main Story를 정할 것이다. 핵심테마는 ‘생명’으로 앞 장에서 서천꽃밭의 원리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4개의 꽃밭으로 구성하였다.

서천꽃밭 테마공원의 세부 주제는 ‘생명’을 테마로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조성 방향은 서천꽃밭의 원리를 반영하고 계절과 색을 연관 지어 현대적 해석을 통한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꽃을 풀다. 삶을 풀다’라는 슬로건 아래 Main Story는 다음과 같다.

“옛날 옛날에 서천꽃밭에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둘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천꽃밭의 꽃의 힘이 부족해서 둘은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서천꽃밭의 꽃을 관리하는 꽃감관인 사라도령은 꽃의 힘을 가득 얻어야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서천꽃밭 테마공원 ‘꽃풀이’ 안에 있는 꽃밭들을 방문하여 특별한 꽃들을 모아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수록 응원해보아요. 출발!”

메인 스토리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화면에 뜬다. 방문객들은 내용을 확인한 후 서천꽃밭 테마공원 내부로 들어간다. 공간 이동 경로는 후에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 계절과 색의 상징성

본풀이에는 옛사람들의 시간을 사유하고 그 개념을 인식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시간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 자연의 변화를 보고 그것을 일으킨 원인을 사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한다. 시간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었으나 인간이 이것을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사계절의 변화를 근거로 깨달았다. 계절의 변화로 우리는 시간의 움직임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삶의 방식을 점차 갖추었다.

인간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으며 계절의 흐름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움 흐름이었다. 자연에 변화가 있음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인지하지 못한다.

신화에서 사계절은 단순한 자연계의 순환이 아니라 신의 주관 하에 봄이 시작되어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고 겨울은 죽음을 상징하며, 봄은 재생을 상징한다고 여겼다.

자연은 산과 들에 초록색 새싹을 보여줌으로 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녹색은 생명이 시작되는 색이다. 눈이 쌓인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은 봄의 푸른 새싹이기 때문이다. 봄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우리 조상들은 입춘에 받아둔 물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농사도 생명력을 지닌 봄에 시작한다.

새싹들의 성장은 여름이 되어야 한다. 봄이 '시작'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태양의 계절로 힘의 원천과 젊음을 상징한다. 젊음은 곧 열정과 정열로 연결된다. 적도에 가까운 나라인 라틴계 사람들이 날씨 탓으로 외향적이며 솔직하고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여름은 태양이며 이는 곧, 붉은 생명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을은 봄에 짓고 여름에 자란 농산물을 거두는 시기이다. 부여, 고구려, 마한 등 고대국가에서는 추수를 감사하기 위해 영고, 동맹, 무천과 같은 제천의식을 가을에 행하였다. 제천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단결시키는 구실을 했다. 가을은 인간계와 천상계가 감응하고 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하는 성스러운 계절이다. 가을의 의미인 'autumn'은 증가의 계절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유럽의 많은 문화권에서도 식량 생산하는 시기로 가을을 중요시 여겨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은 농경생활을 하는 민족에게는 폐쇄, 어둠, 죽음 등을 상징한다. 가을이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본다면 겨울을 죽음 그 자체인 것이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삶을 돌이켜 보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겨울은 냉혹하고 차가우며 세상만물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시기이다. 겨울은 자연스레 검은색과 연결되며 사람이 죽고 장례식을 치를 때 검은 상복을 입는다. 검은 옷을 입게 된 것은 사후세계의 상징과 연관되어 있으며 서양에서는 기원전 32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부터 검은색 옷을 입고 애도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절의 순환은 우리 삶과도 연결된다. 꽃의 피고 지는 과정은 결국 순환되며 그 과정은 계절과 맞물려 있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인

오듯이 겨울도 온다. 우리는 태어나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성장하다가 자립할 나이가 되면 성숙하여 절정의 시기를 누리고 쇠퇴할 시기에 죽음을 맞이한다.

본풀이에서 계절을 언급할 때 <원천강본풀이>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곳, 사계절이 모두 존재하는 곳, 원천강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감혜정은 다음과 같이 원천강의 의미를 밝혔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은 춘하추동이 모두 모여 있는 장소로 묘사된다. 즉 원천강이란 장소는 사계절이 모두 있는 장소이며, 이곳을 지키는 오늘이의 부모는 사계절을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원천강은 ‘일정한 주기가 반복됨으로써 재순환(recycle)하는 세계’를 말하며, 따라서 이 장소를 관리하거나 다녀온다는 것은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돕는 ‘四季’ 혹은 시간 그 자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³⁵⁹⁾

본풀이에서는 자연의 순환인 사계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신으로 좌정이 가능하다.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 부모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계절은 지구가 둥글고 자전축이 23.5도 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것은 아니다. 일 년 내내 춥기만 한 나라도 있고 반대로 일 년 내내 덥기만 한 나라도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뚜렷한 계절이 다양성과 강인함을 심어준다고도 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이 장점만은 아니다. 연교차가 심하고 홍수, 폭설, 태풍 등 모든 자연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계절의 의미는 색의 상징성과도 연결된다. 계절마다 떠오르는 색이 있으며 특정 색으로 우리는 계절을 떠올리기도 한다.

인간에게 色은 마음이나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을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의 설명하려는 역이론(易理論)인 음양오행사상은 상징적 색채와 계절을 연관 지어 많은 의미를 담아 우리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오행과 중국의 오행에서 색과 계절을 상징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데

359)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신명에 대한 재고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257쪽.

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오행(五行)	한국의五色	중국의五色	한국의季節	중국의五時
나무(木)	파랑	청(靑)	봄(春)	춘(春)
불(火)	빨강	홍(紅)	여름(夏)	하(夏)
흙(土)	노랑	황(黃)	토용(土用)	중하(中夏)
쇠(金)	하양	백(白)	가을(秋)	추(秋)
물(水)	검정	오(烏)	겨울(冬)	동(冬)

[표17] 한국과 중국의 오행 비교

동양이 음양오행사상이 있다면 서양 역학에서 4원소는 태초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Hot과 Cold가 있었고 이는 다시 Dry와 Moist로 분화되었다. 4원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자연물	역학	색	계절
Hot + Dry	뜨겁고 건조함	불	태양	붉은색	여름
Cold + Moist	차갑고 축축함	물	태음	청록색	겨울
Hot + Moist	뜨겁고 축축함	공기	소양	파란색	봄
Cold + Dry	차갑고 건조함	흙	소음	노란색	가을

[표18] 서양 역학의 4원소

4원소 체계는 4가지의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를 ‘불 → 공기 → 물 → 흙’ 순서라고 하였으나, 동양 역학에서는 ‘태양(여름) → 소음(가을) → 태음(겨울) → 소양(봄)’ 순서를 계절의 순환구조라고 보고 있다.

색은 각각의 색에 따른 보편적인 특성이 있어 상징성을 가진다. 색은 인류의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색으로 생각, 느낌, 감정 등을 인지하고 표현한다. 시각적으로 대상을 통해 다량의 정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 눈은 보이는 대상을 받아들이고 뇌에 신호를 보내 우리가 본 색과 관련된 의미를 해석하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색의 상징으로 각인된다. 한국과 중국의 오행, 서양의 4원소의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등 색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초록색은 상쾌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차분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감정을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긴장감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싱그러운 봄을 떠올리게 하여 시작, 성장, 희망 등 젊음을 의미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록색은 자연과 생명을 의미한다.

파란색은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과 연관시켜 이집트 왕국의 신들이 다스리는 존재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늘을 날기 위해 자신의 피부를 파랗게 바꿨다고 전해지며 신성성을 내포한다. 힌두교에서는 비슈누, 브라흐마, 시바³⁶⁰) 같은 신들의 피부가 모두 파란색으로 묘사된다. 12세기 로마 천주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 파란색을 사용하여 이후 파란색은 거룩함과 선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빨간색은 생명의 색이다. 빨강은 피를 나타낼 뿐 아니라 육체적 에너지와 인간의 존재 의지를 나타내는데,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인종이나 종교 또는 개인적인 신념과 관계없이 우리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 즉 생명력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은 열정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외국 팀과 경기를 할 때면 온 국민이 빨간 옷을 갖춰 입고 응원하는 ‘붉은 악마’의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로부터 빨간색은 귀신을 물리치는 색깔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동짓날에 붉은 팔죽을 끓여 먹은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란색은 기다림과 간절함을 의미한다. 캐나다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전장에 내보낸 가정에서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집 벽에 노란 리본을 걸곤 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³⁶¹)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이들이 진도의 팽목항에 노란 리본을 달기도 했다. 노란 리본은 어떤 이들의 무사귀원을 염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노란 리본의 기원을 살펴보면 19세기 미국 남북전쟁에서 시 전쟁을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들이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노란 리본은 슬프고 아픈

360) 비슈누(Vishnu, 유지의 신), 브라흐마(Brahma, 창조주 신), 시바(Shiva, 파괴의 신). 이 중 비슈누는 ‘만물에 스며들다’라는 어원이 있고, 우주의 질서와 인류를 보호하는 최고신으로 숭앙 받는다.

361)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 30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해경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여 구조하지 못한 사건이라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다. 4·16민주시민교육은 2023년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4월 한 달 동안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하고 추모 기간을 운영하였다.

마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노란색은 성숙을 의미하며 황금을 상징하기도 한다. 가을이 되면 황금색 들판과 황금빛 과일 등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흰색은 서양에서는 완벽함, 순수함, 새로움, 중립을 나타내는데 색조가 없는 색이지만 전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색이다.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아이들이 흰색 옷을 입고, 교황도 1566년부터 희생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줄곧 입어 왔다.

하지만 흰색이 상징하는 대상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불모의 사막 색상 때문에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흰색은 보통 옹하고 성스러운 것을 의미하며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하얀 웨딩드레스도 시작, 순수함, 순결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하여 ‘백의민족’이라고 불렸다. 일제강점기에는 흰옷이 일본에 저항하는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많은 독립투사들이 의병 활동을 할 때와 3·1운동을 할 때 굳은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흰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다고 한다.

검정색은 죽음과 애도를 상징한다. 색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인 검정색은 가시광선이 없거나 완전히 흡수되어서 나타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검은색을 애도, 마법, 악, 우아함, 죽음과 연관시키는 일이 많다. 여러 종교에서는 이 세상이 원초적 어둠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느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온 세상이 검었다고 한다. 검은색은 밤, 어둠, 죽음을 상징하며 서양에서는 흰색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3. 세부 주제 구성 내용

서천꽃밭이라는 장소에 순환의 구조를 부여하여 콘텐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천꽃밭에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장소의 가치를 재창조하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천꽃밭 테마공원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문객이 카타르시스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때 카타르시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즐겁게 일을 할 때처럼 단기적으로 삶에 만족할 때를 말한다. 조동일³⁶²⁾은

362) 조동일,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 지식산업사, 1997. 참조.

진정한 신명은 한을 극복하는 동기에서 나온다고 보았는데, 한은 풀어야 하는 것이고 한이 풀리면 신명난다고 하였다. 테마공원 방문객이 느끼게 되는 카타르시스나 신명은 모두 막혀 있는 것을 뚫거나 풀린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비일상적인 곳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느끼고 체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테마공원에 방문한다. 4개의 꽃밭을 방문하여 전시 체험형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인지하고 과거를 돌이켜본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본다는 것은 삶의 후회의 개념이 아니며 미래지향적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일상적인 공간 테마공원으로 통해 체득하는 것이다. 비일상적인 장소인 테마공원을 벗어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으로 돌아가 테마공원에서 얻은 것들을 삶에 반영한다. 이 과정이 테마공원 조성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이다.

장소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기승전결의 서사 진행방식을 이용하여 본품이의 스토리가 연결된 장소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통일될 수 있도록 연출하고 서천꽃밭에 등장하는 사랑과 여정, 시련, 갈등과 화해를 주제로 하는 장소를 구성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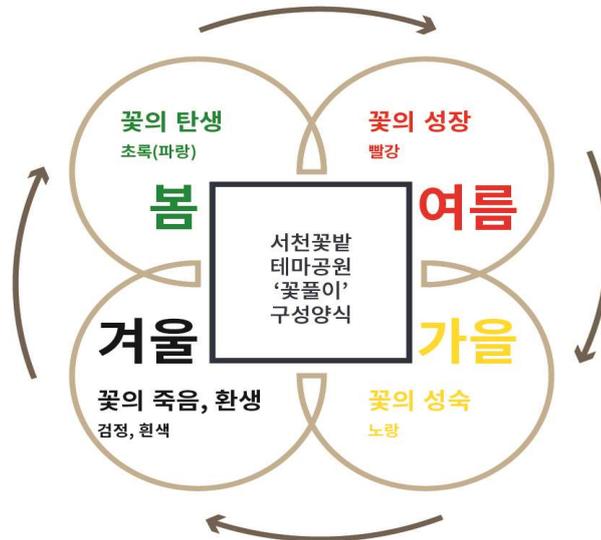
4개 꽃밭의 구성에 앞 장에서 다룬 서천꽃밭의 원리를 적용하면 [표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명칭	계절	색	꽃(생명)의 원리	반영된 본품이의 원리
제1꽃밭	탄생	봄	초록 (파랑)	꽃(생명)의 탄생	<삼승할망본품이>의 삼승할망이 인간 세상에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가지고 아기를 점지하는 탄생의 원리를 반영함
제2꽃밭	자람	여름	빨강	꽃(생명)의 성장	<이공본품이>의 꽃감관이 서천꽃밭이 꽃에 물을 주며 키우는 성장의 원리를 반영함
제3꽃밭	이름	가을	노랑	꽃(생명)의 성숙	<이공본품이>, <세경본품이>, <문전본품이>의 신의 좌정으로 성숙의 원리를 반영함

구분	명칭	계절	색	꽃(생명)의 원리	반영된 본풀이의 원리
제4꽃밭	환생	겨울	검정, (흰색)	꽃(생명)의 죽음, 환생	<이공본풀이>의 한락궁이는 자 현장자 일족을 수레멸망약심꽃 으로 징치하고 죽은 어머니 원 강아미를 환생꽃으로 살린다. <문전본풀이>의 녹디생이도 죽 은 어머니를 서천꽃밭의 환생꽃 으로 살린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죽은 정수남과 문도령을 환생꽃 으로 살린다. 죽음과 환생의 원리를 반영함

[표19] 꽃밭의 구성 원리

이를 근거로 4개의 꽃밭의 세부 주제를 도식화하면 [그림36]와 같다. 생명의 꽃밭을 메인으로 정하고 제1꽃밭은 ‘봄: 탄생’, 제2꽃밭은 ‘여름: 성장’, 제3꽃밭은 ‘가을: 성숙’, 제4꽃밭은 ‘겨울: 죽음, 환생’을 테마로 구성하였다.



[그림37] 4개의 꽃밭 유형

(1) 제1꽃밭: 탄생꽃밭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였다. 출발점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개체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나’가 여럿이 모인 ‘우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집단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타 집단과 보편성과 변별성을 파악하면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신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모두 이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신화의 내적인 측면을 祈願이고 외적인 측면은 祭儀이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의해 발휘되는 행위이다.

‘탄생꽃밭’이라고 이름 지은 제1꽃밭은 <삼승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이 인간 세상에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가지고 아기를 점지하는 탄생의 원리를 반영한 곳이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생명의 소중함은 점점 더 경시되고 있다. 얼마 전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전국적으로 2,236명이나 되는 충격적인 보도³⁶³⁾가 있었다. 이를 유령아동이라 부르며, 정부는 황급히 이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감소 원인이 저출산이라고들 하지만 반면, 태어나는 아이들조차 관리되지 않은 채로 사라지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가가 알 수 있다. 이 공간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시작의 공간이다. 한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1꽃밭은 봄을 테마로 하는 곳이다.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데 색은 파란색과 초록색을 선택하였다. 탄생의 상징성을 반영하여 삼승할망의 조각상을 설치하고자 한다. 생불꽃은 든 삼승할망의 이미지는 인간과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손에는 여러 색깔의 꽃을 들고 서 있다. 삼승할망의 얼굴 표정은 온화하고 부드럽다.

탄생과 관련된 물건들을 전시하는 장소도 마련하는데 제주의 생활도구 중에 탄생과 관련된 아기구덕, 금줄, 기저귀 등을 전시한다. 그곳에 임신, 출산, 탄생과 관련된 제주 속담³⁶⁴⁾을 소개한다. 벽면의 색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구성한다. 이 꽃

363) 연합뉴스 2023.6.27. 기사 참조

364) 이와 관련한 제주 속담으로 임신부의 특권을 나타내는 속담은 ①애기 뱀 여자 놈 송보지 말라.(임신한 여자는 남 흉보지 말라) ②애기 뱀 예펜은 울담을 넘지 아니한다.(임신한 여자를 울타리담을 넘지 아니한다)가 있다. 남아선호 사상이 반영된 속담은 ③소나이 귀훈 집안에서 소나이 나민 사름덜안티 알류지 말라.(사내가 귀한 집안에서 사내가 태어나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으로 아

밭의 벽면에는 생불꽃으로 가득 차 있다. 삼승할망이 방문객들에 향해 직접 아이를 점지하는 기원의식을 하는 물리적 장소도 조성한다.

(2) 제2꽃밭: 자람꽃밭

불도맞이에서 삼승할망이 점지하여 태어난 아이는 일단 15세까지 아프지 않고 잘 자라야 한다. 역병신인 마마신을 물리치고 설사 역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겨내야 한다. 이러한 마마신을 우리나라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케우케겐, 중국의 저귀, 그리스의 아폴론도 역병신으로 전승된다. 어느 곳이나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었다. 실질적으로 전쟁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다름 아닌 역병이었다.

서천꽃밭은 꽃감관인 사라도령이 설 새 없이 시들어가는 꽃을 살리기 위해 꽃밭에 물을 나르며 꽃밭의 꽃들을 가꾸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꽃밭 자체가 우리가 가고 싶은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파괴된 현실의 균형과 질서를 회복하고 현실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자람꽃밭’이라고 이름 지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어른이 된다. <이공본풀이>에서 꽃감관은 서천꽃밭의 꽃들이 잘 자라기 위해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어떤 나무가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어떤 곳이 식물이 더욱 잘 자라는지 묻는 수수께끼 내기를 한다.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꽃을 잘 피워내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꽃이 잘 자라는 환경과 방법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뿌리를 땅 아래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잎과 꽃을 피워낸다. 이 과정에는 적절한 물과 영양분, 햇빛이 필요하다.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해도 식물을 잘 자라지 못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신체적·정신적인 발달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사

들이 태어났다고 자랑하면 삼승할망이 시기한다는 의미이다. 출산 후의 금기를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④애기 난 다음 일월 안에 집 고치지 말라(아기 난 다음 7일 이내에 집을 고치지 말라) 집을 고치려면 외부인이 집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산모와 아기가 병에 걸려 아플 수도 있고 위생 상 좋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⑤애기 난 여자 아흐레 돼기 전에 멧경 보지 말라(아기 낳은 여자는 9일이 되기 전에 거울을 보지 마라) 이 속담은 위생이 잘 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산모가 거울을 볼 여유도 없겠지만 만약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을 거울에 비춰본다면 놀랄 것이다. 그러니 9일 동안은 아이를 돌보고 산모의 건강에만 신경쓰라는 의미이다. 의 속담 등이 있다.

랑과 정성도 필요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용기와 도전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제2꽃밭에 구성된 여름의 장소는 꽃의 성장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빨간색은 태양과 정열을 의미한다. 빨간 꽃에는 용기, 존경, 욕망, 열정과 사랑을 상징한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 세 단계의 물을 만난다. 중간 중간에 발등까지 차는 물, 등에 차는 물, 목에 차는 물이다. 세 단계의 물을 건너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물은 서천꽃밭을 가기 위한 과정이자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 제2꽃밭에 세 단계의 물을 계단식으로 설치한다.

꽃감관이 꽃에 물을 주는 데 물은 서천꽃밭의 옆에 있는 버드나무 우물에서 떠가지고 온다. 버드나무 우물도 또 하나의 장소로 제공한다. 이곳을 여름이라는 특색에 맞게 실내 분수대로 조성한다. 여름의 장소인 이곳에서는 꽃감관 사라도령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꽃씨가 꽃으로 자라기까지 과정의 사진들을 벽면에 전시한다.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의 역할은 꽃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직접 꽃감관 역할을 체험한다.

성장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야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제2꽃밭은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관람하면 좋은 장소로 구성한다. 진정한 성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3) 제3꽃밭: 이름꽃밭

본풀이에서 주인공은 신으로 좌정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하고 대결에서 승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신이 된다. 신성성을 획득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삶에서 죽음, 재생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신으로 좌정되는 서사는 재배열 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극복하고 얻게 되는 것이 직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멩진국따님야기, <이공본풀이>에서는 할락궁이,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문전본풀이>에서는 영리한 막내 녹디생이와 그의 어머니인 여산부인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고난을 겪은 인물이 신직을 얻는 경우에 한락궁이와 녹디생처럼 아들이 어머니를 살려 신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에 대한 보답으로 죽은 어머니를 살려 생명을 부여하고 보답하는 것이다.

이곳은 ‘이룸꽃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성장의 과정을 거쳐 성숙의 원리를 반영한 곳이기 때문이다.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 신으로 좌정한다. 죽음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되어 신으로 좌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신으로 좌정되기 위해 겪는 과정들이다.

생명이 탄생하여 자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자연과 진정한 공존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인간이 편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여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생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결국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연과 공존하지 못해서 온 최악의 결과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이다. 계절마다 나타나는 자연의 성질 대신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기후로 인해 자연은 시들어가고,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는 1차 산업은 어려워졌다.

신직을 얻는 과정은 성숙의 과정이다. 제3꽃밭에는 꽃의 성숙이란 테마로 노란색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란색은 성숙을 의미하며 황금을 상징하기도 한다. 가을은 곡식과 열매가 익는 계절이다. 황금색 들판과 과일 등은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성숙의 장소에는 한락궁이와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에서 만나는 장면을 연출한다. 성장의 과정을 거쳐 서천꽃밭에 도착한 한락궁이는 아버지인 꽃감관 사라도령으로부터 서천꽃밭의 각종 꽃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곳에는 서천꽃밭의 각종 꽃들 전시하고 꽃들의 역할을 알리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문화콘텐츠 사례에서 소개한 서천꽃밭 그림들을 전시하고 디지털 체험양식으로 서천꽃밭의 여러 꽃들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4) 제4꽃밭: 환생꽃밭

제4꽃밭인 이곳은 죽음과 환생의 장소이다. 죽음과 환생의 공간에 검정색과 흰색이 공존한다.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며 흰색은 순수함, 순결함, 완벽함을 상징

한다. 김창일은 무속신화에서의 꽃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무속신화에서 꽃밭은 혼돈 속에 빠진 이승을 질서의 세계로 원상 회복시켜주는 구실을 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본풀이나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에서 꽃밭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이상향이 아니라 현상계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간주한다. 즉, 한국무속신화에서 꽃밭은 파괴된 현실의 세계를 원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매개 공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³⁶⁵⁾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하게 하였고,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 변화된 많은 것들 중에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주목된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매년 자살률 1위, 국가 최저 수준인 행복지수 58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고립 등에 의해 우울증이 증가해 자살률은 더욱 높아졌다. 서천꽃밭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이다. 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대상을 살리는 기능이 있는 재생의 장소이기도 하다. 죽음과 재생의 공존하는 장소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환생꽃밭’이라고 이름 지은 이곳은 죽음과 환생의 원리를 반영한 곳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한정된 삶을 산다. 이는 곧 인간의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곳에서는 죽음을 체험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부터 인간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은 다양했다. 그 중 하나인 불교의 윤회 사상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죽고 다시 태어나 꼭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삶에서 얻은 업보로 인해 인간이든 동물이든 환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풀이에서 그 환생의 역할은 서천꽃밭의 환생꽃이 담당한다. 그런 이유로 이곳에서는 환생을 꿈꿀 수 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 수 있는 상상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환생할 수 있다.

365) 김창일, 앞의 논문, 179-180쪽.

하지만, 환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서천꽃밭의 꽃으로 악인을 징치할 수 있고, 죽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이처럼 신이한 능력과 수단이 반영된 성스러운 장소가 서천꽃밭이다. 현실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며 또는 자연재해에도 곳곳하게 견뎠던 인간들도 결국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과 악인을 징치하는 일이다. 이러한 소망은 신화와 의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서천꽃밭에서 죽음은 환생꽃, 악의 징치는 웃음웃을꽃, 울음울을꽃, 수레멸망악심꽃에 투영되어 전해졌다.

<이공본풀이>에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파괴된 현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와 어머니를 살려낸다. <세경본풀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가서 생명의 꽃을 가져와 정수남이를 살려낸다. 이로써 위기를 모면한 자청비는 다시 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려낸다. 주체적인 여성인 자청비는 자신이 얻은 능력으로 돌이나 되는 남성을 기꺼이 살려낸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일곱 형제 중 막내아들인 녹디생이가 계모에게서 죽은 어머니를 살려낸다. 이로 인해 서천꽃밭이 저승에 존재하는 이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상계를 위해 존재하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간 구성 배치 및 이동경로

1) 스토리 네트워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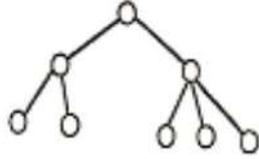
테마공원 입구에 메인 스토리를 읽고 관람객은 테마공원에 입장하였다. 테마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람하면서 스토리를 어떤 유형으로 전개를 할 것인지 네트워크 방식을 알아보고, 테마공원의 공간 구성 배치와 이동경로를 기획하고자 한다.

박여성³⁶⁶⁾은 장소를 공간적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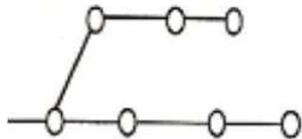
① 분지형 네트워크(logisches NW): 중심을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파생주제들로 분지되는 군집. 주제상의 위계에 따라 대주제-소주제의 순서로 배치

366) 박여성, 앞의 논문, 80-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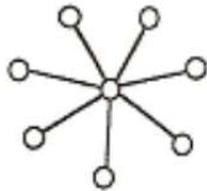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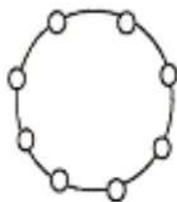
② 선조형 네트워크(narratives NW): 논리적으로 동등하지만 이질적인 주제들이 하나의 균락을 형성하기 위하여 서사구조의 전개에 준하여 시·공간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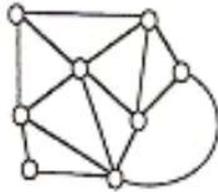
③ 방사형 네트워크(enumeratives NW): 서로 무관한 내용을 담은 이질적인 전시물들이 균락을 형성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④ 고리-순환형 네트워크(zirkuläres NW): 논리적으로 서로 무관한 전시물들이지만, 어느 접점에서 출발해도 다시 다른 접점들과 연결되는 디지털 텍스트와 유사한 경우(다양한 형태로 된 대부분의 웹-사이트, 포털, 블로그, 커뮤니티 등)



⑤ 복합-망상형 네트워크(gemischtes NW):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닮아가는 환경에서 대부분의 테마공원은 논리성과 서사성을 충족하면서 필요에 따라 시간/공간에 우선권을 두어 제반 특성을 전대하는 복합형이다.



이를 근거로 서천꽃밭 테마공원은 분지형 네트워크(logisches NW)과 복합-망상형 네트워크(gemischtes NW)를 혼합하여 장소를 구성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 내부공간을 생명의 꽃밭을 중심으로 제1꽃밭, 제2꽃밭, 제3꽃밭, 제4꽃밭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디지털 전시 방식을 더하고,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의 Main Story의 서사성을 접목하여 이동 경로를 기획하고자 한다. 세부공간의 설계와 이동 경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세부 공간의 설계 및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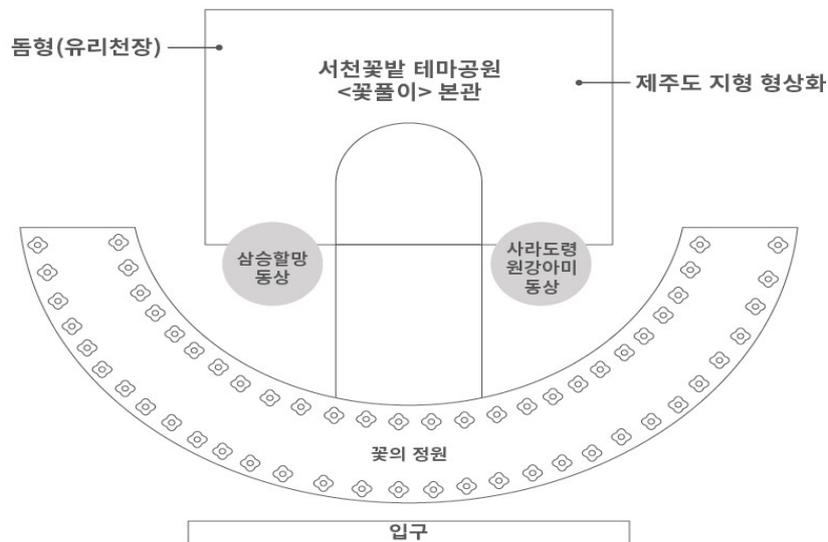
테마공원이 외부 구조는 [그림38]과 같이 구성하고 내부구조는 총 세 가지([그림39], [그림40], [그림41])를 제안하고자 한다.

외부의 입구에는 꽃의 정원이 있다. 꽃의 정원을 지나면 입구 양쪽에 삼승할망과 사라도령과 원강아미 동상을 설치할 것이다. 서천꽃밭을 만들고 가꾸는 대표성을 띤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에 메인 스토리를 보여준다. 메인 스토리의 내용은 앞에서 다루었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꽃의 힘이 필요하다. 꽃의 힘은 관람객들에 의해 결정된다. 관람객들은 입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에 앱을 깔고 방문하는 꽃밭에서 참여하는 여러 전시와 체험을 통해서 꽃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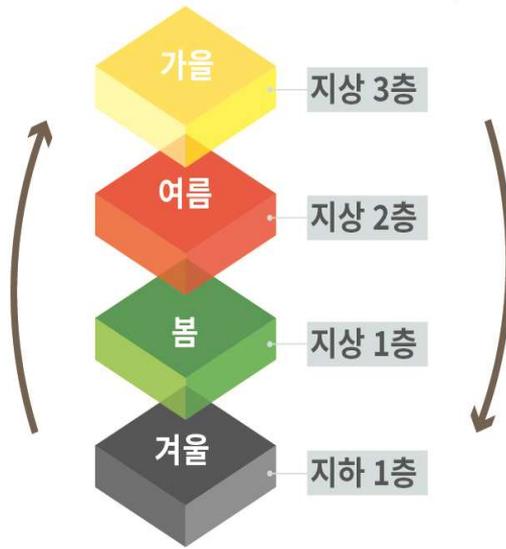
4개의 꽃밭을 전부 관람하고 나가는 출구에는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에게 꽃을 기부하게 되어있다. 기부를 한 관람객에게 다음 방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입장료 할인 티켓을 나누어주거나 출구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티켓을 준다. 티켓으로 다음 방문을 유도한다.

테마공원의 내부구조는 세 가지 구조를 제안하였다. 1안[그림38]은 각 층별로 4개의 꽃밭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같은 층에 꽃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꽃밭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내부 면적이 적을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2안[그림39]은 반원형의 구조로 관람객이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한 눈에 4개의 꽃밭이 보이는 효과가 있다. 3안[그림40]은 꽃 모양의 4개의 밭은 회전형으로 관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부지를 선정 한 후에 장소에 맞는 내부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내부구조는 생명의 꽃밭을 중심으로 각 테마별로 4개의 꽃밭이 구성되어 있다. 생명의 꽃밭 바닥에는 디지털 꽃밭이 형성되어 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다. 바닥을 밟을 때마다 꽃들이 움직인다. 벽면에는 각종 빛을 발산하는 디지털로 서천꽃밭 이미지들이 전시되어 감상할 수 있다. 디지털 체험 양식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림38] 테마공원 외부 구조



[그림39] 테마공원 내부 구조(1안)



[그림40] 테마공원 내부 구조(2안)



[그림41] 테마공원 내부 구조(3안)

5. 프로그램 구성 양식

1) 전시 행사·체험 양식

제1꽃밭에서는 현실 체험 양식의 출발점에 삼승할망이 아이를 점지하는 것부터 등장한다. 테마공원으로 들어가는 관람객들에게 생불꽃을 나누어주며 생명의 잉태를 알린다. 아이의 탄생과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하고 제주지역에서 아이가 사용하던 아기구덕, 기저귀 등 다양한 육아 관련 민속자료들을 전시하고 직접 만져보게 할 수 있다.

전시관 관람객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관 벽면에 디지털 화면에 등장하고 꽃꽂이, 비누꽃, 압화꽃 등 꽃 만들기 활동을 통해 꽃의 탄생을 체험할 수 있다. 탄생의 공간에는 삼승할망의 등장하여 불도맞이 영상이 상영되고 삼승할망이 등장하여 관람객들을 향한 생불꽃을 주어 생명을 점지해주는 의식을 행한다. 다양한 색의 꽃을 추첨하는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제2꽃밭에서는 화분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체험을 한다. 꽃을 심고 직접 가꾸는 체험을 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꽃을 직접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다. 서천꽃밭 보드게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곳을 구성한다. 보드게임 우승자에게는 보드게임 교구, 서천꽃밭이 그려진 엽서 등 기념품을 선물한다. 기존 콘텐츠 사례에서 소개했던 사진, 회화, 민화 작품 등을 벽면에 전시하여 서천꽃밭의 이미지를 소개한다.

삼색물의 장소를 구성한다. 이승에서 아버지 사라도령을 만나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한락궁이가 건너게 된 물이다. 이승의 빨간 물은 발목에 닿고, 가운데 노란 물은 허리에 닿으며, 저승 쪽의 붉은 물은 목에 닿았다. 삼색물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이자 원강아미가 받은 고난이 투영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을 지나 서천꽃밭에 도착한 한락궁이는 비로소 아버지를 만나 꽃감관이 된다.

제3꽃밭에서는 성장의 과정을 지나 성숙의 과정에 도달한 썸이다. 신으로 좌정한 다양한 인물 캐릭터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삼승할망, 한락궁이, 자청비, 녹디생이 등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도서를 전시하고, 캐릭터를 직접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캐릭커쳐 상품 등을 제공한다.

제4꽃밭에서는 죽음의 체험을 통해 죽음과 재생의 상황을 동시에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죽음체험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웰다잉(Well dying)이다. 웰다잉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며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서를 작성하면서 삶의 여정을 회고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남길 것들을 정리한다.

죽음이란 누구나 겪을 일이지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죽음 체험을 통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앞으로 겪을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2) 디지털 전시·체험 양식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신화적 상징이 무엇에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전해진 상징이나 신화의 의례를 인류의 역사적 상황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³⁶⁷⁾”고 답한다. 여기서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문제이다. 세계는 거대하고 그 안의 인간의 존재적 위치는 나약하다. 신처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살아간다. 인간 스스로의 존재론적 인식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노력한다. 가상 체험형 공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경험해볼 수 있다.

3D(3-dimension), 4D(4-dimension) 기술을 활용하여 형태, 입체감, 입체 효과, 입체 사진 등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4D기술의 최대 강점은 콘텐츠 내용과 유사한 자극을 여러 기술로 뒷받침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한다는 데 있다. 반면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즐기기에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4D기술이 이용된 사례는 주로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이다.

가상현실은 객체와 환경 모두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이 가상현실보다 훨씬 현실감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앞으로 급속도로 팽창이 예상되며 테마공원 기술로서 적용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시도되고 있다. 특히 테마공원의 근본적인 비밀상성을 가상현실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³⁶⁸⁾

VR(Virtual Reality)은 특수한 안경과 장갑을 사용하여 인간의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하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부에서 가능한 것을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하게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의 하나이다. 컴퓨터의 기술을 응용하여 실체가 아닌 인공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그 속에서 인간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이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구미 각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³⁶⁹⁾

367) Mircea Eliade, Images of Symboles,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1998, 40쪽.

368) 김치호,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기술을 활용한 테마파크 어트랙션의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5집, 2017, 450쪽.

369) 심종민·성종현·김해란·김성학·이민석·이가영,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연구-하회마을 옥연정사 VR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105쪽.

가상현실은 일반적으로 영화나 영상 분야 등 특수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증강현실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만큼 대중화된 상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낡은 흑백사진을 AI기술을 활용해 깨끗한 색채 사진으로 복원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낡은 흑백사진으로 만나보던 독립 영웅들을 생생하고 선명하고 깨끗한 색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고인의 생전 모습을 사진이나 편지, 가족들의 기억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가상현실로 재설정하고, 부족한 데이터는 딥러닝 기술³⁷⁰⁾을 통해 마련하여 고인의 모습을 재현한 다큐멘터리의 반응은 뜨거웠다.

서천꽃밭 테마공원도 <루나폴>의 관람 경로와 <디피랑>의 디지털 전시 기술을 참고하여 구성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네트워킹이 형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서천꽃밭의 이야기를 디지털 기기를 통해 보고 듣고 꽃감관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꽃 키우기 게임을, 서천꽃밭이라는 장소를 VR로 가상체험으로 하며, 천장에 돔 구조로 구성된 대형 모니터에서 AR을 통해 스토리텔링된 원강아미와 사라도령의 이야기를 의자에 누워 감상할 수 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되어 삼승할망이 직접 내게 다가와 꽃을 주며 아이를 점지한다. 각 꽃밭에 정해진 색으로 디지털 공간을 꾸미고 디지털 꽃밭을 형성한다.

테마공원 관람의 핵심은 비일상적인 장소에서 다시 일상적인 장소로 돌아가도 기억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의 기억 속에 남을 서사이다. 모두의 이야기 안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체험한 것을 관람객들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370) 컴퓨터가 사람의 뇌처럼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제7장 결론

인류 최고의 사유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신화는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있다. 제주의 신화인 본풀이를 읽는다는 것은 오래된 제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다. 나아가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 빚어낸 언어와 문화의 비밀을 푸는 일이다. 그 비밀에는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사유체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원래 자연의 일부였고 자연과 함께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다. 현대인의 특징은 자연과 분리된 상태이며 그 대가로 우리는 불안을 얻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불안감을 달래줄 종교가 필요한데 오래 전부터 전해진 무속신앙은 불교, 유교와 끝없이 타협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무속신앙은 세계 보편적인 종교에 비해 조직도 없고 기록된 경전, 공동체를 위한 공간도 없다. 그러나 종교로서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를 향유하는 공간도 있다. 곧 무속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본풀이 역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문제는 인류에게 최고의 숙제이다.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대등하게 바라보며 함께 하려는 사고는 매우 소중하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지구 곳곳 여기저기를 마구 파헤치고 파괴하여 지구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자연과 공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 제주의 본풀이는 이에 대한 적절한 교훈을 제공한다. 제주가 가진 철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의 장소성의 가치를 다루고자 했다. 서천꽃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없는 환상의 공간이다. 탄생과 죽음, 환생의 역할을 하는 꽃들로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이다. 인간의 삶을 다루지만 신적 능력을 가진 이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 서천꽃밭을 현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였다.

문화원형 가치 대상을 본풀이의 ‘서천꽃밭’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천꽃밭을 본풀이에 등장하는 많은 화소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삶과 연결되는 주제는 현재에도 많은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힘을 지니고 있다. 서천꽃밭은 문화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

는 매력을 지녔다. 꽃밭이라는 자체로 축제를 기획할 수도 있고, 삼승할망의 역할을 빌어 출산과 관련된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천상과 인간 세상, 지하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간 콘텐츠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면서 전승의 현장에서 도태되어 가는 제주의 이야기들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로 전승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하였다. 제주 지역의 본풀이가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본풀이를 분석하여 의미를 밝힘으로써 현대적인 가치를 찾고자 했다.

풍부한 제주의 이야기가 현대에 들어 여러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례가 많으나 본풀이의 자체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OSMU(One-Source Multi-Use)의 매력을 충분히 창작물에 담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본풀이는 제주도만 가진 신화이다.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이다. 그 중 서천꽃밭은 민족문화원형으로써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서천꽃밭은 물론 본풀이가 가진 서사의 풍부함이 문화콘텐츠의 영역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장소 문화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은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장소를 방문하는 이들의 치유 및 회복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지역의 장소성의 경험은 문화자원의 경험적 요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본풀이인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여 서천꽃밭의 양상과 의미를 확인하고 서천꽃밭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기존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상시적 공간인 장소성 문화콘텐츠 분야가 매우 미비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천꽃밭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로서 가치와 전환 과정,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기한 모든 과정을 통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본풀이의 유형과 특성, 서천꽃밭의 의미와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풀이에 나타난 꽃과 꽃밭의 상징성을 ‘꽃피우기 경쟁’과 서천꽃밭의 꽃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풀이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의 양상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삼승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에서 서천꽃밭이 등장하는 서사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꽃과 생명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꽃의 탄생, 성장, 성숙, 죽음과 환생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전환 시 주요 테마로 반영하였다.

셋째, 기존의 서천꽃밭의 문화콘텐츠 활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장르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일회성의 콘텐츠에 지나지 않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장소 콘텐츠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서천꽃밭의 양상과 의미와 기본 사례를 분석하고 한계점을 제시하였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한 서천꽃밭이라는 민족문화원형 대상을 장소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여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서천꽃밭 테마공원 ‘꽃풀이’를 기획하여 생명의 꽃밭을 중심으로 4개의 꽃밭에 각각 테마별로 계절과 색을 반영하여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천꽃밭을 장소콘텐츠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낼 것이다.

첫째,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전파하여 타 지역의 장소와는 다른 차별성을 내포한 지역정체성을 알릴 수 있다.

둘째, 장소 콘텐츠는 테마공원, 각종 이벤트, 전시, 축제 등의 다른 장르의 문화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

셋째, 테마공원이라는 상시적인 문화콘텐츠는 지역 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나고,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방문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넷째, 서천꽃밭 관련 작품을 관람하면서 각종 체험에 참여하면서 오감작용을 활성화하여 본풀이에 대한 몰입을 극대화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천꽃밭이 가진 원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관람객들은 테마공원의 전시·관람, 현실 체험과 가상체험을 통해 서천꽃밭을 더욱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서천꽃밭의 상징성을 가진 제주의 대표적인 테마공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 속 서천꽃밭이라는 장소를 생동감 있는 제주의 랜드마크³⁷¹⁾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71) 랜드마크(landmark)란 경계표(境界標) 또는 마루지라고도 일컬으며 원래 탐험가나 여행자 등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의미하였다. 지금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 건물이나 타워, 문화재, 상징물, 조형물 등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랜드마크’라고 칭하는 데 특정 장소를 인위적으로 지정하기보다 어떤 장소가 대중과의 공감될 때 유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방향에서 보나 다른 요소들보다 돌출되어 시각적 인지도가 높은 구조물을 말한다. 탑, 비석, 건축물 등의 랜드마크는 분산된 구조물들의 상위단위, 동위성의 메타심급으로 작동하여 공간 전체

이러한 연구 결과가 기존 사례에 다소 부족했던 서천꽃밭의 구체적 양상과 의미를 대중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지평이 넓어질 것을 기대한다. 다만, 서천꽃밭을 제외한 제주 본풀이의 전체적인 정서적·정신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다. 종합적인 문화콘텐츠 방안에 대한 연구는 나머지 연구과제로 둔다.

우리의 것을 잘 지키면서 새로운 변용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본풀이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이 과거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제주가 가진 다양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자원이 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해본다.

제주지역의 본풀이와 서천꽃밭이라는 소재가 장소와 결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인 연대감과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매력을 발산하게 되어 제주의 문화를 알리고 좀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 나아가 제주다운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제주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테마공원을 구성하는 논의가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한다.

의 정체성을 암시한다. -박여성, 앞의 논문, 78쪽.

【참고문헌】

1. 자료

-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조선무속의 연구』, 1937.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_____,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_____,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_____,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濟州道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2. 단행본

- 강봉수, 『제주 문화문법과 교육』, 도서출판 누리, 2020.
개빈 애번스, 강미경 옮김, 『컬러 인문학』, 김영사, 2018.
김관후, 『서천꽃밭에 계십니까』, 제주콤, 2020.
김상훈, 『신화 콘서트』, 행복한작업실, 2020.
김열규, 『한국 신화 그 매혹이 스토리텔링』, 한울, 2012.
_____, 『한국인의 신명』, 주류, 1982.
김영순·박한준 외,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2011.
김영순·최민성 외,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함미디어, 2006.
김태원,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탄생』, 파람북, 2019.
김평수·윤홍근·장규수, 『문화콘텐츠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김현선 외,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0.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 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김현선·신연우·현승환·조현설·최원오·이주사·허남춘·김형근·조정현·권태효·강소전,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학연구센터, 2020.
도린 매시 저, 박경환·이경민·이용균 저,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루씨썬, 『제주, 민화 그리고 고양이』, 니들북, 2020.
류정아, 『축제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_____, 『축제의 원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_____, 『한국축제와 지역문화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문무병, 『제주 큰굿연구』, 황금알, 2018.

_____,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문선이, 『마두의 말씨앗』, 사계절, 2007.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Mircea Eliade, Images of Symboles,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1998.

민병욱, 『문학의 이론』, 탐복스, 2012.

박기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구조와 전략』, 논형, 2015.

박소연, 『캐릭터 마케팅』, 소담출판사, 2003.

박장순, 『문화콘텐츠 해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박재형, 『아버지를 찾아서』, 네버엔딩스토리, 2011.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4.

베탄 패드릭, 이ური 번역, 『1%를 위한 상식백과』, 씨네스트, 2014.

블라디미르 프로프, 어건주 역, 『민담형태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레비-스트로스, 임봉길 역, 『신화학1: 날것과 익힌 것』, 한길사, 2005.

서대석, 『무가 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서대석·이혜순·김대행·박희병·오세영·조남현, 『한국문학강의』, 도서출판길벗, 1994.

송문석, 『신화비밀코드』, 푸른사상, 2018.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신연우,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적성』, 민속원, 2017.

심상민, 『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2002.

아침나무, 『세계의 신화』, 삼양미디어, 2009.

안기수·이명현, 『이야기문학과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보고사, 2010.

안수자, 『한락궁이야, 네 집을 지어라』, 모해출판사, 2020.

안창현·유제상·이건용·임동욱·정지훈, 『새로운 문화콘텐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오진원, 『서천꽃밭 가는 길』, 현복스, 2021.

요한 하위징아 저, 이종인 역,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2018.

용민하, 『미션! 저승꽃을 피워라』, 나무말미, 2021.

유제상, 『문화콘텐츠학 강의』, 콘텐츠하우스, 2017.

_____, 『문화콘텐츠와 원형이론 강의』, 콘텐츠하우스, 2017.

이도흠 엮음, 『신화/탈신화와 우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9.

이두현·장주근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9.

이명인, 『집으로 가는 길』, 문이당, 2000.

이명현, 『고전서사와 문화콘텐츠』, 경진출판, 2017.

이상은·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이석범, 『할로영산』, 황금알, 2005.

이수자,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창, 1990.

_____,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이인화,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2014.

이푸 투안 저,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에코리브르, 2011.

임재해, 『한국 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장덕순, 『설화문학연구』, 반도출판사, 1994.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_____,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전복대 인문학연구소, 『창조신화의 세계』, 2002.

정경일·류철호, 『지역문화와 문화콘텐츠』, 글누림, 2017.

제주도, 『제주여성문화』, 20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제주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201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1』, 2017.

_____, 『제주문화원형-설화편 2』, 2018.

_____, 『제주문화원형-설화편 3』, 201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의 이야기유산』, 2018.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1.

_____,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_____, 『동아시아문명이 심층 대등한 화합』, 지식산업사, 2020.

_____,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2 - 경계 넘어서기』,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

_____,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94.

조셉 캠벨(Joseph Campbell), 이윤기 역, 『신화의 힘』, 21세기 북스, 2020.

_____,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8.

조정래, 『스토리텔링 육하원칙』, 지식의 날개, 2010.

조현설, 『우리신화 수수께끼』, 한겨레 출판, 2011

진성기, 『南國의 民俗』, 濟州民俗研究所, 1969.

차정, 『서천꽃밭 매점 애기 1』, 스튜디오 봄봄, 2018.

_____, 『서천꽃밭 매점 애기 2』, 스튜디오 봄봄, 2018.

_____, 『서천꽃밭 매점 애기 3』, 스튜디오 봄봄, 2018.

최원오, 「한국 설화와 중국 소수민족 설화의 비교연구-문화기원설화를 중심으로」,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1997.

최현숙, 『계절을 여는 아이』, 교학사, 2005.

차철욱·차운정·전은휘·이동일·양홍숙·변광석·박해광·공윤경, 『마을연구와 로컬리티』, 소명출판, 2017.

캐롤린 핸들러 밀러, 변민주 외 역, 『디지털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캐시어 바다, 이선주 옮김,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현대지성, 2020.

- 팀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장소』, 시그마프레스, 2016.
- 편해문, 『아기를 주시는 삼신할머니』, 소나무, 2008.
- 표청옥, 『놀이와 축제의 신화성』,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 필립 스미스,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문화이론』, 이학사, 2015.
- 하순애, 「제주도 신당 이야기」,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편집부, 『2004 문화원형 콘텐츠총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종합계획』, 2005.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한국민속학회, 『무속신앙』, 민속원, 2008.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한교경,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2013.
- 한진오, 『모든 것의 처음, 신화』, 2019.
-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서, 2012.
- _____,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 허원기, 『판소리의 신명풀이미학』, 박이정, 2001.
- 허춘, 『제주 설화 연구-한국 설화와 대비하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 현길언, 『자청비, 자청비』, 계수나무, 2005.
- _____, 『제주 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_____, 『제주도 신화』, 서문당, 2005.(개정판)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 홍승우, 『만화로 보는 우리 신화-저승사자 강림도령』, 한겨레아이들, 2005.

3.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 강명혜,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온지논총』, 48, 2016.
- 강문종, 「제주신화의 문화콘텐츠 가능성」, 『영주어문』 32호, 영주어문학회, 2016.
- 강소전, 「제주도 무녀(巫女) 삼승할망 고찰」, 『한국무속학』 42집, 한국무속학회, 2021.
- 강순희, 「제주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 기능과 전승원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강연심,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국전 이미지 원형 연구-제주신화 이미지의 기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흥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강유리, 「죽음을 다룬 무속신화의 시간과 공간 구조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강정식, 「현용준의 신화 연구 성과와 의의」, 『한국무속학』제37집, 한국무속학회, 2018.
- 강지연,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를 통해 본 악(惡)의 의미와 양상」, 『한국고전연구』 42집,

-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 _____,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와 제의의 파토스 담론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_____, 「제주도 무가 〈해심곡〉 연구: 〈회심곡〉 사설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8집, 한국구비문학회, 2014.
- _____, 「‘꽃의 신화학’ 서설: 제주도 무속의 신화체계 탐색을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55집, 한국구비문학회, 2019.
- 강현수, 「『삼공본풀이』에서 나타난 가문장아기의 생산력의 세 층위」, 『한국무속학』, 한국무속학회, 2020.
- 강현옥, 「김해시 문화콘텐츠 허왕후 신행길의 가야왕후부 활용 방안」,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고은영, 「모순된 서사의 제의적 반영-〈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41집, 한국무속학회, 2020
- _____, 「제주도 특수신본풀이의 성격과 의미」,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_____, 「〈초공본풀이〉의 서사적·제의적 의미」, 『한국무속학』 제40집, 한국무속학회, 2020.
- 권기창, 「역사·문화 테마파크 개방을 위한 성공모델 설정-한국 문화 테마파크를 사례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호』, 2014.
-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집, 배달말학회, 2012.
- _____,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차사의 기능과 의미-〈멩감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배달말』54집, 배달말학회, 2014.
- 김경숙, 「블라디미르 프롭의 『민담의 형태론』을 통해 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의 구조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제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 김기국, 「스토리텔링 이론적 배경 연구-기호학 이론과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회학술발표회, 2007.
- 김기홍, 「캠벨의 원질신화와 문화콘텐츠」, 『통일인문학』 제66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자청비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1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 김미란,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소통과 탈소통적 속성을 중심으로」,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미정, 「제주 <삼승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선자, 「중국 남부 소수민족 신화에 나타난 꽃의 여신[花婆]과 민속, 그리고 서천꽃

- 발], 『비교민속학』 제45집, 비교민속학회, 2011.
- 김성수, 「한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장소성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성호, 「단군신화의 재해석을 통한 상호문화주의 기반 콘텐츠 기획에 관한 연구」, 한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수영, 「문화콘텐츠 유형 분류의 전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통권 제7집,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4.
- 김윤근, 「홍길동 테마파크의 활성화 방안」,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은정, 「자청비 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 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_____, 「제주 신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내 테마 공원 사례와 그 방안 모색」, 『인문학연구』 제22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김은지, 「테마파크 특성을 이용한 장소성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제14권 1호 통권 27호, 2012.
- 김은희, 「제주도 본풀이의 놀이와 상관성-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0.
- 김재웅·고민정, 「한국단편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주제중심 통합교육 모형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20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
- 김정윤, 「제주 설화의 생태학적 인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종우, 「'신화의 구조분석'에 대한 뒤랑의 비판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제60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8.
- 김준석, 「동슬라브 신화의 현대적 변용: 축제 마슬레니차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모티브」, 『슬라브학보』 36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1.
- 김자영, 『지역문화콘텐츠의 공간 요소와 스토리텔링 서사 구조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진아,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 신화 축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진철, 『신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제주신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제주신화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의 현재성 투영 양상-동화 콘텐츠의 부친담 색담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2권, 영주어문학회, 2016.
- _____, 「제주 신화 <차사본풀이>이 문화콘텐츠 변용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집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 _____,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6집, 한국무속

- 학회, 2003.
- 김치호,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기술을 활용한 테마파크 어트랙션의 연구」, 『디지털 융복합연구』 5집, 2017.
- 김헌선, 「구비문학과 철학의 상관성」, 『구비문학연구』제1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 _____, 「특별전시 ‘제주의 물그릇과 섬그릇’ 연계 강좌- 제주도의 이야기, 본풀이, 신앙」, 국립공주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 김헌선·변남섭, 「구비문학에 나타는 꽃 원형-이야기와 본풀이를 예증삼아」, 『구비문학 연구』 28권, 한국구비문학회, 2009, 184쪽.
- 김혜정, 「자식 점지 기원 신화의 측면에서 살핀 <이공본풀이> 신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38집, 2019.
- _____,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 신명에 대한 재고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 김희경, 「어린이과학관의 테마파크적 기획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 김희재·길태숙, 「지역문화콘텐츠의 지역성을 바라보는 관점」,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7.
- 남자영, 「스토리의 기능에 따른 축제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2011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집, 인문콘텐츠학회, 2009.
-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콘텐츠』 8호, 인문콘텐츠학회, 2006.
- 류호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기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네 가지 접근법」, 『한국언어문학』3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 _____, 「『삼국유사』 설화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 『한국언어문학』 제34집, 2007.
- _____, 「신화의 문화콘텐츠화 전환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 박선영, 「레비-스트로스의 신화분석을 통해서 본 사유의 보편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여성, 「텍스트기호학의 입장에서 본 박물관/테마파크 문제-테마파크 평가 지수(TPAI)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구상」,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4권,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2009.
- 박용원, 「문화원형의 개념에 기반한 한국 디자인의 형상성(形像性)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방지영, 「<김수로왕 신화>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2010.
- 박종길, 「문화 콘텐츠로서 여수지역 설화의 활용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환영, 「21세기 문화관광자원의 민속학적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제64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 배진섭, 「제주도 12본풀이의 '놀이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극 실행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백민정, 「민담의 서사 구조적 원형과 그 의의」,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백선혜,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백승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론」, 『기호학연구』 15집, 한국기호학회, 2004.
- 백승국·유동환, 「테마파크 기획을 위한 공간기호학적 방법론 연구」, 『기호학연구』 23권, 한국기호학회, 2008.
- 부영란, 『제주신화의 구조에 나타난 상징체계와 의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서문술·유동환, 「설화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축제 기획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 설연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 송영림, 「바리데기 신화의 연극 공연으로의 변용과 그 의미-연극 <바리, 서천꽃그늘 아래>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6집, 겨레어문학회, 2016.
- 송영은, 「<세경본풀이> 구조와 인물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송태현, 「신화와 문화콘텐츠-제주신화 '자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송한샘, 「문화콘텐츠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작학적 관점에서」, 『한국극예술연구』59호, 한국극예술학회, 2018.
- 송효섭, 「'본풀이'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4권, 문학과 지성사, 1998.
- 신동훈,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6집, 한국구비문학회, 2017.
- 신호, 「지역활성화시대의 지역축제」, 『경산문화연구』제5집, 경산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 2001.
- 심상교, 「한국무속의 신격연구3-제주도 일반신본풀이 신격 연구」, 『우리어문연구』 64집, 우리어문학회, 2019.
- 심승희, 「지리학에서 장소 개념과 그 변화」, 『장소 철학 1회 학술 대회(장소 존재론) 발표집』, 2018.
- 심승구, 「한국 술문화의 원형과 콘텐츠화」, 『인문콘텐츠학회 학술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05.
- 심종민·성종현·김해란·김성학·이민석·이가영,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연구-하회마을옥연정사 VR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

- 회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 어정연, 「장소가치 개념에서의 플레이스 브랜딩 평가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 엄경희,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장소성에 대한 시학적(詩學的) 탐구」, 『국어국문학』 제186호, 국어국문학회, 2019
- 양방주, 「제주도 무속신화의 도덕 교육적 기능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양원주,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지옥,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연구: <삼국유사> 소재 스토리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오세정, 「뫼토스와 스토리텔링: 한국 신화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서사학적 접근」, 『기호학연구』 제34집, 한국기호학회, 2013.
- _____, 「신화, 판타지, 픽션의 서사론과 가능세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 _____, 「한국 신화의 제의적 서사규약과 소통원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오일영, 「신화의 서사구조를 활용한 극작법 연구-홍원기<에비대왕>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10,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2016.
- _____, 「신화의 서사구조를 활용한 희곡화 방법론 연구 -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와 설화 ‘이상한 우물’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유영수·이채현, 「전주단오 문화콘텐츠 활용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제38권, 한국무용과학회, 2021.
- 윤동환, 「동해안 무집단 지화(紙花)의 문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제13집, 한국무속학회, 2006.
- _____, 「무당굿놀이의 연행방식과 특징」, 『공연문화연구』 제38집, 2019
- 윤찬중, 「한국문화원형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은지현,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 현황 및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기대, 「의인화 과정을 통해 본 꽃의 문화원형- 한국고전서사작품을 중심으로」, 『콘텐츠 문화』 7호,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15.
- 이기호·김형수, 「한국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성공 요인 분석- 문화콘텐츠 기반형 테마파크 전략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1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8
- 이산호, 「문화콘텐츠와 기호학」, 『다문화콘텐츠연구』2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6.
- 이상대, 「발해건국 신화를 이용한 게임콘텐츠 요소 개발」,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35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 이소윤, 『<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과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 _____, 『한국 설화문학의 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이옥정·전한중, 「랜즈케이프 건축적 측면에서 본 장소성 표현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24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08.
- 이유정, 「여성 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학주, 「신화가 가지는 관광자원의 속성 연구-강릉단오제 근원 신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3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이향애, 「한국 무속 신화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현정, 「‘꽃 피우고 차지하기 경쟁’ 삽화의 운용 양상과 의미-신격 위계에 따른 동아시아권 삽화의 변용에 단서하며」, 『남도민속연구』 제45집, 남도민속학회, 2022.
- 임재해, 「삼국유사(三國遺事) 설화 자원의 문화콘텐츠화 길 찾기」,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장성수·김관오, 「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계획의 적용사례-제주무속신화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5.
- 장애란·현명관·김현미, 「제주신화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응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4호, 한국생활과학회, 2013.
- 장애란, 『제주신화 서천꽃밭을 응용한 문양디자인 개발』, 2012년 선정 중견연구자지원 사업결과보고서, 2013.
- 전영신·김현지, 「축제 스토리텔링이 축제 브랜드 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제38권, 한독경상학회, 2020.
-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4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 전정연, 「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바람의 나라 사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전주희, 「본풀이의 ‘경쟁 화소’와 ‘일월 조정 화소’에 나타난 자원에 대한 인식과 분배 방식 연구-〈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83집, 한국문화학회, 2019.
- _____, 「인간 문화와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제주도 본풀이의 총체성」, 『한국무속학』 38집, 한국무속학회, 2019.
- _____, 「제주 무가의 타계 상상과 그 신화적 논리-일반신본풀이의 天上·서천꽃밭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51호, 한국시가학회, 2020.
- _____,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관과 에토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정명철·김미희·이은미, 「지역 설화를 활용한 공간스토리텔링 연구-영광 불갑산 상사화테마파크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25집, 남도민속학회, 2012.
- 정제호,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과 신화적 의미-출산 화소의 특이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 정진선, 「제주도 신화의 장소성과 경관의 변화」, 『로컬리티 인문학』 14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 정진희, 「제주무가<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 _____, 「제주 무가의 타계 상상과 그 신화적 논리-일반신본풀이의 천상(天上)·서천꽃밭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51집, 한국시가학회, 2020.
- 제주학연구센터·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한국무속학회, 『제주도 굿과 신화』 학술대회 자료집, 2018.
- 조동일, 「구비문학과 구비철학」, 『구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 _____, 「제주도 본풀이 변이의 문학사적 이해」, 『제주도 신화 본풀이의 위상과 과제』, 2015 실천민속학회·제주대박물관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2015.
- 조리라, 「<세경본풀이>의 현대적 활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_____, 「제주도 서사무가에서의 서천꽃밭의 역할과 의미: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고향논집』 제 67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 조정현, 「축제적 상생과 치유의 판문화로서 굿판의 성격과 기능」, 『한국무속학』 28집, 한국무속학회, 2014.
- 조흥윤, 「구조적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화 구조의 적용 방안 연구 - 캠벨(Joseph Campbell)의 원질신화(Monomyth)와 한국 무속신화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 _____,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신성계와 현실계의 복합 양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주지영, 「'신화'와 '전설' 콘텐츠의 소설적 변용과 의미화 전략-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9집, 구보학회, 2018.
- 차국환, 「문화원형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채영희·황경숙, 「바리공주 무가의 애니메이션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가능성 모색」,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 최민성,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모델」, 『국제어문』 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 최수용, 「테마파크 스토리텔링의 창작방법론 연구-제주도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8권 제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점검-스토리 창작을 위한 신화소 추출

- 과 분류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제 46집, 한국문학회, 2007.
- 최진봉, 『韓國巫俗神話에 나타난 저승의 樣相』,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표인주, 「민속에 나타난 꽃의 기호적 의미와 변화」, 『호남학』 62집,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2017.
- 한국행정연구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2007.
- 한진오, 「입춘굿의 복원과 축제화과정에 나타난 문제와 가능성」, 『탐라문화』 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7.
- 허남춘, 「<문전본풀이>에서 집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국무속학』 제42집, 한국무속 학회, 2021.
- _____, 「제주도 굿놀이와 삼공본풀이」, 『제주도 굿과 신화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학 연구센터·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한국무속학회, 2018.
- _____,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도남학보』 23권, 도 남학회, 2011.
- _____,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탐라문화』4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원, 2013.
- _____,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0.
- 허태학, 「테마파크의 시나리오 구상」, 『산경논집』 제11호,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연구 소, 1997.
-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 구회, 1997.
- _____,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권, 한국구비 문학회, 2006.
- 홍경구, 「주제가로의 장소성 형성 요인이 장소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제25권 제1호, 2009.
- 황신연·최동혁, 「동서양 영상콘텐츠에서 표현된 달의 여성 상징성 분석」, 『한국콘텐츠학 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9년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 황인순, 「제주 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 연구: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 이>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32집, 한국기호학회, 2012.
- 황윤정, 「신화소 중심의 설화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황희선, 「지역설화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OSMU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익산시와 익산설 화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 누리집

디피랑 <http://dpirang.com/>

루나폴 https://www.instagram.com/lunafall_jeju/
 별빛정원 우주 <http://www.ooozooo.co.kr/>
 상호원수목원 <http://sanghyowon.com>
 서귀포 문화예술 포털 <https://culture.seogwipo.go.kr/>
 예스 24 <http://www.yes24.com/Main/default.aspx>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https://tamla.jejunu.ac.kr/>
 제주문화원형 설화연구소 <https://blog.naver.com/jrijedori>
 제주 민예총 <https://jepaf.kr>
 제주 4·3평화재단 <https://jeju43peace.or.kr/>
 제주올레 <https://www.jejuolle.org/>
 제주특별자치도 <https://jeju.go.kr/culture/myth/outline.htm>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s://www.jje.go.kr/index.jje>
 카메라아힐 <https://www.camelliahill.co.kr/>
 탐라문화제 <http://www.tamnafestival.kr/>
 하늘나무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6483>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cop/main.do>
 한림공원 <http://www.hallimpark.com>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https://scbay.suncheon.go.kr/expo/0002/0002/0001/>

5. 기사 및 사진 발췌

<나라사랑> 기사 (2017.9.4.)
 <문화일보> 기사 (2021.2.15.)
 <미디어인뉴스> 기사 (2022.11.3.)
 <BBS NEWS> 기사 (2022.12.5.)
 <서귀포신문> 기사 (2016.8.1.), (2018.12.16.)
 <시사터치> 기사 (2020.10.21.)
 <idomin> 기사 (2011.5.10.)
 <RPM9> 기사 (2017.8.21.)
 <연합뉴스> 기사 (2013.5.18.)
 <인터뷰365> 기사 (2023.5.10.)
 <제민일보> 기사 (2014.12.7.)
 <제주도민일보> 기사 (2015.10.6.)
 <제주신문> 기사 (2014.12.7.), (2019.12.17.)
 <제주의 소리> 기사 (2022.2.4.)
 <KNS뉴스통신> 기사 (2016.3.24.)

<티브이데일리> 기사 (2014.4.14.)

<한라일보> 기사 (2018.12.26.)

<https://blog.naver.com/casachoga/221430022112>

<https://thewanderlust.co.kr/flower>

https://blog.naver.com/kumiho_s2/222585916179

<https://blog.naver.com/okpojang/222200514498>

https://blog.naver.com/in_emily/220513763758

<https://www.welcomekyushu.or.kr/event/?mode=detail&id=9999901003724&isSpot=&isEvent=1>

<https://koyuri37.tistory.com/31>

<https://m.blog.naver.com/storydaejeon/222309797840>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548>

<https://blog.naver.com/buzzhong/222583430608>

https://blog.naver.com/e_afca/222522023907

<https://blog.naver.com/dongindi/220140253750>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671>

<https://tumblrbug.com/mythflower>

<https://dream.ai/create>

<https://thewanderlust.co.kr/flower>

<https://scpark1214.tistory.com/933>

<https://camelliahill4.wixsite.com/camelliahill01>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in Seocheon Flower
Garden - Focusing on Taema Park

Eun-jung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ypify the symbolism of the Seocheon flower garden shown in Bonpuri, and to suggest ways to utilize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is.

'Bonpuri', a myth of Jeju, is a narrative that explains the process from exorcism to a god being revered as the current aspect. The biggest attraction of Bonpuri is the vitality that has been handed down for a long time. Bonpuri, which is still being sung in exorcism over time and remains transformed in legends, folktales, and novels, has a strong vitality that has been shared by many people for a long time and has been handed down to the present. It is not strange that Bonpuri with vitality and cultural contents combine. This is because narratives based on universality can secure popular support and have the power to be reproduced in various contents.

Bonpuri is an old story of Jeju and a present story. The Seocheon flower field that appears in Bonpuri is a narrative space that reflects the thought that the vitality of nature can influence the vitality of human beings and that the universe, nature, and human destiny are combined. The Seocheon Flower Field is a place where people have the will to overcome death and dream of another world beyond it.

How Seocheon Flower Garden was formed and what characteristics it has are shown in <Samseunghalmang Bonpuri>, <Igong Bonpuri>, <Segyeong Bonpuri>, and <Munjeon Bonpuri>. Bonpuri is a narrative that reflects the lives of Jeju people well. Through the structure of Bonpuri, the shaping of characters, and values, the ways Jeju people respond to

various events and phenomena given to humans are revealed through their actions.

The Seocheon Flower Field is a place that comforts people and is a place where a deep philosophy about life is hidden. In the Seocheon Flower Garden, flowers are born as life, revive life, and make death. It means that flowers and people are a community of destiny. The principle of circulation of flowers in Seocheon Flower Garden works as the principle of circulation of life. The life cycle principle includes the birth of life, growth and maturation, death and reincarnation.

Existing cases of using Seocheon flower fields as cultural contents have been investigated in a variety of ways, from literature, performances, exhibitions, images, installation art, and performances to board games, festivals, and themed streets. In the existing case, the original space of human life in which the human soul is captured in flowers using the Seocheon flower garden as a material, and the space of mythical coexistence through exorcism are well expressed. It played a role in expressing the sacredness more closely by portraying the space of Seocheon Flower Garden as a mythical and imaginary space. However, there was a lack of permanent place content that could directly empathize with the Seocheon flower garden. The Seocheon Flower Field is a place in our imagination. Although it can be formed into various contents, it is regrettable that it has not been utilized in the part of the place that can be more easily approached by people.

As a way to utilize the cultural contents of the Seocheon Flower Field, we proposed a plan to organize the Seocheon Flower Field theme park, 'Kkotpuri', by reflecting the circulation principle of life in the mysterious and mythical place that only Seocheon Flower Field has. 'Kkotpuri' is a name that combines the meaning of 'flower' in Seocheon Flower Field and 'Puli' in Bonpuri. The overall planning principle is 'flowers are life', and based on this, the planning direction is the principle of circulation of flowers and the circulation of life. The slogan is 'unpack the flowers. Solving life' was decided as the main story with 'Saradoryeong' and 'Wongangami' of <lgong Bonpuri> as the main characters. The core

theme is 'life', and it is composed of four flower fields based on data analyzing the principles of Seocheon flower fields. The Flower Garden of Life is set as the main theme, the 1st Flower Garden is 'Spring: Birth', the 2nd Flower Garden is 'Summer: Growth', the 3rd Flower Garden is 'Autumn: Maturity', and the 4th Flower Garden is 'Winter: Death, Rebirth'. composed of.

If 'kkotpuri', a Seocheon flower garden theme park, is actually created, the material of Jeju's Bonpuri and Seocheon flower garden will be combined with the place to form a sense of social solidarity and pride for local residents. Tourists will be able to introduce the culture of Jeju by exuding the charm of Jeju. It is hoped that it will also help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of constructing a theme park will be expanded a little further by recognizing what can be known about what is Jeju-like and providing an opportunity to prepare a foothold for Jeju's culture to spread to the world.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hoped that the specific aspects and meaning of the Seocheon flower garden, which were somewhat lacking in the existing cases, will be conveyed to the public.

Key words: Seocheon Flower Garden, Theme Park, Cultural Content, Bonpuri, Samseung Halmang-bonpuri, Lee Gung-bonpuri, Segyeong-bonpuri, Moonjun-bonpuri, Cheonjiwang Bonpuri, flower competition, Flower-puri, Flower, Life, Circulation Principle, Birth, Growth, Maturity, Death, Reincarnation